

1930년대

일러두기

- 1 본 자료집은 '임응식 스크랩북'에서 주요 자료를 엄선해 그 원문을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대별로 정리한 『임응식 스크랩북 발췌 자료집』이다. 발췌한 자료 중에서 단편적 이미지 자료와 사진 관련 글 모음은 연대별 편집과 분리해 수록했다.
- 2 이 자료집에 수록한 자료의 고유 번호는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9호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2014)의 자료 번호와 동일하다.
- 3 자료의 제목은 고유 번호, 주최 기관(혹은 저자), 문서명(전시명 혹은 기사 제목), 매체명, 생산 일시, 장소, 수록 페이지의 순이며, 문서명이 없는 경우 편집자가 주를 달아 보완했다.
- 4 자료의 출처는 실물 자료상의 표기를 따르되, 편집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를 표기 했다.
- 5 타이핑 자료는 원문 그대로를 옮긴 것으로, 오·탈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안에 수정해 병기했다. 또한 세로 쓰기는 가로쓰기로, 띄어쓰기는 현행의 관행에 맞춰 수정했다.
- 6 일본어와 한자는 국문으로 바꿔 표기하고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에 병기했다.
- 7 일본어와 중국어 인명은 독음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어 표기 없이 원어로만 적었다.
- 8 자료 원문 중 판독이 어려운 글자는 ■로 표시했다.
- 9 편집자 주는 []를 삽입하거나 미주로 처리했고, 역자 주는 [*] 혹은 미주로 삽입하고 (역자주)를 붙였다.
- 10 그 외의 문장 부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다. 특히, 매체명, 전시명 혹은 행사명, 작품명을 표시하는 기호는 원문의 표기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통일했다.
《 》: 전시명, 행사명, 〈 〉: 작품명, 「 」: 논문, 에세이명, 기사명, 『 』: 서명, 잡지명, 신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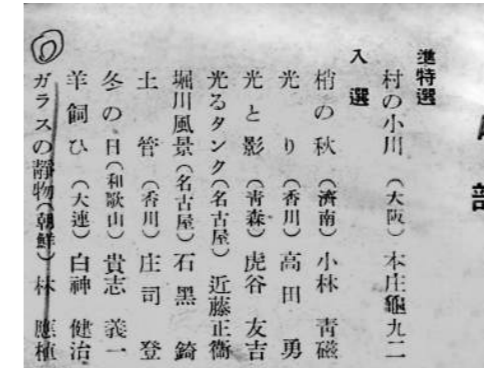
일본어 역자

박완(朴完)

1981년에 부산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사학과를 거쳐 현재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 테마는 근대 일본의 정치군사사이다. 논문으로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육군의 새로운 황실상 모색」(2012), 「다이쇼 7년(1918) 제국국방방침에 관한 소론」(2013), 「일본 육군의 '대전의 교훈' 형성 과정과 스토리텔링」(2013) 등이 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7호 『전조선사진연맹 《전조선사진전람회》 관련 『경성일보』 자료집(1934~1943)』(2013)의 번역을 담당했다.

[01-003][?]

『사진살롱』¹⁾ 주최 공모 입선자 명단, 『사진살롱』, 1934년 2월



A부

준특선

〈마을 실개울〉 (오사카(大阪)) 本庄龜九二

입선

〈가을의 끝〉 (지난(濟南)) 小林青磁

〈빛〉 (가가와(香川)) 高田勇

〈빛과 그림자〉 (아오모리(青森)) 虎谷友吉

〈빛나는 탱크〉 (나고야(名古屋)) 近藤正衛

〈호리카와 (나고야) 石黒錡

(堀川)²⁾풍경

〈토관(土管)〉 (가가와) 庄司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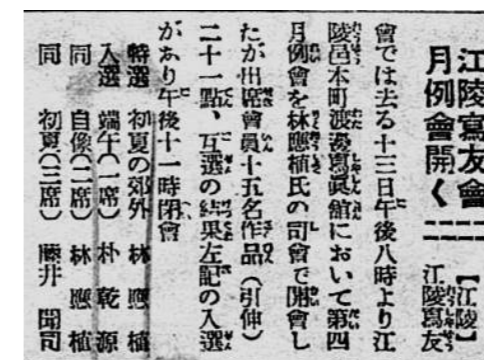
〈겨울의 하루〉 (와카야마(和歌山)) 貴志義一

〈양치기〉 (다렌) 白神健治

〈유리 정물〉 (조선) 임응식(林應植)

[01-005][?]

「강릉사우회(江陵寫友會) 월례회 개최」, 『조선신문』, 1936년 6월 19일



【강릉】 강릉사우회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강릉읍 본정(本町) 渡邊 사진관에서 제4회 월례회를 임응식 씨의 사회로 개최하였는데 출석 회원 15명, 작품(사진) 21점, 호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선하였고 오후 11시에 폐회하였다.

특선 〈초여름 교외〉 임응식

입선 〈단오〉(1석) 박건원(朴乾源)

동(同) 〈자화상〉(2석) 임응식

동 〈초여름〉(3석) 藤井聞司

[01-020][?]

[사진], 『조선신문』, 1936년 10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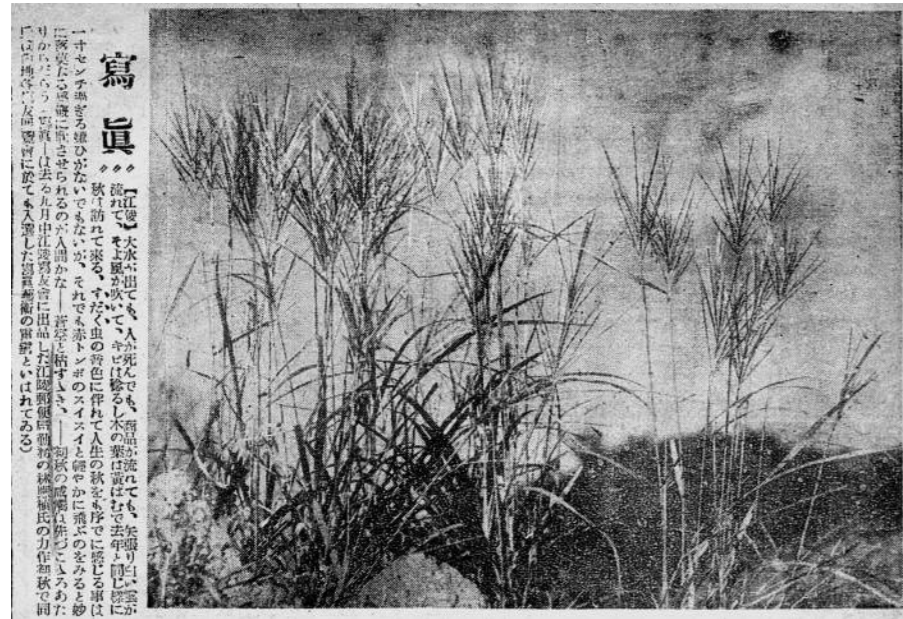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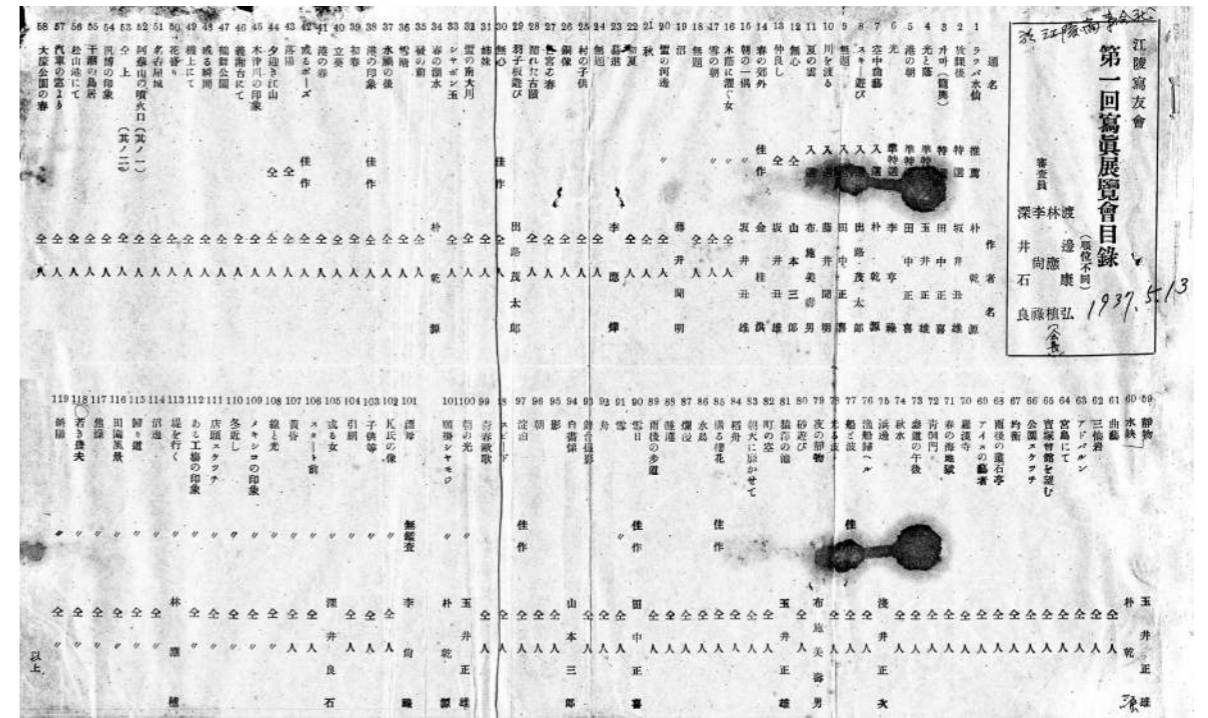


사진 【강릉】 흥수가 나도 사람이 죽어도 상품이 떠내려가도, 역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산들 바람이 불고 수수는 여물고 나뭇잎은 노래져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을은 찾아온다. 폐지어 우는 벌레들의 음색에 따라 인생의 가을도 함께 느끼는 것은 일순 지나치게 감상적인 경향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고추잠자리가 휘휘 경쾌하게 나는 것을 보면 묘하게 적막한 감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가. 푸른 하늘과 마른 참억새-초가을 감축은 우선 마음에 짙이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사진은 지난 9월 중에 강릉사우회에 출품한 강릉 우편국에 근무 중인 임응식 씨의 역작 <초가을>로, 그는 내지(內地)의 각 사우전람회에서도 입선한 사진 예술의 중진으로 불리고 있다).

[01-015][?]

『《강릉사우회 제1회 사진 전람회》 목록』, 매체명 미상, 1937년 5월 13일



(순위 부동)

심사원

渡邊康弘 임응식 이상록(李尙祿) 深井石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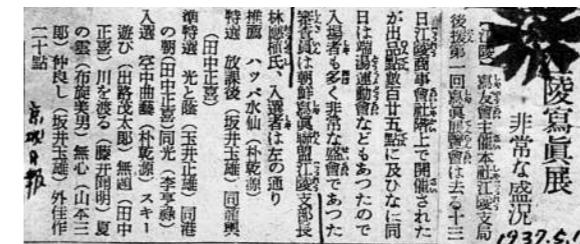
1	<나팔수선화>	추천	박건원	14	<봄 교외>	가작	김계홍(金桂洪)
2	<방과 후>	특선	坂井丑雄	15	<아침 한구석>	"	坂井丑雄
3	<가마>	특선	田中正喜	16	<나무그늘에서 빨래하는 여인>	"	상동
4	<빛과 그림자>	준특선	玉井正雄	17	<눈 온 아침>	"	상동
5	<항구의 아침>	준특선	田中正喜	18	<무제>	"	상동
6	<빛>	준특선	이형록	19	<눈>	"	상동
7	<공중곡예>	입선	박건원	20	<눈 온 강가>	"	상동
8	<스키 놀이>	입선	出路茂太郎	21	<가을>	"	상동
9	<무제>	입선	田中正喜	22	<초여름>	"	상동
10	<도강>	입선	藤井聞明	23	<돌진>	"	이응엽(李應燁)
11	<여름 구름>	입선	布施美壽男	24	<무제>	"	상동
12	<무심>	상동	山本三郎	25	<마을 아이>	"	상동
13	<단짠>	상동	坂井丑雄				

26 <동상>	상동	61 <곡예>	상동
27 <■궁의 봄>	상동	62 <삼선암>	상동
28 <비에 젖은 고적(古蹟)>	상동	63 <애드벌룬>	상동
29 <하코이타 (狹子坂)놀이 ³⁾ >	出路茂太郎	64 <미야지마(宮島) ¹⁰⁾ 에서>	상동
30 <무심>	가작 상동	65 <다카라즈카(寶塚) ¹¹⁾ 회관을 바라보다>	상동
31 <자매>	상동	66 <공원 스케치>	상동
32 <눈 온 남대천>	상동	67 <균형>	상동
33 <비눗방울>	상동	68 <비 온 뒤의 총석정>	상동
34 <봄 호수>	박건원	69 <아이누인 ¹²⁾ 기생>	상동
35 <출발 전>	상동	70 <라칸지(羅漢寺) ¹³⁾ >	상동
36 <눈이 그치고 갠 사이>	상동	71 <봄의 우미지고쿠 (海地獄) ¹⁴⁾ >	상동
37 <물난리 뒤>	상동	72 <아오노도몬 (青洞門) ¹⁵⁾ >	상동
38 <항구의 인상>	가작 상동	73 <참배로의 오후>	상동
39 <초봄>	상동	74 <가을철의 맑은 물>	상동
40 <접시꽃>	상동	75 <바닷가>	淺井正次
41 <항구의 봄>	상동	76 <고깃배가 돌아오다>	상동
42 <어떤 포즈>	가작 상동	77 <배와 파도>	가작 상동
43 <석양>	상동 상동	78 <반짝이는 파도>	상동
44 <저녁을 맞는 강산>	상동 상동	79 <밤의 정물>	布施美壽男
45 <기즈가와(木津川) 강 ⁴⁾ 의 인상>	상동	80 <모래 장난>	상동
46 <의상대에서>	상동	81 <사루사와노이케 (猿澤池) ¹⁶⁾ >	玉井正雄
47 <마이즈루(鶴舞) 공원 ⁵⁾ >	상동	82 <시내의 하늘>	상동
48 <어떤 순간>	상동	83 <아침 크게 휘날리며>	상동
49 <누상에서>	상동	84 <벼를 운반하는 배>	상동
50 <꽃이 한창일 때>	상동	85 <가득 찬 벚꽃>	가작 상동
51 <나고야 성 ⁶⁾ >	상동	86 <물새>	상동
52 <아소(阿蘇) 산 ⁷⁾ 분화구(1)>	상동	87 <난만(爛漫)>	상동
53 <상동(2)>	상동	88 <수련>	상동
54 <범박(汎博)한 인상>	상동	89 <비 온 뒤의 인도(人道)>	상동
55 <간조의 도리이(鳥居) ⁸⁾ >	상동	90 <눈 오는 날>	가작 田中正喜
56 <마쓰야마(松山)항에서>	상동	91 <눈>	" 상동
57 <기차 창문에서>	상동	92 <배>	상동
58 <오호리(大濠) 공원 ⁹⁾ 의 봄>	상동	93 <무대 촬영>	상동
59 <정물>	玉井正雄	94 <자화상>	山本三郎
60 <물에 비친 모습>	박건원	95 <그림자>	상동

96 <아침>	상동	108 <황혼>	" 상동
97 <정박>	가작 상동	109 <선과 빛>	" 상동
98 <스피드>	상동	110 <멕시코의 인상>	" 상동
99 <청춘 구가 ¹⁷⁾ >	상동	111 <겨울이 가깝다>	" 상동
100 <아침 햇빛>	" 玉井正雄	112 <가게 앞 스케치>	" 상동
101 <발원(發願) 주걱 ¹⁸⁾ >	" 박건원	113 <어느 공장의 인상>	" 상동
102 <빨래하는 노파>	무감사 이상록 (無鑑査)	114 <독을 가다>	" 임응식
103 <K씨 상(像)>	" 상동	115 <늪가>	" 상동
104 <아이들>	" 상동	116 <돌아오는 길>	" 상동
105 <끝그물>	" 상동	117 <전원 풍경>	" 상동
106 <어떤 여자>	" 深井良石	118 <초조>	" 상동
107 <출발 전>	" 상동	119 <젊은 농부>	" 상동
		120 <사양(斜陽)>	" 상동 이상

[01-007][?]

「강릉사진전, 대단한 성황」, 『경성일보』, 1937년 5월 15일



【강릉】사우회가 주최하고 본사 강릉지국이 후원하는 《제1회 사진 전람회》는 지난 13일에 강릉상회사 2층에서 개최되었는데, 출품 작품 수는 125점에 이르렀고 또한 그날은 단탕(端湯)¹⁹⁾ 운동회 등도 있었기에 입장객도 많아서 대단한 성황이었다. 심사원은 조선사진연맹 강릉지부장 임응식 씨였고 입선자는 다음과 같다.

- 추천 <잎(ハッパ)수선화>²⁰⁾(박건원)
- 특선 <방과 후>(坂井玉雄)²¹⁾, <가마>(田中正喜)
- 준특선 <빛과 그림자>(玉井正雄), <항구의 아침>(田中正喜), <빛>(이형록)
- 입선 <공중곡예>(박건원), <스키놀이>(出路茂太郎), <무제>(田中正喜), <도강(渡江)>(藤井聞明), <여름 구름>(布施美男)²²⁾, <무심>(山本三郎), <단짝>(坂井玉雄)²³⁾ 외 가작 20점

제5부 수산에 관한 것

- 1등 대구 서병직(徐丙直)
- 2등 용호도 元一
- 3등 대구 平田巖
- 3등 용호도 元一
- 3등 대구 서병직
- 가작 ▲대구 平田巖 ▲대구 平田巖 ▲외금강 온정리 김신덕 ▲경성 永田一畝 ▲경성 瀨川良造 ▲대구 町田久吳 ▲대구 加馬克己 ▲대구 김수훈(金壽薰) ▲인천 濱井一郎 ▲용호도 栢元一 ▲원산 岡井隆承 ▲경성 瀨川良造 ▲경성 中島強

제6부 농산·임산·축산에 관한 것

- 1등 목포 藤井雅男
- 2등 신의주 瀨頭兼次郎
- 3등 군산 北川修
- 3등 경성 飯山達雄
- 3등 대구 町田久吳
- 가작 ▲경성 江頭正樹 ▲경성 都築富士子 ▲경성 三橋康成 ▲사리원 白倉德明 ▲황해도 황주 今村民藏 ▲경성 持田啓治 ▲경성 高田清平 ▲사리원 白倉德明 ▲경성 岩淵茂男 ▲대구 小田桐計人 ▲인천 古瀨幸次郎 ▲경성 高田知一郎 ▲신의주 瀨頭兼次郎

제7부 삼림·동식물에 관한 것

- 1등 대구 平田巖
- 2등 경성 波多江信廣
- 3등 경성 永田一畝
- 3등 목포 村井治雄
- 3등 경성 三輪達雄
- 가작 ▲경성 織田隆奏 ▲경성 持田啓治 ▲경성 岩淵茂男 ▲함흥 秋光侑次

제8부 교육에 관한 것

- 1등 경성 永田一畝
- 2등 수원 市島九郎
- 3등 목포 內谷和靖
- 3등 경성 高田知一郎
- 3등 경성 加谷宏二
- 가작 ▲대구 서병직 ▲경성 高田清平 ▲목포 內谷和靖 ▲수원 澁谷佐市 ▲평양 長島政雄 ▲경성 大森勝一 ▲경성 中西健次 ▲대구 津村浩司 ▲목포 篠原勝利 ▲단천 松田泰典 ▲대구 최계복 ▲함흥 鹽入伍平

제9부 종교 및 사회사업에 관한 것

- 1등 경성 加谷宏二
- 2등 경성 島田保
- 3등 목포 內谷和靖
- 3등 경성 古林清方
- 3등 평양 福島柳也
- 가작 ▲경성 三橋康成 ▲목포 藤井雅男 ▲경성 中島強 ▲대구 최계복 ▲경성 保坂國平 ▲경성 藤田史郎 ▲함흥 笹沼末雄 ▲경성 永田一畝 ▲경성 永田一畝 ▲경성 深川浩 ▲경성 岡本眞 ▲경성 山根次延 ▲경성 松成賢平 ▲경성 武上統

제10부 신사·고적·천연기념물에 관한 것

- 1등 대구 埋金磨
- 2등 목포 藤井雅男
- 3등 상동 상동
- 3등 대구 津村浩司
- 3등 경성 圓城寺勳
- 가작 ▲대구 津村浩司 ▲경성 內田與平 ▲개천 藤野葛樹 ▲대전 小野周太郎 ▲진남포 笹川四郎 ▲경성 甲村康祐 ▲경성 杉成賢平 ▲대구 최계복 ▲대구 津村浩司 ▲사리원 小野德三 ▲대구 津村浩司 ▲경성 永田一畝 ▲영천 平野學

제11부 경찰·위생에 관한 것

- 1등 대구 서병직
- 2등 경성 永田一畝
- 3등 함흥 笹沼末雄
- 3등 목포 藤井雅男
- 3등 경성 片山博光
- 가작 ▲경성 三橋康成 ▲목포 藤井雅男

제12부 체신사업에 관한 것

- 1등 경성 加谷宏二
- 2등 대구 町田久吳
- 3등 경성 高田清平
- 3등 경성 三橋康成
- 3등 경성 永田一畝
- 가작 ▲경성 小林陽一 ▲경성 高田知一郎 ▲대구 서병기(徐丙麒) ▲인천 古瀨幸次郎 ▲경성 高田清平

제13부 철도 사업에 관한 것

- 1등 경성 永田一畝
- 2등 단천 松田泰典
- 3등 경성 山根次延
- 3등 경성 末永治作
- 3등 경성 河野研吉
- 가작 ▲대구 埋金磨 ▲수원 澁谷佐市 ▲신흥 김해수(金海壽) ▲인천 梶谷靜風 ▲경성 井上良一 ▲목포 內谷和靖

제14부 전매 사업에 관한 것

- 1등 인천 河野琴舟
- 2등 평양 久保虹城
- 3등 경성 長谷川熙
- 3등 경성 永田一畝
- 3등 경성 保坂國平
- 가작 ▲경성 保坂國平 ▲경성 三橋康成 ▲경성 山根次延 ▲경성 小林陽一 ▲경성 古林淸方 ▲경성 永田一畝 ▲경성 小林陽一 ▲경성 小田桐計人 ▲인천 古瀨幸次郎

제15부 풍경·습속에 관한 것

- 1등 경성 三橋康成
- 2등 상동 상동
- 3등 평양 福島柳也
- 3등 평양 川井巖
- 3등 함흥 笹沼末雄
- 가작 ▲대구 中島甲馬太 ▲경남 진주 澁江吉三郎 ▲경성 持田啓治 ▲목포 內谷和靖 ▲평양부 외 川井巖 ▲목포 藤井雅男 ▲경성 佐武廣一 ▲평양부외 川井巖 ▲대구 서병기 ▲군산 北川修 ▲구마모토시(熊本市) 森山繁 ▲경성 高田淸平 ▲함흥 笹沼末雄 ▲목포 藤井雅男 ▲함흥 笹沼末雄 ▲온정리 이경홍(李景弘) ▲평양 久保虹城 ▲경성 永田一畝 ▲경성 三橋康成 ▲경성 栗原邦夫 ▲경성 河野研吉 ▲인천 河野琴舟 ▲경성 羽泉淸一郎 ▲인천 濱井一郎 ▲대구 서병직 ▲대구 津村浩司 ▲경성 織田隆奏 ▲경성 吉田信義 ▲평양 久保虹城 ▲대구 中島甲馬太 ▲목포 藤井雅男 ▲경성 高田淸平 ▲진주 澁江吉三郎 ▲경성 飯山達雄 ▲경성 福田正史 ▲大川直之助 ▲평양 久保虹城

제16부 운동에 관한 것

- 1등 인천 梶谷靜風
- 2등 평양 上木龍三
- 3등 경성 永田一畝
- 3등 대구 町田久吳
- 3등 경성 浦野進
- 가작 ▲평양 福島柳也 ▲경성 永田一畝 ▲경성 飯山達雄 ▲경성 岩淵茂男 ▲대구 小田桐計人 ▲경기도 진위군 中原芳彦 ▲경성 高田淸平 ▲평양 上木龍三 ▲경성 浦野進 ▲경성 飯山達雄

이러한 종류로서는 공전의 성적

심사위원장 大野 정무총감담(談)

작년 여름 조선사정선전용 사진을 현상 모집함을 발표한 이래 약 1년, 지난 6월 말일로 마감하였더니 각 방면에서 매우 열렬한 지원이 있는 결과 응모 작품은 총 2,300여 점이라는 다수에 이르러, 조선에서의 이러한 종류의 계획으로서는 미증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경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반에 최근의 조선은 '약진 또 약진'이라는 정세에 있습니다만 사진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두 해 사이에 대단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 같고 이번에 응모한 사진들 중에도 매우 훌륭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제가 세분화되고 그 중에는 종래에 사진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이나 사진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것 등이 있어서 응모자도 상당히 고심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심사에 임하여서도 몹시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심사원은 전력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조선의 사정을 내외에 소개·선전하는 데에 적절한 것'을 상위로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중에는 사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라도 이 조건에서 부족하기에 비교적 하위에 놓인 것도 없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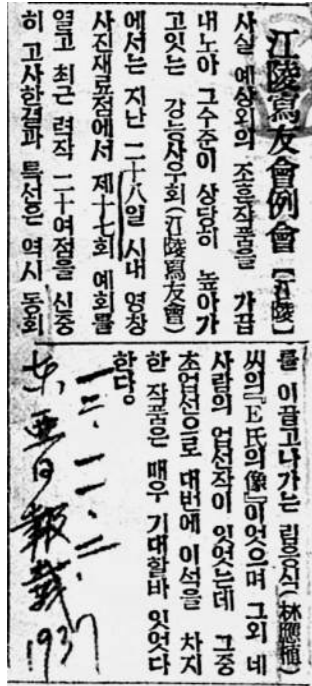
입선자는 물론 입선하지 못한 사람 혹은 응모하지 않은 사람도 이를 계기로 조선의 좋은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일에 진력하시어 조선 사진계의 향상과 올바른 조선 인식을 각 방면에 주실 것을 이 기회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8월 6일부터 11일에 걸쳐 《조선사정선전사진 대전람회》

미쓰코시(三越)·미나카이(三中井)²⁴⁾·오사와(大澤)²⁵⁾의 세 곳에서 동시에

[01-006]

「강릉사우회 예회」, 『동아일보』, 1937년 11월 2일



【강릉】사실 예상외의 조흔작품을 가끔 내노아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강릉사우회(江陵寫友會)에서는 지난 28일 시내 영창사진재료점에서 제17회 예회를 열고 최근力作 20여 점을 신중히 고사한 결과 특선은 역시 동회를 이끌고 나가는 림응식 씨의 <E 씨의 상(像)>이었으며 그 외 네 사람의 업선작이 있었는데 그중 초업선으로 대변에 이석을 차지한 작품은 매우 기대할 바 있었다 한다.

- 1) 『사진살롱』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지속된 일본의 월간 아마추어 사진 잡지로, 1941년 『카메라』, 『카메라클럽』지와 함께 『사진문화』로 합병 정리되었다.
- 2) 일본 교토 시가지 서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강 혹은 거리의 이름(역자 주).
- 3) 모감주나무 열매에 구멍을 뚫고 채색한 깃털을 서너 개 꽂은 하고(羽子)를 장방형의 자루 달린 판자인 하고이타로 치는 일본 전통 놀이(역자 주).
- 4) 일본 비와(琵琶) 호에서 발원하여 교토 분지를 지나 오사카 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요도가와(淀川) 강의 지류. 길이 89km(역자 주).
- 5)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 후쿠오카시(福岡市) 주오구(中央區)에 있는 후쿠오카 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 오호리(大濠)공원의 동쪽에 인접함(역자 주).
- 6) 일본 나고야시(名古屋市) 나카구(中區)에 있는 성. 1609년에 축성하여 1614년에 완성되었다(역자 주).
- 7) 일본 구마모토현(熊本縣) 북동부에 있는 활화산. 표고 1,592m(역자 주).
- 8) 좌우 두 기둥 위에 가로대를 걸친 신사 입구에 세우는 문(역자 주).
- 9)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주오구에 있는 공원(역자 주).
- 10) 일본 히로시마(廣島) 만 남서부의 섬인 이쓰쿠시마(嚴島)의 별칭. 섬 북쪽 해안에 이쓰쿠시마 신사가 있으며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이다(역자 주).
- 11) 일본 효고현(兵庫縣) 남동부의 시. 온천 외에 디카라즈카 소녀가극단, 동물원, 식물원 등이 있어서 행락지로 유명하다(역자 주).
- 12) 일찍이 홋카이도(北海島), 사할린, 쿠릴 열도 등에 거주하였지만 현재는 주로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일본 선주민족. '아이누'란 아이누 어로 '사람'이라는 뜻(역자 주).
- 13) 일본 오이타현(大分縣) 나카쓰시(中津市) 혼야마케초(本耶馬溪町)에 있는 조동종 사찰. 1338년에 건립됨. 1359년에 오백나한(五百羅漢) 등의 석상을 안치하여 '라칸지'라고 개칭하였다(역자 주).
- 14)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別府市)에 다수 존재하는 기이한 경관의 온천인 '지고쿠(地獄)' 중 하나. 황산철 성분에 의해 밝은 청색을 띠며 지고쿠 중 최대 규모이다(역자 주).
- 15) 일본 오이타현 나카쓰시 혼야마케초의 아마쿠니가와(山國川) 강 오른쪽 기슭의 터널(역자 주).
- 16) 일본 나라시(奈良市) 고후쿠지(興福寺) 남문 앞에 있는 연못(역자 주).
- 17) 원문에는 '歐歌'로 되어 있으나 '謳歌'의 오기로 보임(역자 주).
- 18) 말재주·음악·재복·지혜를 관장하는 인도의 여신이자 일본에서 재복의 신으로 숭상 받는 벤자이텐(辯才天)이 들고 있는 비파 모양을 흉내 내어 만든 주걱으로 소원을 비는 용도로 쓰인다(역자 주).
- 19) 단오를 의미하는 '단양(端陽)'의 오기로 보임(역자 주).
- 20) '나팔(ラッパ)수선화'의 오기. 15번 자료 참조(역자 주).
- 21) '坂井丑雄'의 오기. 15번 자료 참조(역자 주).
- 22) '布施美壽男'의 오기. 15번 자료 참조(역자 주).
- 23) 각주 20과 같음(역자 주).
- 24)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 있었던 일본계 백화점. 1905년에 대구에 미나카이상점(三井商店)을 연 것을 시작으로 1929년에는 경성 본점 신관을 개장하였고, 1933년에 미나카이백화점 경성 본점으로 거듭났다. 1945년 8월 시점에 조선 전국에 12점포, 만주에 3점포, 중국에 3점포 등을 보유한 최대 백화점그룹이었다(역자 주).
- 25) 일제 강점기에 경성 본점에 있었던 오사와상회(大澤商會) 경성 지점은 카메라 및 사진재료, 시계, 금은 장식품 등을 취급하였다(역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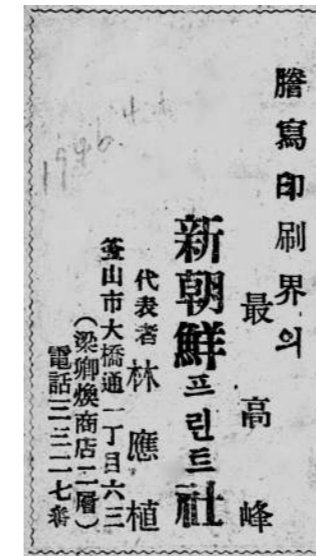
1940년대

교장 木村惠吉郎

기초학과			실기 및 실험		
수신(修身)	강사	田中弘道	제1작화법	강사	江崎三郎
수학	동	馬杉肇	동	조교수	本莊誠
물리	동	江原廣	동	동	本間鐵雄
화학	동	村山梅吉	제2작화법	교수	新井保男
동	동	海野正	사진과학 실험	동	林一男
화학 실험	동	村山梅吉	동	동	牛木四郎
영어(1)	동	上野芳男	동	동	坂本公保
동(2)	교수	秋山轍輔	응용사진학과		
동(동)	동	林一男	보도 사진	강사	渡邊義雄
독일어(1)	강사	北通文	신문 사진	강사	谷口徳次郎
동(2)	동	本芳郎	상업 사진	동	金丸重嶺
도서	동	明石眞三	건축 사진	동	渡邊義雄
체조	동	治田久雄	천연색 사진	동	江頭春樹
교련	보병대위	武田定吉	천연색 사진 가색법	동	渡邊定男
전문학과			(加色法)		
사진학 통론	교수	秋山轍輔	사진제판 대강	동	川田久長
사진광학	교수	加藤精一	영화개론	동	歸山教正
동	동	林一男	영화 현상법	동	鹿野寧
전기조명	강사	關重廣	현미경 사진	교수	林一男
광화학	교수	杉浦誠次郎	윈트겐 사진	강사	照内昇
동	강사	手島久治	항공 사진	동	丹羽長道
사진재료 약품학	동	江頭春樹	사법 사진	동	金澤重威
미술사	동	明石眞三	분광 사진	동	丸山政雄
사진예술학	동	板垣鷹穂	사진 유제(乳劑)	동	古谷正次郎
사진구성법	동	原弘	미립자 현상법	동	丸山政雄
			배속 장교	보병대좌	入江義郎

[0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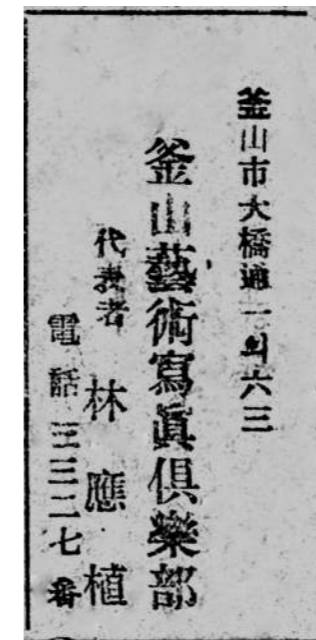
[광고, 신조선프린트사], 매체명 미상, 1946년 4월 1일



등사인화계의 최고봉
신조선프린트사
대표자 임응식
부산시 대교통(大橋通) 1정목63(양경환상점 2층)
전화 3327번

[01-023][?]

[부산예술사진구락부], 매체명 미상, 1946년 5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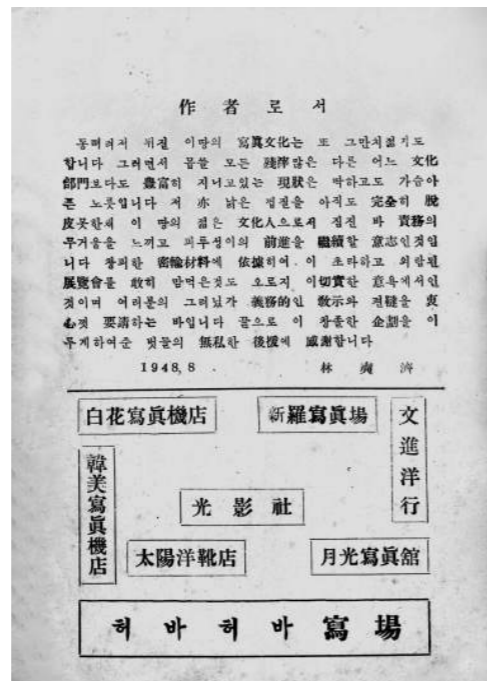
부산시 대교통(大橋通) 1의63
부산예술사진구락부
대표자 임응식
전화 3327번

[03-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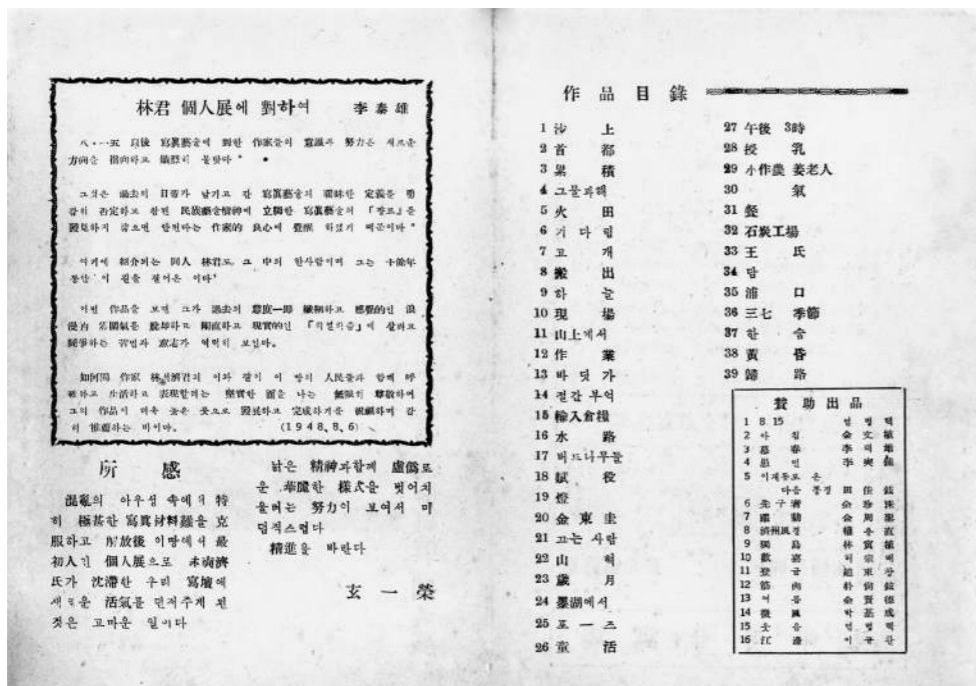
《제1회 임석제 예술사진 개인전》, 1948년 8월 7일-8월 14일, 동화백화점화랑



팸플릿 표지 [표지 사진] <수입식량>



뒷면



내지

임군 개인전에 대하여 이태웅

8·15 이후 사진예술에 대한 작가들의 의식과 노력은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고 치열(熾熱)히 불탔다. 그것은 과거의 일제가 남기고 간 사진예술의 난매(曖昧)[애매(曖昧)]한 정의를 용감히 부정하고 참된 민족 약술(藥術)[예술(藝術)] 정신에 입각한 사진예술의 '짱크'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작가적 양심에 각성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개인 임 군도, 그 중의 한사람이며 그는 십여 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온 이다. 이번 작품을 보면 그가 과거의 태도—즉 섬세하고 감각적인 낭만적 분위기를 탈각(脫却)하고 강직하고 현실적인 '리얼리즘'에 살려고 투쟁하는 고민과 의지가 역력히 보인다.

여하간 작가 임석제 군의 이와 같이 이 땅의 인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고 표현하려는 성실한 면을 나는 무한히 존경하며 그의 작품이 더욱 높은 곳으로 발전하고 완성하기를 축복하며 감히 추천하는 바이다. (1948.8.6)

소감

혼란의 아우성 속에서 특히 극심한 사진 재료난을 극복하고 해방 후 이 땅에서 최초인 개인 전으로 임석제 씨가 침체한 우리 사단(寫壇)에 새로운 활기를 던져주게 된 것은 고마운 일이다. 낡은 정신과 함께 허위(虛僞)로운 화려한 양식을 벗어치울려는 노력이 보여서 미덥지스럽다.

정진을 바란다.

현일영

작품목록

- 1 <사상(沙上)> 2 <수도> 3 <누적> 4 <그물과 해> 5 <화전(火田)> 6 <기다림> 7 <고개> 8 <반출>
- 9 <하늘> 10 <현장> 11 <산상(山上)에서> 12 <작업> 13 <바닷가> 14 <절간 부역> 15 <수입식량>
- 16 <수로> 17 <버드나무들> 18 <부역(賦役)> 19 <등(燈)> 20 <김동규(金東圭)> 21 <끄는 사람>
- 22 <산(山) 혁> 23 <세월> 24 <성호(星湖)에서> 25 <포즈> 26 <동활(童活)> 27 <오후 3시>
- 28 <수유> 29 <소작농 강노인> 30 <기> 31 <찬(餐)> 32 <석탄 공장> 33 <왕 씨> 34 <담> 35 <포구>
- 36 <삼칠 계절> 37 <한숨> 38 <황혼> 39 <귀로>

찬조출품

- 1 <8 15> 염병택 2 <아침> 김문식 3 <모춘(慕春)> 이태웅 4 <우(愚)민> 이석중 5 <이재동포 온 마음 풍경> 전가현 6 <선구자> 김진수 7 <약동> 김주성 8 <제주 풍경> 권용직 9 <독도> 임인식 10 <환희> 허중배 11 <등(登)금> 조동창 12 <근육> 박상현 13 <여름> 김현득 14 <미풍> 박기성 15 <웃음> 염병택 16 <강변> 이규환

작자로서

동떠러져 뒤진 이 땅의 사진문화는 또 그만큼 짧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몹쓸 모든 잔재 많은 다른 어느 문화부문보다도 풍부히 지니고 있는 현상은 딱하고도 가슴 아픈 노릇입니다. 저 역(亦) 넓은 껍질을 아직도 완전히 탈피 못 한 채 이 땅의 젊은 문화인으로서 짐진 바 책무의 무거움을 느끼고 피투성이의 전진을 계속할 의지인 것입니다. 창피한 밀수재료에 의거하여 이 초라하고 외람된 전람회를 감히 맘먹은 것도 오로지 이 절실한 의욕에서인 것이며 여러분의 그러났가 의무적인 교시(敎示)와 편달을 충실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창졸한 기획을 이루게 하여준 벗들의 무사(無私)한 후원에 감사합니다.

1948. 8 임석제

[01-060][?]

임응식(부산예술사진연구회장), 「전후 일본 사진계 동향」, 『사진문화』(제3호), 1948년 11월호, p.20



표제에 대하여 써보라는 이유는 내가 종전(終戰) 2년 후까지 동경에 있었고 지금도 제일 일본에 가까운 부산에 있다는 그것인 것 같다.

여하튼 이것이 우리 사단 발전에 한갈 참고가 된다면 내가 아무리 천학(淺學)할지라도 아는 데까지 써볼까 합니다.

일본은 종전 후 '문화일본'이라는 '쓰로오간' [슬로건]을 두고 재출발한 만큼 문화면에 있어서의 그 활동 상태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다.

즉 미술계에 있어서는 파괴된 '벨딩'을 혹은 폐허로 된 폭격지에서 노천 전람회를 감행하였으며 음악계에서는 가두(街頭)에서 또는 '테파아트' 등을 이용하여 연주회를 개최하였고, 또 사진계에서도 일본 전국 각지에서 소개(疎開)해 있던 작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뭉치가 되어 도처에서 전람회를 개최하여서 특히 국화회(國畫會)에서는 사진과 회화의 종합 전을 하는 등이 길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금치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위 일본 사단을 말하고자 할 때 그의 과거를 잠깐 살펴보는 것도 허사가 아닌 동시에 우리나라 사진 유래의 기초가 되어 있을가 하여 간단히 그 경로를 써보기로 하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백여 년 전 즉 서기 1838년에 불란서 '다겔' 씨가 사진술을 발명한 후 4년 만에 벌써 (일본 천보(天保) 11년) 上野俊之丞을 통하여 수입되어 활발한 발전을 보던 중 명치(明治) 말기로부터 대정(大正) 초기에 걸쳐 일본화 모방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連)하여 인상파 회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위 예술사진이라는 '소프토포-카스' [소프트 포커스]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福原信三이 제창한 '광선과 해조(諧調)'라는 유기(流技)가 대두하여 어느 점까지 회화의 세계로부터 떠러져 나오기는 했으나 그래도 아직 사진 본도(本道)에의 불만을 느끼고 있는 지음[즈음] 돌연 독일에서 발흥한 '신흥예술사진'이 파급해와서 신즉물주의 즉 '포토그림' '포트몬타주' '포트프라스트릭' 등등 실로 '카메라'의 대상은 무한히 확대되어 자유와 활기와 새로운 생명을 느껴 사진의 독자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타 예술과는 엄연히 탈리(脫離)하고 말게 되었다.

그리하여 얼마되지 안해서 '술리아리즘' 즉 초현실주의가 수입되어 바야흐로 그 진전이 활발할 때 엄연 태평양전으로 인하여 종말되어 금일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그러면 전후(戰後)의 금일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아무런 특이점을 엿볼 수가 없으나 점차 생활문제가 해결되고 재료 입수가 용이케 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발견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즉금(卽今) '누우드' 사진(나체사진)과 관광사진이 매우 왕감(旺感)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주로 '누우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작가는 여인사진으로 유명한 福田勝治와 杉山吉良 또 일본문악사진(日本文樂寫眞)(무대사진)으로 그 귀재(鬼才)를 보이고 있던 土門拳 등이다.

그러면 전후에 있어서 가장 활약하고 있는 사진인들을 지방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관동지방에서는 『카메라』 지(誌)의 鈴木八郎. 眞繼不二男 藤川敏行, 『광화월간(光畫月刊)』지의 北野邦雄, 작가로 木村伊兵衛 福田勝治, 土門拳, 桑原甲子雄, 松島進, 林忠彦, 滋谷龍吉, 態谷辰男, 井深徴, 吉田潤, 西山清, 松山青滋, 長濱慶三, 帥岡宏次 등인데 이 외에 특히 清水武甲, 後藤種三, 澤米市赤穂英一 등의 작화 경향을 볼 때 전쟁으로 맞본 인생 고민의 편린(片鱗)을 엿볼 수 있으며 새싹트는 억신 힘을 느끼며 흙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그리고 관서지방에는 中山岩太, 上田備山, 笠井鐵雄, 岡本東洋, 河野龍太郎, 小石川清, 林湖, 川崎龜太郎, 그리고 조선에서 활약하던 駒木根清彦 등이 있고 동해방면에는 永田二竜, 伊藤六郎, 高田皆義, 江村清彦 등이, 중부 일본사진연맹(회원 오백명)을 지도하고 있으며 중국방면에서는 植田正治, 正岡國男, 石津良介 등이 광도현사진미술협회(廣島縣寫眞美術協會)와 중국 사진가집단(中國寫眞家集團)을 조직하여 활약하고 있고 구주(九州)방면에서는 野田篤司가 『사진인』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川崎滿男, 吉崎一人, 好川文治 등이 서부사진미술가협회(西部寫眞美術家協會)를 설립하여 활약하는 등 지방보다 다채(多彩)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발간되고 있는 사진잡지는 ARS에서 『카메라』를 광화장(光畫莊)에서 『광화월간』을 구주(九州)에서 『사진인』이 나와 있고 신제사진기(新製寫眞機)로는 '마미야 X VII형' '마미야' 간궁(間宮) '코시니' (小西) '니꼬'(일본광학) '미놀타 35'(지요다(千代田)), '오킷드'(일사(日寫)) '카논SII'형, '세레디아망원렌스'(정기(精機)) 그 외에 수입품으로 '마이크로' '스테키이' '메테올' 등이 대량으로 제작되고 있다.

그리고 작가로서 사망 또는 전사한 사람은 일본사진회(日本寫眞會)의 福原路草 외 野村秋良, 高木虹朗, 澤井昌三 등이다.

이상으로서 대략 현 일본 사진의 외곽은 말한 줄 생각하나 금후(今後)의 발전에 있어서[서]는 아직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만큼 조급한 혁신과 큰 발전은 당분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01-037][?]

《전선향토현상사진》 특선에 대구 홍사영(洪思永) 씨, 『부일신문』, 1948년 11월 14일



본사 주최 제1차 심사를 마친 본사주최 향토예술사진 응모 작품에 대해서 지난 12일 제2차 심사를 본사에서 임응식 최계복 이규원 조■슬 제 심사원 손으로 박필호 씨(■명으로 불참) 엄선 결과 영예의 특선에 △〈석양〉 대구 홍사영 △준특선 1석에 <유영〉 대구 안월산(安月山) △2석 〈한정(閑庭)〉 대구 김원영(金元榮) △3석 〈황혼의 서정〉 대구 임윤창(林允昌)으로 결정되었는데 지난번 발표한 입선자와 선외 가작의 입선자 명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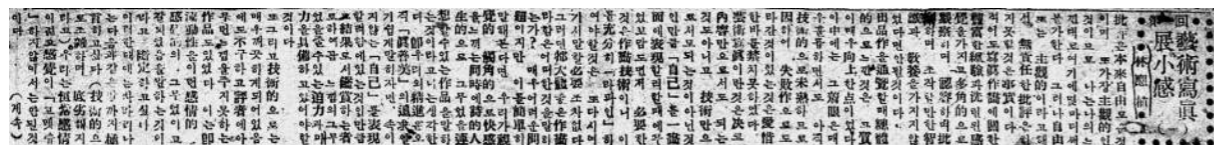
입선 <만추> 영(永) 최익창(崔翼昌) <울릉도 아침> 대구 김■덕(金■德) <상한(寒)〉 외 1점 대구 계철순(桂哲淳) <임금원전망(林金園展望)〉 외 1점 대구 서태석(徐台錫) <황혼〉 대구 최충묵(崔忠默) <달려라 달려> 외 2점 대구 김원영 <홍염(紅葉)〉 대구 장의득(張義得) <수확〉 외 4점 대구 안월산 <아침〉 외 1점 대구 홍사영 <사찰 뒤뜰〉 대구 최상화(崔上華) <사로편모(寺路片貌)〉 외 1점 대구 윤완중(尹完重) <강파효운(江波孝雲)〉 외 2점 대구 김동사(金東史) <날이 밝으려다〉 외 2점 대구 임윤창 가작 <조춘(早春)〉 김원영 <미륵의 일면〉 서정묵(徐廷默) <안개 낀 아침〉 안월산 <우리의 자랑〉 권영구(권寧九) <추일편모(秋日片貌)〉 김병식(金炳式) <황혼〉 임윤창 <풍속〉 허일영 <許一寧) <비이니스 있는 화(化)변〉 유성재(유性在) <미각의 가음〉 김광덕 <코쓰모쓰>

본사 사진전, 15일부터 미공보원서 개최

그리고 《향토예술사진》 입상 입선 가작 등 40점은 일반에 공개하기로 되어 명 15일부터 10일간 역전 미국문화연구소에서 발표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01-035][?]

임응식, 「제1회 《예술사진전》 소감 (1)」, 『영남일보』, 1948년 11월 16일



비평은 본래 자유로운 것이며 또 가장 주관적인 것이므로 나는 나의 느낀 대로 여기에 몇 마디 써 볼까 한다. 그러나 자유 또는 주관적이라고 해서 무책임한 비평은 하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사진작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관찰하며 인용하며 비판하며 조작할 만한 지식과 교양을 가지지 않았다면 안 될 것이다.

출품작을 통람(通覽)할 때 총체적으로 느낀 것은 그 질이 매우 향상한 점이었다. 이 중에는 그 착안은 매우 훌륭하면서도 아직 기술적으로 미숙하므로 인하여 실패작으로 도라간 것이 있는 것은 애통한 바를 금치 못하였다.

예술사진이란 것은 결코 내용만으로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만으로서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인 만큼 '자기'를 일화면(一畵面)에 표현하려 할 때에 무엇보담도 먼저 필요한 것은 작화 기술이니 이를 충분히 '라파인'하여야 할 것은 또다시 여기서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면 도대체 좋은 작화라 함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를 간단히 말해 본다면 우리가 시각적 측각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시적 인생적(詩的人生的)으로 그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우리의 정진은 오직 '진선미(眞善美)'의 추구 알기 쉽게 말하자면, 속이지 않는 '자기'를 표현하려 함에 있는 것인 만큼 그 결과로서 감상하는 자로 하여금 느낌의 그 무엇을 줄 수 있는 박력과 매력을 구비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매우 깨끗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자(評者)에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하는 작품도 있었다. 이는 즉 유동성을 이런 감정적 감각적의 그 무엇이 고갈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싶다.

이러한 때에는 차라리 나는 다음과 같은 말까지 극언(極言)하고 싶다 (기술적으로 조잡하며 저열(低劣)해지라고). 우리는 항상 감정이 깊고 감각이 '프렛슈'[프레쉬]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

[01-036][?]

임응식, 「제1회 《예술사진전》 소감 (완)」, 『영남일보』, 1948년 11월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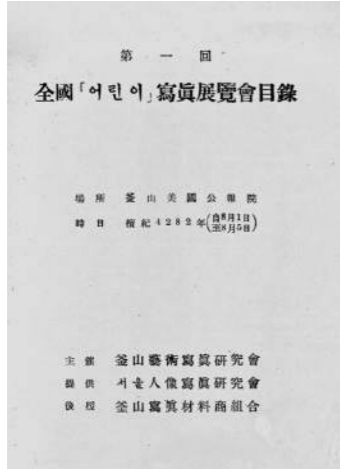
우리가 사진작품을 감상할 때에 반드시 그 작품으로써 어느 기운과 생동을 느끼며 좋은 구화(構畫)와 색조 그리고 적당한 명암의 ■[배]치 또 두터움과 깊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코 좋은 작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내 눈에 띄인 몇 장의 작품에 단평을 가(加)할까 한다.

계철순(桂哲淳) 작 <상한(寒) 잠간(暫間) 동안 나를 꿈나라로 끌고 간 작품의 하나이다. 좋음을 지적할 수 없으나 이 지적할 수 없는 쾌감이 좋음의 전부일 것이다. 만약 지적할 수 있는 한미(限美)는 그 이상의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교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음은 유감이다. 정명수(鄭命수) 작 <새벽> 철저 철미 예민(徹底徹尾銳敏)한 감각의 소산물이다. 광선이 빔어내는 명암의 '리듬칼'[리드미컬]한 효과직곡(效果直曲)의 양 선이 화면 전체에 약동하고 있는 쾌작이다. 그러나 '로맨틱'한 화제(畫題)가 작가의 의도를 의심(疑信)하게 하였으며 구도의 결함이 불만을 준다. 안월산 작 <제지(製紙)> 기술적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그러나 많은 도구가 눈을 산만케 한다. 피사체에 육박함에 있어서 좀 더 감자(鑑者)를 '앗필' 할 수 있지 않을까 <유영(遊泳)>은 조용한 심경의 작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구도적으로 실패작이 되지 않을까. 김원영 작 <조춘> 항상 동경해오던 산촌풍경. 나는 말 할 수 없이 내가 난 나라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러히 느낀다. 구도와 '튼'튼에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홍사영 작 <아침> 아름다운 작품이다. 점경 인물의 앞사람은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월산 작 <결실> <조조(早朝)> 계철순 작 <산상(山上)> 최상화 작 사찰 <뒤뜰> 홍사영 작 <고사(古寺)> 김원영 작 <한정> <달려라 달려>, <누가 먼저 웃었나> 임응창 작 <황혼의 서정> 서태석 작 <금음원전망> 김동사 작 <강파효운(江波效雲)> 서정목 작 <꽃> 윤완중 작 <깨끗한 마음으로> 박인채(朴仁彩) 작 <강변의 아침> 등은 다 가작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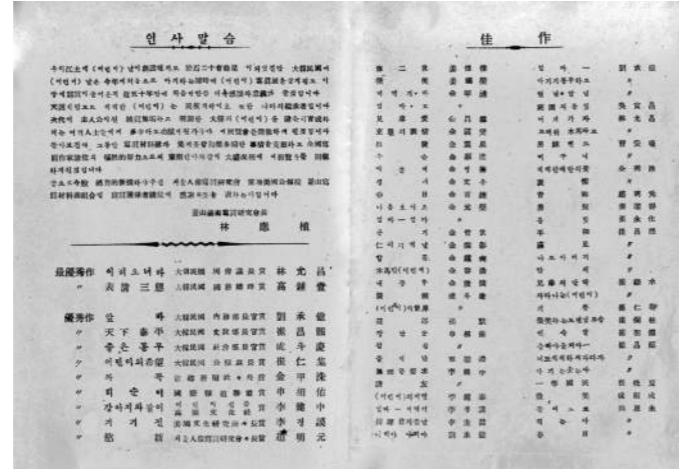
그리고 화면을 극도로 수술(手術)한 작품이 많이 보이는데 외과 수술적 기교는 될 수 있는 한 소극적으로 하거나 또는 필요가 있다면 화학적(化學的)으로 개변(改變)하는 수법이 지당치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실언다사(失言多謝) (필자 부산예술사진연구회 회장)

[02-008]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주최, 서울인상사진연구회 제공, 부산사진재료조합 후원,
《제1회 전국 「어린이」 사진전람회》 목록,
1949년 8월 1일-8월 5일, 부산미국공보원**



팸플릿 표지



내지

인사말습

우리 강토에 (어린이) 날이 창설된 지도 어언 20유여성(有餘星)이 되었건만 대한민국에(어린이) 날은 금년에 처음으로 마지하는 동시에 (어린이) 사진전을 갖게 됨도 이땅에 사진이 들어온지 근 50년 만에 처음인 만큼 더욱 감회와 의의가 클것입니다.

천진스럽고도 씩씩한 (어린이)는 민족의 씩이요 또한 나라의 계승자입니다.

차대(次代)에 주인공이 될 순진무구하고 명량한 대한의 (어린이)를 건전히 육성하려는 여러인사들에게 다소라도 공헌이 될가하여 이 전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그동안 사진재료난과 면(免)지 못 할 복잡다단한 사정을 극복하고 전국사진작가 제위(諸位)의 희생적 노력으로써 예기한 바와 같이 대성황리(大盛況裡)에 이 거람회[전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금반(今般) 절대적 후원하여주신 서울인상사진연구회 당지(當地) 미국공보원 부산사진재료상조합 및 사진관계자 제위(諸位)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부산예술사진연구회장

임응식

최우수작	〈이리오너라〉	대한민국 국회의장상	임운창
〃	〈표정삼태(表情三態)〉	대한민국 국무총리상	고종일(高鍾壹)
우수작	〈알바〉	대한민국 내무부장관상	류승억(劉承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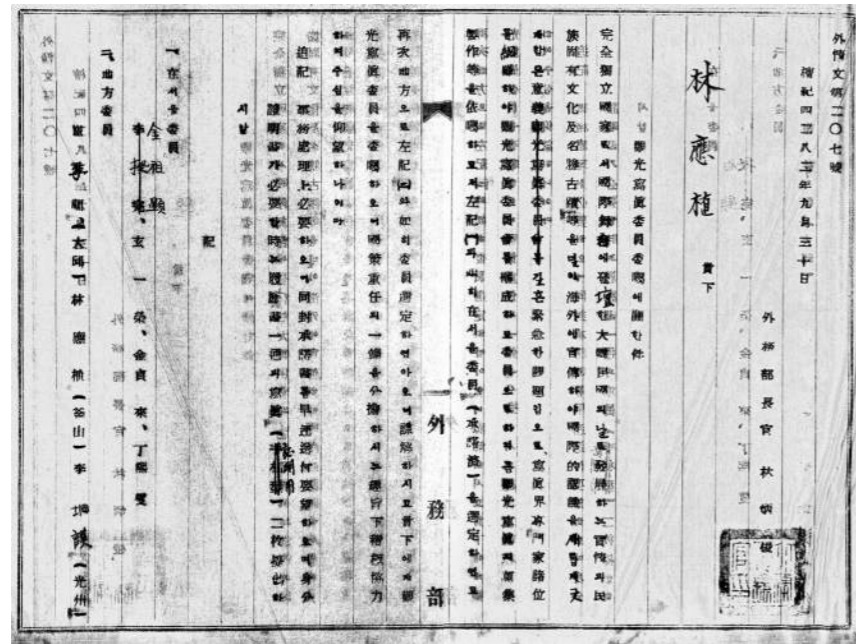
〃	〈천하태평〉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상	최창희(崔昌熙)
〃	〈좋은 동무〉	대한민국 사회부장관상	성두경(成斗慶)
〃	〈어린이의 희망〉	대한민국 공보부장관상	최인집(崔仁集)
〃	〈까꼭〉	경향신문사 사장상	김갑수(金甲洙)
〃	〈히순이〉	국제보도연맹상	신상우(申相佑)
〃	〈강아지와 같이〉	어린이신문 고려문화사상	이건중(李建中)
〃	〈기기전〉	미국문화연구소 소장상	이경모(李敬謨)
〃	〈욕신(慾新)〉	서울인상사진연구회 회장상	조명원(趙明元)

가작

〈제2세〉	강신륜(姜信律)	〈엄마-〉	류승억
〈미소〉	강복영(姜福榮)	〈아기기 동무하고〉	〃
〈비행기·바〉	김갑주(金甲誅)	〈햇님·달님〉	〃
〈엄마·호〉	〃	〈정원의 봄빛〉	오인창(鳴寅昌)
〈형제애〉	김창권(金昌權)	〈어서가자〉	임운창
〈극복의 표정〉	김진섭(金鎭燮)	〈모래 위 목마타고〉	〃
〈출발〉	김익성(金翼星)	〈남매밴드〉	조병룡(曹秉龍)
〈우슴〉	김현달(金顯達)	〈삐꾸닉〉	〃
〈이뿐이〉	김영선(金英善)	〈씩씩한 대한의 꽃〉	전명수(全明洙)
〈경너〉	김문용(金文用)	〈표정〉	〃
〈춘일(春日)〉	김백련(金百鍊)	〈청모(靑眸)〉	조명원
〈나 좀 브아요〉	김완영(金元榮)	〈용아(勇兒)〉	장순득(張順得)
〈엄마-엄마〉	〃	〈봄빛〉	장영화(張永化)
〈공기〉	김철세(金哲世)	〈평화〉	최창희
〈인(仁)이의 백날〉	김찬영(金燦影)	〈만족〉	〃
〈합품〉	김종석(金鍾奭)	〈나도 아버지〉	〃
〈목마탄 (어린이)〉	김용호(金容浩)	〈만세〉	〃
〈내동무〉	김준연(金俊演)	〈형제의 단락〉	최청수(崔淸水)
〈의시(疑視)〉	성두경	〈자라나는 (어린이)〉	〃
〈(어린이)의 세계〉	〃	〈기쁨〉	최인집
〈화랑(花郎)〉	손 목(孫 默)	〈미소하는 도련님 모습〉	최동주(崔銅柱)
〈장난꾼〉	신상우	〈귀속말〉	최성연(崔聖淵)
〈점심〉	〃	〈오빠야 울지마〉	최창호(崔昌鎬)
〈물잔난〉	차순례(車順禮)	〈너도 씩씩하게 자라자〉	〃
〈무리한 요구〉	이건중	〈아기는 웃는다〉	〃
〈청우(請友)〉	〃	〈일등 국민〉	〃
〈(어린이)의 비밀〉	이종태(李鍾泰)	〈미소〉	최만하(崔晩夏)
〈엄마-이먹어〉	이경모	〈돌여노코〉	함순성(咸順成)
〈종성(鐘聲)군의 돌날〉	이규철(李圭喆)	〈직는다〉	홍사영
〈나비아 나비아〉	류승억	〈춘일(春日)〉	〃

[01-112]

외교부, 관광사진위원 위촉에 관한 건, 1949년 9월 30일



외정문(外情文) 제207호

단기 4282년 9월 30일

외교부장관 임병직

임응식 귀하

관광사진위원 위촉에 관한 건

완전 독립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등단한 대한민국의 날로 발전하는 실정과 민족 고유문화급 명승 고적 등을 널리 해외에 선전하여 국제적 인식을 새롭게 국제 함은 의의(意義) 관광사진 위원회를 깊은 긴급한 과제임으로 사진계 전문가 제위를 총라(總羅)하여 관광사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진의 모집, 제작 등을 의촉하고저 좌기(左記)(1)과 여(如)히 좌 서울 위원(승낙제)을 선정하였고 재차 지방으로 좌기(2)와 여(如)히 위원 선정하였으니 양해하시고 귀하에게 관광사진위원을 위촉하오니 국책중임의 일단(一端)을 분담하시는 취지하(下) 적극 협력하여 주심을 앙망(仰望)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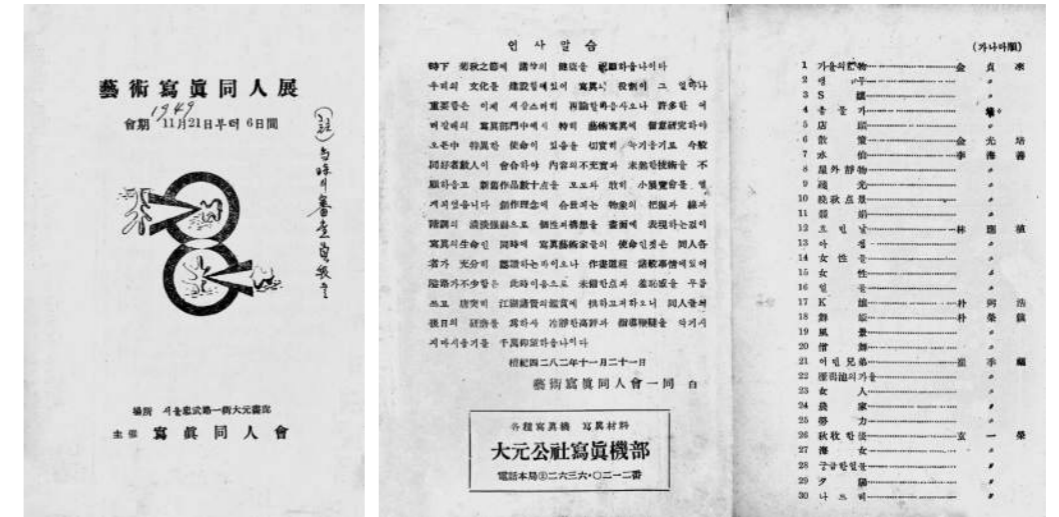
추기(追記) 사무처 이상(理上) 필요하오니 동봉 승낙서를 조속 송부 요망하오며 신분증명서가 필요할 시는 이력서 1통과 사진(수찰형(手札型)) 2매 제출하시았

기(記)

- 1. 재(在) 서울위원 김조현, 현일영, 김정래, 정희섭
- 2. 지방위원 최계복(대구) 임응식(부산) 이경모(광주)

[02-007]

사진동인회 주최, 《예술사진동인전》, 1949년 11월 21일-11월 26일, 대원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인사말씀

시하(侍下) 국추지절(菊秋之節)에 제위의 건승을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문화를 건설함에 있어 사진의 역할이 그 얼마나 중요함은 이제 새삼스러히 재론할 바 없사오나 허다한 여러 갈래의 사진 부문 중에서 특히 예술사진에 유의 연구하여 오든 중 특이한 사명이 있음을 절실히 느끼우므로 금번 동호자수인이 회합하여 내용의 불충실과 미숙한 기술을 불고(不顧)하옵고 신구(新舊) 작품 수십 점을 도모와 감히 소(小)전람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창작이념에 합치되는 물상의 파악과 선과 계조의 농담 강약으로 개성과 구상을 화면에 표현하는 것이 사진의 생명인 동시에 사진예술가들의 사명인 것은 동인(同人) 각자가 충분히 인식하는 바이오니 작화도정(作畫道程) 제반 사정에 있어 애로(隘路)가 불소(不少)함은 차시(此時) 이음으로 미비한 점과 수치성을 무릅쓰고 당돌히 강호제현(江湖諸賢)의 감상(鑑賞)에 공(拱)하고저 하오니 동인들의 후일의 연마를 위하사 냉정한 고평과 지도편달을 약기시지 마시우기를 천만양망(千萬仰望)하옵나이다.

단기 4282년 1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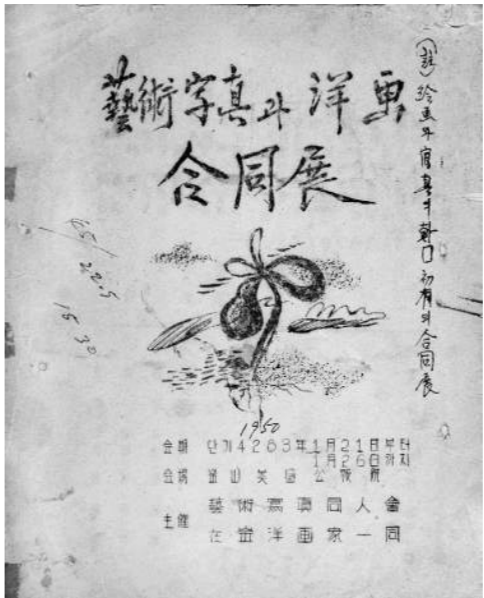
예술사진동인회 일동 백

- (가나다순) 1 <가을의 정물> 김정래 2 <앵무> " 3 <S 양> " 4 <움물가> " 5 <점두(店頭)> " 6 <산책> 김광배 7 <수선(水仙)> 이해선 8 <옥외정물> " 9 <잔광> " 10 <만추점경> " 11 <경연> " 12 <흐린 날> 임응식 13 <아침> " 14 <여성들> " 15 <여성> " 16 <얼굴> " 17 <K 양> 박필호 18 <무희> 박영진 19 <풍경> " 20 <승무> " 21 <어린 형제> 최계복 22 <안압지의 가을> " 23 <여인> " 24 <농가> " 25 <노력> " 26 <추수한 후> 현일영 27 <해녀> " 28 <궁금한 얼굴> " 29 <석양> " 30 <나드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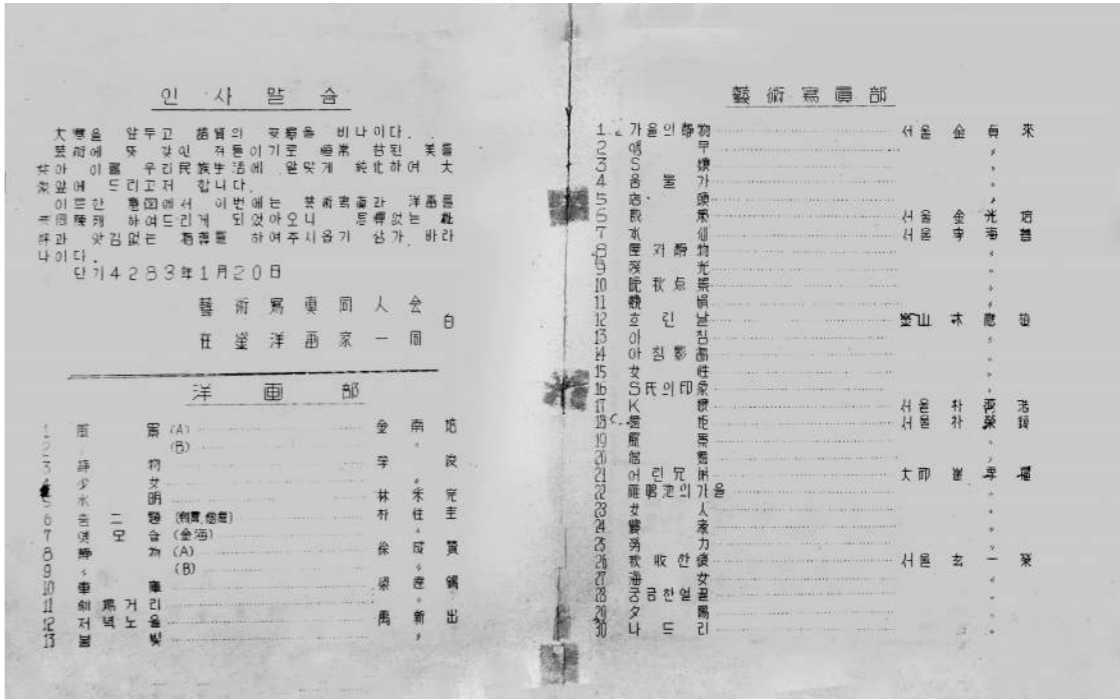
1950년대

[02-010]

예술사진동인회(藝術寫眞同人會), 재부양화가일동(在釜洋畫家一同) 주최,
《예술사진과 양화 합동전》, 1950년 1월 21일-1월 26일, 부산 미국공보원



팸플릿 표지



내지

인사 말씀

대한(大寒)을 앞두고 제현(諸賢)의 안녕을 비나이다.

예술에 뜻 갖인 저들이기로 항상 참된 미를 찾아 이를 우리 민족생활에 알맞게 순화하여 대가(大家)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번에는 예술사진과 양화를 공동 진열 하여드리게 되었아오니 기탄없는 비평과 앓김없는 지도를 하여주시옵기 삼가바라나이다.

단기 4283년 1월 20일

예술사진동인회 백
재부양화가일동

양화부

- 1 <풍경 (A)> 김남배 2 <" (B)" > " 3 <정물> 이준 4 <소녀> " 5 <수명(水明)> 임변환 6 <춤이제 (二題)> (검무, 승무) 박성규 7 <옛 모습 (김해)> " 8 <정물 (A)> 서성찬 9 <" (B)" > " 10 <차고> 양달석 11 <극장 거리> " 12 <저녁 노을> 우신출 13 <봄 빛> "

예술사진부

- 1 <가을의 정물> 서울 김정래 2 <앵무> " 3 <S양> " 4 <움물가> " 5 <점두(店頭)> " 6 <산책> 서울 김광배 7 <수선> 서울 이해선 8 <옥외정물> " 9 <잔광> " 10 <만추점경> " 11 <경연> " 12 <호린 날> 부산 임응식 13 <아침> " 14 <아침 영도(影島)> " 15 <여성> " 16 <S씨의 인상> " 17 <K 양> 서울 박필호 18 <무희> 서울 박영진 19 <풍경> " 20 <승무> " 21 <어린 형제> 대구 최계복 22 <안압지의 가을> " 23 <여인> " 24 <농가> " 25 <노력> " 26 <추수한 후> 서울 현일영 27 <해너> " 28 <궁금한 얼굴> " 29 <석양> " 30 <나드리> "

[01-055]

서울사진재료상조합 주최, 대한민국 외무부, 대한민국 문교부, 대한민국 공보처 후원,
《제2회 전국종합사진 대현상모집》, 1950년 5월 1일

第二回全國綜合寫眞大懸賞募集

趣 旨

우리 寫眞材料商組合에서는 今年에도 全國적으로 寫眞作品募集을 하야 寫眞文化發展의 技術向上과 新 生大韓民國에 潑刺한 英氣와 華萬年の 燦爛한 歴史를 가진 美風古蹟을 우리 寫眞人은 寫眞藝術을 通해서 對內對外에 發表하여 世界寫眞會 制覇하는 重大使命을 先達하는 同時 建國大業達成에 多少라도 功獻함이 最大任務로 생각하고 莫大인 犧牲과 努力을 盡하고 左記要項에 依하여 寫眞募集을 하오니 全國寫眞人 各位는 最大努力을 傾注하시어 優秀한 作品을 多數出品하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募集規定

一、作品內容 各部 羅連大韓의 모습
나部 風景·古蹟·風俗
다部 人物을 주로 한 自由作
無制限
六切以上 全紙까지
全國寫眞人
四二八三年 六月 末日
作品裏面에 住所姓名, 命題, 部別을 記入할 것
서울寫眞材料商組合에 加盟한 材料店及百貨店 材料部로 함
四二八三年 七月 三日
四二八二年 七月 六日 東亞日報及京鄕新聞紙上에 發表하고 個別通 知함

授賞規定

一、審査員은 追後發表함
特選 一席 (가部) 外務部長官賞狀及副賞
特選 二席 (나部) 文敎部長官賞狀及副賞
特選 三席 (다部) 公報處長賞狀及副賞
入選 (無, 席次) (各部二點) 主催者賞狀及副賞
(各部三點) 主催者賞狀及副賞
(各部二〇點) 主催者賞狀及紀念品

時 日 四二八三年 七月 中旬
場 所 東和百貨店 畫廊

主 催 後 援 大 韓 民 國 公 文 外 務 報 教 部 部 處

취지

우리 사진재료상조합에서는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사진작품 모집을 하여 사진문화 발전의 기술 향상과 신생 대한민국에 발자(潑刺)[발랄(潑刺)]한 영기(英氣)와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미풍 고적 등을 우리 사진인은 사진예술을 통해서 대내 대외에 발표하여 세계 사단을 제패하는 중대사명을 완축(完遂)[완수(完遂)]하는 동시 건국 대업 달성에 다소라도 공헌함이 최대 임무로 생각하고 막대한 희생과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하고 좌기(左記) 요항에 의하여 사진모집을 하오니 전국 사진인 각위는 최대 노력을 경주(傾注)하시어 우수한 작품을 다수 출품하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규정

- 一, 작품내용 가부 약진 대한의 모습
나부 풍경, 고적, 풍속
다부 인물을 주로 한 자유작
- 一, 출품매수 무제한
- 一, 작품치수 6절 이상 전지까지
- 一, 출품자 자격 전국 사진인
- 一, 출품마감 4283년 6월 말일
- 一, 출품방법 작품 이면(裏面)에 주소 성명, 명제(命題), 부별(部別)을 기입할 것
- 一, 제출장소 서울사진재료상조합에 가맹한 재료점 및 백화점 재료부로 함
- 一, 심사일 4283년 7월 3일
- 一, 심사발표 4282[4283]년 7월 6일 『동아일보』 및 『경향신문』 지상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함
- 一, 심사원은 추후 발표함

수상규정

- 특선 1석 (가부) 외교부장관 상장 및 부상
- ” (나부) 문교부장관 상장 및 부상
- ” (다부) 공보처장 상장 및 부상
- 특선 2석 (각부 2점) 주최자 상장 및 부상
- 특선 3석 (각부 3점) 주최자 상장 및 부상
- 입선 (무(無), 석차) (각부 20점) 주최자 상장 및 기념품

전람회

시일 4283년 7월 중순
장소 동화백화점 화랑

단기 4283년 5월 1일

주최 서울사진재료상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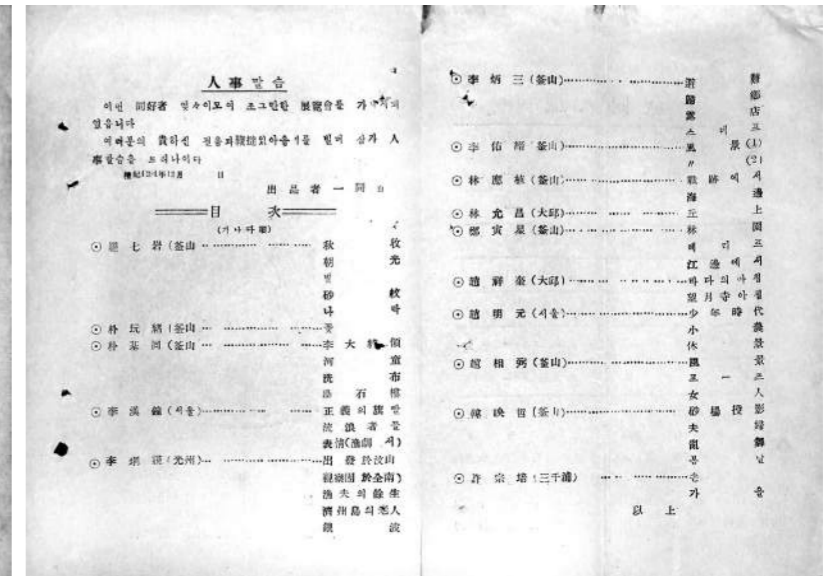
후원 대한민국 외무부, 대한민국 문교부, 대한민국 공보처

[02-009]

합동통신사 후원, 《사진동인전》, 1951년 12월 21일-12월 27일, 대도회다방



팸플릿 표지



내지

인사 말씀

이번 동호자 몇몇이 모여 조그만한 전람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귀하신 걸음과 편달 있어움을 빌며 삼가 인사 말씀을 드리나이다.

단기 4284년 12월 일

출품자 일동 백

=목차=

(가나다순)

- ◎ 나철암 (부산) <추수> <조광> <빛> <사문(砂紋)> <나락>
- ◎ 박완서 (부산) <꽃>
- ◎ 박기동 (부산) <이 대통령> <하동(河童)> <세포(洗布)> <촉석루>
- ◎ 이한중 (서울) <정의의 기빨> <유랑자들> <표정(어극(漁劇)서)>
- ◎ 이경모 (광주) <출발 어(於) 문산> <시찰단 어 전남> <어부의 여행> <제주도의 노인> <은파(銀波)>
- ◎ 이병삼 (부산) <피난> <귀향> <노점> <스넵스>
- ◎ 이우진 (부산) <풍경 (1)> <”(2)>
- ◎ 임응식 (부산) <전적(戰跡)에서> <해변>
- ◎ 임윤창 (대구) <구상>
- ◎ 정인성 (부산) <임원> <레리프> <강변에서>
- ◎ 조상규 (대구) <바다의 아침> <망월사 아침>
- ◎ 조명원 (서울) <소년시대> <소농> <휴경(休景)>
- ◎ 조상필 (부산) <풍경> <포-즈> <여인>
- ◎ 한영철 (부산) <사장 투영(砂射投影)> <부부> <난무(亂舞)> <봄날>
- ◎ 허중배 (삼천포) <손>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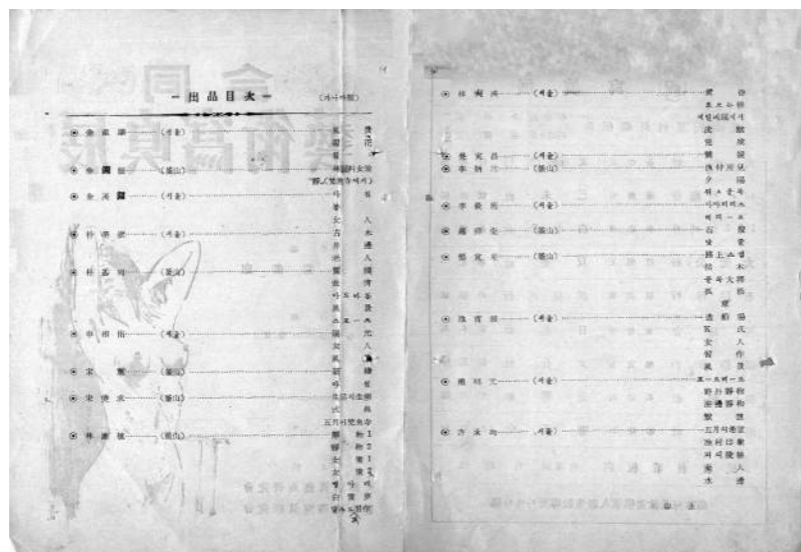
이상

[02-012]

대한사진예술연구회, 부산예술사진연구회 주최, 《합동 예술사진전》,
1952년 6월 5일-6월 9일, 미화당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출품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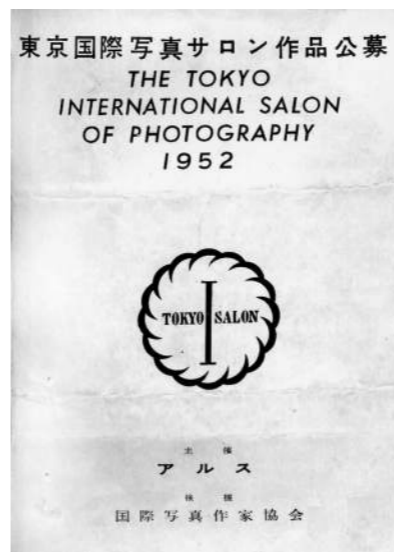
(가나다순)

- ◎ 김조현 (서울) <풍경> <국화> <힘>
- ◎ 김용진 (부산) <임간(林間)의 여상> <“정(靜), (범어사에서)>
- ◎ 김한용 (서울) <아침> <꽃> <여인>
- ◎ 박영진 (서울) <고목> <정변(井邊)> <노인>
- ◎ 박기동 (부산) <추루(鬮樓)> <표정> <아드바룬> <풍경> <스포츠>
- ◎ 신상우 (서울) <양광(陽光)> <여인> <풍경>
- ◎ 송 훈 (부산) <신록> <아침>
- ◎ 송미구 (부산) <생활의 생태> <식전> <5월의 범어사>
- ◎ 임응식 (부산) <정물1> <정물2> <여상(女像)1> <여상2> <병아리> <백주몽(白晝夢)> <앞스트 습작>
- ◎ 임석제 (서울) <황혼> <흐르는 선> <에밀네종에서> <침묵> <황성(荒城)>
- ◎ 오인창 (서울) <경원(競媛)>
- ◎ 이병삼 (부산) <어촌 소견(所見)> <석양> <뒤서[뒷]골목>
- ◎ 이최형 (서울) <아마리리스> <레리프>
- ◎ 조상규 (부산) <석등> <닷줄>
- ◎ 정인성 (부산) <노상 스냅> <고목> <골목대장> <고송(孤松)> <차(車)>
- ◎ 지부원 (서울) <조선장(造船場)> <K 씨> <여인> <습작> <풍경>
- ◎ 조명원 (서울) <포-트레트> <아외 정물> <해변 정물> <묵상(默想)>
- ◎ 허승균 (서울) <5월의 희망> <어촌 인상> <피의 능선> <여인> <수변>

이상

[01-073]

아르스(ARS)¹⁾ 주최, 국제사진작가협회 후원, 《도쿄국제사진살롱》 작품 모집 공고문,
1952년



공고문 표지



내지

본사는 다이쇼(大正) 10[*1921]년 사진 잡지 『CAMERA』를 창간한 이래 30여 년간 일본 사진계를 위해 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전후 일본의 강화·독립 기념사업으로 《도쿄국제살롱》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즉 세계 20여 개국의 사진작가의 작품 및 바야흐로 세계적 수준에 달한 일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살롱사진예술을 세계에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전 일본 사진계의 협력에 의해 이 장거(壯舉)에 협찬하시어 출품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출품규정

1. 모집 작품 A부-흑백 사진(주제는 자유) 4점 이내
사절판[*25.5×30.5cm] 이상, 대지는 사용하지 말 것.
B부-컬러 슬라이드 6점 이내
2×2인치로 완성한 것에 한함.
2. 출품자 자격에 제한 없음.
3. 도쿄도 내의 공개 전람회에 진열했거나 혹은 진열이 예상되는 작품 외에는 모두 응모 자격 있음. 단 판권이 작가 소유의 작품에 한함.
4. 출품에는 1점당 데이터를 첨부하고 작품 번호, 주소, 성명 및 화제(畫題)를 사진 뒷면 혹은 슬라이드의 구석에 기입할 것.

5. 출품자는 소정의 출품 신청서에 사진·슬라이드의 구별 및 작품 번호, 주소, 성명을 기입하여 출품 소포 안에 동봉할 것. 성명에는 반드시 발음을 가나(假名)로 달 것.
6. 응모 사진은 절대로 말지 말고 평면으로 포장하며, 슬라이드는 파손될 우려가 없도록 단단히 포장하여 마감일까지 도착하도록 반드시 등기 소포로 발송할 것. 사고 및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직접 지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7. 출품물의 반송 희망지는 반송료로 200엔짜리 수표를 출품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시면 살롱 폐회 후 등기 소포로 반송해드립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본사에서 직접 드리지는 않습니다.
8. 출품 접수 마감일은 쇼와 27[*1952]년 8월 31일.
9. 출품 송부처 도쿄도 지요다구(千代田區) 간다진보초(神田神保町) 3초메 17번지 아르스 내 《도쿄국제살롱》사무국.

LAST DAY FOR RECEIVING ENTRIES-AUGUST 31, 1952

10. 입선 발표: 아르스에서 발행하는 『CAMERA』 및 『사진 교실』 11호 지상(紙上).
11. 전람회 기일: 10월 혹은 11월 중에 도쿄 및 오사카에서 개최(확정되는 대로 발표).
12. 입선 작품에는 스티커(입선 기념 라벨) 상장, 입선 작품 총목록을 증정합니다.
13. 입선 걸작집을 『CAMERA』 중간호로 간행할 예정.
14. 출품물은 보관 및 진열 중의 재해 방지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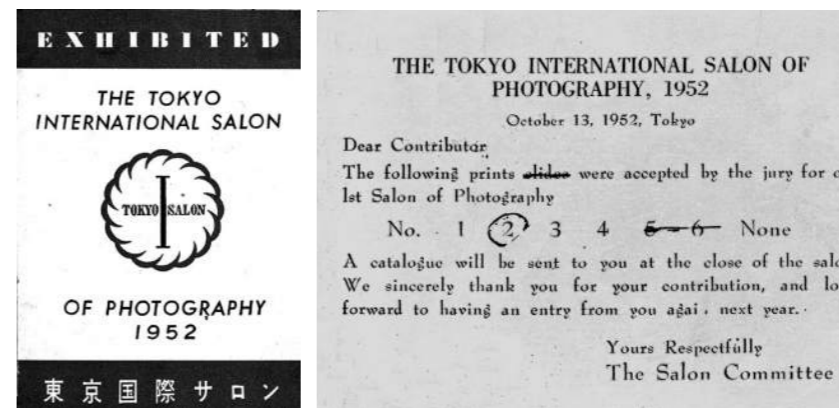
심사원(JURY OF SELECTION)

土門拳 眞繼不二夫
 伊奈信男 西山清
 木村伊兵衛 上田備山
 高桑勝雄 (ABC순)

[*이하, 출품 신청서 양식은 생략]

[13-018]

아르스 주최, 국제사진작가협회 후원, 《도쿄국제사진살롱》위원회 통보서, 1952년 10월 13일



[1952년 《도쿄국제사진살롱》 작품 공모에 기고자의 사진 작품이 수락됨을 통보하는 엽서 크기의 자료(두 개별 자료를 이어 붙여서 스크랩 하였다.)]

[13-006]

「임응식 씨 작품 입선, 국예(國藝)싸롱 서 대인기, 『경향신문』, 1952년 11월 22일



내일 중순경 일본 동경(東京)에서 개최되는 1952년도 《국제예술사진싸롱(國際藝術寫眞싸롱)》의 초청을 받은 국내 각 예술사진가 들은 한국의 사진예술을 해외에 과시하고자 맹연구를 거듭한 끝에 지난 8월 부산예술사진연구소(부산藝術寫眞研究所) 소장 임응식(林應植) 씨의 작품 외 이십오 점을 동 '싸롱'에 출품하였다 하는데 지난 십구일 동경으로부터 부산예술사진연구소에 전달된 서신에 의하면 전기 임응식 씨의 작품이 수많은 작품 중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심사에 입선되었다 한다. 그런데 동 '싸롱'에는 세계 이십육 개국 으로부터 사천여 점이 출품되었다고 하며 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일백 점의 작품이 입선된 것이라 한다.

[13-012]

「〈병아리〉 임응식(한국)」, 매체명 미상, 19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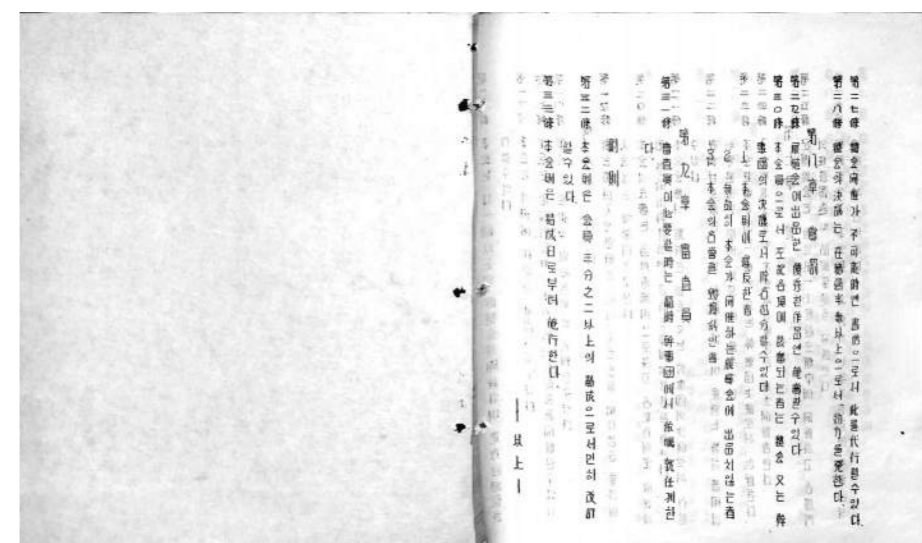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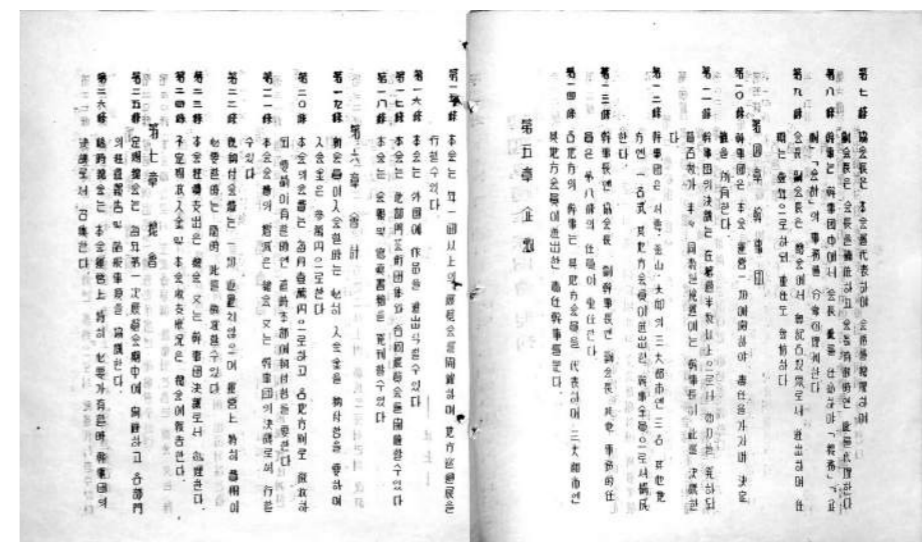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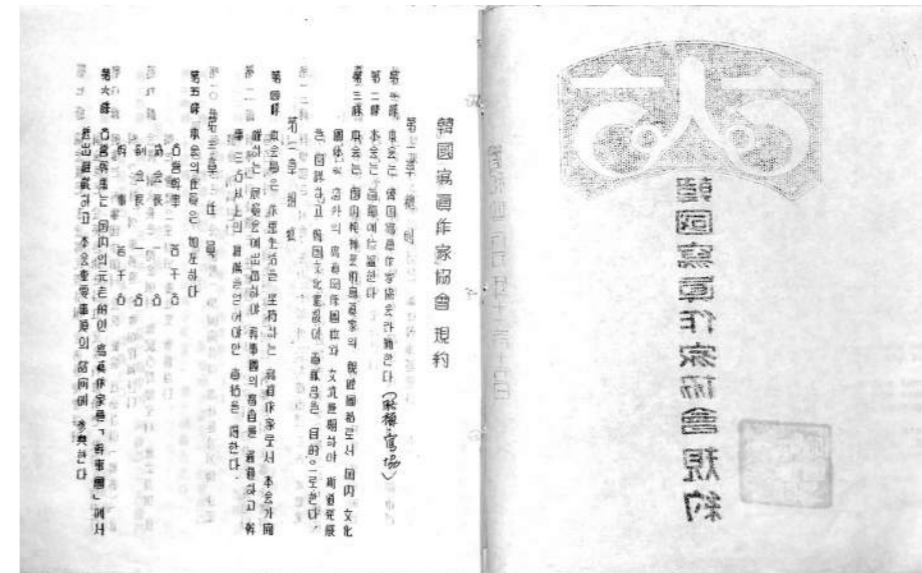
[메모: 《제1회 도쿄국제사진salon》 1952 (ARS사)]

[01-082]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규약, 1952년 12월 15일



규약서 표지



내지 pp.1-4

제1장 총칙

- 제1조 본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라 칭한다.
- 제2조 본회는 수도에 위치한다.
- 제3조 본회는 국내 순수예술 사진가의 친목 단결로서 국내 문화단체 및 해외의 사진 관계 단체와 교류를 기(期)하여 사도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문화건설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 제4조 본 회원은 작화 생활을 견지하는 사진작가로서 본회가 개최하는 전람회에 출품하여 간사단의 심사를 통과하고 간사 3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만 자격을 득(得)한다.

제3장 임원

- 제5조 본회의 임원은 여좌(如左)하다
 명예 간사 약간명(若干名)
 협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약간명
- 제6조 명예 간사는 국내의 원로적인 사진작가를 「간사단」에서 선출 추대하고 본회 중요 사항의 자향(諮向)에 참여한다.
- 제7조 협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會務)를 총리(總理)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有故) 시엔 이를 대리한다.
- 제8조 간사는 간사단 중에서 회장[이] 이를 임명하여 「총무」「기획」「회계」의 사무를 분장 처리케 한다.
- 제9조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선출하며 임기는 일 년으로 하되 중임도 무방하다.

제4장 간사단

- 제10조 간사단은 본회 운영 일절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결정권을 소유한다.
- 제11조 간사단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서 효력을 발(發)하되 찬부수(贊否數)가 반반 동수일 경우에는 간사장이 이를 결의한다.
- 제12조 간사단은 서울·부산·대구의 삼대 도시엔 3명, 기타 지방엔 1명씩 그 지방회원이 선출한 간사 전원으로서 구성한다.
- 제13조 간사장엔 협회장 부간사장엔 부회장 기타 사무적 임원은 제8조의 임원이 중임한다.
- 제14조 각 지방의 간사는 그 지방회원을 대표하며 삼대 도시엔 그 지방회원이 선출한 책임 간사를 둔다.

제5장 기획

- 제15조 본회는 연 1회 이상의 전람회를 개최하며 지방 순회전을 행할 수 있다.
- 제16조 본회는 외국에 작품을 진출시킬 수 있다.
- 제17조 본회는 타 부문 예술단체와 합동 전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8조 본회는 회보 및 사진 서적을 발간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 제19조 신회원이 입회할 시는 필히 입회금을 납부함을 요하며 입회금은 삼만 원으로 한다.
- 제20조 본회의 회비는 매월 일만 원으로 하고 각 지방별로 징수하되 요청이 유(有)할 시엔 즉시 본부에 납부함을 요한다.
- 제21조 본회 회비의 증감은 총회 또는 간사단의 결의로써 행할 수 있다.
- 제22조 기납부(既納付) 회비는 일절 반환치 않으며 운영상 특히 비용이 필요할 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 본회 회비 지출은 총회 또는 간사단 결의로써 처리한다.
- 제24조 부정기 수입금 및 본회 수지 상황은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총회

- 제25조 정기총회는 매년 제1차 전람회기 중에 개최하고 각 부문의 결과보고 및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 제26조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특히 필요가 유할시 간사단의 결의로써 소집한다.
- 제27조 총회 개최가 불가능 시엔 서신으로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28조 총회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서 효력을 받는다.

제8장 상벌

- 제29조 전람회에 출품한 우수한 작품엔 시상할 수 있다.
- 제30조 본 회원으로서 좌기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총회 또는 간사단의 결의로써 제명 처분할 수 있다.
1. 본 회칙에 위반한 자
 2. 무고히 본회가 개최하는 전람회에 출품치 않는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히인 자

제9장 심사원

- 제31조 심사원이 필요할 시는 수시 간사단에서 의촉 취임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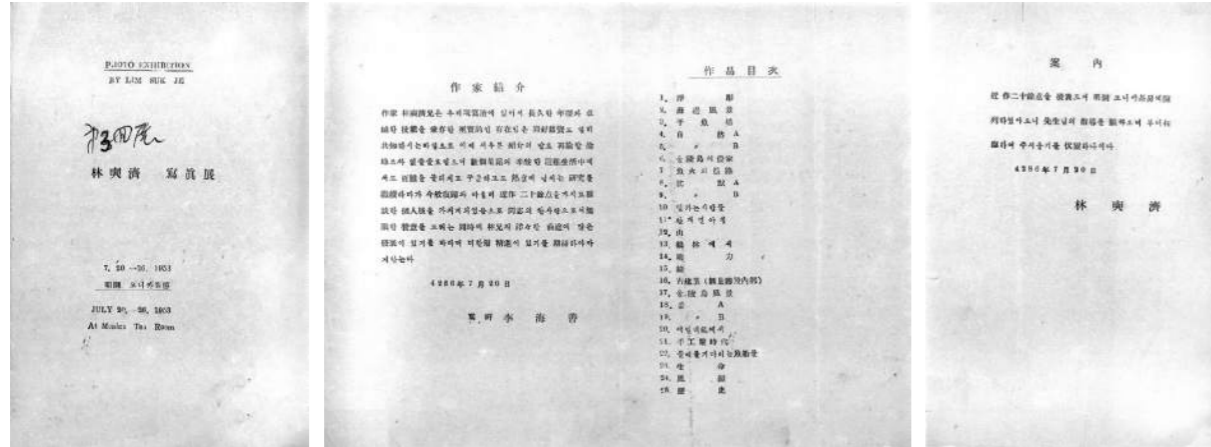
부칙

- 제32조 본 회칙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만 개정할 수 있다.
- 제33조 본 회칙은 결성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03-084]

《임석제 사진전》, 1953년 7월 20일-7월 26일, 명동 모니카다방



팸플릿 표지

내지

뒷면

작가소개

작가 임석제 형은 우리 현 사단에 있어서 장구한 연혁과 탁월한 기능을 겸존한 지보적인 존재임은 동호 제한도 임히 공지하시는 바임으로 이제 서투른 소개의 말로 재론할 여지조차 없쓸 줄로 믿으며 수개성상(數個星霜)의 신산(辛酸)한 피난생활 중에서도 백난을 물리치고 꾸준하고도 열의에 넘치는 연구를 계속하다가 금반 복귀와 아울러 근작 이십여 점을 가지고 아담한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동지의 한 사람으로써 무한한 찬의를 드리는 동시에 임 형의 양양한 진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더 한층 정진이 있기를 기대해야 마지 않는다.

4286년 7월 20일
사연(寫研) 이해선

작품목차

1. <부조(浮彫)> 2. <해변풍경> 3. <건어장> 4. <자연 A> 5. <〃 B> 6. <울릉도의 농가> 7. <어화(漁火)의 진로(進路)> 8. <침묵 A> 9. <〃 B> 10. <일가는 사람들> 11. <안개 낀 아침> 12. <산> 13. <계림(鷄林)에서> 14. <조력> 15. <종(鐘)> 16. <고건축(무량수전 내부)> 17. <울릉도 풍경> 18. <삶 A> 19. <〃 B> 20. <에밀네중에서> 21. <수공업 시대> 22. <물매를 기다리는 어선들> 23. <생명> 24. <풍경> 25.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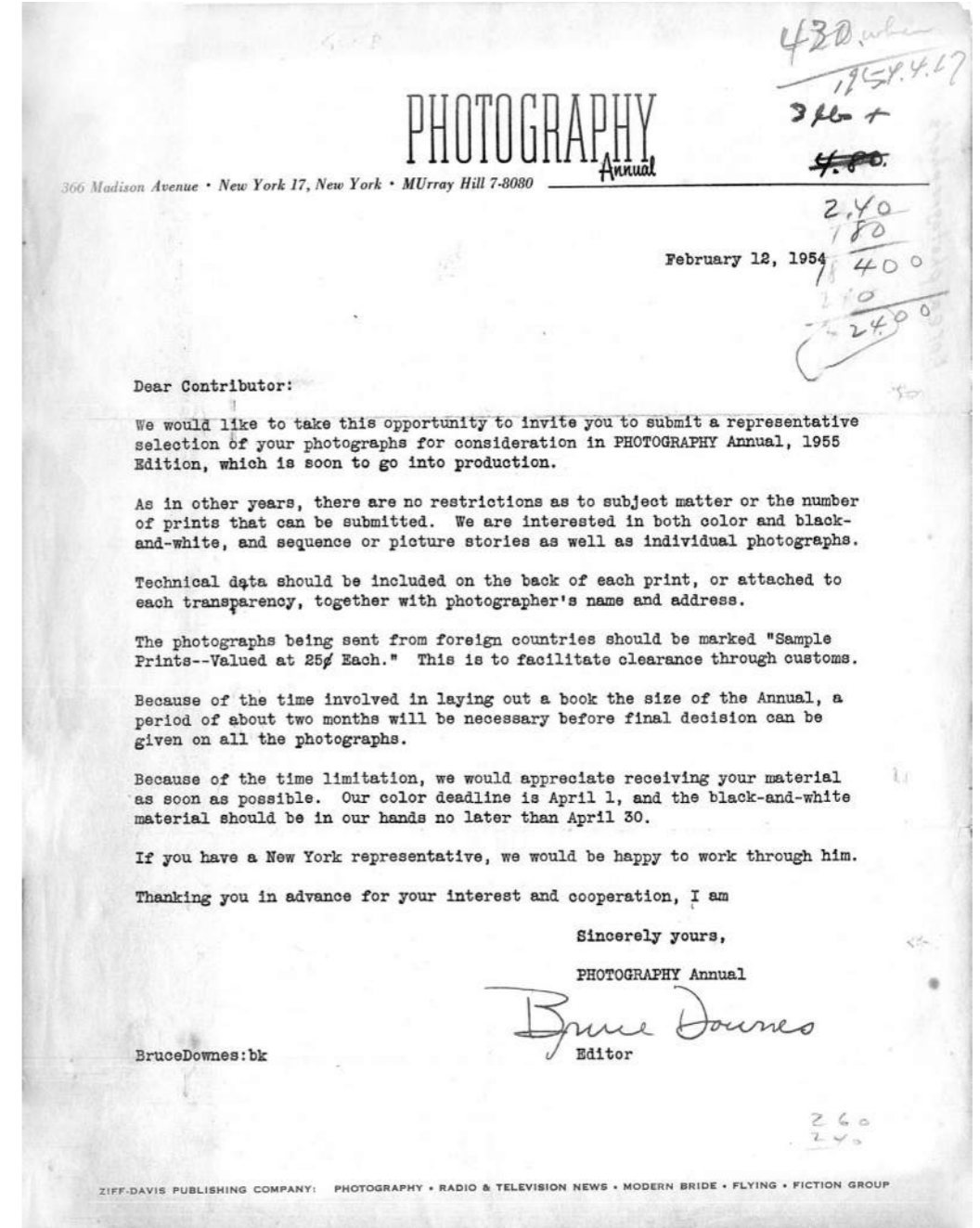
안내

근작 20여 점을 발표코저 명동 모니카다방에 진열하였으니 선생님의 지도를 원하오며 부디 왕림하여 주시옵기를 복망(伏望)하나이다.

4286년 7월 20일
임석제

[01-084]

『PHOTOGRAPHY Annual』의 작품 초청장, 1954년 2월 12일



Dear Contributor: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invite you to submit a representative selection of your photographs for consideration in PHOTOGRAPHY Annual, 1955 Edition, which is soon to go into production.

As in other years, there are no restrictions as to subject matter or the number of prints that can be submitted. We are interested in both color and black-and-white, and sequence or picture stories as well as individual photographs.

Technical data should be included on the back of each print, or attached to each transparency, together with photographer's name and address.

The photographs being sent from foreign countries should be marked "Sample Prints--Valued at 25¢ Each." This is to facilitate clearance through customs.

Because of the time involved in laying out a book the size of the Annual, a period of about two months will be necessary before final decision can be given on all the photographs.

Because of the time limitation, we would appreciate receiving your material as soon as possible. Our color deadline is April 1, and the black-and-white material should be in our hands no later than April 30.

If you have a New York representative, we would be happy to work through him.

Thanking you in advance for your interest and cooperation, I am

Sincerely yours,

PHOTOGRAPHY Annual

Bruce Downes
Editor

BruceDownes:bk

[01-085]

한국사진작가협회 답변 원고, 1954년 4월 21일

KOREAN PHOTOGRAPHERS' ASSOCIATION

April 21, 1954

Dear Mr. Downes;
PHOTOGRAPHY Annual

Thanking you ever for your kindly invitation to the consideration in your Annual 1955. And have mailed ~~some~~ ⁵⁴ prints.

We are ashamed to submit such photographs as to our circumstances. Our Association recently moved to Seoul from Pusan and had not have enough time to notify our scattered staff members nor selecting, as you mentioned in your letter.

I am represently apologizing our mistake such as some does not include technical data.

I believe, within near future, we'll be able to work better and ~~make~~ keep contacting for further cooperation.

We sincerely appreciate that such opportunity was given to us, We are

Yours Very Truly

[앞선 『PHOTOGRAPHY Annual』 서신에 대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측의 답신 원고이다. 54점의 사진작품을 발송하였고, 몇몇 작품은 기술적 데이터를 밝히지 않았음에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

[01-087]

1955년 ■판 미국 『포토그래피 연감』 출품자명 및 점수, 1954년

Handwritten list of names and scores in Korean:

정인성 3 박기동 3 김용진 4 김한용 6 김기순 4 조명원 2 지부원 2 이건중 4 박 구 1 이경모 1
이병삼 5 임응식 3 정희섭 8 조준영 2

54점

정인성 3 박기동 3 김용진 4 김한용 6 김기순 4 조명원 2 지부원 2 이건중 4 박 구 1 이경모 1
이병삼 5 임응식 3 정희섭 8 조준영 2
54점

[자료 01-085번과 01-087번은 차례로 함께 스크랩 되어 있다. 01-087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측의 답변과 함께 『PHOTOGRAPHY Annual』에 발송할 작가와 작품수를 정리한 메모로 보인다.]

[13-028]

『《국제사진싸롱》에 입선된 한국 사진작가들』, 『국제보도』(34호), 1954년 7월, pp.36-37



현재 개최되고 있는 국가와 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진싸롱》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국로얄사진협회가 주최하는 《로얄사 진싸롱》인데 이는 실로 1853년부터 98회를 개최해왔고 그 외에 스코트랜드의 《에전발라싸롱》의 91회 영국의 《바-민감싸롱》의 58회 미국의 포-트랜드의 54회 피-즈백의 40회 로스안젤스의 37회 일본(아사히)의 1927년으로부터 14회 등을 헤아릴 수가 있는데 주최 측은 매년 세계 각국 의 저명단체 및 작가에 작품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으며 이에 응할 시는 반드시 작품과 함께 작품료 1불(弗)을 첨부 출품해야 하며 주최 측은 전시회 종료 후는 당선 낙선을 막론 하고 그 작품을 출품자에게 반환하며 그의 목록을 기증케 되어있다.

출품 인화의 사이즈는 4절판이 표준이 되어 있으며 점수는 4점 이내로 되어있다.

입선된 한국사진작가

- △ 임응식 1953년 일본 ARS사 주최 · 《국제사진싸롱》 입선작품 <병아리> 응시 국가 38개국에 출품 점수 4030점 당선 국가 27개국에 입선 작품 320점
- △ 정인성 1954년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국제싸롱》 입선 작품 <농촌의 가을> 외 1점(천연색 사진부)
- △ 이병삼 동(同) <아침>
- △ 김한용 동 <화염과 흑연>

- ◎임응식 씨 담(談) 재작년에 처음 한국인으로서 입선되어 여러분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연구 도중으로 더욱 더한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정인성 씨 담 칼라 · 필림의 보급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의 애로를 타개해서 만드려진 두 점 이 의외로 입선이 되어 자신보다도 한국 사진계를 위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 ◎이병삼 씨 담 어느 모티-프를 발견하면 시간과 재료를 애길 수 없으며 한 장소에서 수일 쫓 보내는 것은 누구나가 ■는 일이겠지만 이번에 입선을 보게 된 작품도 수 3일을 두고 그러한 화면의 자연적 구성을 기대렸던 것입니다.
- ◎김한용 씨 담 지난 부산의 대화재 때의 참혹한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평범하면서도 동적인 것을 만드려 보려고 애썼습니다만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의 정진이 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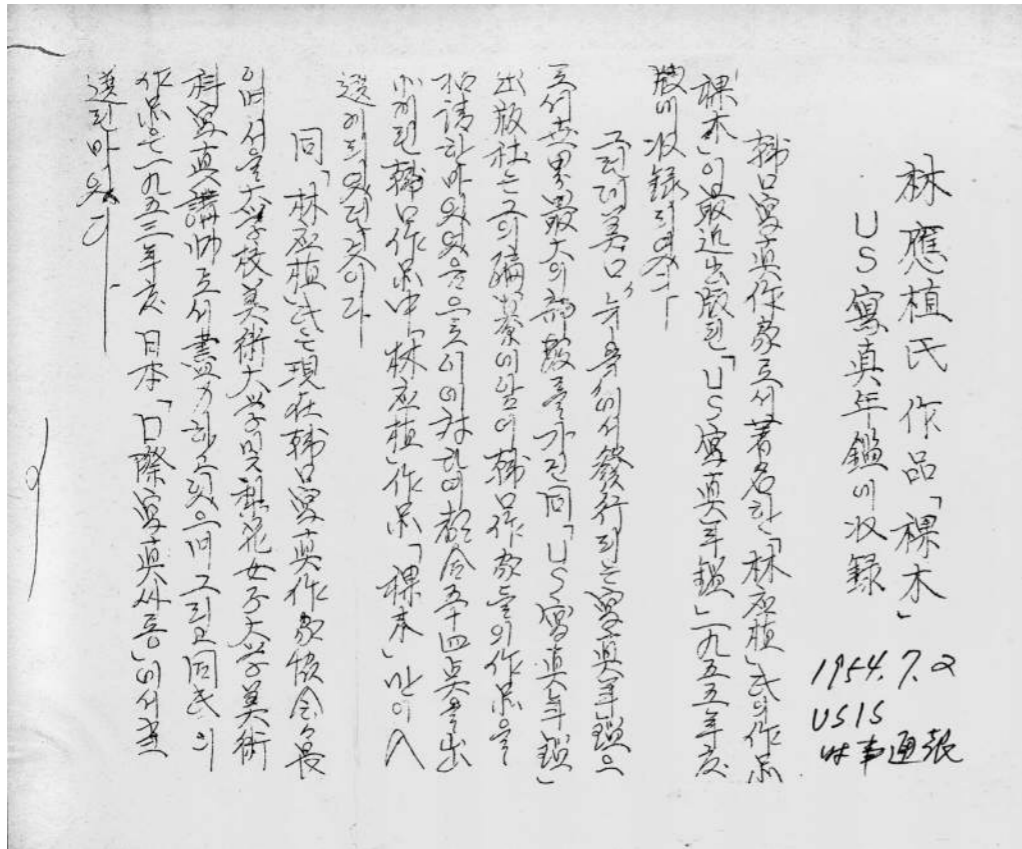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도 올림픽경기와 같은 크다란 규모 하에 전세계 를 총망라하여 개최되는 것에 《국제사진싸롱》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국가의 대소 차별도 없고 인종적 편견도 없으며 또한 정치적인 아무런 색채도 없는 실로 인간 언어 국경을 초월한 평등한 입장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진작품을 공정히 심사 하여 유명 무명을 불문하고 이에 통과 합격된 올리지날[오리지날] 프린트를 일당에 전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이에는 등급 ‘상(賞)’ 또한 특별한 초대출품제도를 두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이에 당선되는 것으로서 프리이트[프라이드]를 높이 하는 것이며 당선 작품 의 수준을 높이 보지(保持)해야 당선된 그 자체가 명예상이 되는 것이며 우선 세계수준의 작가 라고 인정되는 것이다. 출품 국가 자체로서는 1년간의 입선 점(點)의 다소에 응하여 국제적 순위 를 다투며 또다시 5개년을 통한 결과의 순위로서 우위를 획득하려 노력하는 관습이 되어 있다.

[13-031][?]

「임응식 씨 작품 <나목> 『US사진연감』에 수록,
『USIS 시사주보(時事週報)』, 1954년 7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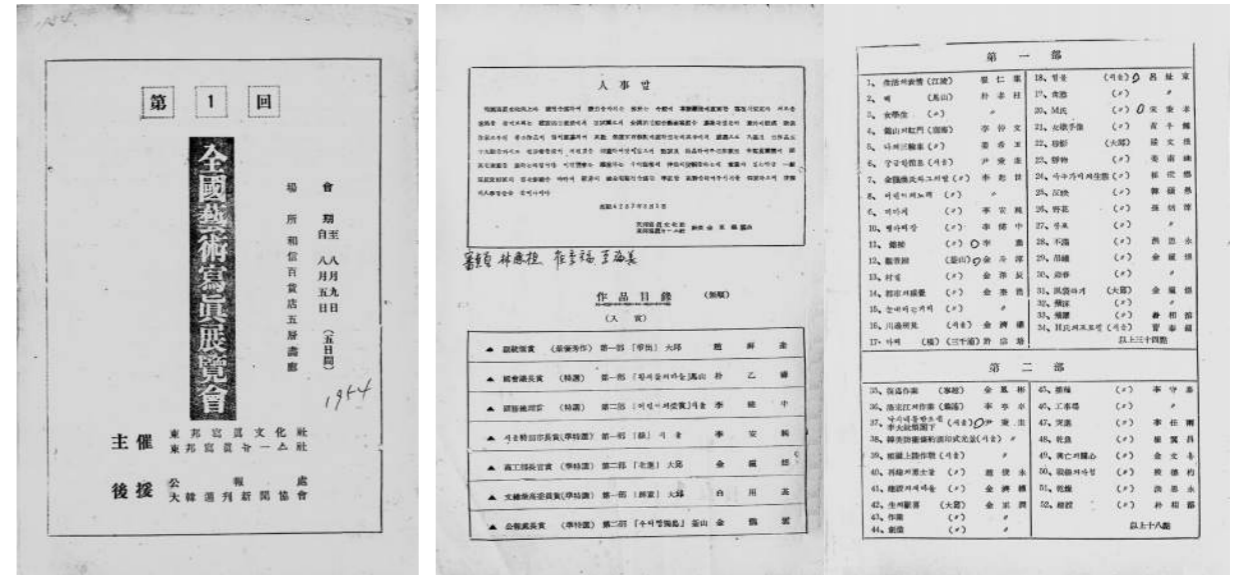
한국 사진작가로서 유명한 '임응식' 씨의 작품 <나목>이 최근 출판된 『US사진연감』 1955년도 판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사진 연감으로서 세계 최대의 부수를 가진 동(同) 『US사진 연감』 출판사는 그의 편찬에 앞서[앞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한바 있었음으로 이에 대하여 도합 54점을 출품케 된 한국작품 중 '임응식' 작품 <나목>만이 입선케 되었던 것이다.

동 '임응식' 씨는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장이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이화여자대학 미술과 사진 강사로서 진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 씨의 작품은 1953년도 일본 《국제사진싸롱》에서 당선된 바 있다.

[03-001]

동방사진문화사, 동방사진뉴스사 주최, 공보처, 대한주간신문협회 후원,
《제1회 전국예술사진전람회》, 1954년 8월 5일-8월 9일, 화신백화점 5층 화랑



평플릿 표지

내지

인사말

한국 사진문화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미력을 바쳐 온 폐사(弊社)는 금번에 혁신 조류에 직면한 사단의 안정과 새로운 진로를 찾아보려는 건설적인 의욕에서 첫 시도로서 전국적인 종합 예술사진을 모집하였던바 의외에 기성 신진작가로부터 좋은 작품이 많이 응모되어 그 수 무려 오백여 점에 달하였는데 그중에서 엄선으로 입선된 역작품 59점을 가지고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동경하여 맞이 않으며 열성껏 출품하여 주신 작가 및 각 사진 단체에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전람회는 약진하는 우리 사단의 반려의 역할을[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일반 사진애호가 많은 참관을 바라며 사계(斯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솔직한 고품을 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며 주최의 인사 말씀을 들이내이다.

단기 4287년 8월 5일

동방사진문화사

동방사진뉴스사 회장 김동근(金東根) 근백(謹白)

작품목록(무순)

(입상)

- ▲부통령상 (최우수작) 제1부 <쟁출> 대구 조상규
- ▲국회의장상 (특선) 제1부 <황새들의 마을> 마산 박을수
- ▲국무총리상 (특선) 제2부 <어린이의 수상(受賞)> 서울 이진중
- ▲서울특별시장상 (준특선) 제1부 <선(線)> 서울 이안순
- ▲상공부장관상 (준특선) 제2부 <북진> 대구 김진욱
- ▲문충최고위원상 (준특선) 제1부 <군동(群童)> 대구 백용기
- ▲공보처장상 (준특선) 제2부 <우리땅 독도> 부산 김용운

제1부

1. <생활의 표정> (강릉) 최인집 2. <배> (마산) 박효주 3. <여학생> (〃) 〃 4. <금산의 흥문> (남해) 이증문 5. <나의 삼분차> (〃) 강희옥 6. <궁금한 소식> (서울) 윤병규 7. <김용환 씨와 그의 딸> (〃) 이기세 8. <어린이의 노래> (〃) 〃 6[9]. <미다지> (〃) 이안순 10. <병아리장> (〃) 이진중 11. <용접> (〃) 이훈 12. <관음전(觀音殿)> (부산) 김두순 13. <춘길> (〃) 김택진 14. <도시의 감각> (〃) 김규호 15. <눈 내리는 거리> (〃) 〃 16. <천변 소견(川邊所見)> (서울) 김제권 17. <다리(교(橋))>(삼천포) 허중배 18. <얼굴> (서울) 여지동 19. <식욕> (〃) 〃 20. <M 씨> (〃) 송병호 21. <여가수 상(像)> (〃) 황우중 22. <사영(砂影)> (대구) 엄문근 23. <정물>(〃) 강남주 24. <아주가리의 생태> (〃) 최준향 25. <반영> (〃) 한석우 26. <야화(野花)> (〃) 손병순 27. <창포> (〃) 〃 28. <불만> (〃) 홍사영 29. <적관(吊罐)>(〃) 김진욱 30. <영춘(迎春)> (〃) 〃 31. <풍대(風袋) 타기> (대구) 김진욱 32. <비말(飛沫)> (〃) 〃 33. <비약> (〃) 박상용 34. <H 씨의 프로필> (서울) 조봉진 이상 34점

제2부

35. <복구 작업> (영월) 김봉빈 36. <낙동강의 작업> (구포) 이형탁 37. <낙시대를 받으신 이 대통령 각하> (서울) 윤병규 38. <한미방위조약 조인식 광경> (서울) 〃 39. <모의 상륙작전> (서울) 〃 40. <채건의 용사들> (〃) 조준영 41. <건설의 새마을>(〃) 김제권 42. <생의 환희> (대구) 김정운 43. <작업> (〃) 〃 44. <창조> (〃) 〃 45. <파종(播種)> (〃) 이수태 46. <공사장> (〃) 〃 47. <돌진> (〃) 이임우 48. <건어(乾魚)> (〃) 최익창 49. <홍망의 관심> (〃) 김문용 50. <전선(戰線)의 아침> (〃) 은덕표 51. <건조> (〃) 홍사영 52. <건설> (〃) 박상용 이상 18점

[13-024][?]

임응식, 「해방 후의 사단회고」, 『문충회보』, 1954년 8월



(사진설명) 한국사진작가협회장 임응식 씨 작 <나목>이 1955년도 『US사진연감』에 당선 수록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표작 54점이 출품되었던 것 ■다. (사진은 임 씨 작 <나목>)

사단

8·15 해방 이후의 한국사진계를 전망함에 있어서 해방 직후와 오늘날의 그것을 비교 검토해 볼 때 사진 전반에 궁(巨)하는 발전의 비약적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이 객관적 사회 정세로부터 오는 영향도 컸겠지만 그것보담도 여기에 우선 대서 특기해야 할 것은 6.25 사변 이후에 출현한 진지한 작가군의 눈부신 노력과 투쟁으로서 이루어진 고귀한 결정! 그것일 것이다.

과거의 사진계가 어디까지나 취미적 도락적 여기적인 입장에서 향락과 유희를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문화의 대중화와 사진열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예술적 가치는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에 각성한 젊은 세대(제너레이션)들이 작가적인 자각과 굳센 의지와 정열로서 사단의 사회적 문화 향상 발전에 분투 노력하였으며 분열과 파괴를 기도하여 가진 모략 중상을 일삼는 보수파들과 맹렬히 투쟁하면서 예술적 양심에 끊임없는 자기비판과 순수한 창작 행동을 견지하고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카메라 수와 그 종류의 변천을 비교해보건대 당시 라이카라면 3B형의 중고품이 최고급 품의 행세를 했음에 비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2F형은 물론이거니와 M1형 신품이 시장에 허다히 나타나게끔 되었고 아마추어 수도 이에 정비례하여 그 당시 기천(幾千)을 넘지 않았던 것이 오늘에 있어서는 약 3만을 추산케 되어 미국의 4천만 일본의 3백만에는 도저히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이와 같이 가속도로 보급된 것은 경하로운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즉 인간이 의식주의 기본적 욕망에 만족을 얻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심양면으로 그 내용을 풍부하게 장식하려는 문화적 욕구의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이 한국문화의 발전적 척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면 제한 있는 지면인 만큼 이하에 사단의 이모저모를 항목별로 간단히 소개기로 하겠다.

▲아마추어 양성-서울 대한사진예술연구회 부산에 부산사진연구회 대구에 경북사진문화연맹 대구사연구회 대구사광회 등의 연구 단체가 각각 있어서 해방 이후로부터 후배양성에 진력(盡力)하고 왔으며 주로 월례회를 통하여 직접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람회-해방 이래 아마추어 사진인의 발표전으로서 특기할 만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사진 예술연구회 주최의 수차에 걸친 전국적인 《현상모집전》과 조선사진문화 주최의 대규모적인 《전국종합사진전》 최근에 개최된 동방사진문화사 주최의 《전국예술사진모집전》을 들 수 있으며 부산, 대구 등지에 있어서도 《해양사진모집전》, 《국산품애용사진모집전》, 《상업사진모집전》 등을 거행한 바 있었다.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의 작품발표전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4회에 공한 《회원작품발표전》이 있었는데 이 단체의 회원 구성이 한국 전역 각지의 기성작가의 총 집결로서 되어 있는 만큼 한국 사단의 최고수준의 작품을 일당에서 대관할 수 있었으며 개인전에 있어서는 환도를 전후하여 개최된 이한중 씨 이건중 씨 정희섭 씨 임석제 씨 등의 그것을 들 수 있다.

△교육 기관-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각각 사진강의 시간을 설치한 것을 위시하여 대구의 대한사진전문학원 부산의 부산사진학원 등을 들 수 있다.

△사진 공업-6·25사변 직전까지 국산 건판으로서 '럭스'가 오오소급과 팡크로급이 외국제 사진 재료 수입이 두절된 한동안 생산된 일이 있었다.

△사진 간행물-조선사진문화사 발행의 『사진문화』 지가 12호까지 발행되었으나 주간 이동호 씨가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납치되어간 이후 폐간되었고 국제보도연맹 발행의 『한국화보』와 『국제보도』 양지가 계속 발행되고 있다.

△국제교류-1952년으로부터 우금(于今) 3년간에 공하여 연속 《국제사진싸롱》 등에 당선 되어 한국사단을 국제적으로 소개한 바 있었는데 이에 당선된 작가로서는 정인성 씨 김한용 씨 이병삼 씨 등 자(者)의 4명이 있다.

△외국 작가의 내왕-6.25사변으로서 한국에 내왕한 저명한 외국 작가로서는 뎨컨 씨 마이덴스 씨 백크화이트 여사 고(故) 비숍프 씨, 브리스를 씨, 워-카 씨들과 또한 중국의 宋德和 씨 일본의 三木淳 씨 등을 헤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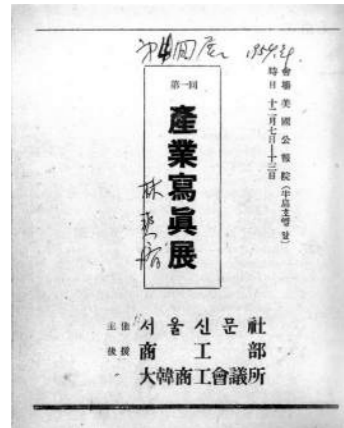
△비평 활동-6.25사변 전에 사진평론을 시도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구왕[삼] 씨가 있었는데 비평 활동이 전무한 차제(此際)에 유능한 평론가의 출현이 갈망된다.

△작화 경향-현 한국사단의 작화 경향을 살펴볼 때 이를 2대 조류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즉 그의 하나는 자연풍물을 모티브로 하여 현실을 망각한 관념적 미의 세계를 추구하는 소위 싸롱픽츄어파(派)의 그것이고 또 하나는 카메라가 지니고 있는 메카니즘의 속성적인 소박한 사실성을 양기하고 작가의 주체성에 기반을 두어 사회적 현실을 추구하는 리알리즘파의 그것인데 전자의 보수전통파의 예술태도 사고경향에 정면으로 대립하여 그 싸롱적 기반을 근거로부터 전복시켜버릴 만한 혁신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역사상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생활의 현실 안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는 혁신적 리알리즘파의 앞날의 발전에 기대하는 바 자못 큰 것이 있다.

(1954, 8, 10)

[03-085]

서울신문사 주최, 상공부, 대한상공회의소 후원, 《제1회 산업사진전》, 1954년 12월 7일-12월 13일, 미국공보원



팸플릿 표지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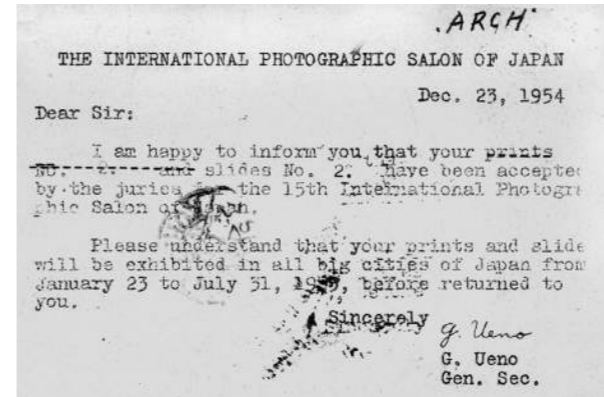
작품목차

1 <삭도(索道)> 조선전업영일발전소(朝鮮電業寧越發電所) 2 <싸이크롱> " 3 <미분(微粉)마-나장치(藏置)> " 4 <터빙실> " 5 <옥외발전소와 전경> " 6 <상동광산 전경> 대한중석광업상동광산(大韓重石鑛業上東鑛山) 7 <작암기(鑿巖機)에 의한 갱내 굴진작업> " 8 <갱내 광석 적재장 부근 광경> " 9 <갱내 광석 운광(運鑛) 작업> " 10 <선광장(選鑛場) 야경> " 11 <콘크리트 파쇄광석인출부(破碎鑛石引出部)> " 12 <콘크리트 급광구(給鑛口)> " 13 <광미재선(鑛尾再選)작업장> " 14 <노무원 사택촌(勞務員 社宅村)> " 15 <삼척홍전갱선탄장(三陟興田坑索道起動所)> " 16 <삼척광암갱선탄장(三陟鑛岩坑選炭場)> " 17 <삼척광암갱선탄장 적입(積)작업 A> " 18 <삼척광암갱선탄장 적입작업 B> " 19 <삼척홍전갱 삭도운반 광경> " 20 <삼척광암저탄조(貯炭槽)와 적입광경> " 21 <카-바이트저장탱크> 북삼화학공사(北三化學公社) 22 <원료원석수장(原料原石受場)> " 23 <카-바이트전로(電爐)> " 24 <석회질소비료 제조투원기(石灰窒素肥料製造投原機)> " 25 <재료 창고> " 26 <울릉도 도동(道洞) 전경> 울릉도 27 <오징어와 낙시> " 28 <밤의 어로선의 진로> " 29 <작업장 스켈취> " 30 <노(老)어부> 울릉도 31 <오징어 건어물(남양동)> " 32 <건어장 스켈취> " 33 <건어장의 오후> " 34 <공장 전경> 삼척시멘트제조공사 35 <석회석산 일부> " 36 <석회석 저장고> " 37 <로-타리 키룬(소성로(燒成爐)) 일부> " 38 <소면 공정(梳棉工程) A.> 조선방직주식회사 부산공장 39 <소면 공정(梳棉工程) B.> " 40 <봉권(棒捲) 작업> " 41 <정방(精紡) 공정> " 42 <직포사상(織布仕上) 광경> "

이상 임석제 촬영

[13-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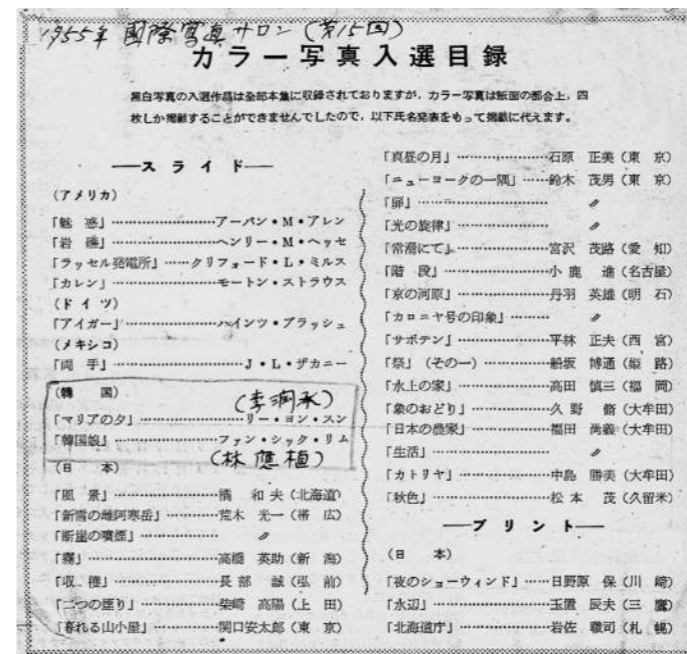
아사히신문사 주최, 《일본국제사진살롱(THE INTERNATIONAL PHOTOGRAPHIC SALON OF JAPAN)》 당선작 통지서, 1954년 12월 23일



[슬라이드 작품 2편이 1954년 《15회 국제살롱》에서 당선되었으며 1955년 1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본 대도시에서 전시될 것임을 통보하는 통지서이다. 내용상 다음 자료를 참고하면 수신자는 '임응식'으로 추정된다.]

[13-014]

「[아사히신문사 주최 《일본국제사진살롱》 컬러사진 입선 목록, 매체명 미상, 1955년



슬라이드-
(한국)
이윤승(李潤承) <마리아의 저녁>
임응식(林應植) <한국 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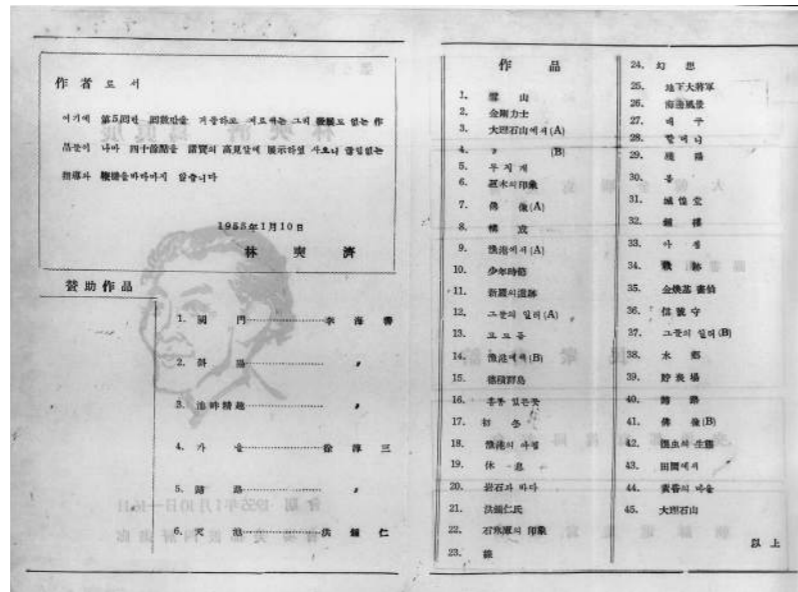
[메모: 1955년 《국제사진살롱》(제15회)]

[03-086]

《제5회 임석제 사진전》, 1955년 1월 10일-1월 16일, 미도파 4층 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참조작품

1. <꺠문> 이해선 2. <사양(斜陽)> ” 3. <지반 정취(池畔精趣)> ” 4. <가을> 서순삼 5. <귀로(歸路)> ” 6. <천지> 홍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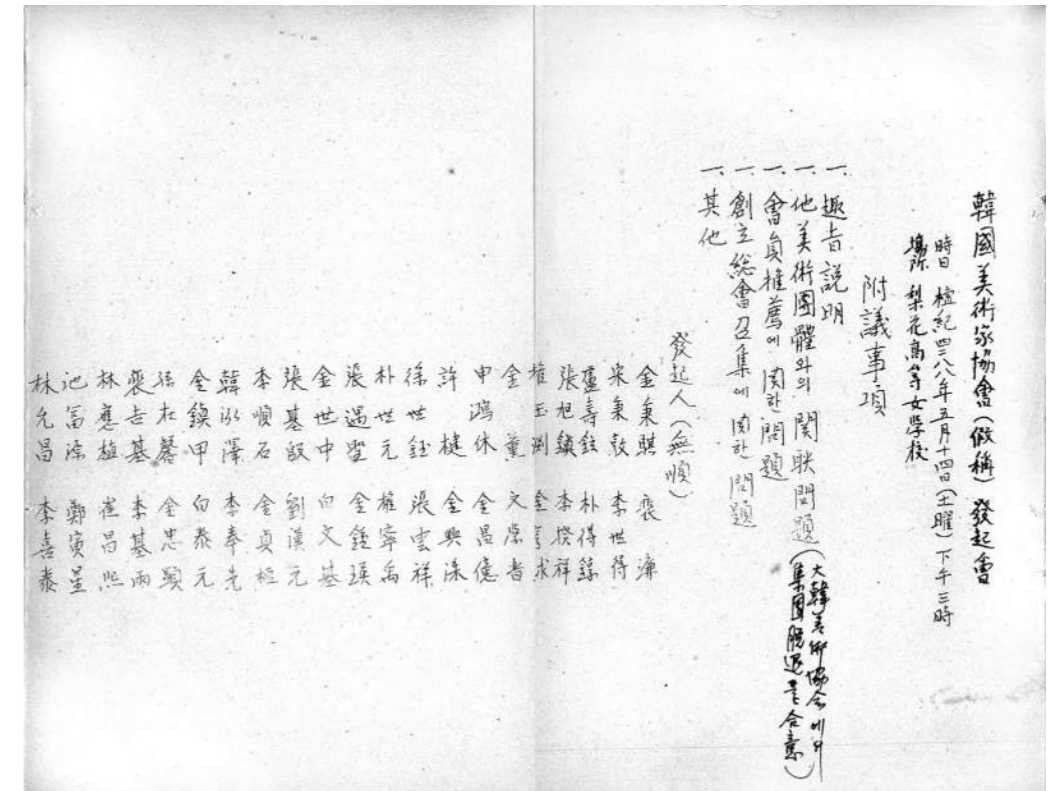
작품

1. <설산(雪山)> 2. <금강역사(金剛力士)> 3. <대리석산(大理石山)에서 (A)> 4. <” (B)> 5. <무지개> 6. <거목의 인상> 7. <불상(A)> 8. <구성> 9. <어항에서(A)> 10. <소년시절> 11. <신라의 유적> 12. <그들의 일터(A)> 13. <고드름> 14. <어항에서(B)> 15. <덕적군도(德積群島)> 16. <흙통 있든 곳> 17. <초동(初冬)> 18. <어항의 아침> 19. <휴식> 20. <암석과 바다> 21. <홍종인 씨> 22. <석빙고의 인상> 23. <선(線)> 24. <환상> 25. <지하대장군> 26. <해변 풍경> 27. <대구> 28. <할머니> 29. <잔양(殘陽)> 30. <봄> 31. <성황당> 32. <중루> 33. <아침> 34. <전적(戰跡)> 35. <김병기 화백> 36. <신호수(信號守)> 37. <그들의 일터(B)> 38. <수향(水鄉)> 39. <저탄장> 40. <귀로> 41. <불상(B)> 42. 혼충(混虫)[곤충(昆蟲)]의 생태 43. <전원에서> 44. <황혼의 마을> 45. <대리석산>

이상

[01-096]

한국미술가협회(가초(假稍)) 발기회, 1955년 5월 14일 하오 3시, 이화고등여학교



부의사항(附議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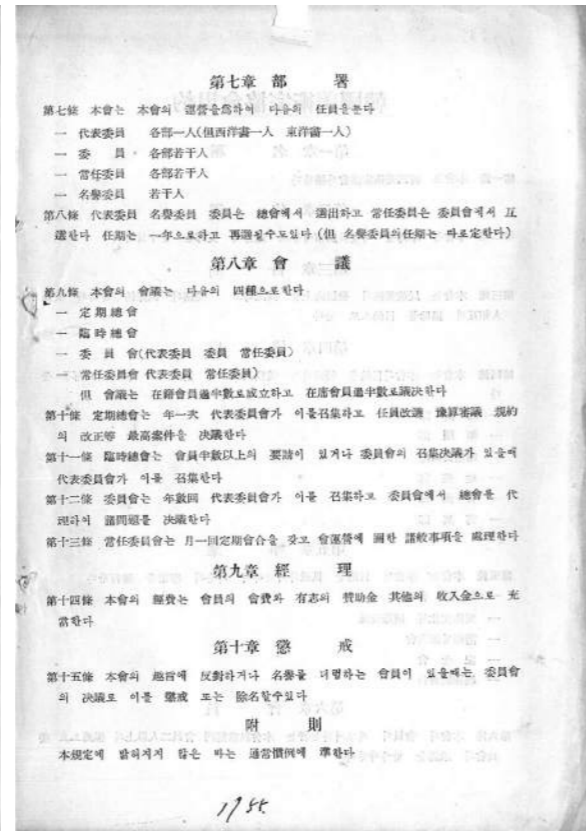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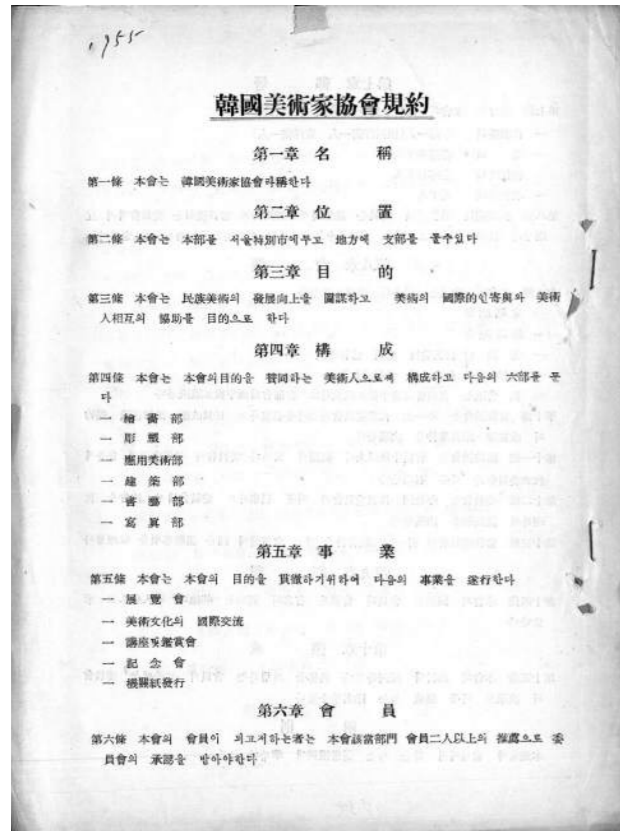
- 一. 취지 설명
- 一. 타 미술단체와의 관계문제
- 一. 회원 추천에 관한 문제
- 一. 창립총회 소집에 관한 문제
- 一. 기타

발기인(무순)

김병기 배 럼 송병돈 이세득 노수현 박득순 장옥진 이규상 최옥연 김형구 김 훈 문학진
 신흥휴 김창억 허 건 김홍수 서세옥 장운상 박세원 최영우 장우성 김종영 김세중 백문기
 장기은 류한원 이순석 김정환 한홍택 이봉선 김진갑 백태원 손재형 김충현 배길기 이기우
 임응식 최창희 지부원 정인성 임윤창 이희태

[01-094]

한국미술가협회, 한국미술가협회 규약, 1955년



제1장 명칭

제1조 본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라 칭한다.

제2장 위치

제2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장 목적

제3조 본회는 민족미술의 발전향상을 도모하고 미술의 국제적인 기여와 미술인 상호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4장 구성

제4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미술인으로써 구성하고 다음의 6부를 둔다.

- 회화부
- 조소부
- 응용미술부
- 건축부
- 서예부
- 사진부

제5장 사업

제5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전람회
- 미술문화의 국제교류
- 강좌 및 감상회
- 기념회
- 기관지 발행

제6장 회원

제6조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해당 부문 회장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서

제7조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대표위원 각 부 1인 (단 서양화 1인, 동양화 1인)
- 위원 각 부 약간인
- 상임위원 각 부 약간인
- 각예위원 약간인

제8조 대표위원 각예위원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될 수도 있다. (단 각예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한다)

제8장 회의

제9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 정기총회
- 임시총회
- 위원회 (대표위원 위원 상임위원)
-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상임위원

단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재석(在席)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조 정기총회는 연 1차 대표위원회가 이를 소집하고 임원개선 예산심의 규약의 개정 등 최고안건을 결의한다.

제11조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대표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제12조 위원회는 연 수(數)회 대표위원회가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에서 총회를 대리하여 제 문제를 결의한다.

제13조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합을 갖고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제9장 경리

제14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유지의 예치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장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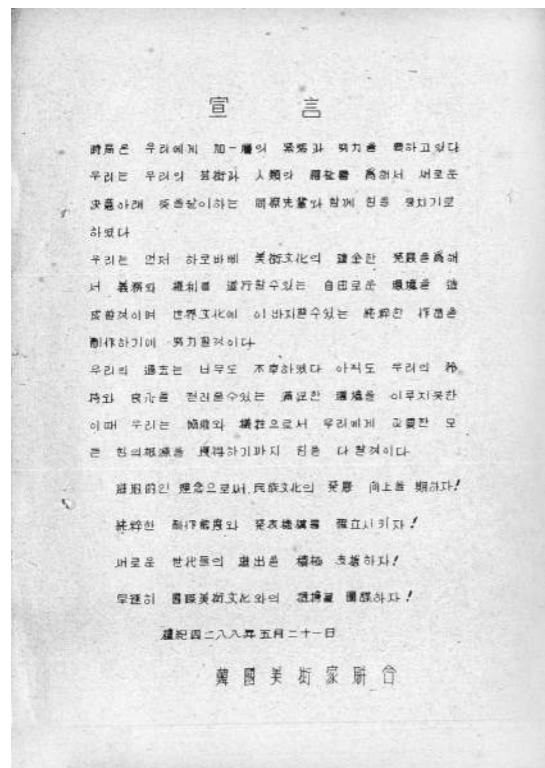
제15조 본회의 취지에 반대하거나 명예를 더럽히는[히는] 회원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에 밝혀지지 않은 바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01-095]

한국미술가연합(韓國美術家聯合), 선언, 1955년 5월 21일



시국은 우리에게 가일층의 긴장과 노력을 요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술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결의 아래 뜻을 같이하는 동료 선배와 함께 힘을 모치기로 하였다.

우리는 먼저 하로 바빠 미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의무와 권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세계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순수한 작품을 제작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너무도 불행하였다. 아직도 우리의 공지와 민심을 길러줄 수 있는 만족한 환경을 이루지 못한 이때 우리는 협조와 희생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의 근원을 획득하기까지 힘을 다할 것이다.

진취적인 이념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 향상을 기하자!

순수한 제작태도와 발표 기구를 확립시키자!

새로운 세대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자!

조속히 국제미술문화와의 제휴를 도모하자!

단기 4288년 5월 21일

한국미술가연합

[13-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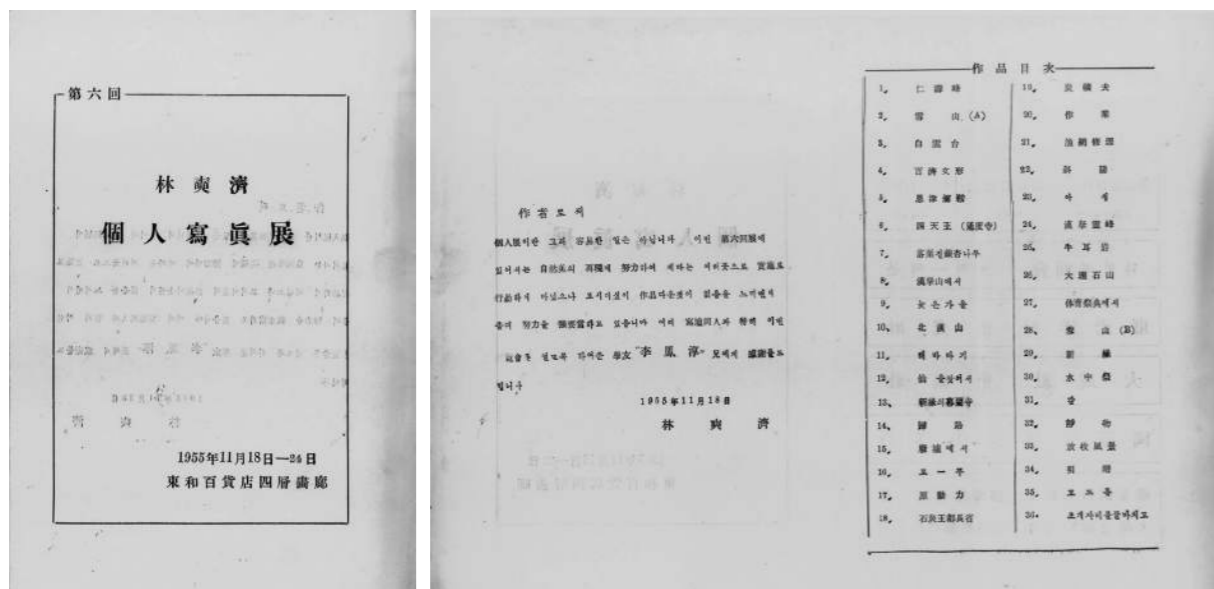
『국제사진살롱』에 한국 사진작가 3 씨 입선, 『국제보도』, 1955년 6월, p.27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도 “올림픽” 경기와 같은 커다란 규모 아래 전 세계를 총망라하여 개최되는 것에 국제사진 “살롱”이라는 것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한국 사진작가가 국제무대에 올른[오른] 것은 1953년 일본 (ARS)사 주최 《국제사진 “살롱”》에 임응식 씨 작 〈병아리〉가 입선된 것을 위시하여 1954년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 《국제 “살롱”》에 정인성 씨 작 천연색 사진 〈농촌의 마을〉 외 1점과 이병삼 씨 작 〈아침〉 김한용 씨 작 〈화염과 흑연〉 합 4점이 입선되었으며 또 《국제 “살롱”》과는 별도로 세계적 사진작가를 총망라하여 출판되는 것으로 『U.S 사진연감』에 임응식 씨 작 〈나목(裸木)〉이 수록되었으며 1955년 판 일본 『아사히신문』 주최 《국제 “살롱”》에는 응모 참가국 32개국, 응(應) 점수 4381점, 총 당선 점수 206점 내에서 천연색 사진에 임응식 씨 작 〈성문(城門)〉 이윤승 씨 작 〈성야(聖夜)〉와 흑백사진으로 나철암 씨 작 〈제단(祭壇)〉 3점이 입선되었다. 이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전쟁과 시달린 우리 한국 사진작가들이 환경의 악조건을 과감히 물리치고 우수한 작품을 국제무대에 보내게 된다는 것은 불안불휴(不眠不休)의 노력과 자라나는 한국 젊은이의 감투 정신(敢鬪精神)의 의한 열(熱)의 결정이었음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눈부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03-087]

《제6회 임석제 개인사진전》, 1955년 11월 18일-11월 24일, 동화백화점 4층 화랑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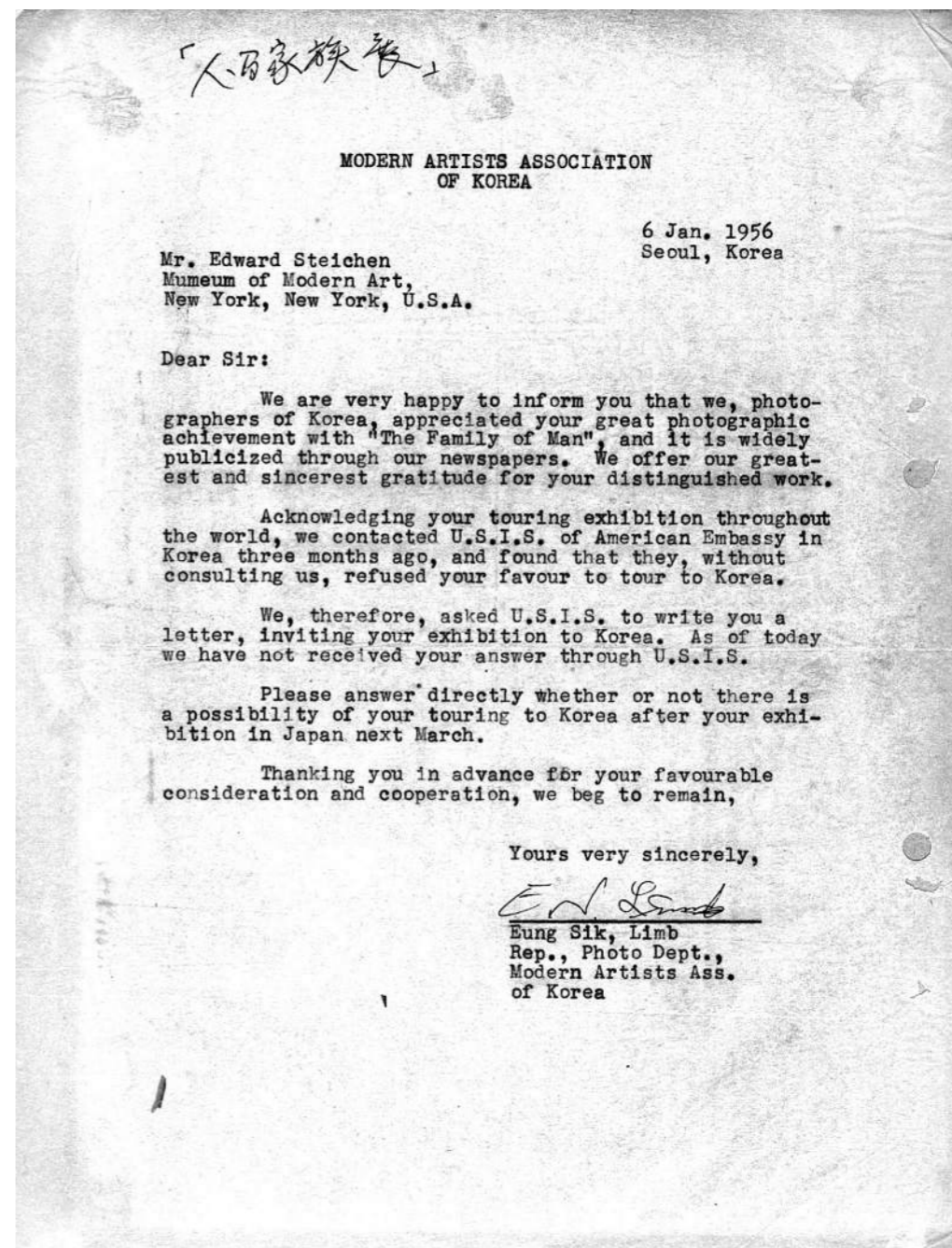
내지

작품목록

1. <인수봉(仁壽峰)> 2. <설산(雪山) (A)> 3. <백운대(白雲台)> 4. <백제문형(百濟文形)> 5. <은진미륵(恩津彌勒)> 6. <사천왕(통도사)> 7. <낙엽 진 은행나무> 8. <한라산에서> 9. <늦은 가을>
10. <북한산> 11. <해바라기> 12. <선(仙)을 찾아서> 13. <신록의 막란사(幕蘭寺)> 14. <귀로>
15. <쾌허에서> 16. <로 푸> 17. <원동력> 18. <석탄왕도장성(石炭王都長省)> 19. <탄광부> 20. <작업>
21. <어망 수리> 22. <사양(斜陽)> 23. <아침> 24. <한라영봉(漢拏靈峰)> 25. <우이암(牛耳岩)>
26. <대리석산> 27. <체육제전에서> 28. <설산 (B)> 29. <신록> 30. <수중제(水中祭)> 31. <감> 32. <정물>
33. <방목(放牧) 풍경> 34. <명암> 35. <고드름> 36. <조개자비를 끝마치고>

[01-103]

한국사진작가협회 《인간가족전》 유치 관련 서신, 1956년 1월 6일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에드워드 스타이켄(Edward Steichen)에게 보낸 서신으로, 《인간가족전(The Family of Man)》의 한국 순회전을 희망하며 협회 측으로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061][?]

구왕삼, 「한국사진작가 푸로필 (1)-임응식 편」,
『대구매일신문』, 1956년 3월 21일



“온후한 작품”

1955년도 『U·S 사진연감』에 <나목>을 발표하여 일약 세계 사진계에 진출한 작가 임응식 씨는 현 한국사단에서 가장 양식(良識) 있는 작가인 동시 사진문화 개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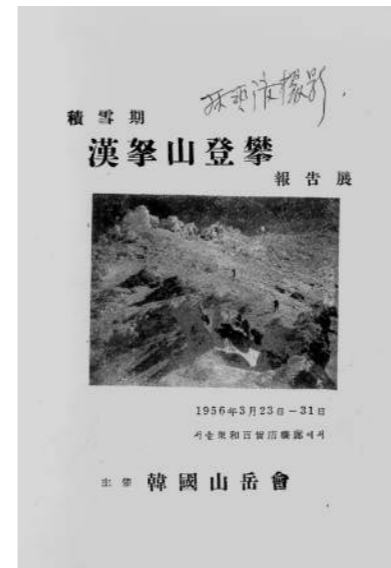
씨(氏)는 처음 화가로서 출발하려고 지망한 일도 있었으나 그 후 생각한 바 있어 사진으로 전환하여 30여 년간 시종일관 이 세계에서 동작(動作)하고 있다. 일제시대는 민족적 양심과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일인들과 아합하지 않고 고고한 사진 수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15 해방과 함께 사단에 출현한 것이다.

씨가 중앙사단에 '테부-'하기는 1947년 11월 서울대원화랑에서 개최된 《예술사진동인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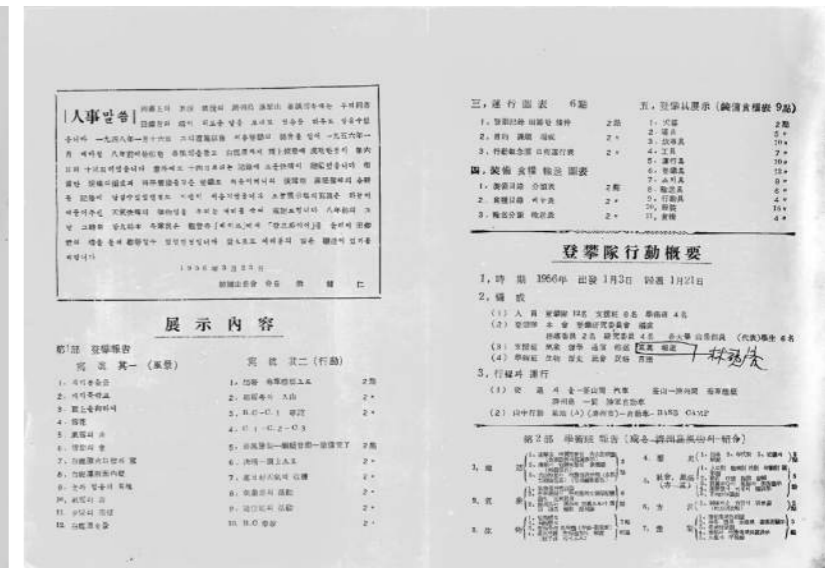
그때 작품은 5점으로 3점이 인물사진이고 2점이 온건한 회화적인 풍경 사진으로 그중에서 일본 소화(昭和) 초기에 유행한 연초점 '렌즈'를 사용한 <아침>이란 작품도 볼 수 있었다. 그만치 이 시대의 씨의 사진에(寫眞藝) 대한 범■■■는 일본적인 화풍 그냥 그대로를 답습한 시대라고 본다. 그 후 줄곧 향토 부산에서 후배양성과 창작활동에 힘써왔으나 본격적으로 사진 운동을 하기는 1·4 후퇴 후 임시수도 부산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조직하면서부터 중앙사단에 그 두각과 역량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성격은 온건 착실하고 예술 각 분야에 대한 교양이 높고 그만치 사진문화에 대한 사회의식을 인식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풍(寫風)은 아직 확립되어 있다고는 하기 어려우나, 낡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씨 역시 지니고 자기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날의 사진들의 대다수는 사진의 조형미를 추구하는 데 소비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인류의 사회생활을 위한 사진제작으로 향방(向方)하고 있다. 임 씨는 현재 서울대학교 이대 사진부에 출강. 당년 47재(才)(구왕삼 기(記))

[03-091]

한국산악회 주최, 《적설기 한라산 등반보고전》,
1956년 3월 23일-3월 31일, 서울동화백화점 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제1부 등반보고

사진기(寫眞其) 1 (풍경)

1. <개미등 전경> 2. <개미목 캄프> 3. <정상을 향하여> 4. <설화(雪花)> 5. <풍설(風雪)의 산>
6. <설수(雪樹)의 숲> 7. <백록담 화구벽의 창> 8. <백록담 남면내벽(南面內壁)> 9. <눈과 얼음의 암괴(巖塊)> 10. <풍설의 산> 11. <석양의 남벽> 12. <백록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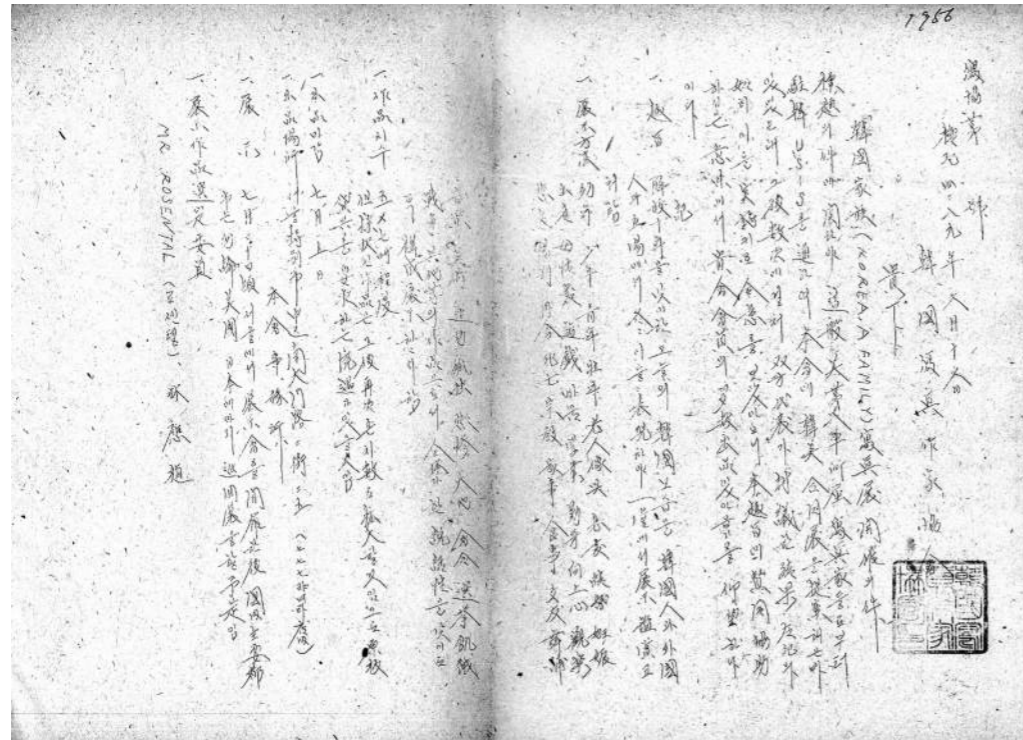
사진기 2 (행동)

1. <출발 해군함정으로> 2점 2. <풍설속의 입산> 2" 3. <B.C-C.I 건설> 2" 4. <C.I-C.2-C.3> 5. <폭풍경보-계속등반-정비완료> 2점 6. <쾌청-정상으로> 2" 7. <연일호천기(連日好天氣)의 수확> 2"
8. <기상반의 활동> 2" 9. <통신반의 활동> 2" 10. <B.C 철수> 2"

[전시내용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진 부문 외 내용은 생략했다. 임응식은 표지에 '임석제 촬영'이라 메모해 놓았고 <등반대 행동개요> 중에서 '사진', '보도' 부분에 '임석제' 라고 메모를 해 놓았다. 이를 보면 사진 촬영은 임석제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01-104]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가족(KOREA, A FAMILY) 사진전》 개최의 건,
1956년 6월 16일



사협 제 ■

단기 4289년 6월 16일

한국사진작가협회

귀하

《한국가족(KOREA, A FAMILY) 사진전》 개최의 건

상제(橡題)의 건에 관하여 저반(這般) 미 제8군 소속 사진가들로부터 주한 USIS를 통하여 본회에 한미 합동전을 제안해온 바 있었는데 그 후 수차에 걸쳐 쌍방대표가 토의한 결과, 우기(右記)와 여(如)히 이를 실시키로 합의를 보았오니 본 취지에 찬동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귀회 회원의 다수 출품있기를 앙망하나이다.

기(記)

1. 취지

해방 십 년을 맞이한 오늘의 한국 모습을 한국인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각각 이를 표현하여 일당(一堂)에서 전시, 감상코저 함

1. 전시 방법

유년 소년 청년 장년 노인상 ■ 연애 결혼 임신 출산 모성에 유희 싸움 학업 근로 향상심 관찰 비탄 석별 재회 사망 종교 가사 식사 교우 무용 음악 미술 운동 고독 비참 대심(大心) 회합 선거 기타 전쟁 기타 등의 작품으로서 전체가 한 설화성을 갖이도록 구성 전시하고자함

1. 작품 치수

5×7 촌(吋) 정도

단, 채택된 작품은 그 후 재차 큰 치수로 확대할 것임으로 원판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임

1. 작품 마감

7월 5일

1. 출품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25 (777 카메라점 내) 본회 사무소

1. 전시

7월 10일경(頃)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후 국내 주요 도시는 물론 미국 일본에까지 순회전을 할 예정임

1. 전시작품 선정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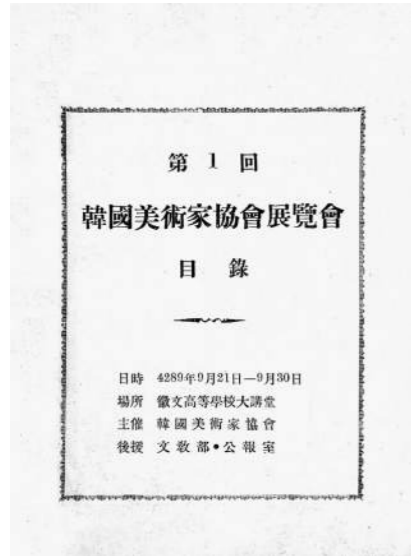
MR. ROSENAL(로젠텔), 임응식

[02-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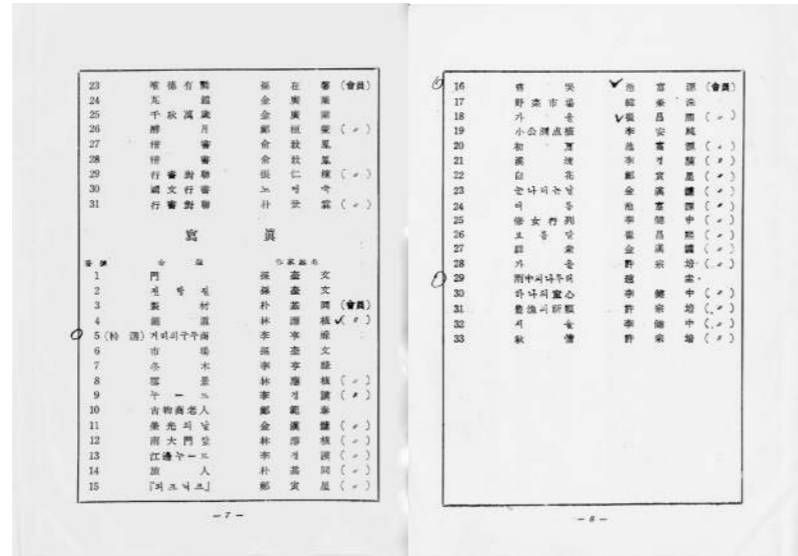
한국미술가협회 주최, 문교부·공보실 후원, 《제1회 한국미술가협회 전람회》 목록,
1956년 9월 21일-9월 30일, 휘문고등학교 대강당

[02-027]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울미국공보원 주최, 《한미합동 “한국가족,, 사진전》,
1956년 12월 17일-12월 22일, 미국공보원 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부분 p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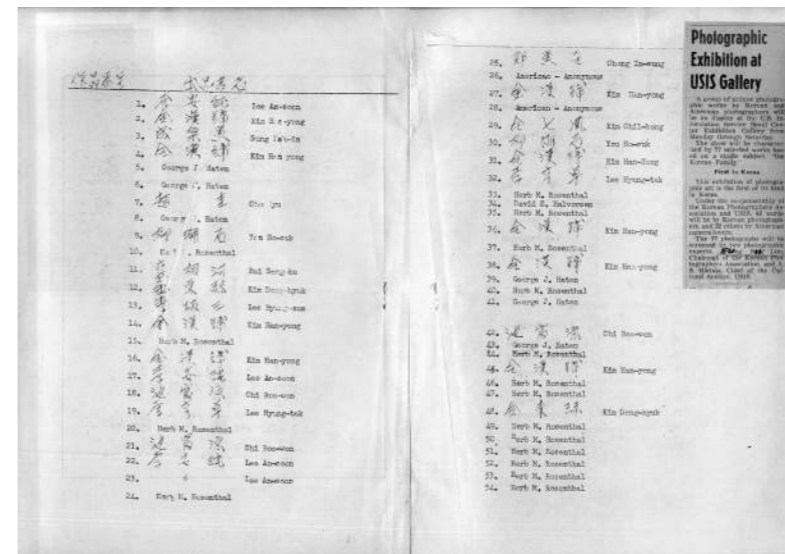
사진[pp.7-8]

손규문 박기동(회원) 임응식(〃) 이형록 이경모(〃) 정범태 김한용(〃) 정인성(〃) 지부원(〃)
한영수 최창희(〃) 이안순 이건중(〃) 허중배(〃) 조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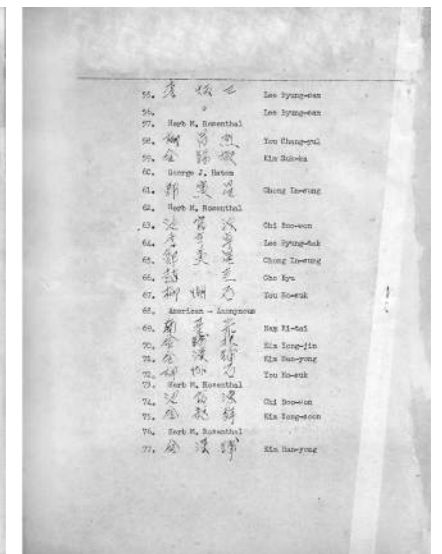
[서양화, 동양화, 응용미술, 조각, 건축, 서예 부문 생략]



팸플릿 표지



내지



뒷면

편성

임응식, A.S.Hietala

[참여작가]

이안순 김한용 성낙인 조 규 유효석 배상하 김동혁 이병삼 지부원 이형탁 정인성 김철봉
유창렬 김석가 남기태 김용진 김용순

George J. Hatem Herb M. Rosenthal American-Anonymous David E. Halvorsen

[02-029][?]

「Photographic Exhibition at USIS Gallery」, 매체명 미상, 1956년 12월



A group of unique photographic works by Korean and American photographers will be on display at the U.S. Information Service Seoul Center Exhibition Gallery from Monday through Saturday.

The show will be characterized by 77 selected works based on a single subject, "the Korean Family"

First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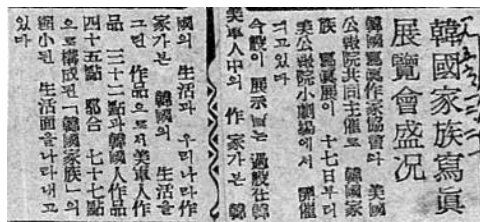
This exhibition of photographic art i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

Under the co-sponsorship of the Korean Photographers Association and USIS, 45 works will be by Korean photographers, and 32 others by American camera-lovers.

The 77 photographs will be screened by two photographic experts, Eung Sik Lim, Chairman of the Korean Photographers Association, and A. S. Hietala, Chief of the Cultural Section, USIS.

[02-028][?]

「《한국가족 사진전람회》 성황」, 매체명 미상, 1956년 12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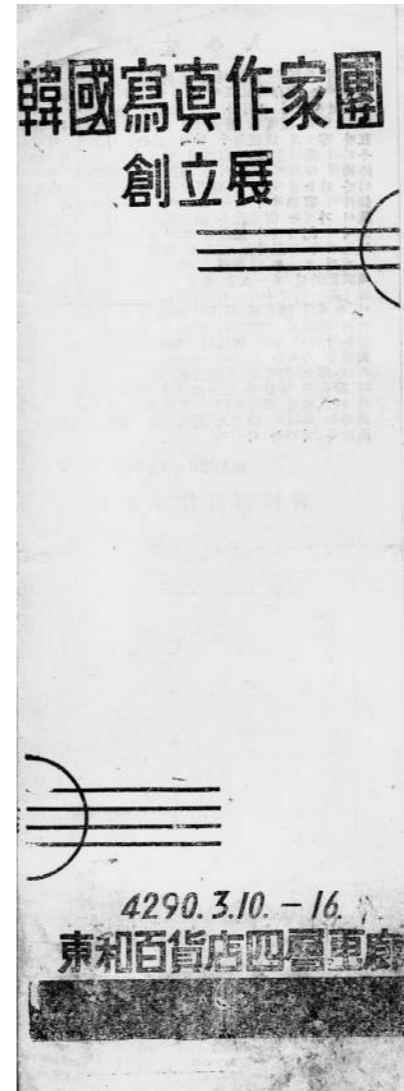


한국사진작가협회와 미국공보원 공동주최로 《한국가족 사진전》이 17일부터 미공보원 소극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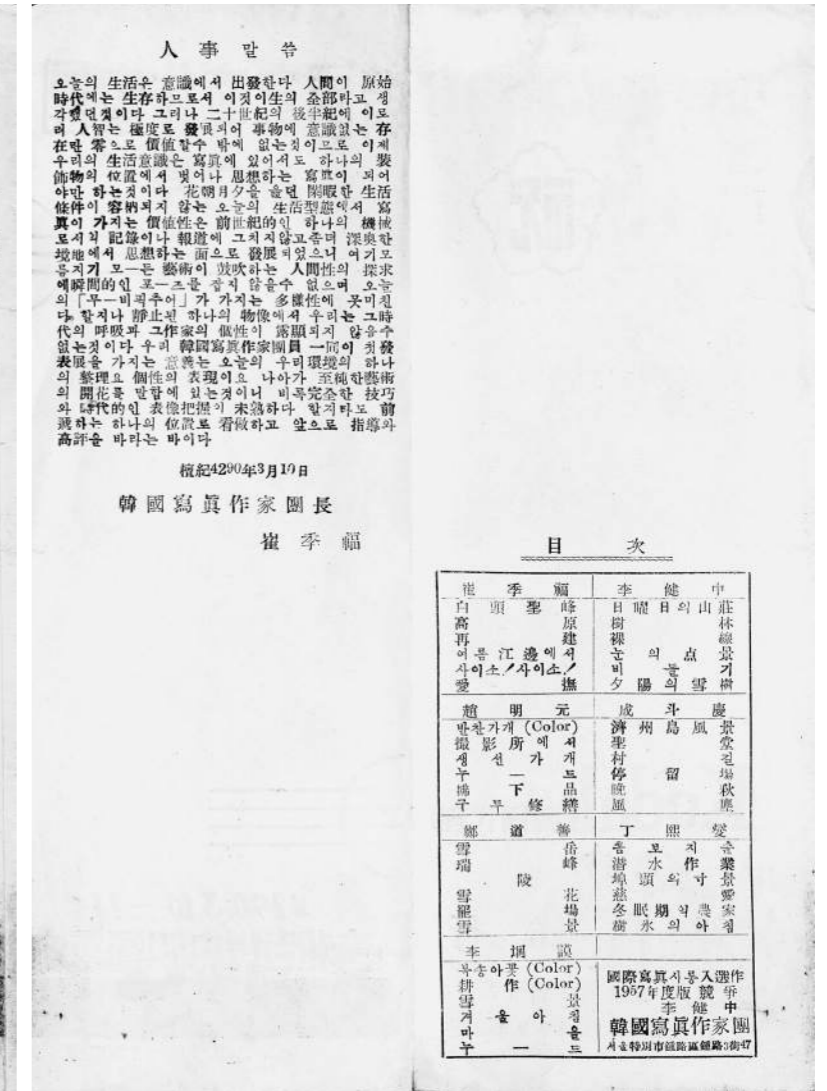
금번 이 전시회는 과반 재한 미군인 중의 작가가 본 한국의 생활과 우리나라 작가가 본 한국의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서 미군인 작품 32점과 한국인 작품 45점 종합 77점으로 구성된 '한국가족'의 축소된 생활면을 나타내고 있다.

[03-006]

《한국사진작가단(韓國寫眞作家團) 창립전》, 1957년 3월 10일-3월 16일, 동화백화점 4층 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인사말씀

오늘의 생활은 의식에서 출발한다. 인간이 원시시대에는 생존하느라 이것저것 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의 후반기에 이르러 인지(人智)는 극도로 발전되어 사물에 의식 없는 존재란 영(零)으로 가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의 생활의식은 사진에 있어서도 하나의 장식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사상하는 사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화조월석(花朝月夕)을 읊던 한가한 생활조건이 용납되지 않는 오늘의 생활 형태에서 사진이 가지는 가치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기계로서의 기록이나 보도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심오한 경지에서 사상하는 면으로 발전되었으니 여기 모름지기 모든 예술이 고취하는 인간성의 탐구에 순간적인 포즈를 잡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의 '무-비픽추어'가 가지는 다양성에 못 미친다 할지나 정지된 하나의 물상(物象)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호흡과 그 작가의 개성이 노현(露顯)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사진작가단원 일동이 첫 발표전을 가지는 의미는 오늘의 우리 환경의 하나의 정리요 개성의 표현이요 나아가 지순(至純)한 예술의 개화를 말함에 있는 것이니 비록 완전한 기교와 시대적인 표상 파악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전체(前遞)하는 하나의 위치로 간주하고 앞으로 지도와 고평을 바라는 바이다.

단기 4290년 3월 10일

한국사진작가단장

최계복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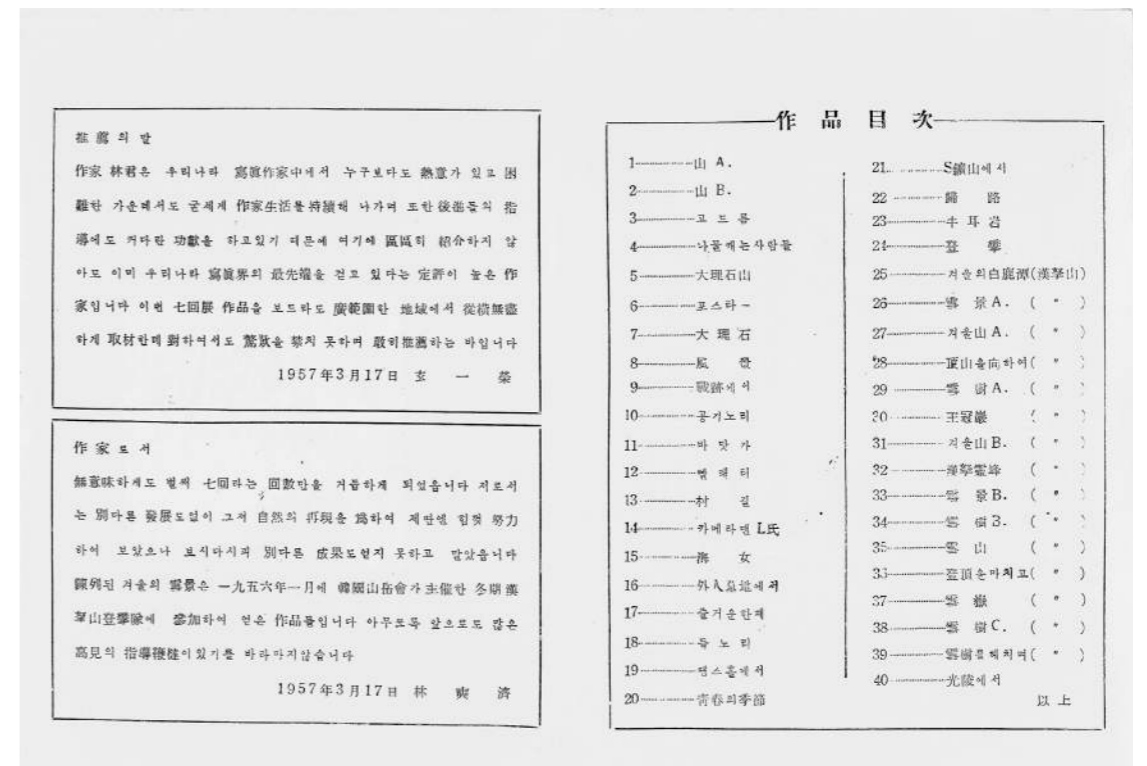
- 최계복 <백두성봉>, <고원>, <재건>, <여름 강변에서>, <사이소! 사이소!>, <애무>
- 이건중 <일요일의 산장>, <수림(樹林)>, <나선(裸線)>, <눈의 점경>, <비둘기>, <석양의 설수(雪樹)>
- 조명원 <만찬가개>(Color), <촬영소에서>, <생선가개>, <누드>, <불하품(拂下品)>, <구두수선>
- 성두경 <제주도 풍경>, <성당>, <촌길>, <정류장>, <만추>, <풍진(風塵)>
- 정도선 <설악>, <서봉(瑞峰)>, <룽>, <설화(雪花)>, <과장(罷場)>, <설경>
- 정희섭 <콤보지순>, <잠수작업>, <부두의 촌경>, <자애>, <동면기의 농가>, <수빙(樹氷)의 아침>
- 이경모 <복숭아꽃>(Color), <경작>(Color), <설경>, <겨울 아침>, <마을>, <누드>

[03-088]

《제7회 임석제 개인사진전》, 1957년 3월 17일-3월 24일, 동화백화점 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추천의 말

작가 임 군은 우리나라 사진작가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의가 있고 곤란한 가운데서도 굳세게 작가 생활을 지속해 나가며 또한 후진들의 지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구히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나라 사진계의 최선단(最先端)을 걷고 있다는 정평이 높은 작가입니다. 이번 7회전 작품을 보더라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횡무진하게 취재한데 대하여서도 경탄을 금치 못하며 감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1957년 3월 17일 현일영

작가로서

무의미하게도 벌써 7회라는 횟수만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별다른 발전도 없이 그저 자연의 재현을 위하여 제 탄엔 힘껏 노력하여 보았으나 보시다시피 별다른 성과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진열된 겨울의 설경은 1956년 1월에 한국산악회가 주최한 동기 한라산등반대에 참가하여 얻은 작품들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고견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57년 3월 17일 임석제

작품목록

1. <산 A.> 2. <산 B.> 3. <고드름> 4. <나물 캐는 사람들> 5. <대리석산> 6. <포스타-> 7. <대리석>
8. <풍경> 9. <전적(戰跡)에서> 10. <공기노리> 11. <바닷가> 12. <빨래터> 13. <촌 길> 14. <카메라맨 L씨>
15. <해녀> 16. <외인묘지(外人墓地)에서> 17. <즐거운 한때> 18. <들노리> 19. <맨스홀에서>
20. <청춘의 계절> 21. <S 광산에서> 22. <귀로> 23. <우이암(牛耳岩)> 24. <등반> 25. <겨울의 백록담(한라산)>
26. <설경 A.(〃)> 27. <겨울산 A.(〃)> 28. <정산(頂山)을 향하여(〃)> 29. <설수(雪樹) A.(〃)>
30. <왕관암(王冠巖)(〃)> 31. <겨울산 B.(〃)> 32. <한라영봉(〃)> 33. <설경 B.(〃)>
34. <설수 B.(〃)> 35. <설산(〃)> 36. <등정을 마치고(〃)> 37. <설악(〃)> 38. <설수 C.(〃)>
39. <설수를 헤치며(〃)> 40. <광릉(光陵)에서>

이상

[13-078]

『《인간가족전》, 어제부터 개막, 『한국일보』, 1957년 4월 4일



이 대통령과 '다우링' 주한 미 대사는 3일 상오 11시 경복궁국립미술관에 마련된 《인간가족전》 개막식 '테프'를 끊었다.

개막식에 이어 초청받은 정부 관리 및 군사지도자들은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였다. '뉴욕' 시의 근대예술관에 있는 '에드워드·스타이켄' 씨에 의하여 창안된 이 전시 작품들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감정과 기타 상세한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 작품은 68개국에서 수집된 이백만 점 이상의 작품 중에서 엄선된 것들이다.

한편 문교부 내무부 한국사진작가협회 그리고 미국공보원 후원 하에 개최되는 동 전시회는 28일 까지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사이에 일반에게 공개될 것이다.

[13-077]

임응식, 「평화와 애정의 서사시, 세기적 대사진전 《패밀리·어브·맨》」,
『이대학보』, 1957년 4월 24일



경복궁미술관에서 《인간가족(THE FAMILY OF MAN)》이라는 사진전이 지난 4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개최되어 우리나라 미술계 초유의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원래 미국 뉴유욕근대미술관 개관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중의 하나로서 전 세계 68개국에서 모여든 사진작품 2백만 점 중에서 273명의 작가의 작품 503점을 선출하여 인간생의 존엄을 기조로 평화와 애정을 주제로 한 사진의 일대 서사시이다.

이 전람회를 기획 구성한 사람은 미국 사진계의 원로자이며 동 미술관 사진부장으로 있는 '에드워드·스타잇헨'(EDWARD STAICHEN) 씨인데 구상 후 약 5개년을 요(要)하여 성사를 이루어왔던 것이다.

1955년 초두에 '뉴욕'에서 초(初) 공개를 하여 일대 '센세이션'을 이르고 그 후 미국 주요 도시는 물론 구라과 각국의 대도시를 순회하여 절대적인 환영을 받은바 있었던 것이나 우리나라는 그 순회 예정에 본시 들어있지 않았던 것을 1년 유반(有半)에 긍(巨)한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유치운동이 주효(奏效)하여 성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 전람회에 진열된 503점의 작품은 약 40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각 부분에는 '드로시·늘먼' 여사가 성전과 고전문학에서 추려낸 시문이 '켄숀'(주제해설)으로 붙어있어서 사진 내용에 상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각기 작품에는 그 성질상 제명(題名)을 붙이지 않고 있다.

× ×

우선 전시장에 드러서면 '오리온' 성좌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어 우주 창생이 있고 그 위에 인간이 나타나며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것과는 같이 숲 속에 누어 있는 어린이 사진을 '푸로로-그'로 하여 연애 결혼 임신 출생 성장 유희 오락 학습 음악 시련 가족 대지 근로 식사 무용 교우 석별 고독 비탄 증오 반항 기아 전쟁 죽음 선거 정치 원폭 국련(國聯) 종교 희망 등의 각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군데군데에는 피리를 부는 목동의 사진(유진·할리스 작)이 운명의 풍자자와도 같이 《인간가족》의 '테-마' 사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 '테-마' 사진에 대해서 '스타잇헨' 씨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기는 하나 즐거움에 넘치는 눈동자로서 피리를 불고 있는 이 소년은 모든 가난하고도 슬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 무엇을 느끼게 하며 가냘프나마 한줄기 삶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고 감상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람회를 감상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개별적으로 감상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주제를 살리기 위한 한 요소에 불과하니만큼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의미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사진은 잘 뾰다는 등 저 사진은 신통치 않다는 등의 말은 이미 이 전람회를 올바르게 감상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다. 개개의 작품은 교향곡에 있어서의 '리듬'의 조성과도 같으니 감상자는 지휘자의 입장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해석 감상한다면 과거의 어떠한 전람회에서보다 못지 않는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전시방법의 새로움과 표현형식의 특이한 점인데 전시방법은 물론 우리들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고 표현형식도 앞으로 많은 지지자가 있을 것으로 믿으나 우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각자 다른 목적하에 제작된 작품을 이와 같이 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대 서사시적이고 문예악적(文藝樂的)인 구상과 구성 아래 이루어짐에는 큰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하튼 이 전람회야말로 사진예술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언어성을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서 금자탑적인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참고삼아 부기해 두고자 하는 것은 사진의 '사이즈'(크기) 미국에서 공개된 것보담 대다수의 작품이 약 4분 1 정도로 축소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국내에 와서 변조된 점은 503점 중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재한 사진이 두 점 제거되었고 그 대신 한국 작가의 작품 한 점이 대체 삽입됐다는 것과 회장 면적 관계로 진열순서가 전후 되어서 감상에 약간의 불편을 느끼게 한 점 등인데 특히 주최자로 하여금 부득이 원작을 일부 변조하지 않해서는 안되겠금한 문교 당국의 처사에는 동 전람회 초치자(招致者)의 한사람인 필자로서는 원작자인 '스타잇헨' 씨에 대하여 미안한 감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며 이것이 앞날의 국제문화교류상 커다란 지장이 나 초래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바이다. 더욱이 《인간가족전》은 미국공보원의 주최로서 문교부, 내무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공동 후원 아래 열린 것이다.

(필자는 미술과 강사)

[03-007]

한국사진작가단 주최, 문교부, 교통부, 공보실 후원, 《고적·명승 사진전》,
1957년 8월 1일-8월 10일, 공보실 공보관

古蹟·名勝
寫眞展

(서울 北倉洞)
期日. 4990. 8. 1. ~ 10.
主 催 韓 國 寫 眞 作 家 團
後 援 文 教 部
交 通 部
公 報 室

팸플릿 표지

人事 말 씀

「古蹟과名勝」展을 열면서 우리는 새로운 理念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創設해야 함은 當然한 것이다 새로운이 만 연재나 낡은것이 있으므로써 그것이 假假하는바가 있는데 낡은 것은 假條淨 다 버려야 하느냐 하면 그럴것도 아니니 우리가 버려서 압되고 잊어서 압된것이 우리의 古典文化이다 우리古典의 玄玄奇妙 함은 이미 世界各國에서 認定 된 바로 여기 區區한 眺望을 略하거나와 우리 古典의 偉大의와 美滿이 名勝地의 絶景을 單작하여 모아 優雅한 傳統의美와 秀麗한 江山의 姿態를 記錄 하였으니 많은 莊嚴을 仰願하는 바입니다

曆紀四二九〇年八月一日
韓 國 寫 眞 作 家 團
團 長 崔 季 福

作品目次 年齡順

崔 季 福	1 威 嚴 慶州 武烈王 碑石	李 健 中	1 圓覺寺跡의 아케 (서 울)
2 香 爐 德壽宮 石造殿	2 烽火臺의 불 (水 原)	2 烽火臺의 불 (水 原)	
3 湧 泉 水 慶南 海印寺	3 神 勳 寺 의 塔 (麗 州)	3 神 勳 寺 의 塔 (麗 州)	
4 塔 塔 龕 公 園	4 古 宮 의 平 屋 (秘 苑)	4 古 宮 의 平 屋 (秘 苑)	
5 峯 巒 咸 北 三 池 洞	5 大 川 水 泳 場 (大 川)	5 大 川 水 泳 場 (大 川)	
6 雜 山 展 望 慶 陵 島	6 龍 珠 寺 의 印 象 (水 原)	6 龍 珠 寺 의 印 象 (水 原)	
		趙 明 元	1 作 品 (1)
		2 " " (2)	2 " " (2)
		3 " " (3)	3 " " (3)
		成 斗 慶	1 吐 舍 山 展 望 (慶州國立公園)
		2 芬 皇 寺 의 佛 牙 (慶 州)	2 芬 皇 寺 의 佛 牙 (慶 州)
		3 景 德 樓 의 鐘 樓 (慶州博物館)	3 景 德 樓 의 鐘 樓 (慶州博物館)
		4 烽 火 臺 (水 原)	4 烽 火 臺 (水 原)
		5 어 물 의 漢 江 (서 울)	5 어 물 의 漢 江 (서 울)
		6 겨 울 의 漢 江 (서 울)	6 겨 울 의 漢 江 (서 울)
		丁 熙 堯	1 여 류 의 訪 花 隨 柳 亭 (水 原)
		2 多 寶 島 의 岩 壁 (大 川)	2 多 寶 島 의 岩 壁 (大 川)
		3 遊 慶 臺 古 城 (水 原)	3 遊 慶 臺 古 城 (水 原)
		4 衰 史 의 無 影 塔 (慶 州)	4 衰 史 의 無 影 塔 (慶 州)
		5 烽 火 臺 의 古 夢 (水 原)	5 烽 火 臺 의 古 夢 (水 原)
		6 百 濟 塔 의 아 峯 (扶 餘)	6 百 濟 塔 의 아 峯 (扶 餘)
		鄭 道 善	1 서 라 별 (경 州)
		2 華 城 (水 原)	2 華 城 (水 原)
		3 正 房 濕 布 (濟州道西歸浦)	3 正 房 濕 布 (濟州道西歸浦)
		4 石 柱 (德 壽 宮)	4 石 柱 (德 壽 宮)
		5 漢 拏 山 堂 (濟 州 道)	5 漢 拏 山 堂 (濟 州 道)
		6 長 壽 塔 (堤 川)	6 長 壽 塔 (堤 川)
		李 炯 謨	1 德 壽 宮 (COLOUR)
		2 昌 慶 苑 의 景 (")	2 昌 慶 苑 의 景 (")
		3 昌 德 宮 (")	3 昌 德 宮 (")
		4 昌 德 宮 秘 苑 (")	4 昌 德 宮 秘 苑 (")

내지

[13-084]

「천연색현상 사진 심사, 30일부터 공보실서 공개리에」,
『한국일보』, 1957년 8월 25일

天然色懸賞寫眞審査 한국

美國「엔스코」會社의 韓國 代理店인 美寶洋行에서는 文 品數는 東京에서의 五點을 台 教部公報室 提議覺教育會 하에 總三百點에 達하였으므로 日本社의 共同後援을 이우 로 오는 三十日 公報室公報室 社에서 一般公開展에 林應植李 眞應賞 集을 實施한바있었 는데 作品接受 마감日인 지 品審査를 할 것이라 한다

1957. 8. 25 30日부터 公報室서 公開展에

미국 '엔스코' 회사의 한국 대리점인 미보양행에서는 문교부 공보실 시청각교육협회 및 본사의 공동후원을 얻어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천연색 [사]진 현상모집을 실시한 바 있었는데 작품접수 마감 기일인 지난 7월 30일까지 출품된 작품 수는 동경에서의 5점을 합하여 총 3백 점에 달하였으므로 오는 30일 공보실 공보관에서 일반 공개리에 임응식, 이만수, 김승옥 3씨에 의하여 작품심사를 할 것이라 한다.

[13-081]

「사협 임원 개선, 회장에 임응식 씨」, 매체명 미상, 1957년 10월 27일

寫協任員改選

會長에 林應植氏

副會長에 趙明元 崔昌熙

總務에 金元榮 田根 李 炳三

企劃에 尹應烈 李安勳 南 財發

財務에 金漢鎔 孫奎文

監査에 金漢鎔 孫奎文

韓國寫眞作家協會에서는 지난 27日 午後十時 서울市內 文藝會館에서 第六回 市內文藝會館에서 第六回 定例總會를 開議하였는데 今般改選任員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시내 문충회관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금번 개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임응식 ▲ 부회장=지부원, 최창희, 정인성, 김원영 ▲ 총무=이형록, 조규, 이병삼 ▲ 기획=윤응열, 이안순, 남상준 ▲ 재무=김한용, 손규문, 한영수

[13-083]

『《인간가족전》 방불, 《사진작가협회전》 성황』, 『한국일보』, 1957년 11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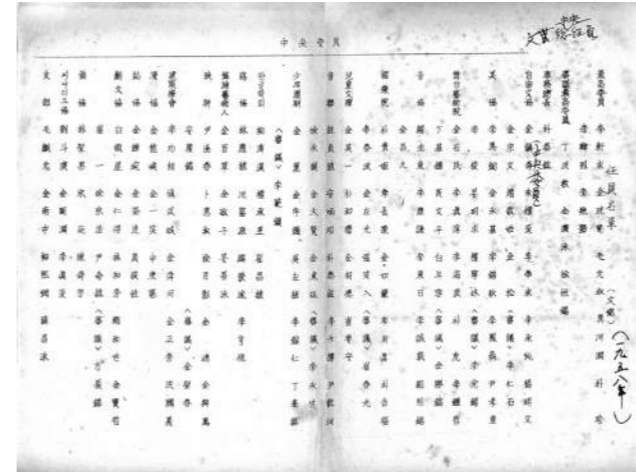
《사협전》으로 불리우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의 사진작품전시회가 4일부터 15일까지 공보실 공보관에서 열리고 있다. 회원작품 107점과 일반 공모 100여 점 중에서 입선한 작품 35점 모두 합해서 136점을 전시하고 있는 이 '사진전'은 《인간가족전》을 그대로 방불시키는 인간 중심의 사진전이다.

“지금까지의 서정적인 면에서의 자연 관조적인 창조의 세계에서 탈피하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살아서 약동하는 인간을 탐구하여 표현한 작품들이 여기 있다”는 동 협회장 임응식 씨 담(談)처럼 전부가 다양각색의 인간의 단면을 포착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 작품 중의 인간은 거개가 한국의 인간들이어서 민족적인 체취와 함께 강한 감명으로 육박하는 듯도 하다.

일반 공개에 앞선 4일 하오의 전시에는 문화계 인사 다수와 오(鳴) 공보실장 및 많은 외국 손님이 관람하고도 있었는데 이 《사협전》은 한국의 사진예술의 하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듯도 하였다. 한편 동 전시장 주변 복도에는 미국사진협회가 1956년에 37개국으로부터의 재미유학생으로부터 모집한 《나의 미국 인상》이라는 74점의 사진작품도 함께 전시되고 있어 이채로웠다.

[0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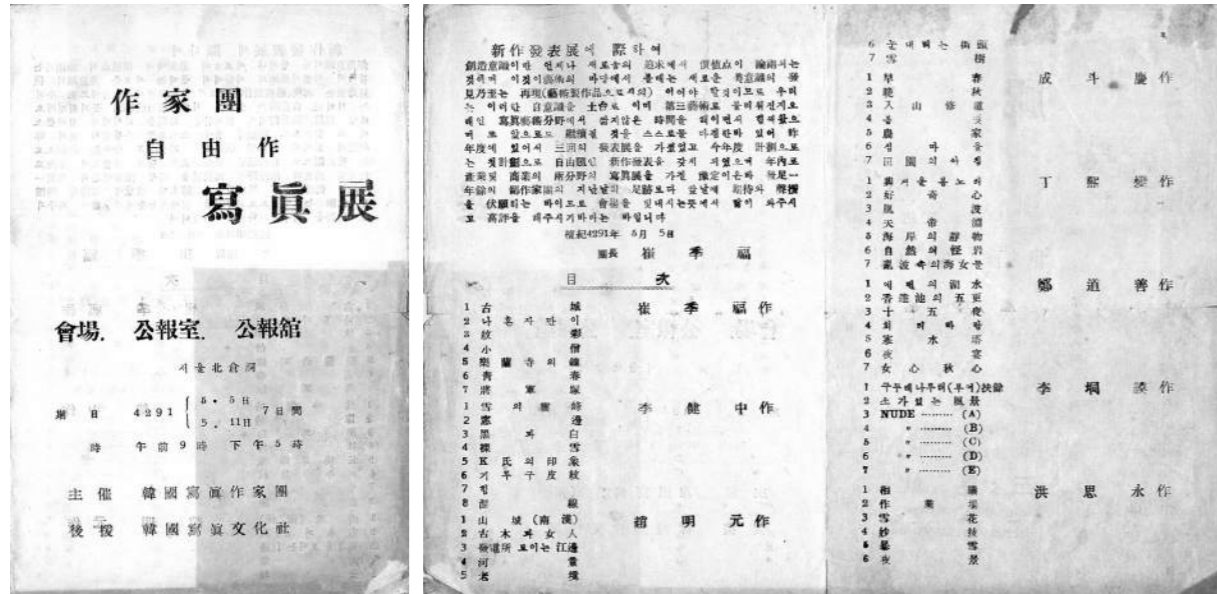
중앙위원 임원명부 (문충), 1958년



- | | |
|------------|---------------------------------------------|
| 최고위원 | 이헌구 김광섭 모윤숙 이하운 박 진 이흥열 이무영 |
| 심의최고위원 | 정홍고 김연수 서항석 |
| 사무총장 | 박태현 |
| 자유문협 | 김진수 주요변 이봉래 이영순 양명문 김종문 조경희 김 송 <심의(審議)>이인석 |
| 미협 | 이마동 김영기 이금추 이봉상 윤효중 이 준 강명구 권영휴 <심의>이완석 |
| 무대예술인 | 김석민 이진순 이해랑 박 호 이종철 변기중 황문평 백연설 <심의>김승호 |
| 음협 | 한규동 이강겸 이동일 이성재 정희석 김창구 |
| 국악원 | 박귀회 이장영 김여란 이유진 박길복 이춘과 김재선 장실입 <심의>최춘광 |
| 아동문학 | 김영일 박화목 김상덕 최요안 |
| 음연(音聯) | 계정식 안병소 박태현 이승학 윤용하 서영모 김대현 김동진 <심의>이영세 |
| 소년운연(少年運聯) | 김 훈 김학중 오재식 이용인 정규혁 <심의>이범진 |
| 한글학회 | 류제한 권승욱 최창식 |
| 사협 | 임응식 지부원 한영수 이형록 |
| 무용예술인 | 김백초 김민자 강선영 |
| 영연(映聯) | 윤봉춘 복혜숙 서월영 김 홍 김홍만 안경호 <심의>김성춘 |
| 건축학회 | 이균상 신무성 김무하 김정수 홍봉의 |
| 만협(漫協) | 김용환 김일소 신동헌 |
| 지협(誌協) | 김중완 김익달 황준성 |
| 극문협(劇文協) | 백순성 김인득 임희수 정화세 김보철 최 일 서종호 윤명혁 <심의>방의석 |
| 무협(舞協) | 임성남 송 원 진수방 |
| 씨나리오협 | 류두연 김강윤 이진변 |
| 지부(支部) | 모기운 김남중 유희망 설창수 |

[03-017]

한국사진작가단 주최, 한국사진문화사 후원, 《작가단 자유작 사진전》, 1958년 5월 5일-5월 11일, 공보실 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신작발표전》에 제(際)하여

창조의식이란 언제나 새로움의 추구에서 가치점이 논위되는 것이며 이것이 예술의 마당에서 볼 때는 새로운 미의식의 발견 내지는 재현(예술재 작품으로서의) 이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의식을 토대로 이미 제3예술로 불리워진지 오래인 사진예술 분야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헤이면서 힘써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스스로들 다짐한 바 있어 작년도에 있어서 3회의 발표전을 가졌었고 금년도 기획으로는 첫 기획으로 자유제(題)인 신작발표(展)를 갖게 되었으며 연내로 산업 및 상업의 양 분야의 사진전을 가질 예정 이온바 발족 1년여의 비작가단(副作家團)의 지난날의 족적보다 앞날에 기대와 성원을 복원(伏願)하는 바이므로 회장을 빛내시는 뜻에서 많이 와주시고 고풍을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1년 5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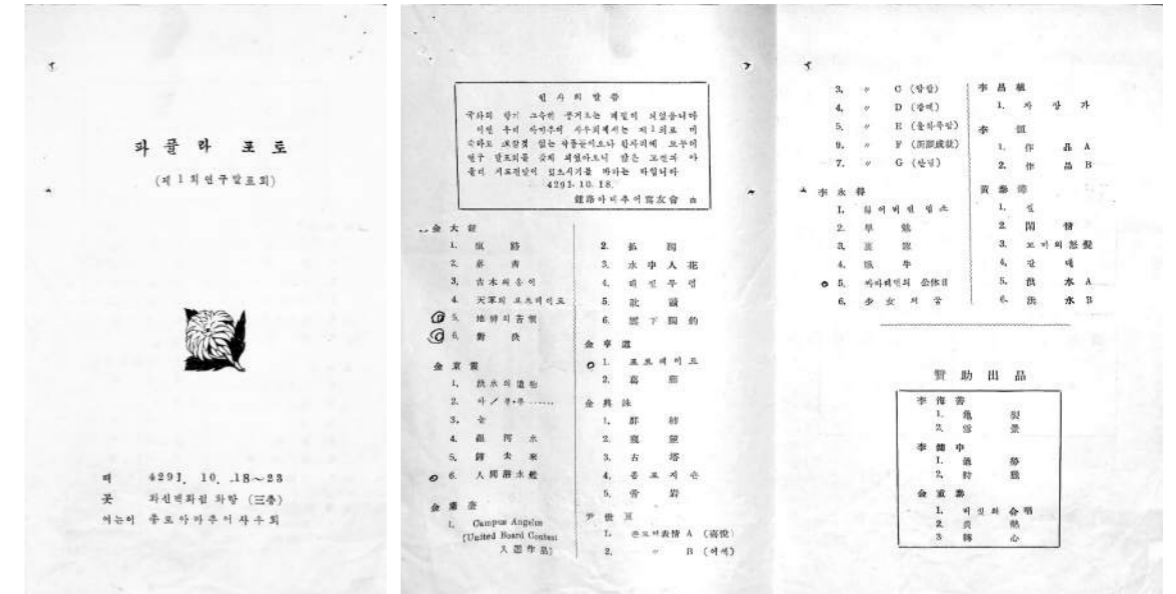
단장 최계복

[참여작가]

최계복 이진중 조명원 성두경 정희섭 정도선 이경모 홍사영

[03-016]

종로아마추어사우회 주최, 《파플라 포토 제1회 연구발표회》, 1958년 10월 18일-10월 23일, 화신백화점 화랑(3층)



팸플릿 표지

내지

[참여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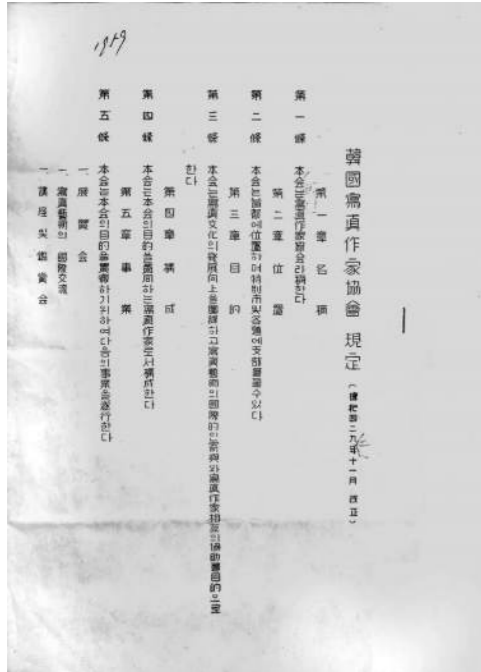
김대현 김동진 김현규 김형도 김홍수 윤세공 이영득 이창식 이 항 황태엽

찬조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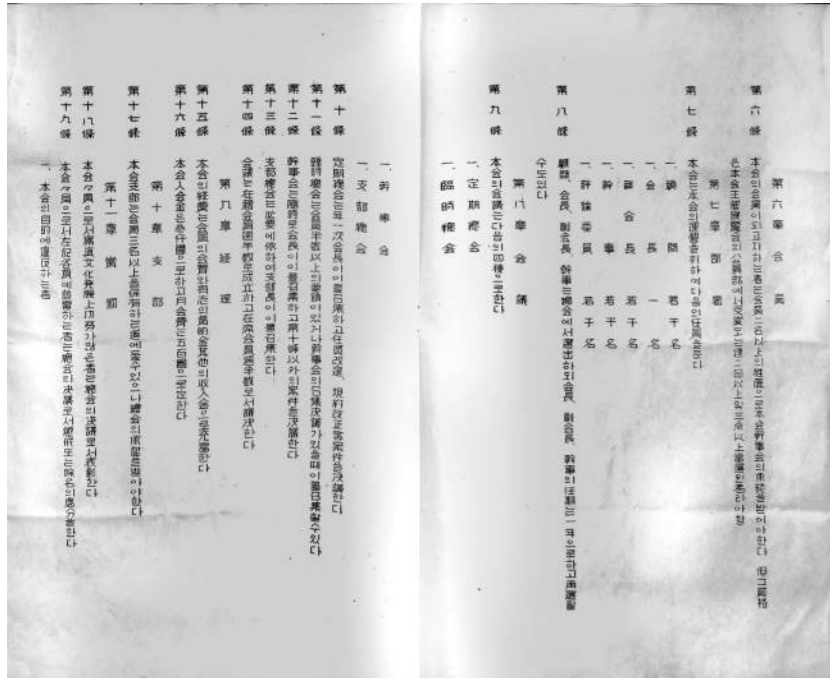
이해선 이진중 김중태

[01-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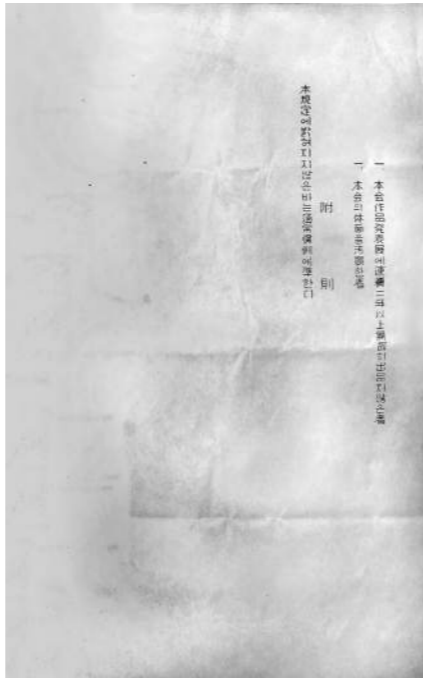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규정, 1959년 11월



p.1



pp.2-3



p.4

한국사진작가협회 규정(단기 429[2]년 11월 개정)

제1장 명칭

제1조 본회는 사진작가협회라 칭한다.

제2장 위치

제2조 본회는 수도에 위치하며 특별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장 목적

제3조 본회는 사진문화의 발전향상을 도모하고 사진예술의 국제적인 기여와 작가 상호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4장 구성

제4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사진작가로서 구성한다.

제5장 사업

제5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一. 전람회
- 一. 사진예술의 국제교류
- 一. 강좌 및 감상회

제6장 회원

제6조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으로 본회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그 자격은 본회 주최 전람회의 공모부에서 수상 또는 연 2회 이상 및 3점 이상 당선된 자라야함.

제7장 부서

제7조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一. 고문 약간 명
- 一. 회장 1명
- 一. 부회장 약간 명
- 一. 간사 약간 명
- 一. 평론위원 약간 명

제8조

고문, 회장, 부회장, 간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부회장,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될 수도 있다.

제8장 회의

제9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의 4종으로 한다.

- 一. 정기총회
- 一. 임시총회
- 一. 간사회
- 一. 지부총회

- 제10조 정기총회는 연 1차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원 개선, 규약 개정 등 안건을 결의한다.
- 제11조 임시총회는 회원 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간사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 간사회는 수시로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제10조 이외의 안건을 결의한다.
- 제13조 지부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4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재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9장 경리

- 제15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유지의 찬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6조 본회 임회금은 삼천 원으로 하고 월 회비는 오백 원으로 정한다.

제10장 지부

- 제17조 본회 지부는 회원 3명 이상을 보유하는 도에 둘 수 있으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상벌

- 제17조 제18조 본회 회원으로서 사진문화발전상 공로가 많은 자는 총회의 결의로서 표창한다.
- 제19조 본회 회원으로서 좌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서 징계 또는 제명의 처분을 한다.
- 一.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자
 - 一. 본회 작품 발표전에 연속 2년 이상 무고히 출품치 않은 자
 - 一. 본회의 체면을 오손한 자

부칙

본 규정에 밝혀지지 않은 바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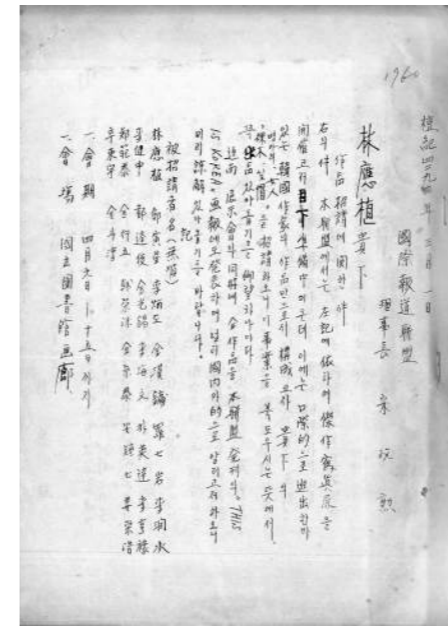
1) 1918년에 北原鐵雄이 창립한 출판사. 주로 문학서·예술서 등을 출판하였으며 카메라·사진 전문 잡지인 『CAMERA』의 발행으로 유명하였다(역자 주).

2) 일본 나가노·군마(郡馬)의 두 현에 걸쳐 있는 활화산인 아사마(淺間) 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 기생 화산(역자 주).

1960년대

[01-110]

국제보도연맹, 작품 초청에 관한 건, 1960년 3월 1일



《결작사진전》 작품초청서

단기 4293년 3월 1일

국제보도연맹

이사장 송정훈

임응식 귀하

작품 초청에 관한 건

우(右)의 건(件) 본 연맹에서는 좌기(左記)에 의하여 《결작사진전》을 개최코저 목하 준비중이
온데 이에는 국제적으로 진출한바 있는 한국 작가의 작품만으로서 구성코자 귀하의 “〈병아리〉,
〈여인〉, 〈나목〉, 〈입모(笠帽)〉”을[를] 초청하오니 이 사업을 북돋우시는 뜻에서 꼭 출품 있어유기를
양망하나이다.

추이(追而) 전시회와 동시에 전 작품을 본 연맹 발간의 『THIS IS KOREA』 화보에도 발표하여
널리 국내외적으로 알리고저 하오니 미리 양해 있어유기를 바랍니다.

기(記)

피초청자명(무순)

임응식 정인성 이병삼 김한용 나철암 이윤승 이건중 도봉준 김광석 이해문 박영달 이형록
정범태 김행오 한영수 김종태 안중철 강영호 신동우 김두순

一. 회기 4월 6일-15일까지

一. 회장 국립도서관 화랑

‘우리의 생활’로서 전 세계 82개국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촬영한 각국의 청소년들의 생활 상황을 일당에 전시하여 동서문화 교류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각국의 문화 형태를 비교하고 각국 문화의 가치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국제 이해를 촉진하는 성질의 사진이 요구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응모된 백여 점의 작품을 볼 때 약 절반의 작품은 이 취지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짜롱사진’이었는데는 약간의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국내 선정에 있어서는 지부원 최창희 송지영 이종옥 제(諸) 씨와 필자가 행(行)했는데 선정 기준을 주최 측의 취지에 응하여

① 일하고 있는 청소년 즉 학교생활 실습 훈련 연구 직업

② 여가를 이용하는 청소년 즉 청소년 및 단체의 활동 공공활동에의 참가 체육 및 청소년의 축제, 개인적인 오락 작업 등을 기록 표현한 것에 두고 비교적 엄선을 한 결과 23점이 선발되었다. 수준으로 보아서는 외국작품에 그리 손색없는 것이 아닐가 예상되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한 특징을 가진 청소년들의 생동하는 생활 모습을 평소에 많이 촬영해 두었다가 명년(明年)에는 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전기(前記)한 선발된 23점의 작품은 4월 1일 서독필착(西獨必着)을 기(期)하여 발송되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조선일보사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3-130]

국제보도연맹 주최, 《외국 당선작품 걸작사진전》,
1960년 4월 9일-4월 15일, 국립도서관



팸플릿 표지

뒷면



내지 1



[표지사진(좌에서 우)] 상 <피리 부는 소년> 정범태, 중 <병아리> 임응식, 하 <경기> 이진중

[내지 1]

<강변> 이형록, <제1보> 이해문, <농촌의 가을> (칼라) 정인성, <제단> 나철암, <새 목발> 신동우, <꽃피리> 이해문

취지

우리 한국의 사진작가들이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전시회나 세계 각국의 우수한 작가들을 망라하여 수록된 『사진연감』 등에 응모하여 세계의 권위 있는 작가와 당당히 어깨를 겨누어 한국 사진작가의 기업을 토하는 양이 해를 거듭할수록 폭을 넓히고 있어서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그 작품이 어떤 것인지 부분적으로 수차 정도 신문에 소개되었으나 금반 해외에 당선되었던 여러 사진작가들의 협력을 얻어 그 작품을 일당에 모아서 여러분과 같이 감상하는 동시에 한국 사단의 약진상을 엿볼 수 있고 아울러 사진예술의 진가와 국제성에 대한 발전 향상에 이바지 하고저 《외국 당선 걸작사진전》을 개최하는 바이다.

1960년 4월 9일 국제보도연맹

[내지 2]

<나목> 임응식, <입모> 임응식, <빛나는 것은> 김행오, <홍겨운 봄노리> 정희섭, <화염(火炎)과 흑연(黑煙)> 김한용, <요지경> 김광석, <꼬마도서관> 이해문, <가침(假寢)> 김두순, <풍선> 박영달, <도시의 낭만> 황태엽, <해잔(骸殘)> 황태엽, <여생> 도봉준, <말과 마부> 정범태, <화실> 강영호, <성야(聖夜)> (칼라) 이윤승, <소년> 안종철, <고독> 김광석, <행상> 정범태, <계시(鷄市)> 한영수

[뒷면 '외국 당선 작가 명단 및 주소'에는 김종태와 이병삼을 포함한 위 20명의 당선작을 정리해 놓았으나 1962년 《제2회 국제 진출작가 사진씨롱》(본 자료집 자료 02-040(p.136))의 명단과 중복되어 생략. 단, 몇몇 당선작은 연도 불일치.]

[13-123]

서상덕, 『우리 사단 7년사의 축도, 《외국 당선작품 걸작사진전》의 의의, 『조선일보』, 1960년 4월 12일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역사는 길지만 이른바 사단이 형성된 지는 해방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사단이 국내외적으로 그 존재가 알려지기는 1952년부터라고 할 것이다.

1952년이라면 우리가 남단의 부산으로 피난을 하고 있던 때인데 이 해에 임응식 씨의 <병아리>가 《국제사진잡롱》에 처음으로 입선하였다. 나는 이 해에 비로소 사단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바와 같이 우리 사단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원(順垣)[순탄(順坦)]하지 못했다. 그것은 첫째 사진예술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싶었던 처녀지를 개척하는 고투의 연속이었고 '메카니즘'이란 독특한 작품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기재가 없거나 혹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었다. 사진예술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사진예술의 《국전》 참여를 경시 천대 또는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 일부 '예술가'들의 낡은 예술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기재는 우리나라에서 일절 생산되지 않는다는 산업적 경제적 여건을 말한다. 이러한 여건의 뒷받침이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예술은 꾸준히 발전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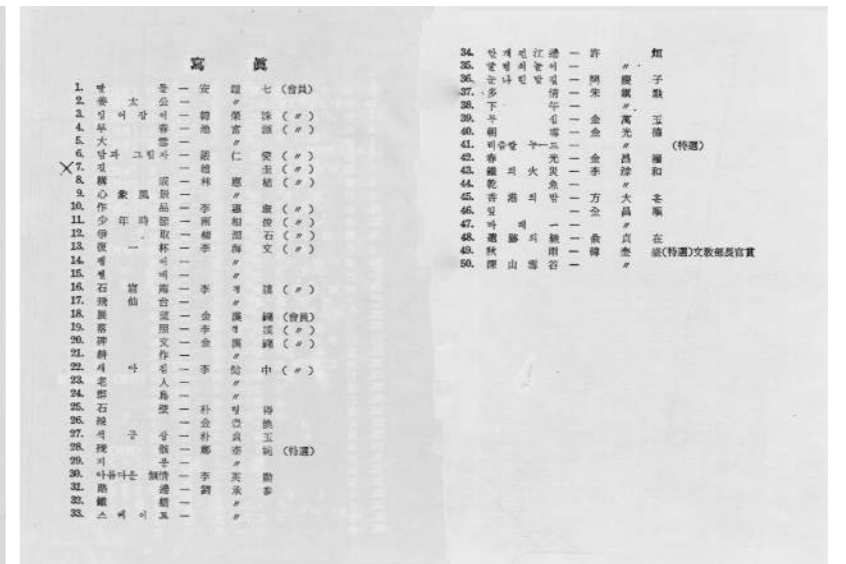
그것은 사진예술이 지닌 세계성을 '백라운드'로 하여 부단히 국제적인 진출을 해 온 사실로써 알 수 있는 일이다. 작가들은 국내에서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주로 《국제사진잡롱》과 《US카메라 콘테스트》를 무대로 삼아서 작품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그들의 제작 의욕과 높은 예술성을 지켜 왔다. 이번에 국제보도연맹에서 마련한 《외국 당선작품 걸작사진전》은 그동안의 작품활동과 작품의 세계를 일대에 모아서 감상케 하는 기회를 주었는데 사단뿐만 아니라 사진예술을 아끼는 모든 인사에게 베풀어진 성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진전은 우리에게 1952년부터 60년까지의 9년 동안의 사단의 발자취와 사진예술의 귀중한 한 세계를 높은 곳에서 부감하고 조망케 함으로써 이해하며 공감하는 공동의 광장에 접하게 해준다. 또 나아가서는 사진예술에 대한 《국전》의 관문이 왜 개방되지 않느냐는 의문까지를 던져준다. 이것이 곧 이 사진전의 가장 큰 의의일 것이다. (글쓴이=사진평론가=사진은 임응식 씨 사(寫) <병아리>)

[02-038]

《제2회 한국미술가협회 미술전람회(회원 및 공모전)》, 1961년 4월 27일-5월 14일, 경북궁미술관



팸플릿 표지



내지 부분 pp.8-9

[사진 부문 작가 명단]

안중철(회원) 한영수(〃) 지부원(〃) 엄인섭(〃) 조 규(〃) 임응식(〃) 이혜숙(〃) 남상준(〃) 류호석(〃) 이해문(〃) 이경모(〃) 김한용(〃) 이진중(〃) 박형득 김풍학 박정옥 정태완(특선) 이영훈 류승삼 허 흰 민경자 주진묵 김만옥 김광덕(특선) 김창권 이중화 방대훈 전창순 유정재 한규성(특선) 문교부장관상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 건축, 서예 목록 생략]

[02-045]

공보부 후원, 《혁명 백일 축전·광복절 경축, 미술전》,
1961년 8월 21일-9월 5일, 경북공미술관



팸플릿 표지



뒷면

[사진 부문 작가 명단]

정도선 이경모 임응식 서상규 최계복 김조현 이건중 김영배 김한용 지부원 한영수 김광덕
정희섭 성두경 오인창 조 규 남상준 김창권 이형록 류호석

인사말씀

광복 16주년과 혁명 100일을 기념하는 이 미술(초대)전시회는 중진·중견을 망라한 재경 작가들의 한결같은 정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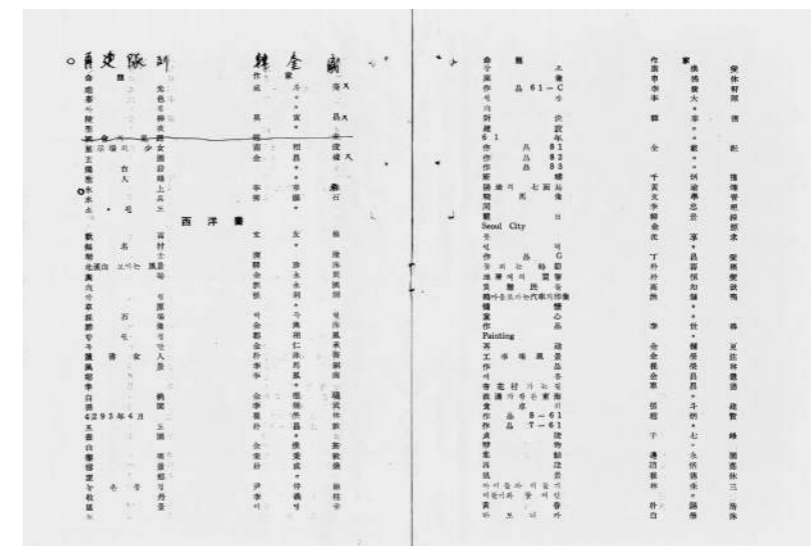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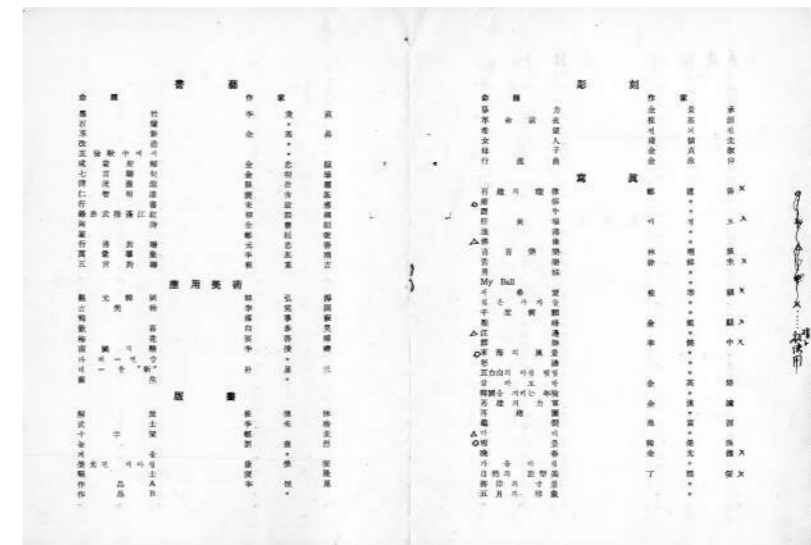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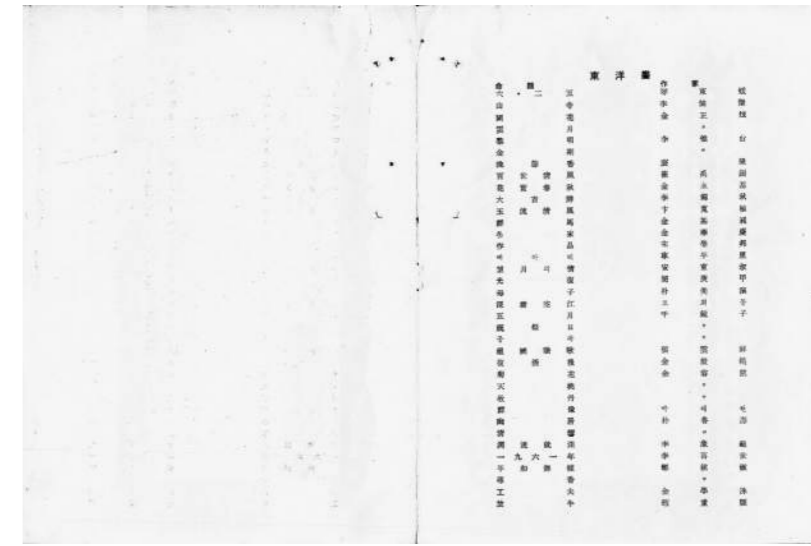
지방에 계신 작가들을 초대하지 못한 것이 서운합니다마는 후일 다시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회폭마다에 깃들인 혁명 정신과 재건 의욕을 여러분 모두 함께 마음에 다짐할 수 있으시다면 다시없이 뜻깊은 전시회가 되리라 믿어집니다.

출품해주신 작가 여러분께 충심(衷心)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보부

원하는 작품은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오니 의향이 계시면 접수처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지

[03-026]

《현일영 사진소품전》, 1961년 10월 5일-10월 11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머 리 말 *
 오늘날 뒷사람은 옛날이라 할것시오 옛날은 전사람의 오늘이었던것이다
 무엇 모든 작품에 있어도 오늘날 새로운 것은 내일에 반드시 무근것이 되는 것이며 옛날의 무근것도 한때의 새로운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이 제로음다! 무것다!
 하는것은 것사말해지 세지는것이며 작가로서는 항상 새로운 감정을 작품에 표현하는것이다
 현 일 영

寫眞機 D P 는 美光洋行 南大門路2街 TEL@8003

第一寫場 TEL@1430

차 량 Program

1 剛柔 Hardness and Tenderness	16 生活의基本 Base of life
2 꽃파는女人 Woman of flower vendor	17 生 産 Production
3 코스모스 Cosmos	18 收 穫 Crop
4 結 實 Harvest	19 빈 나간집 Empty house
5 再 建 Reconstruction	20 餘 暇 Leisure
6 밭 판 Agriculture	21 안 경 Glasses
7 검은머리 Black hair	22 우리음악 Our music
8 내손님은없다 No guest	23 一念의첫난 Expression of thought
9 味覺의殘物 Remainder of taste	24 일 너 Work
10 말없는敎養家 Teaching without speech	25 殘 城 Ruins of a castle
11 물없는항아리 A jar without water	26 나이지 일 Wind-up oneis affairs
12 雜 草 Weeds	27 彫 刻 Sculpture
13 담을지킨다 Keep guard	28 天白地白 White earth
14 副 産 By-Products	29 音 Tone
15 發聲의無聲 Voice and silence	30 力 量 Capacity

허비허비寫場 TEL@0924

내지

[03-046]

《싸롱아루스 사진전》, 1961년 10월 19일-10월 25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김 영 수 (Kim Young Soo)

1. 그림자 (Shadow)
2. 동화 (Fairy Tale)
3. 창 (Window)
4. 미림 (Till Next Winter)
5. 쌍둥이 (Twins)
6. 삶 (Life) * (Entry of 1961 Bordeaux, France, Int. Photo Exhibition)

신 석 환 (Shin Seok Hwan)

1. 뱀오르 (Beats)
2. 눈은이십 (Snow & Children)
3. 명옥 (Ming)
4. 세탁터 (Laundry Yard)
5. 빌려 (Borrow)

아 메 이 D.P. 투톤 남대문로 2가 29 (2) 5622 M3사

내지

뒷면

이 영 복 (Lee Young Bok) *

1. 구성 (Construction)
2. 낚시 어망 (Fishermen on Ice)
3. 삼림 (Woods in Snow)
4. 고지 (Hollitude)
5. 빙상 (Winter Landscape)
6. 돌돌 (Child in Shawl)

이 상 규 (Lee Sang Kyu)

1. 석양피거리 (Glittering Road)
2. 트랙 (Tracks)
3. 철조망 (Barbed Wire)
4. 유선 (Floating)
5. 벽 (Wall)
6. 패턴 (Pattern)

김 영 수 (Kim Young Soo)

1. 바레 (Ballot)
2. 초상 (Portrait)
3. 지붕 (Roof)
4. 고드름 (Icicle)
5. 철로 (Railroad)

정 발 백 (Chung Bal Bai)

1. 면 (Face)
2. 흰 땅 (White Land)
3. 미완성 (Unfin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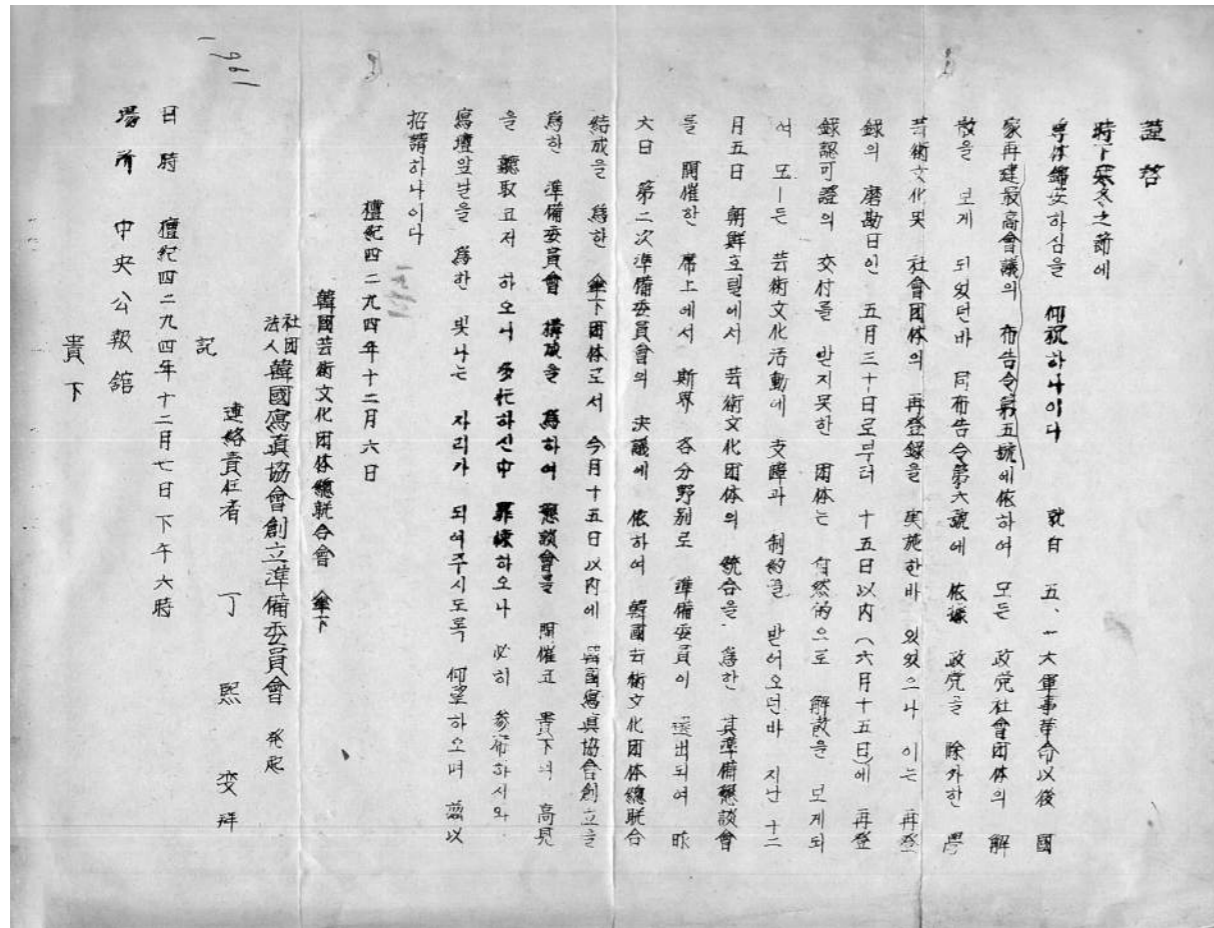
정 발 백 (Chung Bal Bai)

1. 밭상 (Peddler) * (Entry of 1961 London Times Int. Photo Contest)

내지

[01-113]

[한국사진협회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초청장], 1961년 12월 6일



근거

시하 한동지절(寒冬之節)에 존체금안(尊體錦安)하심을 양축하나다. 취백(就白) 5.16 군사 혁명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의 포고령 제5호에 의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해산을 보게 되었던바 동 포고령 제6호에 의거 정당을 제외한 학예술문화(學藝術文化) 및 사회단체의 재등록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이는 재등록의 마감일인 5월 30일로부터 15일 이내(6월 15일)에 재등록 인가증의 교부를 받지 못한 단체는 자연적으로 해산을 보게 되어 모든 예술문화 활동에 지장과 제약을 받아오던 바 지난 12월 5일 조신히에서 예술문화단체의 통합을 위한 기(基) 준비간담회를 개최한 석상에서 사계(斯界) 각 분야별로 준비위원이 선출되어 작(昨) 6일 제2차 준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결성을 위한 산하단체로서 금일 15일 이내에 한국사진협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코 귀하의 고견을 청취코저 하오니 다망하신 중 죄송하오나 필히 참석하시와 사단 앞날을 위한 빛나는 자리가 되어 주시도록 양망하오며 자이(茲以) 초청하나다.

단기 4294년 12월 6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창립준비위원회 발기
 연락 책임자 정희섭 배(拜)

기(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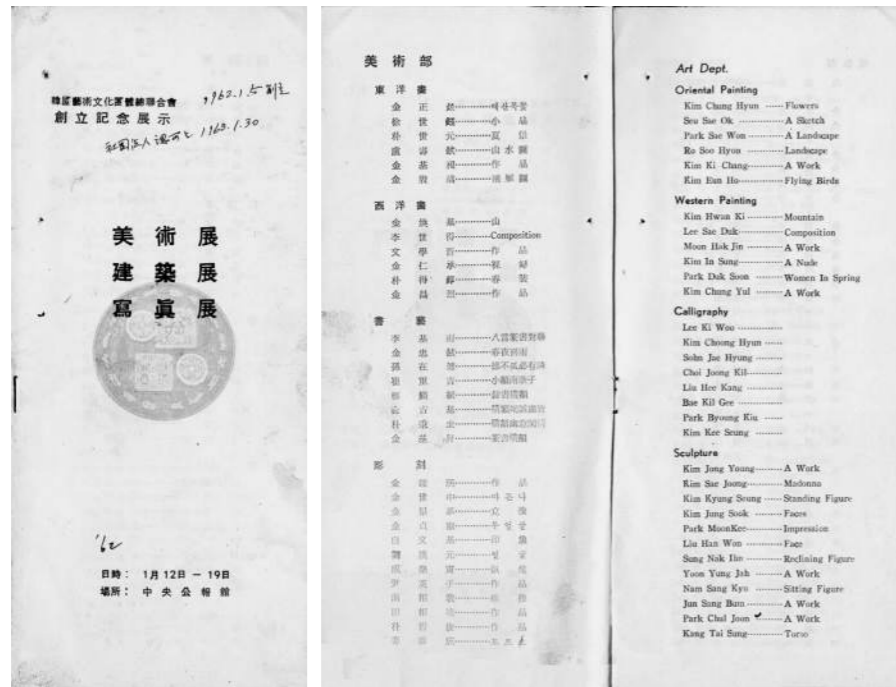
일시 단기 4294년 12월 7일 하오 6시

장소 중앙공보관

귀하

[03-059]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창립기념전시, 미술전 건축전 사진전》, 1962년 1월 12일-1월 19일, 중앙공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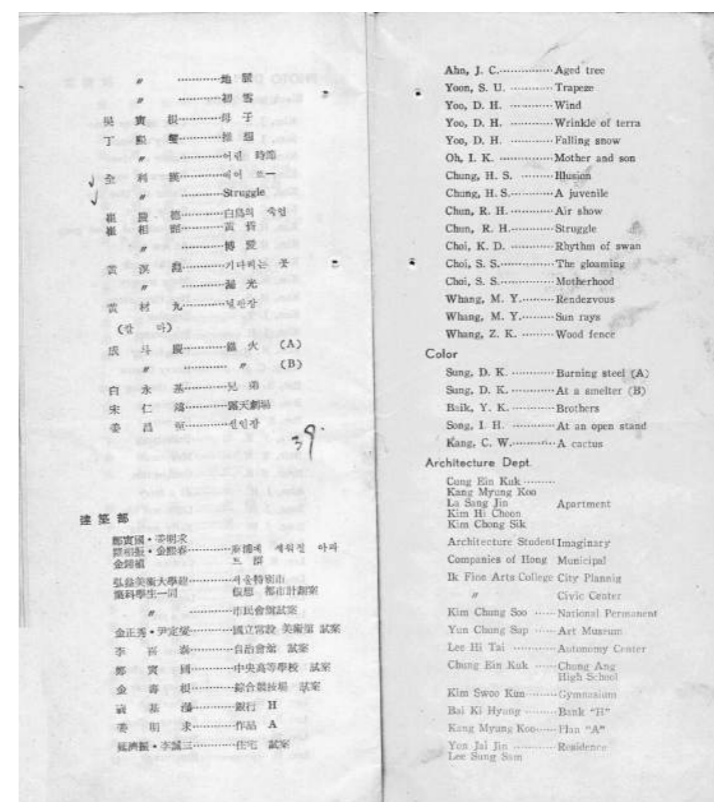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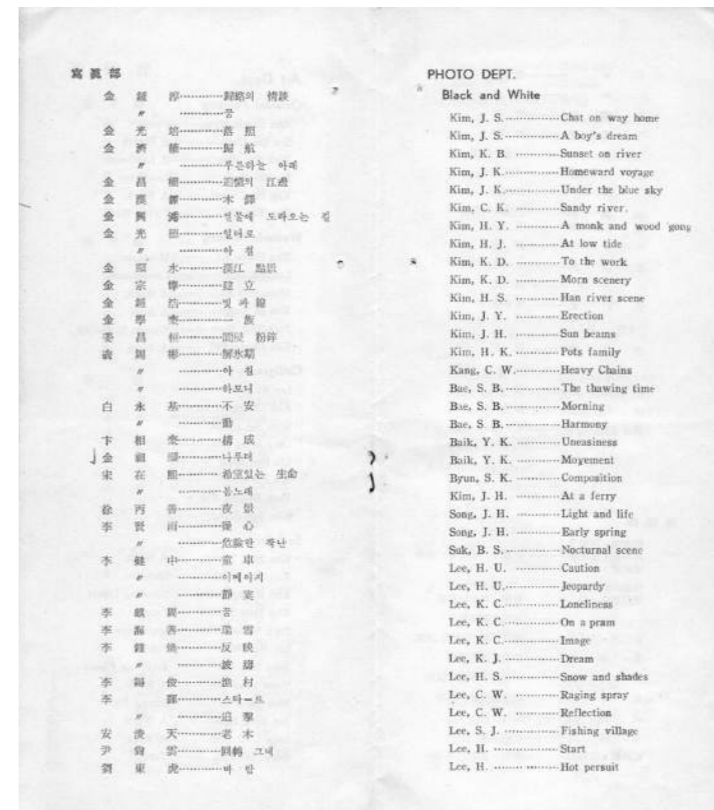
팸플릿 표지

내지

사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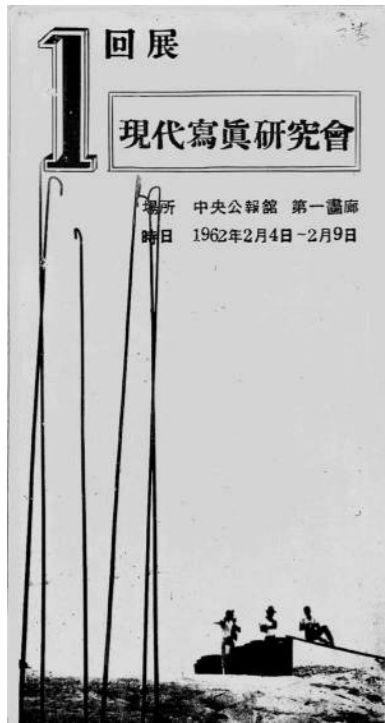
김중순 <귀로의 정답> <꿈>, 김광배 <낙조>, 김제권 <귀향> <푸른 하늘 아래>, 김창권 <추억의 강변>, 김한용 <목탁>, 김흥준 <썰물에 도라오는 길>, 김광덕 <일터로> <아침>, 김현수 <한강점경>, 김종엽 <건립>, 김중호 <빛과 선>, 김학규 <일족>, 강창환 <간침 분쇄>, 배석빈 <해빙기> <아침> <하모니>, 백영기 <불안> <동(動)>, 변상규 <구성>, 김조현 <나루터>, 송재희 <희망있는 생명> <봄노래>, 서병선 <야경>, 이현우 <조심> <위험한 작난>, 이진중 <동차(童車)> <이미지> <정막>, 이기주 <꿈>, 이해선 <서설(瑞雪)>, 이종환 <반영> <파도>, 이석준 <어촌>, 이 휘 <스타트> <추격>, 안준천 <노목>, 윤상운 <회전그네>, 유동호 <바람> <지맥(地脈)> <초설>, 오인근 <모자>, 정희섭 <추상> <어린 시절>, 전이한 <에어 쏘-)> <Struggle>, 최경덕 <백조의 죽음>, 최상소 <황혼> <박애>, 황명연 <기다리는 곳> <누광>, 황재구 <널판장> <칼라>

성두경 <철화(鐵火) (A)> <〃(B)>, 백영기 <형제>, 송인호 <노천극장>, 강창환 <선인장>



[03-078]

《제1회 현대사진연구회전》, 1962년 2월 4일-2월 9일, 중앙공보관 제1화랑



팸플릿 표지



뒷면

- 한광희 1 <들리는 소리> 2 <애교> 3 <빨래터>
- 민경자 1 <춘전보> 2 <표백장> 3 <갈대> 4 <벽>
- 류승삼 1 <바위웃> 2 <상흔> 3 <신록> 4 <창>
- 허 달 1 <공사장> 2 <정> 3 <난무> 4 <걸음마>
- 전용중 1 <컴포지션> 2 <하오> 3 <눈>
- 이영훈 1 <귀로> 2 <설경> 3 <청운> 4 <담>
- 백환규 1 <양지> 2 <석간> 3 <쌍둥이>
- 김효열 1 <과창> 2 <구축> 3 <휴식> 4 <재목>(1961년도 《US카메라 콘테스트》에 입선작품)
- 전몽각 1 <강변> 2 <낙엽> 3 <저녁때> 4 <어떤 응달>
- 정철용 1 <나루터 풍경> 2 <하동> 3 <뚝> 4 <어린 시절>
- 최금영 1 <마부> 2 <수난> 3 <호기심>



내지

[03-090]

한국산악회 주최, 공보부 후원, 《지리산 동계 등반훈련 보고전》,
1962년 3월 6일-3월 12일, 동화백화점 화랑(4층)



팸플릿 표지



내지

전시내용

제2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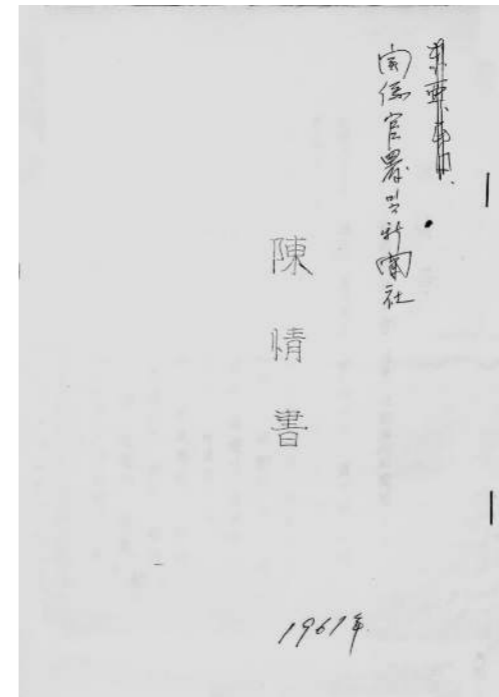
◎주요 목록◎

〈화염사의 이모저모〉, 〈장비의 점검〉, 〈장비식량의 수송〉, 〈베이스캠프 건설(노고단 1506고지 밑)〉, 〈노고단에서 천왕봉을 바라보며〉, 〈노고단 반야봉 일대〉, 〈베이스캠프에서 운행계획〉, 〈캠푸1(반야봉 부근)〉, 〈수송지원부대의 활동〉, 〈반야봉(1728미터)의 설경〉, 〈캠푸간의 통신연락〉, 〈캠푸2 건설 (1522고지)〉, 〈폭풍설중의 전진〉, 〈각 "파티"의 면모〉, 〈운해(雲海)〉, 〈노고단 반야봉 세석일대〉, 〈캠푸3 (벽소령 부근 1442고지)〉, 〈캠푸4 (새석평전 1520미터)〉, 〈정상 등정〉, 〈캠푸5 (장터목 1620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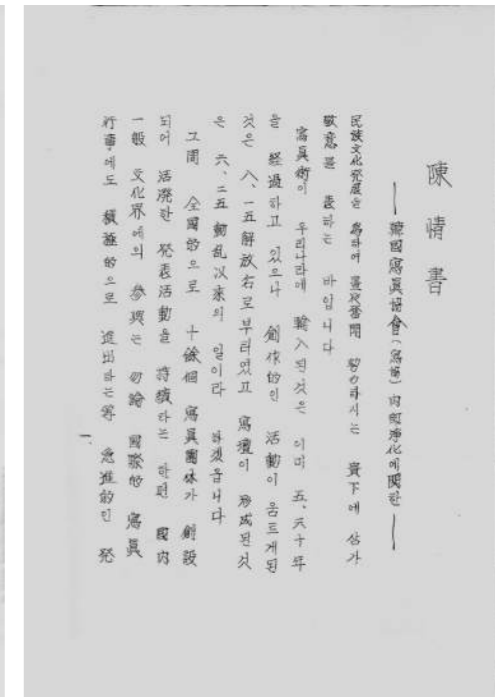
[표지 메모: 임석제 촬영]

[01-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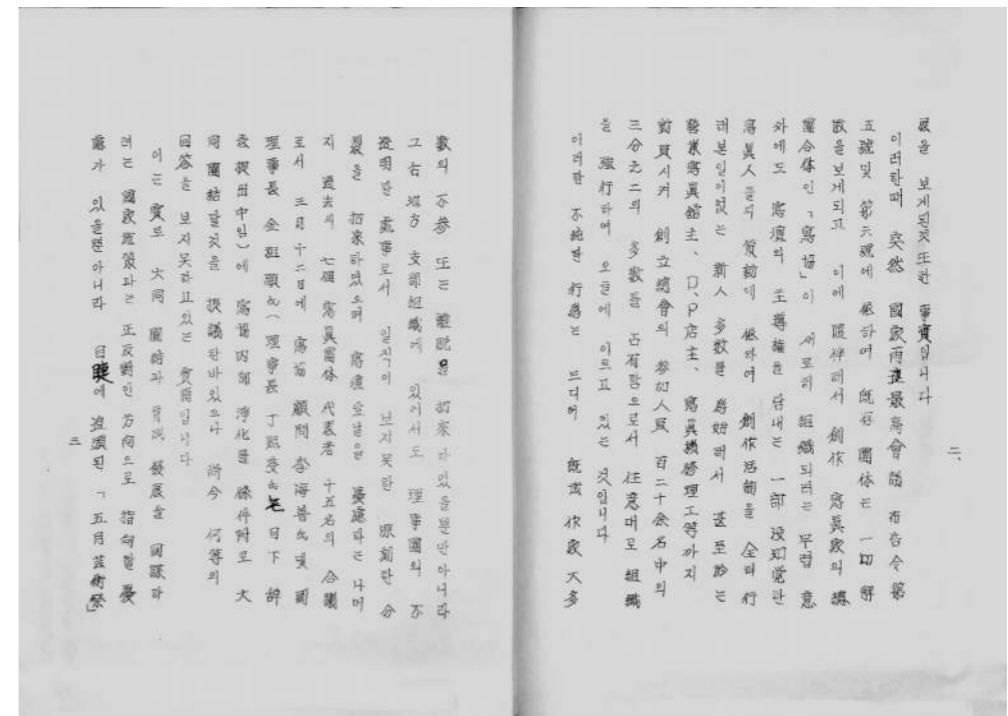
〔한국사진협회 내부정화를 위한〕 진정서, 1962년 [4월 2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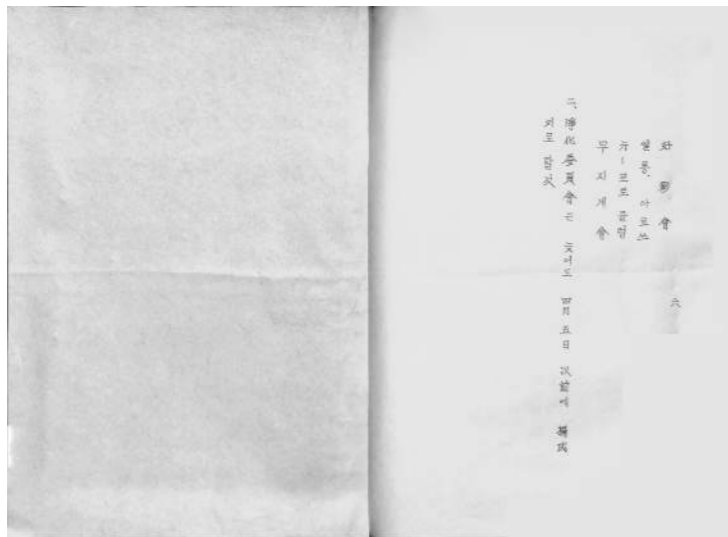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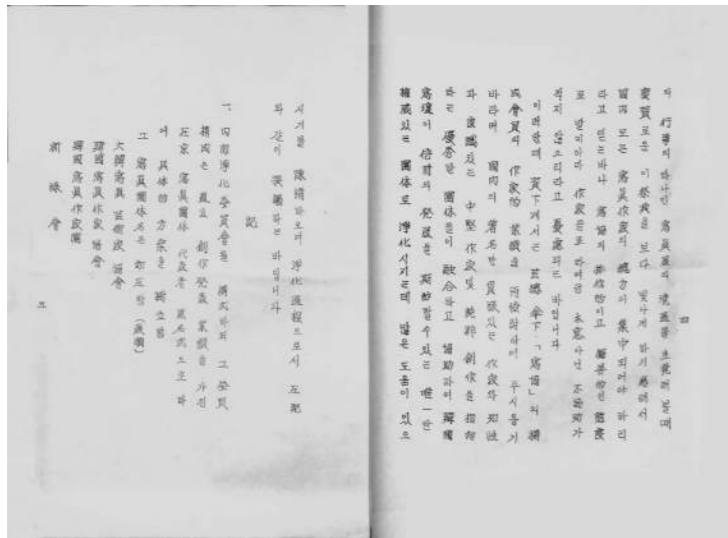


진정서 표지



내지 pp.1-6





진정서

- 한국사진협회(사협) 내부정화에 관한 -

민족문화발전을 위하여 주야분투 노력하시는 귀하에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진술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은 이미 5, 60년을 경과하고 있으나 창작적인 활동이 움트게 된 것은 8.15해방 후로부터였고 사단이 형성된 것은 6.25동란 이래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간 전국적으로 십여 개 사진 단체가 창설되어 활발한 발표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국내 일반 문화계에의 참여는 물론 국제적 사진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급진적인 발전을 보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돌연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존 단체는 일체 해산을 보게 되고 이에 수반해서 창작 사진가의 총 단합체인 '사협'이 새로히 조직되려는 무렵 의외에도

사단의 주도권을 탐내는 일부 몰지각한 사진인들의 책동에 의하여 창작활동을 전혀 행해본 일이 없는 신인 다수를 위시해서 심지어는 영업사진관주, D.P점주, 사진기 수리공 등까지 동원시켜 창립총회의 참가인원 120여 명 중의 3분의 2의 다수를 점유함으로써 임의대로 조직을 강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행위는 드디어 기성 작가 대다수의 불참 또는 이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지방 지부 조직에 있어서도 이사단(理事團)의 불투명한 처사로서 일직이 보지 못한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사단 앞날을 우려하는 나머지 과거의 7개 사진 단체 대표자 15명의 합의로서 3월 12일에 사협 고문 이해선 씨 및 부이사장 김조현 씨(이사장 정희섭 씨도 목하 사표 제출 중임)에 사협 내부 정화를 조건부로 대동단결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상금(尙金) 하등의 회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실로 대동단결과 육성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 시책과는 정반대인 방향으로 지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목첩(目睫)에 박두(迫頭)된 《5월 예술제》의 행사의 하나인 사진전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경하로운 이 제전을 보다 빛나게 하기 위해서 국내 모든 사진작가의 총력이 집중되어야 하리라고 믿는 바나 사협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작가들로 하여금 본의 아닌 불협조가 적지 않으리라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때 귀하께서는 예총(藝總) 산하 '사협'의 구성회원의 작가적 업적을 재검토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국내의 저명한 관록 있는 작가와 지성과 양식 있는 중견작가 및 순수 창작을 지향하는 우수한 단체들이 융합하고 협조하여 한국 사단이 배전(倍前)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 있는 단체로 정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진정하오며 정화 과정으로서 좌기와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기(記)

1. 내부정화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구성은 과거 창작발표 업적을 가진 재경 사진단체 대표자 이명씩으로 하여 구체적 방안을 수립함
그 사진단체명은 여좌함(무순)
대한사진예술가협회(大韓寫眞藝術家協會)
한국사진작가협회(韓國寫眞作家協會)
한국사진작가단(韓國寫眞作家團)
신선회(新線會)
호영회(好影會)
살롱, 아로쓰
뉴-포토 클럽
무지개회
2. 정화위원회는 늦어도 4월 5일 이전에 구성키로 할 것

[표지 메모: 관계 관서 및 신문사]

[03-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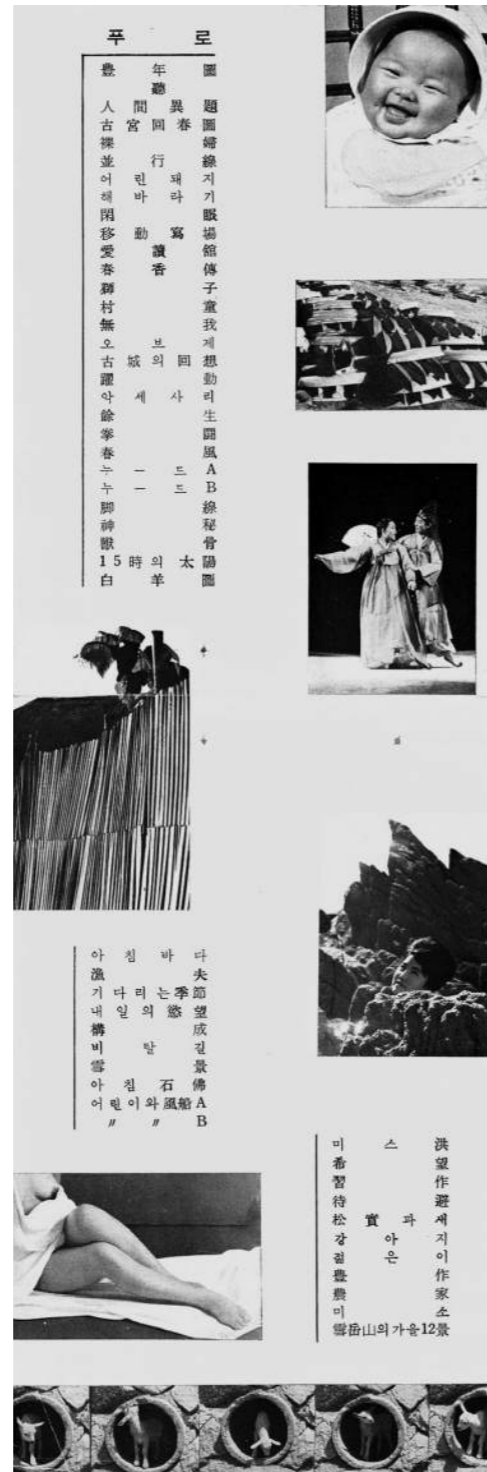
《이건중 사진전》, 1962년 9월 3일-9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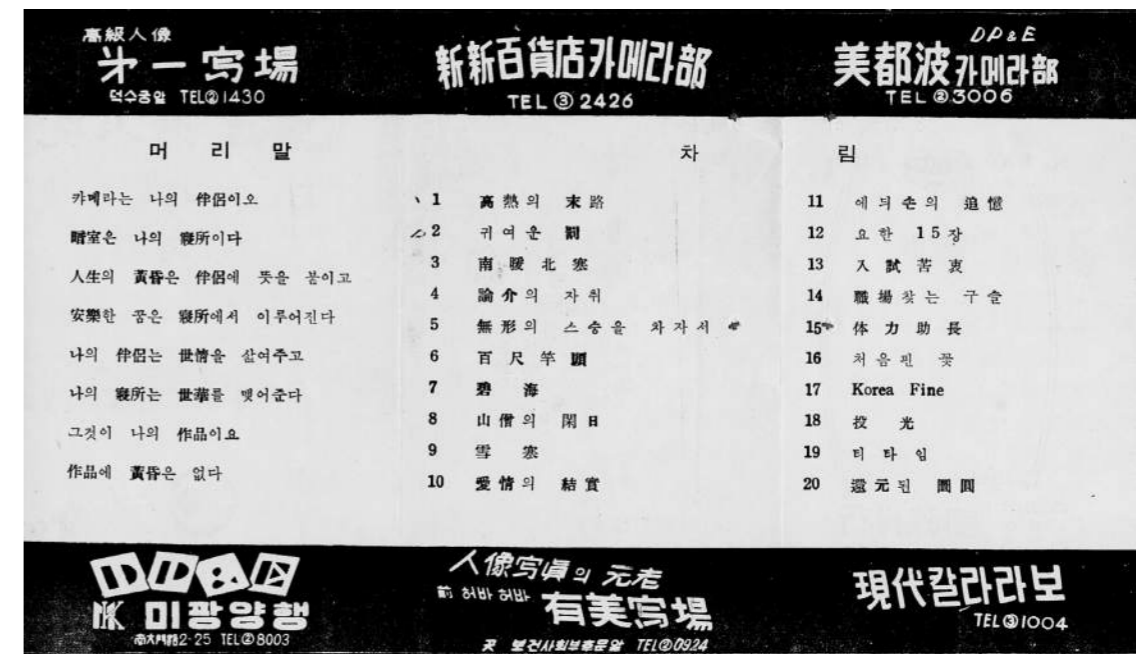
내지

[03-060]

《현일영 사진개인전》, 1962년 9월 24일-9월 30일, 중앙공보관 제3전시장



팸플릿 표지



내지

[02-040]

국제보도연맹 발행, 《제2회 국제진출작가 사진살롱》,
1962년 12월 24일-12월 30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pp.1~32



[국외 당선자 명단(pp.29-32)]

성명 작명 주최 연도

-서울특별시-

임응식 <병아리>《일본국제쌀롱》1952년
 <여인>(칼라)《 》1955년
 <나목>『미국사진연감』1955년
 <입모>『세계사진연감』1960년
 주소 중구 장충동1가 48의 22
 이병삼 <아침>《일본국제쌀롱》1954년
 주소 중구 인현동1가 64
 김한용 <화염과 흑연>《일본국제쌀롱》1954년
 주소 마포구 대흥동 19의 16
 이윤승 <성야>(칼라)《일본국제쌀롱》1955년
 주소 중구 을지로2가 95 삼창상사
 이건중 <경기>《일본국제쌀롱》1957년
 주소 성북구 돈암동 473의 8
 이해문 <제1보>《꼬마도서관》1958년
 <꽃피리>《불란서국제쌀롱》1960년
 <아내>《 》1961년
 <새출발>『세계사진연감』1961년
 <팽이>《일본국제쌀롱》
 주소 마포구 공덕동 175의 98
 안중칠 <소년>《일본국제쌀롱》1959년
 <소녀>《월남국제쌀롱》1960년
 <낙서의 주인공>《불란서난트쌀롱》1961년
 <동(童)>《 》
 <소녀>《불란서볼트쌀롱》
 <우산 쓴 소년>《 》
 주소 종로구 한국일보사 내
 정범태 <피리 부는 소년>《U.S.콘테스트》1958년
 <말과 마부>《일본국제쌀롱》1959년
 <행상>《 》1960년
 <명암>《불란서비엔날》1961년
 <결정적 순간>『세계사진연감』1961년
 주소 종로구 한국일보사 내

성명 작명 주최 연도

한영수 <계시>『세계사진연감』1959년
 <아이들>『영국사진연감』1961년
 <뒷골목>『세계사진연감』1961년
 주소 성북구 돈암동 478의 2
 이형록 <강변>《U.S.콘테스트》1958년
 <벽>《 》1959년
 주소 중구 회현동2가 49의 5
 김행오 <빛나는 것은>《U.S.콘테스트》1958년
 주소 마포구 신수동 산 9
 황태엽 <도시의 낭만>《호주국제쌀롱》1960년
 <잔해>《 》
 주소 영등포구 흑석동 69의 20
 정희섭 <흥겨운 봄노리>《미국월밀톤국제쌀롱》1960년
 주소 중구 을지로4가 세계사장
 엄인섭 <묘(墓)길>《월남국제쌀롱》1960년
 주소 종로구6가동 20의 5
 지부원 <강강수월래>《월남국제쌀롱》1960년
 <눈 오는 거리>《 》1961년
 주소 중구 궁정동 4의 4
 남상준 <손자>《일본후지콘테스트》1960년
 <목선(木船)>《월남국제쌀롱》1960년
 <주차장>《월남국제쌀롱》1962년
 주소 종로구 삼선동1가 27
 조용훈 <4월 혁명>『세계사진연감』1961년
 <4월 혁명>미국 『라이프』지에 4점 1960년
 주소 종로구 한국일보사 내
 백형인 <4월 혁명>『세계사진연감』1961년
 < 》미국 『라이프』지에 3점 1960년
 주소 종로구 한국일보사 내
 김종화 <술래>《일본후지콘테스트》1960년
 주소 종로구 인사동 동신가구점

성명 작명 주최 연도

김풍환 <이쉬움>(칼라)《일본국제쌀롱》1961년
 주소 중구 도동1가 91의 22
 이상규 <길>《U.S.콘테스트》1961년
 주소 종로구 계동 15의 16
 김열수 <벽>《영국국제쌀롱》1961년
 주소 중구 회현동2가 49의 5
 김효열 <재목>《U.S.콘테스트》1961년
 주소 용산구 이태원동 56
 김상현 <그림자>『영국사진연감』1962년
 주소 중구 반도호텔 318호실
 이경모 <석굴암의 아츨 염불>
 《국제관광콘테스트》1961년
 주소 용산구 용문동 21
 박형득 <고요>《월남국제쌀롱》1962년
 주소 종로구 궁정동 55
 신석한 <빨래>《서서(瑞西)[스위스]쌀롱》1962년
 주소 서울 동덕여고내
 -경상남도-
 부산시
 정인성 <농촌의 가을>(칼라) <건사>(칼라)
 《일본국제쌀롱》1954년
 주소 창선동 문화사 내
 나철암 <제단>《일본국제쌀롱》1955년
 주소 부평동2가 29
 김광석 <요지경>《일본국제쌀롱》1957년
 <고독>《미국막시마쌀롱》1960년
 <방랑자>《 》1961년
 주소 수정동5가 419(1동 5방)
 신동우 <새목발>《일본국제쌀롱》1960년
 주소 전포동 679
 김종태 <녹음>『세계사진연감』1958년
 주소 진주시 대안동 219

성명 작명 주최 연도

김두순 <가침>《일본국제쌀롱》1960년
 <벽> <자애>《이태리 》1960년
 <수확>《불란서 》1961년
 <소년>《일본 》1961년
 <재건>《미국뉴욕 》1961년
 <귀소(歸巢)>《서반아(西班牙)[스페인] 》1962년
 <비익(飛翮)>《신가파(新加坡)[싱가폴] 》1962년
 <부각>(칼라)《서반아 》1962년
 주소 중앙동4가 14
 임효도 <두 기물(器物)>《서반아쌀롱》1960년
 <귀여운 아기>《일본쌀롱》1960년
 <목교(木橋)>《미국쌀롱》1961년
 <응시>《미국쌀롱》1962년
 <수록>《개폐문》《 》
 주소 중앙동2가 40
 강재복 <열중>《일본쌀롱》1960년
 주소 중앙동2가 40
 강일웅 <무회>《일본쌀롱》1960년
 <성모>《불란서쌀롱》1960년
 주소 동래구 장전동 293
 허중배 <바다의 무회>《불란서쌀롱》1961년
 <게시판>
 주소 경남공보관 내
 남기태 <대화>《호주쌀롱》1961년
 주소 경남공보관 내
 박래성 <빨딩정문>《일본쌀롱》1961년
 <적시>《호주쌀롱》1961년
 <노상(老像)>《 》1962년
 주소 부평동2가 80
 정창규 <휴식>《불란서쌀롱》1961년
 <희망>《 》1962년
 <제소(躑躅)>, <애무>, <홀몸>,
 <신가파> 1962년
 주소 부민동3가 68

성명 작명 주최 연도

이종철 <바튼>《호주쌀롱》1962년
주소 범일동 113

-경상북도-

도봉준 <여생>《일본쌀롱》1957년
주소 대구시 태평로1가 6

박영달 <풍선>《일본쌀롱》1958년
주소 포항시 신흥동 820

강영호 <아트리에>《호주쌀롱》1959년
<회상>《 》 1962년
<라선계단> (칼라) 《 》 1962년
주소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조상민 <벽>《향항(香港)[홍콩]쌀롱》1962년
<강에서 노는 소년>《월남쌀롱 제2회》
<가을의 무드> (칼라) <벽>
《호주멜보른쌀롱 제6회》
<동희(童戲)>《호주시드니쌀롱》1961년
<포-트레이트> (칼라), <산책> (칼라)
《빅토리아쌀롱 제14회》
<하동 A, B>, <청조(靑鳥)> (칼라),
<벽> (칼라), <하동>
《호주아드레이드쌀롱》1962년
<선의 미>
주소 대구시 봉산동 177의 1

도재원 <랫슨>《호주쌀롱》1962년
주소 대구시 한전경북지점 내

도주룡 <노인> <비약>《호주쌀롱》1961년
<무회> (칼라)《윈스랜드쌀롱 제3회》
<가을의 여인> (칼라)《빅토리아쌀롱 제14회》
<거리의 일우(一隅)>
<벽>《호주아드레이드쌀롱》1962년
주소 대구시 서문로1가 65

성명 작명 주최 연도

서성해 <파라솔> (칼라)《호주쌀롱》1962년
주소 대구시 북성로1가 68

김태한 <바다의 세 소년>《호주시드니쌀롱》1960년
<신감각>《호주멜보른쌀롱 제6회》
<하오의 연정>《월남쌀롱 제2회》
<반영> (칼라)《인도칼카타쌀롱 제4회》
<도공> (칼라)《호주아드레이드 》 1962년
주소 대구시 계성고등학교 내

김재수 <S홀의 인상>《인도칼카타쌀롱 제4회》
<고독>《호주아드레이드 》 1962년
<푸로필>《빅토리아 》 제14회》
<신생>《호주시드니 》 1962년
주소 대구시 서문로1가 65

이만정 <손> <반영>《호주시드니쌀롱》1962년
<소녀> (칼라)
주소 대구시 효성여대 내

김은주 <고찰의 황혼>《호주아드레이드쌀롱》1962년
주소 대구시 한전경북지부 내

이종세 <들꽃> (칼라)《호주시드니쌀롱》1961년
<선거풍경>『세계사진연감』1962년
<고애> <행렬> (칼라)《불국(佛國)낭또쌀롱 제7회》
<작품Q>, <황혼>《호주아드레이드 》 1962년
<귀로> <갈증>《호주시드니 》 1962년
<꿈> (칼라)《리버티쌀롱 제3회》
주소 대구시 서문로1가 65

이정술 <화부>『세계사진연감』1961년
주소 김천시 성내동 180

김진욱 <창>『세계사진연감』1961년
주소 대구시 향촌동 10

김영민 <130대 1[1,300대 1]>《U.S.콘테스트》1961년
주소 대구시 서문로2가 20

신현국 <중개인> 외 4점《불란서낭또쌀롱 제7회》
주소 대구시 남일동 138

성명 작명 주최 연도

김갑연 <백발> 외 1점《불국낭또쌀롱》1962년
주소 대구시 남산동 725

이정강 <화마가 지나간 자리> 외 4점
《불국낭또쌀롱》1961년
주소 대구시 북성로1가 21

배상하 <수녀 스산나>《일본쌀롱》1961년
주소 대구시 남일동 138

이창원 <해질 때>《호주멜보른쌀롱》1962년
주소 대구시 공평동 25

-충청남도-

박여일 <천주교>《백이(白耳)[벨기에]쌀롱》
<혈록(血線)>《일본 》
<굴뚝 쭈시는 사람>《폴츄칼쌀롱》
<조리개를 통한 사람>, <춘색씨>,
<눈 오는 날>《호주쌀롱》
<무심>, <라이푸 인 흑쓰>《일본쌀롱》
<파-푸>《불란서쌀롱》
주소 대전시 은행동 30

김이식 <생활 도구>, <생의 계단>《폴츄칼쌀롱》
<왕>《호주쌀롱》
주소 대전시 은행동 30

박병준 <출연 전>《폴츄칼쌀롱》
<두 노인>《서반아 》
주소 대전시 은행동 51

김경일 <여인> <방랑자>《일본후지콘테스트》
주소 대전시 은행동 30

전 형 <쑥덕공론>《폴츄칼쌀롱》1961년
주소 대전시 은행동 30

정현태 <누드>《U.S.콘테스트》1961년
주소 대전시 대전일보사 내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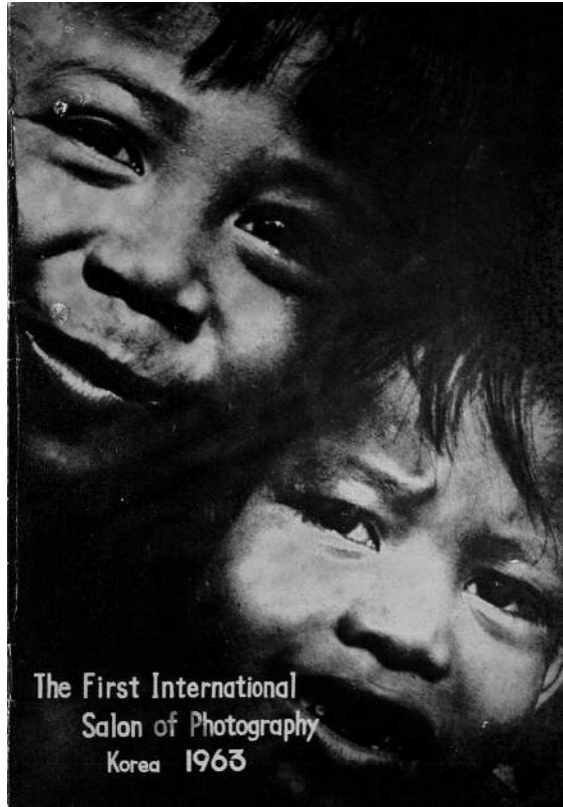
박정호 <교차>《월남쌀롱》1962년
주소 군산시 구암동 333

[02-046]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 지부 주최, 《한국 제1회 국제사진살롱》,

1963년 5월 2일-5월 11일, 경북공보관

5월 20일-26일 서울 중앙공보관, 6월 10일-19일 부산공보관



팸플릿 표지

The First International Salon of Photography, Korea
Sponsored by
Kyung Sang Bakto Chapter, Korean Federation of Cultural Organizations.

Monochrome and Color Prints
Held at Kyung-Buk Information Hall(Taegu)
From May 2, 1963 To May 11, 1963
Central Information Hall (Seoul)
From May 20, 1963 To May 26, 1963
Pusan Information Hall (Pusan)
From June 10, 1963 To June 19, 1963

Judge Members
Chairman: Ahn, Wul-San
Lim, Ung-Sik Kim, Cho-Hyun
Lim, Suk-Jae Lee, Hyung-Rok
Chi, Boo-Won Cho, Sang-Min
Chung, In-Sung

Salon Committee
Salon Chairman: Yoo, Chi-Whan
Vice Chairman: Ahn, Wul-San
Park, Yang-Kyun
Chung, Kyung-Woon

Head Official: Kim, Tae-Han
Members of the Committee
Chung, Chum-Sik
Cho, Sang-Min
Kang, Yung-Ho
Kim, Dae-Hyun
Kim, Choon-Sung
Kim, Chae-Soo
Lee, Hong-Sik
Lee, Jae-Choon
Do, Choo-Yong

Construction Wu peng-Seng (Singapore)

내지 pp.1-28

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월산

위 원: 임응식 임석제 지부원 정인성 김조현 이형록 조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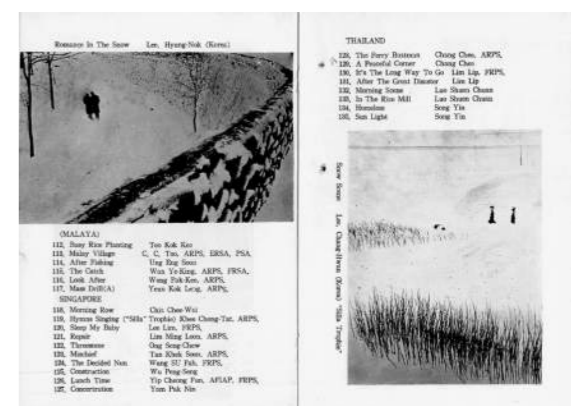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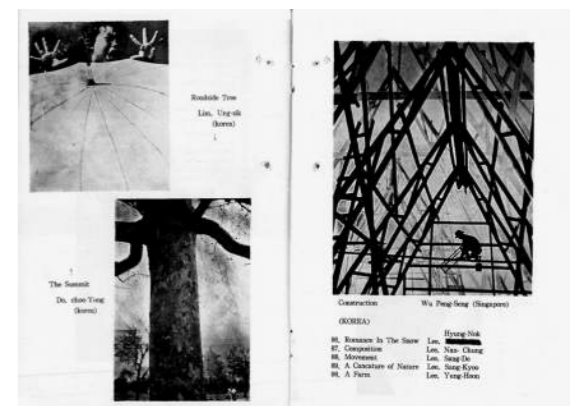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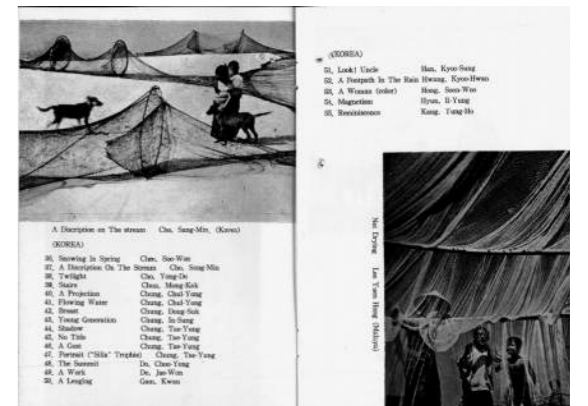
《국제사진살롱》위원회

위원장: 유치환

부위원장: 안월산 박양균 정경운

사무처장: 김태환

위원: 정점식 김준성 이재춘 조상민 이흥식 강영호 김태현 김재수 도주용





[03-043]

《현일영 사진개인전》, 1963년 6월 17일-6월 23일, 중앙공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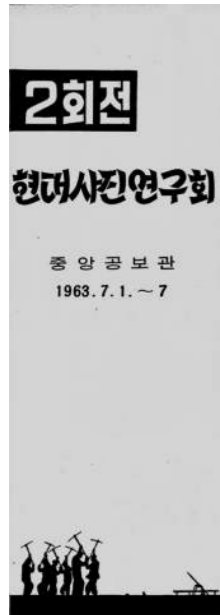
팸플릿 표지

乙支路入口 大池寫場 TEL 9017	乙支路入口 뉴서울시장 TEL 9040	乙支路4街 고향시장 TEL 9357
머 리 말		
<p>또다시 一年이 지났다 그동안에 많은 原畫가 쌓였다 이것을 나의 思索의 産物이라 불며 感興의 結晶이라 불며 한 날 日記 같기도 하다 그러나 어찌 한때의 思索과 感興이 그 뿐이라 産物과 結晶이 그 뿐이라 만은 그것이 生活記錄이다 나는 作品을 再吟味 함에 反省을 찾고 追憶을 너드며 快樂을 느끼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玄 一 榮</p>		
차 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空 白 2. 끝난 : 불것은 아니다 3. 滿醉된 視覺 4. 말 없는 일꾼 5. 放 課 後 6. 三 態 7. 生 과 死 8. 세 모 꼴] 9. 希望의 同胞 10. 信者 없는 愚像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沈 念 12. 옛날 사람들 13. 自由의 힘 14. 作 品 15. 殘 形 16. 存在 없는 나무 17. 주고 받,는 봄 18. 酒黨의 메-뉴 19. 蒼空을 장식한 光影 20. 八尾島風景 	
사진재료 東光洋行 忠武路一街 TEL 3317 4219	사진재료 사진기구 光 室 社 교과대公廳앞 종로2가54 TEL 1707	카메라 D.P.E 미우만카메라부 TEL 3171-7450

내지

[03-077]

《제2회 현대사진연구회전》, 1963년 7월 1일-7월 7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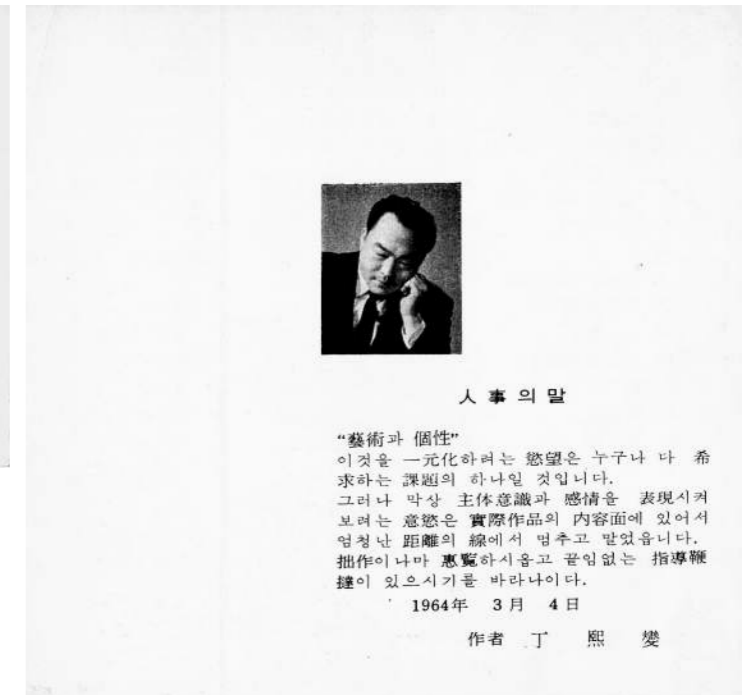
내지

[05-003]

《제3회 정희섭 사진전》, 1964년 3월 4일-3월 10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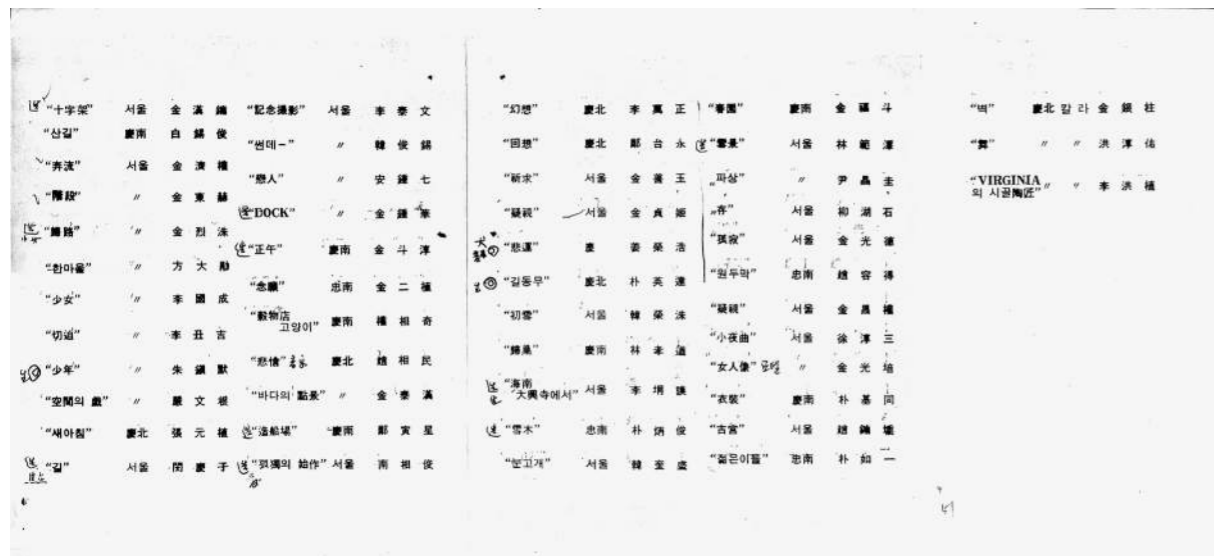
내지

[02-042]

국제보도연맹 주최, 《제3회 초대작가사진전》,
1964년 5월 21일-5월 27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05-002]

《제8회 이견중 사진전》, 1964년 6월 22일-6월 28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05-004]

대한영업사진사협회, 부산 국일사진화공 주식회사, 사진재료 동광양행 후원,
《현일영 환갑 기념전》, 1964년 8월 24일-8월 30일, 중앙공보관

德壽宮 앞
第一寫場
TEL ④1430 ④4739

M3
Camera Store
메쓰리寫眞棧店
서울 남대문로 2가 29
TEL. 3-2474

鍾路入口
新新百貨店
카메라部
TEL ④ 6 5 2 6



'64
배. 8.24—30
곳. 중앙공보관

後 援

社團法人 大韓營業寫眞師協會
釜 山 國一寫眞化工株式會社
寫眞材料 東光洋行 忠武路一街
TEL ④ 8317 ④4219

팸플릿 표지

뒷면

인사말씀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요
오늘은 내일의 어제이며
오늘이 거듭됨에
세월은 흐르는 것이다
나는 어제의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의 어제를 도라보고
사건에 사는동안
희망을 맞이했다
희망은 내 작품에 전기가되고
희망은 내 개인전의 중발이된다
그러므로
내일의 내 작품은 어제가 없을 것이며
어제의 내 개인전은 내일이 없을 것이다

贊助作品

老 木	서 울	金 光	培
孤	◇	徐 淳	三
耽 羅 所 見	◇	李 海	濤
玄 窩 伯 像	◇	林 應	植
스 에 - 기	仁 川	李 宗	和
	釜 山	許 宗	培

登 録 **Hando** 商 標

寫眞材料 映畫材料
寫眞器具一切 X線材料

한도양행

Hando Hando標原板
Asia Asia標

카메라用 필름,
寫眞器具, 寫眞藥品

弊店을 恒常 愛護하여 주
셔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振替 口座 서울 中央 2465
서울特別市中區南大門路4街57
국제 사서함 2047
TEL. ② 0279. 0931.
夜間 ③ 2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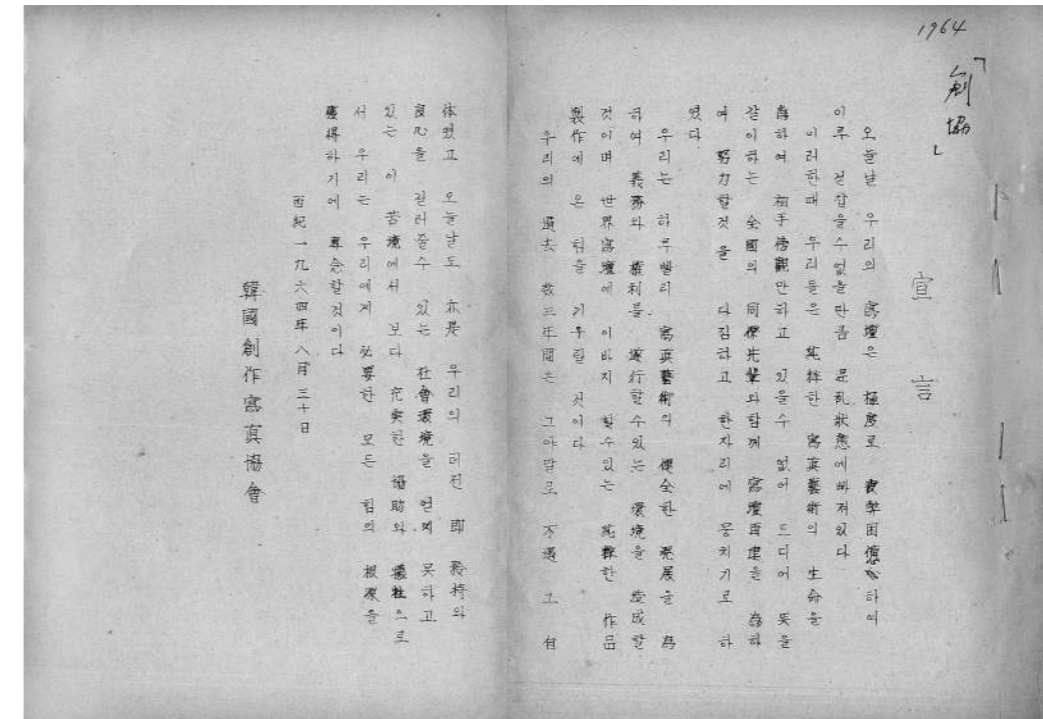
차 례

1 建 築 美	11 自 畫 像
2 다 간 거 울	12 제 터 리
3 冬眠인 工事場	13 田 園
4 半 身 不 隨	14 靜
5 백 가 달 보 록	15 꿈 피 지 손
6 빈 감 한 자 취	16 포 - 추 옛
7 配 置	17 暴 雨
8 相 議	18 光
9 알 수 없는 속	19 化粧 前
10 鷺駕기다리느라	20 回 甲

내지

[01-114]

한국창작사진협회, 선언 및 정관, 1964년 8월 30일



선언문

선언

오늘날 우리의 사단은 극도로 피폐곤번(疲弊困憊)하여 이루 견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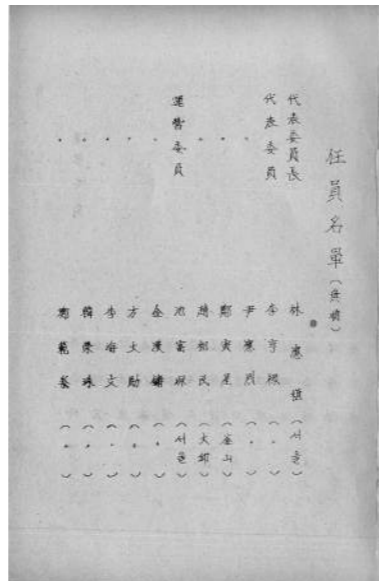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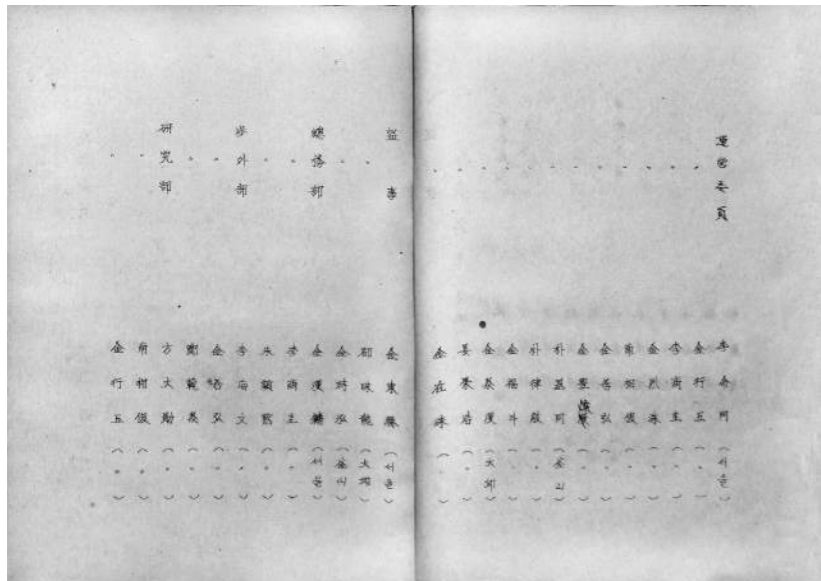
이러한 때 우리들은 순수한 사진예술의 생명을 위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드디어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동료 선배와 함께 사단 재건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한자리에 뭉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하루빨리 사진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무와 권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세계 사단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순수한 작품 제작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과거 수 3년간은 그야말로 불우 그 자체였고 오늘날도 역시 우리의 터전 즉 궁지와 양심을 길러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고경에서 보다 충실한 협조와 희생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의 근원을 획득하기에 전념할 것이다.

서기 1964년 8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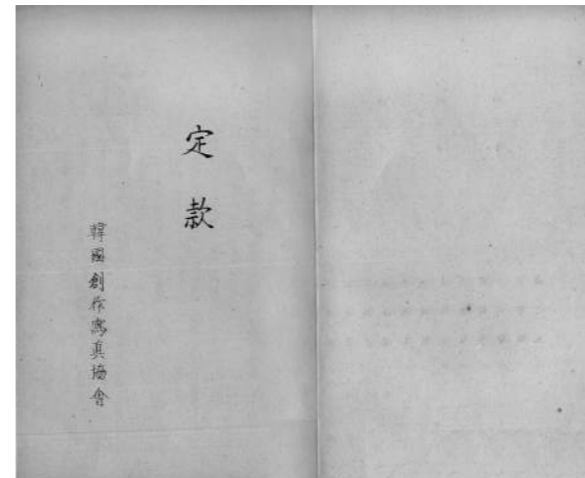
한국창작사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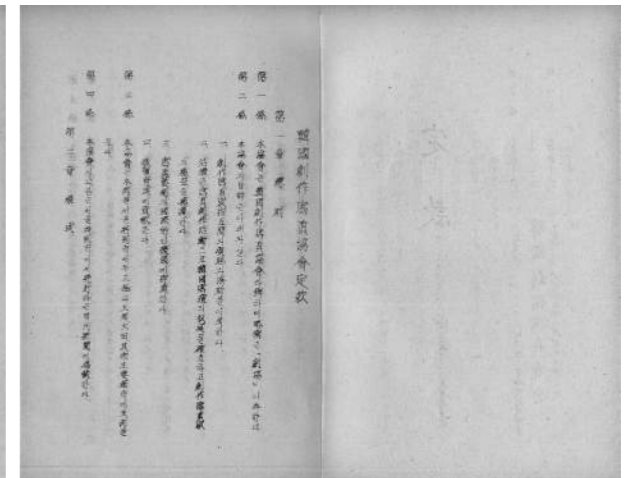
임원 명단

임원 명단(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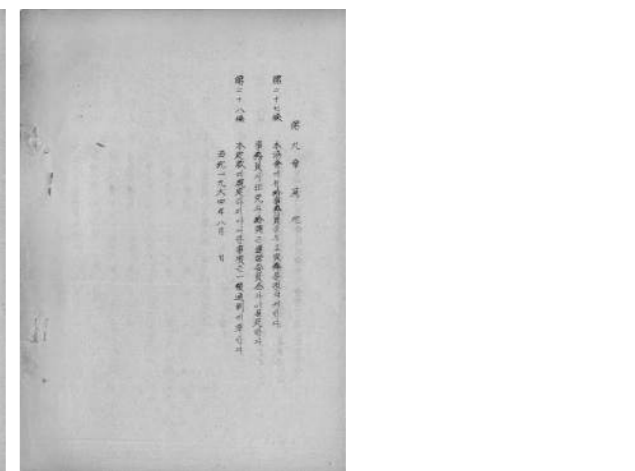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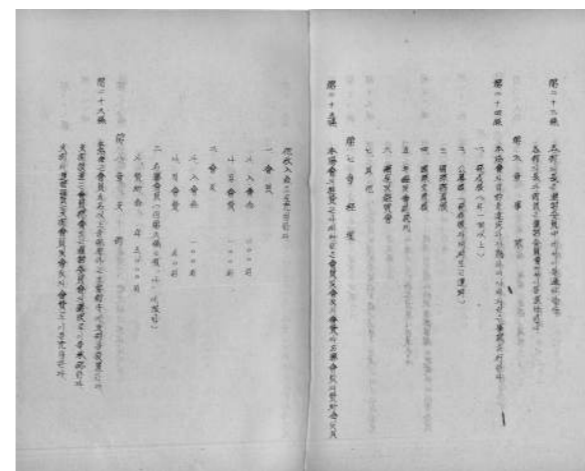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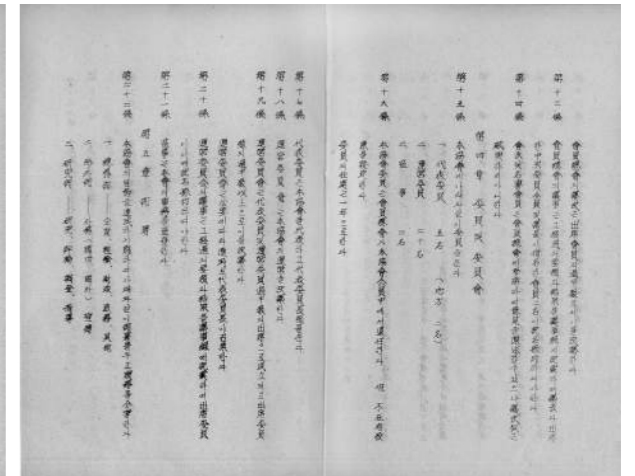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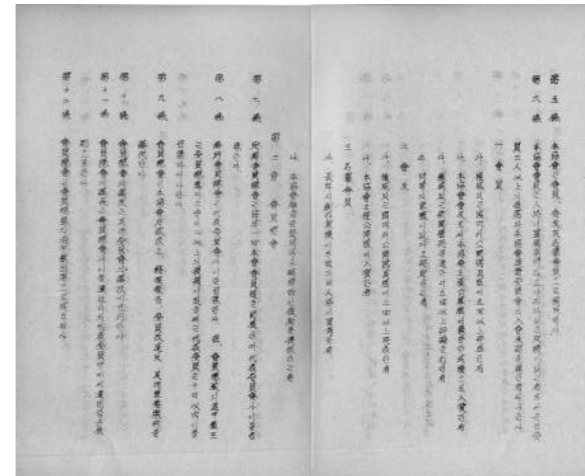
- 대표위원장 임응식(서울)
- 대표위원 이형록(〃) 윤응열(〃) 정인성(부산) 조상민(대구)
- 운영위원 지부원(서울) 김한용(〃) 방대훈(〃) 이해문(〃) 한영수(〃) 정범태(〃) 이명동(서울) 김행오(〃) 이상규(〃) 김열수(〃) 남상준(〃) 김선홍(〃) 김풍환(〃) 박기동(부산) 박윤교(〃) 김복두(〃) 김태한(대구) 강영호(〃) 김재수(〃)
- 감사 김동혁(서울) 도주룡(대구) 김시홍(부산)
- 총무부 김한용(서울) 이상규(〃) 주진목(〃)
- 섭외부 이해문(〃) 김선홍(〃) 정범태(〃)
- 연구부 방대훈(〃) 남상준(〃) 김행오(〃)



정관 표지



내지



한국창작사진협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본 협회는 한국창작사진협회라 칭하며 약칭은 '창협' 이라 한다.
- 제2조 본 협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창작사진가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이룩한다.
 2. 활발한 사진 창작 활동으로 한국 사단의 권위를 확립하고 창작사진가의 권익을 권호한다.
 3. 사진예술의 국제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4. 후배 육성에 공헌한다.
- 제3조 본 협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부산, 대구, 대전, 기타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둔다.
- 제4조 본 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구성

- 제5조 본 협회는 회원, 회우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본 협회 회원은 인격이 원만 고상하고 아래와 같은 실적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과 본 협회 운영위원회의 입회 승인을 득(得)한 자라야한다.
 1. 회원
 - 가. 권위있는 국내외 공개사진전에 5회 이상 발표한 자
 - 나. 본 협회 회우로서 본 협회 주최 공모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 다. 권위있는 신문 잡지를 통하여 5회 이상 평론을 행한 자
 - 라. 동등의 업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회우
 - 가. 권위있는 국내외 공개사진전에 2회 이상 발표한 자
 - 나. 본 협회 주최 공개전에 입상한 자
 3. 명예회원
 - 가. 장년(長年)의 창작업적이 뚜렷하며 인격이 원만한 자
 - 나. 본 협회 취지를 찬동하고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자

제3장 회원 총회

- 제7조 정기회원총회는 매년 1회 본회 회원전을 전후하여 대표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 제8조 임시회원총회는 대표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단, 회원총수의 과반수 또는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는 대표위원은 10일 이내 이를 소집하여야한다.
- 제9조 회원총회는 본 협회 정관 개정, 경리 보고, 위원 개선 및 기타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 제10조 회원총회의 의결은 기타 위원회의 의결에 선행한다.
- 제11조 회원총회의 의장은 회원총회가 이를 선임하되 대표위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 회원총회는 회원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회원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서 이를 결의한다.
- 제13조 회원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한 중앙위원 전원 및 의장이 지명한 회원 2명이 기명 날인하여야한다.
- 제14조 회우 및 명예회원은 회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위원 및 위원회

- 제15조 본 협회에 아래와 같이 위원을 둔다.
 1. 대표위원 5명 (지방 2명)
 2. 운영위원 20명
 3. 감사 3명
- 제16조 본 협회위원은 회원총회가 본 협회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단, 부재자 투표를 인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17조 대표위원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대표위원장제를 둔다.
- 제18조 운영위원회는 본 협회의 운영을 결의한다.
- 제19조 운영위원회는 대표위원 및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이를 결의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대표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그 결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출석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한다.
- 제21조 감사는 본회의 사무를 감사(監査)한다.

제5장 부서

- 제22조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서를 두고 업무를 분장(分掌)한다.
 1. 총무부 기업, 조직, 재정, 서무, 기타
 2. 섭외부 외무(外務)(국내, 국외) 선전(宣傳)
 3. 연구부 연구, 평론, 조사, 지도
 각 부의 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이를 선임한다.
- 제23조 각 부의 장과 부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6장 사업

- 제24조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발표전(연 1회 이상)
 2. 공모전(발표전과 동시 또는 수시)
 3. 국제사진전
 4. 국제교류전

5. 연감 및 회지 발간
6. 강좌 및 감상회
7. 기타

제7장 경리

제25조 본 협회의 경비는 아래와 같은 회원 및 회우의 회비와 명예회원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 가. 입회금 200원
 - 나. 월회비 100원
2. 회우
 - 가. 입회금 100원
 - 나. 월회비 50원
3. 명예회원(단 제6조 3항 “나”에 한함)
 - 가. 찬조금 연 5,000원

제8장 지부

제26조 본 협회는 회원 5명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도시에 지부를 설치한다.
지부설치는 회원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승인한다.
지부의 운영경비는 지부 회원 및 회우의 회비로 이를 충당한다.

제9장 기타

제27조 본 협회에 유급 사무원을 두고 실무를 담당케한다.
사무원의 임면(任免)과 급여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28조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례에 준한다.

서기 1964년 8월 일

[04-004]

문교부 주최, 《제13회 국전》,

1964년 10월 16일-11월 15일, 경북공미술관, 덕수공미술관



심사위원 명단

위원장 이종우

부위원장 도상봉

사진분과 위원장 정희섭

이건중, 이경모, 이해선, 임응식

[사진부]수상자 명단

문교부장관상 <생명> 신현국

[13-186]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심사소감, 『동아일보』, 1964년 10월 20일』



신진들의 노력 뚜렷, 대체로 무난한 수준

임응식

복잡 다양한 현실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사진작가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감동했는가, 또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작가가 자신 이외의 사람들에게 전달할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중요시하고 그것이 어떤 정도로 명확하게 포착되었고 또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는가를 세심히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심사를 했다. 그러나 513점이나 되는 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내 가슴속을 파고들고 뒤흔들어주면서 힘차게 '아찔'되는 작품을 볼 수는 없었다. 금년에는 《국전》에 사진이 참여하게 되어 일부 작가가 《동아콘테스트》에 응모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작품의 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진들의 몸부림치는 노력과 열의만은 뚜렷이 엿볼 수가 있어 기뻐다. 특선으로 뽑은 조천용 작 <모정>은 사진예술의 장점인 순간고정의 의의를 백% 살린 작품으로써 내용이 풍기는 분노와 긴박감은 무한한 어머니의 애정을 애처롭도록 감싸주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해준다.

김덕수 작 <결혼식 날>은 '유모어리스트'하고 소박하면서도 심각하고 성스러운 단면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내리는 진눈까비가 더욱 이 작품을 효과적으로 살리고 있다. 서성해 작 <농가>는 '칼러'로서 색감도 좋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농가의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다. 가작으로 뽑은 김종순 작 <비켜나세요>는 아기자기한 동심의 세계를 역광으로 아름답게 표현했고 강해용 작 <삼등 열차>도 '리얼'한 감각이 풍기는 좋은 작품이었다. 최민식 작 <여생>, 김창수 작 <호기심>, 공길남 작 <석문> 모두 상을 주어 아깝지 않은 알찬 작품들이었다.

그리고 금년 《동아콘테스트》 심사에 있어서는 사진예술의 본질적인 정도를 중시했다. 즉 '몬타주' 술법은 일절 인정하지 않았고 또 모방성을 가능한 한도로 배격하고 《국전》에 입선된 동일한 소재의 작품도 이를 입선에서 제외했다. 전체 심사원들이 《동아콘테스트》의 뚜렷한 이념과 방향 즉 사계(寫界) 예술의 본질성을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어느 정도로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한국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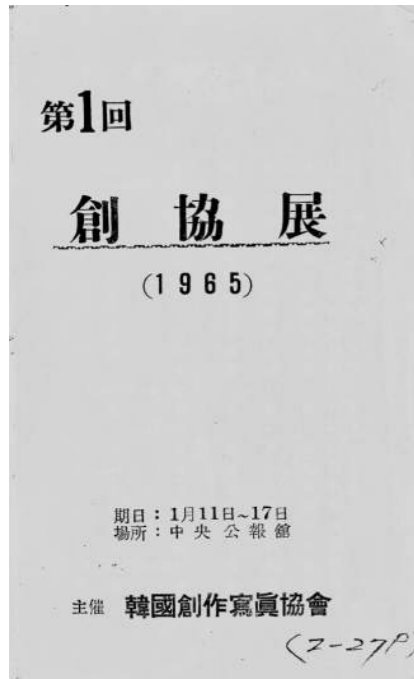
중요한 내용 형식, 칼라부분에 큰 수확

이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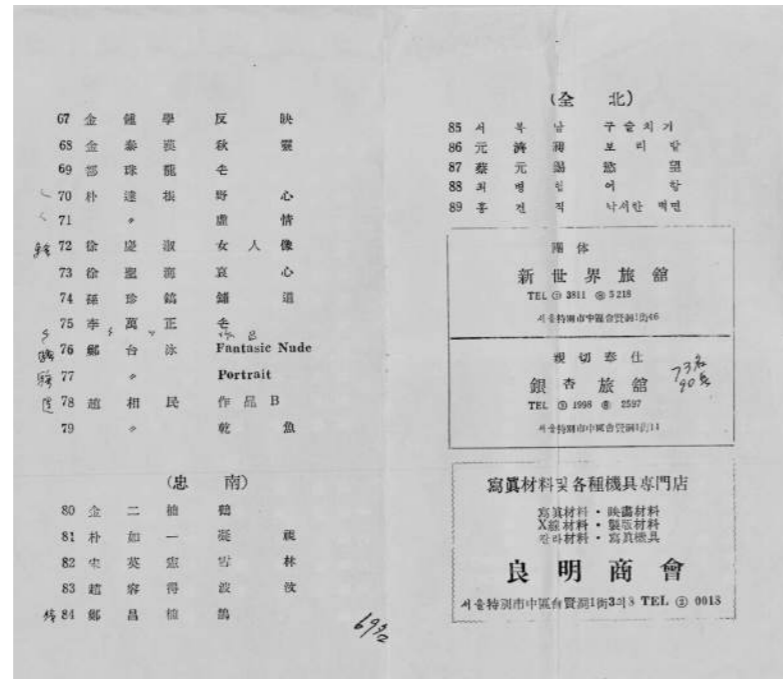
사진작품에는 사진 특유의 형식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러한 특유의 형식에 알맞는 표현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의 특수성은 형식이 가지는 특수성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작품심사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을 동일하게 중요시했다. 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 속에서 그야말로 형식과 내용이 알맞게 부합된 특출한 작품을 볼 수는 없었다. 형식이 좋으면 내용이 빈약하고 좀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미숙하고... 모두 결점이 있다. 그러나 입상작으로 뽑은 8점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편이었다. 그리고 금년에는 '칼러' 사진의 응모점수가 30점이나 되고 그중에서도 3점이 입상되었고 또 9점이 입선되었다는 것은 '칼러' 사진의 앞날을 위해서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대한예술사진연구회 회장>

[02-030]

한국창작사진협회 주최, 《제1회 창협전》, 1965년 1월 11일-1월 17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뒷면

[참가 회원명]

(서울)

김한용 김행오 김선홍 김응태 김효열 김동혁 김선옥 김정희 김기순 남상준 민경자 박봉근 방대훈 백남식 손규문 안종철 오순자 유정재 이상규 이영훈 이형록 이창환 이상도 이장호 이호산 이창진 이국성 임응식 임범택 전문각 정범태 정철용 조순형 주진목 주명덕 한영수 전창순

(경남)

김두순 김복두 김석배 김시홍 김종문 권상기 박기동 박문갑 박영제 이형탁 이호욱 정인성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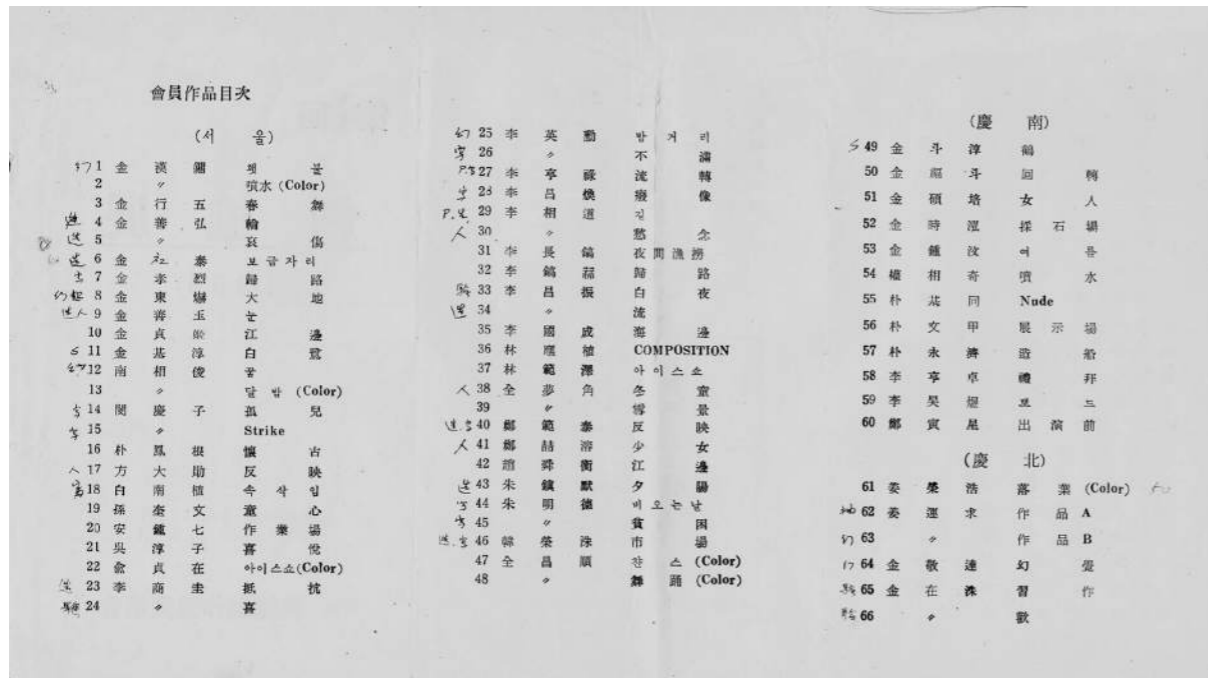
강영호 강운구 김경달 김재수 김종학 김태한 정주용 박달근 서경숙 서성해 손진호 이만정

(충남)

김이식 박여일 송영현 조용득 정창식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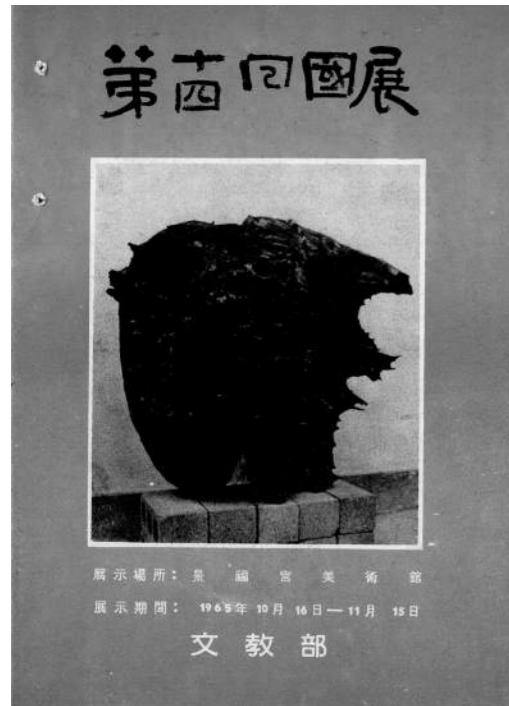
서복남 원제창 채원석 최병협 홍건직



내지

[04-005]

문교부 주최, 《제14회 국전》, 1965년 10월 16일-11월 15일, 경북공미술관



심사위원 명단

위원장 이종우

부위원장 도상봉

사진부 분과위원장 정희섭

이건중 이해선 임응식 이경모 현일영 김조현

[사진부]수상자 명단

문교부장관상 <격정> 김종현

특선 <수녀되는 날> 최민식, <주유(走遊)> 장지영, <작품 "17"> 조현두, <흑발> 성재경,

<야상곡> 이종원, <생과 사> 조현식, <결투> 문선호

[05-028]

한국사진협회 주최, 공보부 후원, 《제3회 전국회원전》, 1965년 12월 26일-12월 31일, 예총화랑



팸플릿 표지



작품目録		작품目録	
1. 밤	尹永福 (南原)	35. 오	林正明 (서울)
2. 脚	金龍基 ()	36. 校	金善吉 (仁川)
3. 半	朴李瑞 (서울)	37. 律	文善英 ()
4. 晚	李顯瑞 ()	38. NUDE	文善英 (서울)
5. 울	金光一 ()	39. 삼	金元 (全州)
6. 那	金銀 (釜山)	40. 삼	金元 ()
7. 기	金銀 ()	41. 단	金成 ()
8. 江	金德一 ()	42. 映	金成 ()
9. 라	金德一 ()	43. 對	金成 (서울)
10. 順	金德一 ()	44. 工	金成 (木浦)
11. 新	金德一 ()	45. 作	金成 ()
12. 光	金德一 ()	46. 作	金成 ()
13. 니	金德一 ()	47. 作	金成 ()
14. 비	金德一 ()	48. 作	金成 ()
15. 의	金德一 ()	49. 作	金成 ()
16. 수	金德一 ()	50. 作	金成 ()
17. 作	金德一 ()	51. 作	金成 ()
18. ECHINOPSIS	金德一 ()	52. 作	金成 ()
19. 結	金德一 ()	53. 作	金成 ()
20. COREENNE	金德一 ()	54. 作	金成 ()
21. 세	金德一 ()	55. 作	金成 ()
22. 一	金德一 ()	56. 作	金成 ()
23. 바	金德一 ()	57. 作	金成 ()
24. 心	金德一 ()	58. EDEN	金成 ()
25. 十	金德一 ()	59. 十	金成 ()
26. 九	金德一 ()	60. 十	金成 ()
27. 武	金德一 ()	61. 十	金成 ()
28. 武	金德一 ()	62. 十	金成 ()
29. 武	金德一 ()	63. 十	金成 ()
30. 武	金德一 ()	64. 十	金成 ()
31. 武	金德一 ()	65. 十	金成 ()
32. 武	金德一 ()	66. 十	金成 ()
33. 武	金德一 ()		
34. 武	金德一 ()		

내지

[13-214]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사진동우회 공동주최-심사평, 『동아일보』, 1966년 2월 8일』



형식 내용에 모두 뒤진 국내 수준 이해선

외국작품의 세련되고 빈틈없는 '테크닉'은 국내작품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것으로서 우선 국내작품을 형식에서부터 누르고 말았다. 형식적인 면에서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이루게 된 것은 국내 작가들의 역량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국산 인화지'가 얼마나 엉터리고 조악한 것인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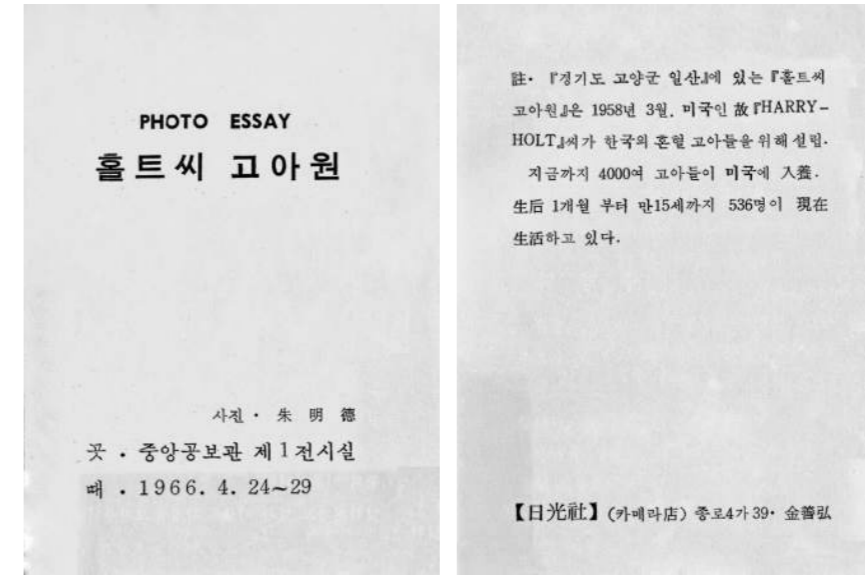
대체로 외국작품들이 내용보다 더욱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작품은 이와 반대적인 경향이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예술이든 먼저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예술이 될 수 없다고 볼 때 국내작품의 후진성은 두말할 것 없이 형식의 경시에 있다고 하겠다. 심사결과 흑백부에서나 '칼라' 부에서 겨우 동상으로 한 점씩 밖에 국내작품이 입상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섭섭한 느낌이나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경종이 된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더욱 우리 심사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서독'에서 응모한 '칼라' 작품이었다. 물체의 외관 색깔을 초월한 내면의 '이미지'가 발산하는 짙은 감정의 색깔로 작가의 개성과 사상을 인상 깊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국내 '칼라라보'의 후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상작으로 뽑힌 외국작품들은 오늘의 세계 사단을 가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진예술을 위해서는 큰 자극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리라고 믿는다.

〈심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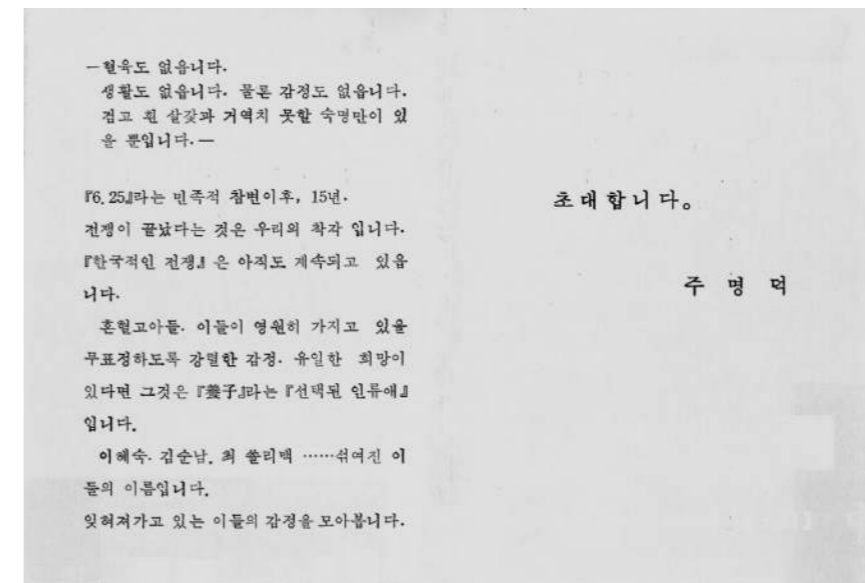
[06-007]

『PHOTO ESSAY 홀트씨 고아원』, 1966년 4월 24일-4월 29일, 중앙공보관 제1전시실』



팸플릿 표지

뒷면



내지

[06-010]

대한민국공보관, 미술출판사 후원, 《이경모 사진전》,
1966년 6월 13일-6월 18일, 대한민국 주일공보관 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뒷면



내지

[06-022]

《제2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 1966년 7월 26일-8월 1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목록

【서울】

1 <서울조형 "A" "B" > 임응식, 2 <아이 > 김선옥, 3 <폐탄 > 민경자, 4 <환류(還流) >, <누드 > 정창식, 5 <강아지 > 오순자, 6 <길 > 이해문, 7 <남매 > 주진목, 8 <COMPOSITION > 이상규, 9 <소녀 >, <노을 >(칼라) 남상준, 10 <누드 >(칼라), <정물 >(칼라)백김한용, 11 <합창 > 한영수, 12 <창문 > 김행오, 13 <그물 > 장양환, 14 <백구 > 서신자, 15 <스 > 조순형, 16 <내 안경 보세요 > 이강원, 17 <무아 > 김열수, 18 <고(故) 공초 선생 >(칼라) 전창순, 19 <등불공 > 이해숙, 20 <동안(童顔) > 이정미, 21 <꽃 사는 수녀 > 김정희, 22 <Mr. B. 다운즈 >, <혼·혈아 > 주명덕, 23 <건설 > 김선홍, 24 <명동의 이미지 > 한치규, 25 <하동 > 이상도, 26 <연습 > 박봉근, 27 <불만 > 임범택, 28 <젊은 이들 > 박영숙, 29 <꿈에서나! > 김종순, 30 <노점 > 이호산, 31 <회열 > 김응태, 32 <유원지 > 윤문석, 33 <촬영대회 > 백남식, 34 <젊은이 > 박제훈, 35 <이발 > 권명광, 36 <판자집 소녀 > 박원걸, 37 <물싸움 > <두 소녀 > 김효열, <침묵 > 강운구, <소년 >(칼라) 백환규, <노파 > 이영훈, <앵글 > 전용각, <잔해 > 정범태

【부산】

38 <밀집모자 > 권상기, 39 <구성 갈구 > 정창규, 40 <건어장 > 김두순, 41 <양 치는 아이 >, <한산 > 정인성, 42 <진(眞) > 현중호, 43 <비삿갓 > 김기순, 44 <송별의 햇불 > <삶 > 박문갑, 45 <건설공사 > <스님들 > 김복두, 46 <장날 > <석공 > 박기동, <농악 > 김재홍, <미사의 종 > 박윤교, <영세어로 출어준비 > 성지경, <비누시장 >, <구성 > 김석배

【경북】

<추정 > <포트레이트 > 이수일, <회상 > <흑선 > 조상민, <기도 > <작업 > 김여생, <여심 > 도주룡, <정 > 윤기복, <휴식 > <군무 > 김재수, <속삭임 > <여정 > 박달근, <손 > 정태영, <작품 M > <NUDE. No. 5 > 서경숙, <프로필 > <작품 A > 박성준, <발(髮) > 최박지, <풍만 > <여정 > 장원식, <엽(葉) > <건어 > (칼라) 하전건, <건어 > 구자원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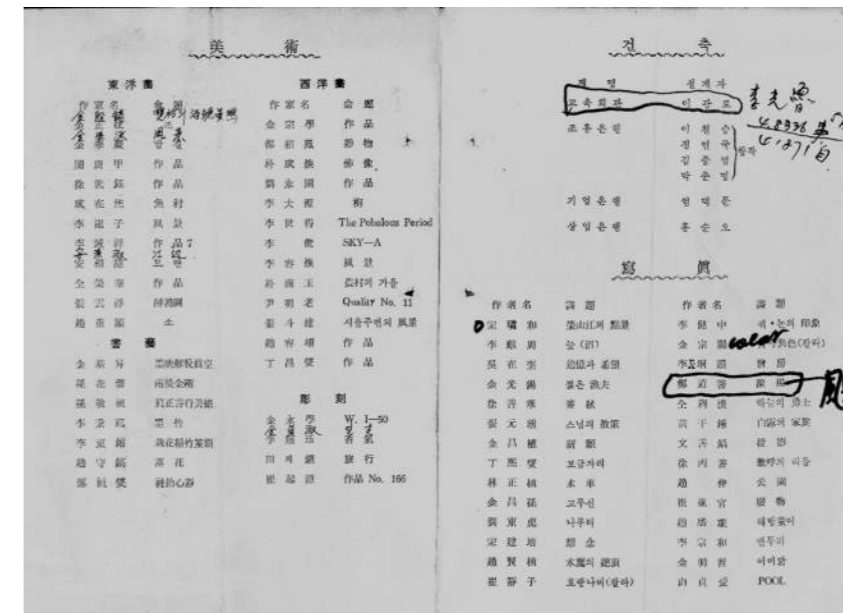
47 <부두의 아이들 > 서복남, 48 <건어 > <꼬마 손님 > 문길수, 49 <노상 > <흥(興) > 채원석, 50 <아이들 > 문동소, 51 <건어장 > <공관 > 홍건직, 52 <장날 > 최병협

[06-039]

예총 주최, 공보부 후원, 《'66 8·15경축 종합전시회, 미술·건축·사진》, 1966년 8월 15일-8월 19일, 예총화랑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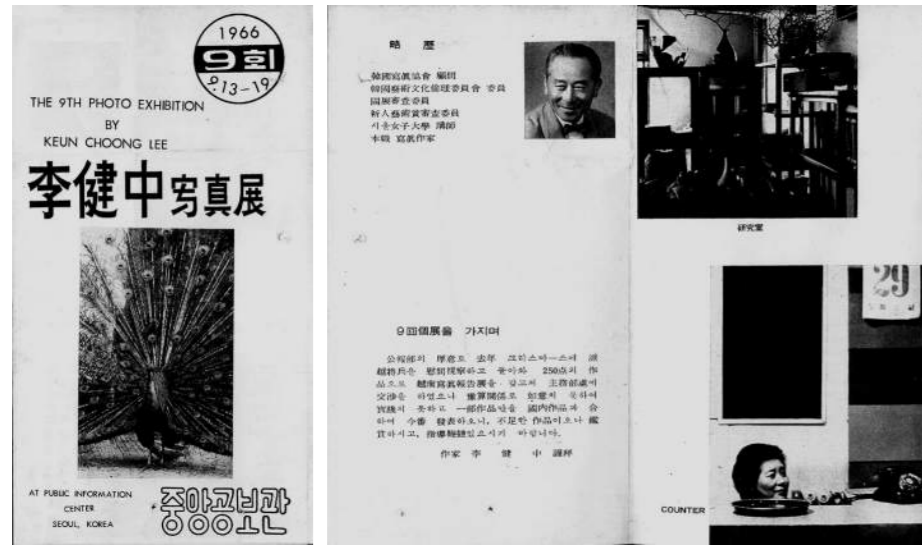
내지

사진

송진화 이기주 오재규 김광석 서선화 장원훈 김창권 정희섭 임정식 김창손 류동호
 송건배 조현식 최정자 이건중 김종양 이경모 정도선 전이한 황간중 문선호 서병선
 조 중 최재관 조성선 이중화 김명철 백정애

[06-014]

《제9회 이견중 사진전》, 1966년 9월 13일-9월 19일, 중앙공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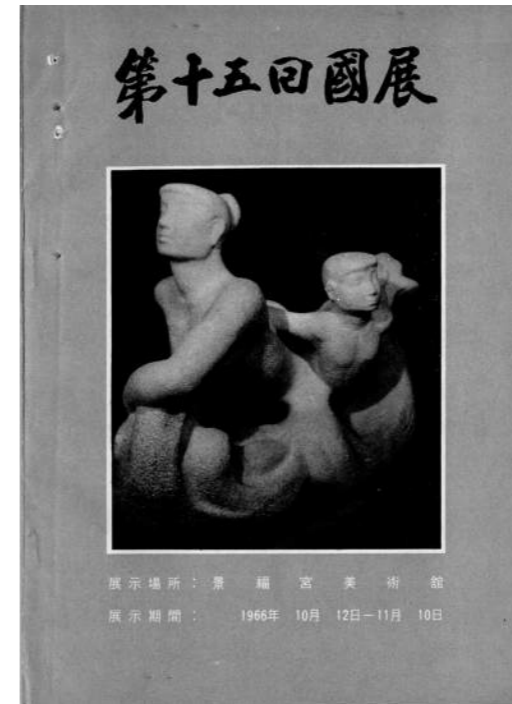
팸플릿 표지

내지



[04-006]

《제15회 국전》, 1966년 10월 12일-11월 10일, 경북공미술관



심사위원

위원장 이종우

부위원장 김인승

사진부 분과위원장 이견중

정희섭, 이해선[불참], 임응식[불참], 이경모

[사진부] 수상작

국무총리상 <자애> 김종현

문교부장관상 <기다림> 문선호

특선 <창세기의 하루> 김동휘, <희로(喜怒)> 장지영, <잔설> 조현두, <절경> 김영민, <평화의 기구> 신현국, <포이(捕餌)> 한일선, <불멸> 조 중, <비(飛)> 박형득, <근면> 조현식

[06-033]

《제4회 신선회전》, 1966년 12월 8일-12월 14일, 중앙공보관 화랑



팸플릿 표지

한우	金 庚 泰	✓ 入試所見 TWIST
한우	金 炳 柱	✓ 불꽃 이삭줍는 女人
조성	朴 河 鯨	榮光後の 孤獨 피리부는 老人
	林 範 澤	✓ 修女 WELCOME JONSON
해태	俞 在 力	✓ 襖 아이
	李 海 文	✓ 小工間 鐵工所
서문	李 海 範	✓ 덕비 친구
이진	李 振 九	假面劇 ✓ 人波 慈善
박하경	李 鍾 福	✓ 初生兒 A. 初生兒 B. 初生兒 C.
	朱 鎮 默	✓ 적막 고개길
	韓 榮 洙	✓ 샘 할머니
유재력	韓 致 奎	✓ 할아버지 어린이

내지

[작가 목록]

김경태 김병주 박하경 임범택 유재력 이해문 이해범 이진구 이종복 주진묵 한영수 한치규

[13-257]

임응식, 「내가 본 《신선회 사진전》」, 『한국일보』, 1966년 12월 13일



생활주의(生活主義)의 재건, 혼선 빛었던 사단에 본연의 자세 찾게 해 주

신선회가 오랫동안의 동면에서 재기하여 8일부터 중앙공보관에서 《제4회전》을 가지고 있다.

신선회가 생활주의를 표방하며 발족한 것은 1957년의 일이다.

당시 '살롱픽추어'가 위세를 떨치고 있을 무렵 그 현실 도피적인 경향에 도전했다. 이들은 자연이나 현실 속에서 그 모순을 적출 비판하여 현실의 수정을 피하는 동시에 새로운 현실 발견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한국 사단에 새 화풍을 이룩하는데 끼친바 컸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59년의 《제3회전》을 마친 뒤 일부 지도회원의 분파(分派) 작용으로 그 기능이 마비된 채 7년을 보냈다.

그 후 한국 사단은 5·16혁명을 분수령으로 '오토·스타이넬트'의 주관적 사진이 유행되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40년 전의 망명적 화풍이 되살아나와 《국전》 사진부를 뒤덮는 등 실로 혼돈의 극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한 말로 말해서 사진창작의 지도이념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근자에 이르러서는 사진동우회를 위시하여 '뉴포토클럽', 현대사진연구회가 한결같이 생활주의 경향의 작품전을 가졌고 신선회 또한 옛 모습 그대로 생활주의를 주창하는 작품들을 내놓게 되어서 흐릿한 감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사진예술의 갈 길은 현실 속의 사실을 소재로 하여 사상표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뜻에서 볼 때 《신선회 제4회전》은 올해 도미를 장식하는 뜻있는 것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특히 뛰어난 것으로서는 한영수 <샘>, 이해문 <조그만 철공소>, 주진묵 <적막>, 임범택 <수녀> 등이 있는데 중견작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과시했고 이진구 <인파>, 한치규 <할머니>, 박하경 <피리 부는 노인>, 김경태 <입시소견>, 이종복 <초산아(初産兒)> <초생아(初生兒)>, 유재력 <아이>, 김병주 <불꽃>은 각각 좋은 소질을 엿보여주었다.

임응식(한국창작사진협회 위원장)

[02-033]

《3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 1967년 3월 29일-4월 3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 서울 김중순 김한용 김행오 김동혁 김선홍 김선옥 김병주 김인숙 김응태 남상준
임응식 임법택 전창순 윤문석 강운구 박영숙 박제훈 이용정 이진구 이종복
오순자 명재력[유재력] 주진묵 주명덕 정창식 최방환 한영수 한치규 함민천
이해문
- 대구 김태한 김재소[김재수] 김여생 김동문 박달근 박성준 이수일 이갑돈 박해동
구자원 도주룡 정태영 장원식 서경숙 최박지 하진건 여상구
- 부산 김기순 김석배 김복두 김시홍 박영제 정인성 함향경 현근호 권상기 박기동
박문갑 이상연
- 군산 김 훈 채지석 문길주 홍건직 서복남 신철균

[13-213]

『렌즈가 거둔 결정, 영광의 파노라마, 《제5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상작-심사평, 『동아일보』, 1967년 6월 15일



독창성 중시, 예년 비해 높은 수준

임응식

올해는 응모작품의 양도 풍성했지만 질에 있어서도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다섯 번째로 접어든 《동아콘테스트》는 차츰 그 성격과 방향이 통일되고 자리가 잡혀져가는 느낌이다. 응모작품을 통해서 뚜렷해진 것은 첫째로 낡은 회화양식의 작품이 근소해졌다는 것과 둘째로는 기법 위주의 요술적(妖術的)인 경향과 또한 추상적인 경향의 작품들도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동아콘테스트》의 성격과 방향으로 직결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동아콘테스트》는 우리나라 사단을 위한 올바른 길잡이고 또한 금자탑이 아닐 수 없다.

올해의 심사에 있어서도 독창성을 중시했다. 대부분의 응모작품이 인간의 생활과 감정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표현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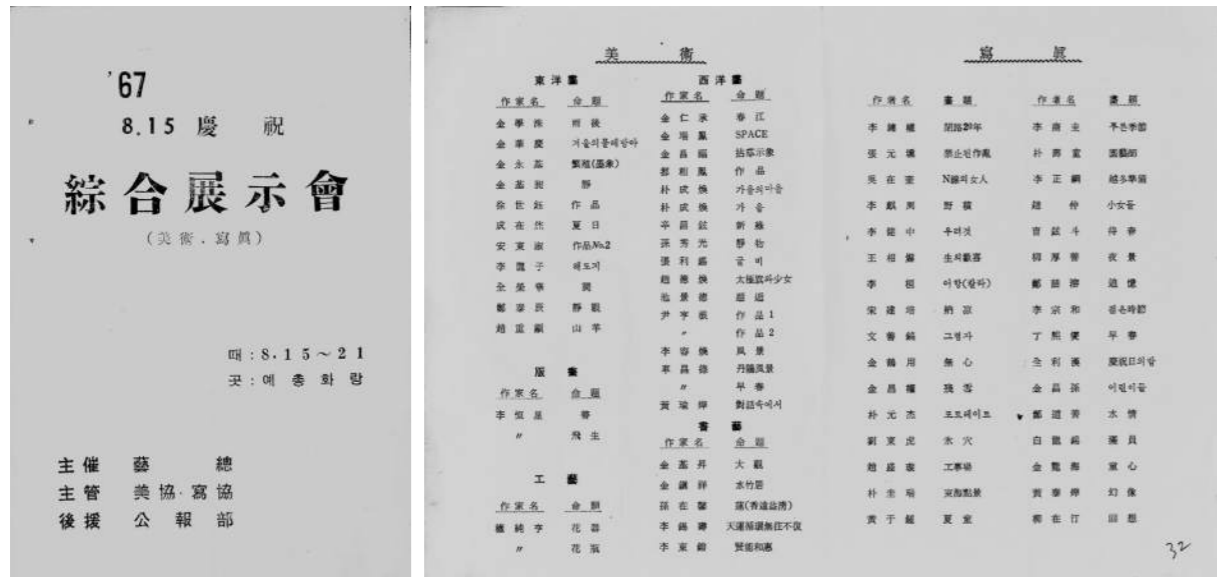
특선작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는 소재가 이색적이었기 때문에 덕을 봤다. 공원벤치에서 노부부의 달콤한(?) 축스러운(?) 키스신은 할머니의 미소 짓는 수줍은 표정에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고무신을 살짝 밟은 발과 허공에 뜬 발에서, 손에 쥐고 있는 술병에서, 약간 강제성을 띤 듯한 몸집에서 인생의 희비애락(喜悲哀樂)을 집약한 깊은 맛과 멋을 느끼게 하고 있다. 준특선으로 뽑은 〈아이구! 실패〉는 결정적인 순간의 포착이었다. 냉엄한 플레밍으로 화면에서는 티 없는 맑은 동심과 따사로운 자애가 한데 엉켜 넘쳐흐르고 있다. 아무리 봐도 싫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고정이라고 하겠다. 〈영성체(領聖體)〉도 결정적인 순간포착과 빈틈없는 플레밍으로 내용의 초점은 날카롭고 뚜렷하다. 청초하고 엄숙한 감정이 화면 전체를 감싸주어 세련된 '톤'의 처리가 이 작품을 살리고 있다. 가작으로 뽑힌 5점의 작품들도 형식 내용이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 사진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뚜렷한 내용이 한층 중요하다.

〈노도의 위협을 뚫고〉는 시각효과에는 있지만 내용이 좀 산만하지 않았을까. 아슬아슬하게 입상권에서 제외된 〈침범〉, 〈생육(生慾)〉 등의 작품은 무척 아까운 감이 든다.

끝으로 응모 작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화 후의 처리, 특히 스팅팅 같은 작은 작업도 경시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진은 먼저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미대 강사 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

[06-072]

예총 주최, 미협·사협 주관, 공보부 후원, 《'67 8.15경축 종합전시회(미술, 사진)》, 1967년 8월 15일-8월 21일, 예총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사진[작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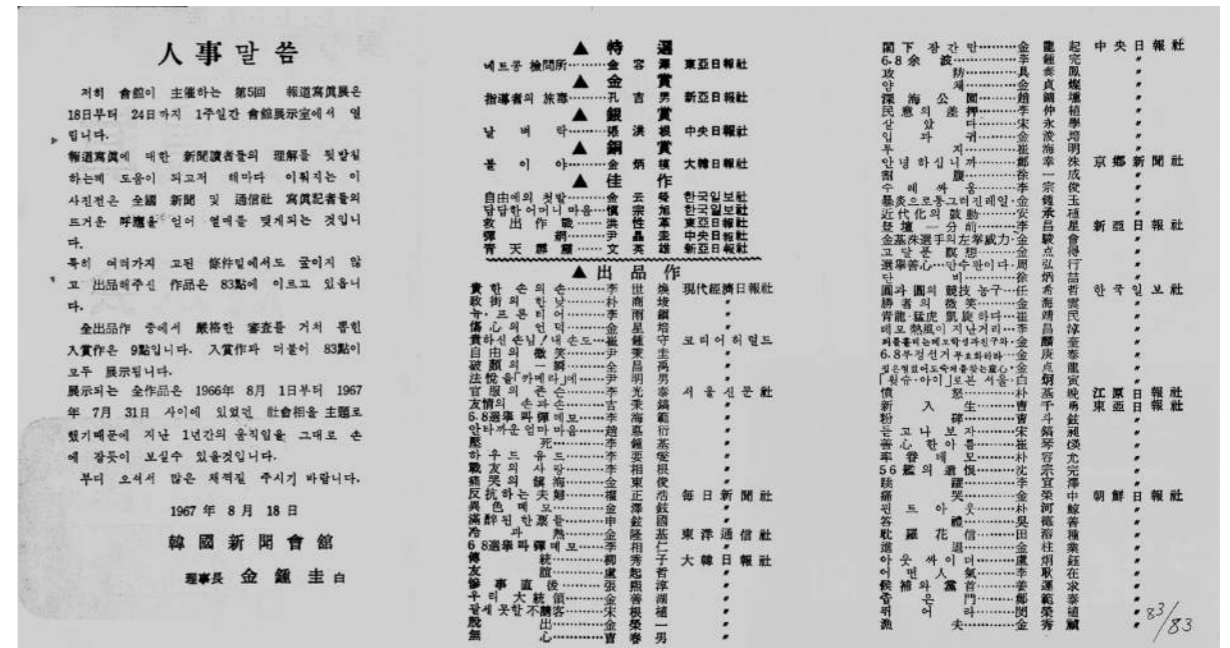
이용권 장원훈 오재규 이기주 이진중 왕상혁 이 환 송건배 문선호 김학용 김창권 박원걸
 류동호 조성선 박규서 황간중 이상규 박수동 이정강 조 중 조현두 류후선 정철용 이중화
 정희섭 전이한 김창손 정도선 백용석 김용해 황태업 류재정

[06-071]

한국신문회관 주최, 《제5회 보도사진 전시회》, 1967년 8월 18일-8월 24일, 신문회관 전시실



팸플릿 표지



내지

[02-049]

중앙공보관 주최, 《종합미술전》, 1968년 1월 22일-2월 10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참가단체

백양회(白陽會) 신상회(新象會) 한국사진협회(韓國寫眞協會)
 청토회(靑土會) 낙우회(駱友會) 대한사진예술가협회(大韓寫眞藝術家協會)
 신수회(新樹會) 대한산업미술가협회(大韓産業美術家協會) C.F.C. 신기회(新紀會) 한국서예가협회(韓國書藝家協會)
 뉴-포드클럽 목우회(木友會) 김여서원(劍如書院) 한국청년작가연합회(韓國靑年作家聯立會)
 구상전(具象展) 대성서예원(大成書藝院) 한국창작사진협회(韓國創作寫眞協會)
 찬조 조순찬공예학원(趙順贊工藝學院)

사진

한국사진협회

정희섭 이진중 박수동 이승봉 송건배 이성우 박성강 이상규 이정강 임정식 전이한 황태엽
 김용해 김창권 정철용 정도선 이경모 박원걸 박두열 김원동 조성선 오재규 박규서 류동범
 이기주 백영기 이현우 서병선 홍백과 구성희 구창모 김창손 정규철 왕상혁 이종화 김용수
 김광일 김학용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이해선 김조현 김석현 성두경 안준천 이완섭 박병호 이순홍 양승호 홍태표 안장현 이현숙
 손석현 손승욱 윤상운 최성욱 김홍설 허동철 양승혁 안삼문 홍순창 조춘남 조상규 황재구
 서순삼 방대훈 김제권 김광덕 이축길 이창재 이충근 육명심 오 룩

한국창작사진협회

임응식 한영수 김선홍 이해문 김한용 김종순 김행오 정범태 주진목 전창순 남상준 전몽각
 한치규 임범택 이용정 이진구 이종복 하한규 박하경 주명덕 이영훈 김효열 정창식 이혜숙
 류경애 서신자 민경자 최방환 윤문석 김선옥 오순자 김승원 김테레사 박영숙 이장호 이수일
 송명준 김재수 구자원 정태영 김여생 박달근 김우상 최박지 박성준 여상구 최재영 이종필
 김동문 홍건직 채원석 서복남 문길수 김 훈 신철균 박기동 권상기 김석배 박문갑 김치억
 박현우 박영제 최설영

뉴-포토 클럽

공길남 김홍수 김군명 김일학 송성호 윤세금 이창원 이정희 장원훈 정성강 정인숙 조 중
 지희경 지근호 한영희

[13-212]

『제3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사진동우회 공동주최-심사평, 『동아일보』, 1968년 2월 22일



예년 비해 리얼리즘 강렬

우리수준 뒤떨어져

빈틈없는 외국작품

우리 사단에 큰 자극

○… 《한국국제사진살롱》은 올해로 세 번째 돌을 맞이했다. 전 세계 자유 우방의 사진작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보다 친숙해지고 또한 서로의 실력을 겨루어보자는 광장은 해를 거듭할 수록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참가국도 14개국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응모작품 점수도 전례 없는 풍성한 양이었다.○

전체 응모작품을 통해서 첫째로 느낀 것은 예년과 동일하게 외국작품들의 세련되고 빈틈없는 톤의 처리라고 하겠고 이에 비해서 국내 작품들은 엄청난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예술이 '시각에의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 톤 밸류의 확립은 곧 작품형성에 있어서 제1의적(第一義的)인 요소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작품들은 벌써 관문에서부터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 여하간에 그 원인이 조악한 국산 인화지에도 있겠지만 작가의 노력 부족에도 있는듯하다.

둘째로 느낀 것은 응모작품의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살롱적인 것보다 리얼리즘적인 것이 많아 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국제사진살롱》의 성격이 차츰 뚜렷해져 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세째로 느낀 것은 칼라작품에서 우리나라의 작품들이 양과 질에서 모두 멀리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칼라라보'의 후진이 큰 원인이겠지만 작가들의 의욕상실에서였다면 무척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흑백작품에서 금상으로 입상한 <이루(離戾)>(중국)는 리얼한 사진적인 표현으로 내용의 초점이 뚜렷했다. 이별하는 여인들의 안타깝고 슬픈 감정은 일그러진 표정에서보다 합쳐진 세개의 손에서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만인이 이별의 눈물을 공감할 수 있는 무난한 작품이다. 은상의 <눈길>(한국)은 서정적인 감각을 풍겨주는 작품으로 세련된 형식은 통일되고 조화되어 눈길의 무드와 이미지를 조용히 발산하고 있다. 눈길을 가는 인물이 우체부였기 때문에 더욱 좋았고 화면의 전면 가로수가 알맞게 조형을 이루어 인상적이었다. 다만 인물 옆쪽을 가로지른 검은 전주가 몹시 눈에 거슬린다.

또 하나의 은상인 <올치로다>(홍콩)는 노인과 여인의 대화를 먼 거리에서 망원렌즈로 포착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톤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감싸주고 있다. 노인의 날카로운 눈과 벌어진 입은 무엇을 긍정하면서도 의아해하는 듯 이들의 오가는 정다운 대화가 들리는 듯 느껴진다.

동상의 <분노>(월남(越南))는 전화(戰禍)의 월남을 묘사한 작품으로 소년의 분노는 격한 눈동자와 굳게 다문 입에서 실감할 수 있다. 울부짖으면서 움켜잡는 작은 아이의 손과 목덜미를 감싼 큰아이의 손이 더욱 좋았다. 화면 상부와 옆을 잘라서 작화했다라면 보다 힘찬 작품이 되었을 것을 아깝다. 동상인 <빈곤>(오스트리아)도 상당히 무거운 작품이라고 하겠다. 앉아서 무엇을 마시고 있는 노인의 표정도 좋았지만 모자와 지팡이가 더욱 무드를 살리고 있다.

한편 서 있는 사람의 자세와 그의 눈동자는 빈곤을 넘어서서 무서운 전율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핀트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이 약화되고 있다. 동상인 <위기>(한국)는 결정적인 순간의 포착이라고 할까. 어린아이의 위기를 가로막고 무서운 세파트[세퍼드]에게 대신 팔꿈치를 물어 뜯고 있는 큰아이의 뒷모습이 꽤 인상적이고 또한 결사적으로 덤벼드는 세파트의 악착스런 형태와 극도로 놀란 어린아이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어 위기의 무드를 절감케 하고 있다. 어려운 장면을 잘 포착했다고 하겠다. 동상인 <사랑>(마카오)도 결정적인 순간포착이라고 하겠다. 아름다운 톤은 힘차게 나는 갈매기를 더욱 힘차고 시원스럽게 해주고 있다. 동상인 <노(老)학생>(홍콩)은 노인의 엄숙한 표정은 잘 묘사되었지만 연출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표정이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의 초점은 산만해지고 말았다.

칼라작품에서 금상으로 입상한 <모자>(오스트리아)는 사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형적이었다. 근래 서구의 칼라사진들의 경향이 초기인상파류의 회화를 그대로 모방한 듯 한 느낌이다. 아무리 색감을 생명으로 삼는 칼라사진이라고 하여도 사진은 사진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볼 때 이들의 작품들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작품 <모자>는 화면 5분의 4를 차지한 클린 칼라의 확립된 톤 밸류로 하여금 '모자'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발산되고 있다. 또한 모자를 통해서 청초하고 아름다운 모자의 주인공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이 작품의 내용이라고 하겠다. 유리판을 사용해서 사진성을 일부로 약화시켜 회화를 닮으려고 하고 있다.

은상인 <붉은 입술>(홍콩)도 그 수법이 금상인 <모자>와 비슷하다. 감미롭고 서정적인 맛이

내용의 전부라고 하겠다. 또 하나의 은상인 <송판 위에서>(독일)는 회화적인 것이 아닌 스트레 이트한 공간 묘사로 우선 호감이 간다. 다이내믹한 박력은 없지만 다갈색의 벽돌담이 인상적이다.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아기자기한 조형이 전체의 무드를 살리고 있다.

칼라작품에서 동상으로 입상한 5점의 작품평은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끝으로 제3회를 맞이한 《한국국제사진살롱》을 축하하는 뜻에서 일본의 프로 작가인 '후지 사끼'(藤崎康夫) 씨와 '네모도'(根本陽子) 양이 각각 시리즈로 10점의 작품을 보내왔음은 한일 양국의 친선을 위해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응모된 외국작품들은 오늘날의 세계수준을 가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단을 위해서는 크게 자극이 되었고 유익한 것이 되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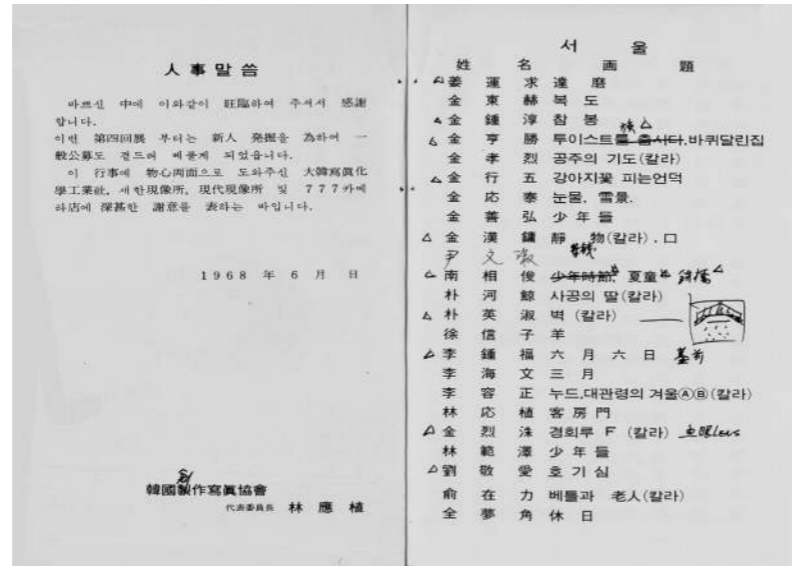
임응식(심사위원장)

[02-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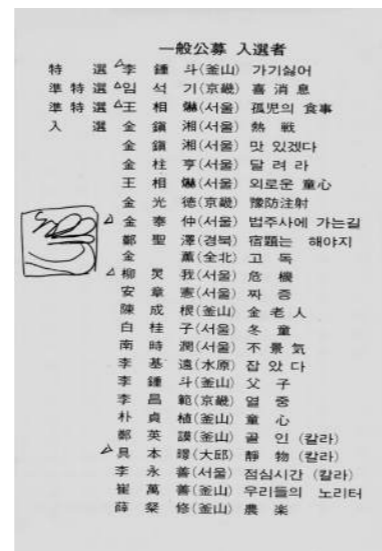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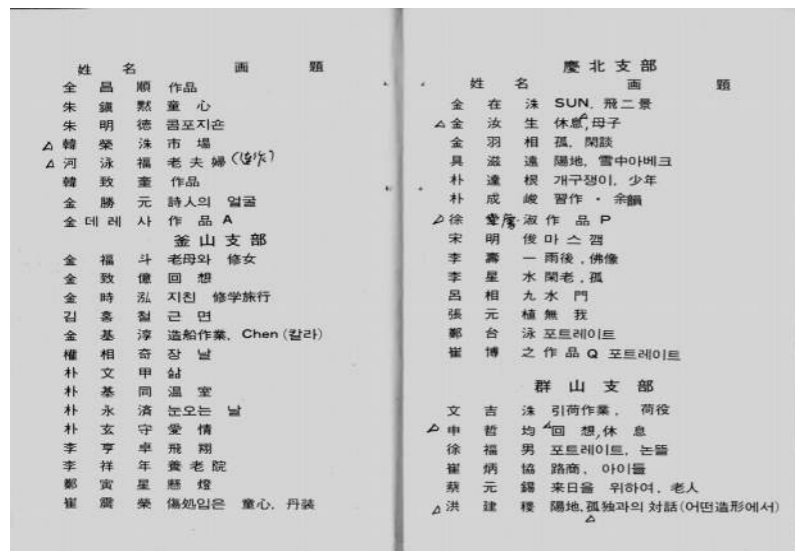
《제4회 한국창작사진협회전》, 1968년 6월 6일-6월 12일, 중앙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작가목록]

서울

강운구 김동혁 김종순 김형승 김효열 김행오 김응태 김선홍 김한용 남상준 박하경 박영숙
 서신자 이종복 이해문 이용정 임응식 김열수 임범택 류경애 유재력 전몽각 김창순 주진목
 주명덕 한영수 하영복 한치규 김승원 김테레사

부산지부

김복두 김치억 김시홍 김홍철 김기순 권상기 박문갑 박기동 박영제 박현수 이형탁 이상연
 정인성 최진영

경북지부

김재수 김여생 김우상 구지원 박달근 박성준 서애숙[서경숙] 송명준 이수일 이성수 여상구
 장원식 정태영 최박지

군산지부

문길수 신철균 서복남 최병협 채원석 홍건직

[일반공모 입선자 목록 생략]

[05-043]

주식회사 새한현상소 주최, FUJI PHOTO FILM CO., LTD. 후원,
《FUJI COLOR 작품전》, 1968년 9월 7일-9월 15일, 서울 국립공보관
9월 21일-27일 광주 학생회관, 10월 9일-14일 경북공보관, 10월 28일-11월 3일 부산공보관

[04-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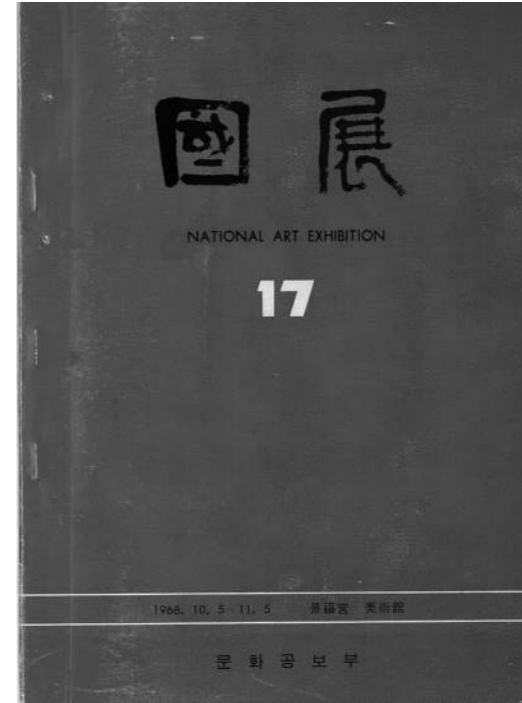
문화공보부 주최, 《제17회 국전》, 1968년 10월 5일-11월 5일, 경북공미술관



팸플릿 표지



내지



심사위원

위원장 도상봉

부위원장 손재형

사진부 분과위원장 이해선

위 원 임응식 이경모 정희섭 김조현

사진부

추천작가 이진중 문선호 조현두 현일영

수상자

문화공보부장관상 <매미잡이> 한일선

특선 <페인팅> 허 철, <출어> 강봉규, <이른 아침> 이진권, <괴상> 손석현, <좁은 문> 이정강,
<고목> 장원훈, <어항> 박현수, <죽림> 김중현, <영암(嬰鴨)> 홍순태, <향토의 맛> 이순홍

[참여작가]

강봉규 고통빈 구창모 김광배 김광석 김기순 김태식 김대벽 김테레사 김동철 김명옥 김상욱
김석현 김원영 김영은 김조현 김종순 김중현 김풍환 김한용 남상준 박달근 박병호 박상운
박수동 박필호 성두경 송진화 엄문근 류동호 유정재 이진중 이기주 이선택 이용정 이원진
이정강 이종화 이진권 이중한 이축길 이해선 윤상운 오재규 임석제 임용재 임응식 장원훈
장지영 장태원 정동우 정희섭 조 중 지일선 최구현 최원오 최재관 한일선 황성욱 현일영
하영복 홍백과

[13-207]

『제4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사진동우회 공동주최,
『동아일보』, 1969년 2월 11일



국내 칼라부문 크게 향상, 심사위원장 말
임응식 씨

네 번째 돌을 맞이한 《국제사진 살롱》은 참가국도 16개국으로 늘어났고 응모작품 점수도 1천 여 점에 달하는 풍성한 양이었다.

전체작품을 통해서 첫째로 느껴진 것은 예년과 다름없이 흑백사진에서 외국작품이 국내작품 보다 월등히 그 형식적인 면, 특히 톤의 처리와 빈틈없는 조형에서 우수했다.

국내작품이 이렇게 뒤떨어진 원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조악한 국산인화지 때문이라고도 하겠지만 또한 우리나라 작가들이 예술에 있어서 형식이 제1의적(第一義的)인 요소라는 중요성을 무시한 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겠다.

둘째로 느낀 것은 국내 칼라작품의 눈부신 발전이라고 하겠다. 예년과는 달리 국내 칼라작품이 색감에 있어서 외국작품을 능가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대로 국제수준에 점차 육박해가고 있다고 느껴졌다.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작품심사에 있어서는 전체를 통해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했다. 특히 국내작품의 경우는 한층 엄격했다.

흑백작품에서 금상으로 입상한 <엄마>(독일)는 단조로운 화면구성으로 강렬하게 사랑의 이미지를 발산하고 있다. 머리를 짚고 있는 엄마의 손과 불룩한 엄마의 배에다 얹은 아기의 손이 인상적이다. 임신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듯한 엄마를 응시하는 아기의 큰 눈동자에서는 혈육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은상으로 입상한 <백수(白鬚)>(한국)는 얼핏 탈 같은 괴이성을 풍겨주면서 위풍당당한 장군의 모습 같은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빈틈없는 구성과 함께 수염을 강조하기 위한 카메라 앵글은

이 작품을 성공케 했다고 하겠다.

칼라 부문에서 금상으로 입상한 <반영>(미국)은 흑백사진에 가까울 정도로 색이 단조롭다.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한 회화양식의 작품이다.

은상으로 입상한 <시골 여인>(독일)은 화면 전체가 황토빛으로 우선 시골의 무드를 풍겨주면서 검은 옷의 두 여인을 부각시켜 주제를 뚜렷이 살리고 있다. 소박한 시골여인의 모습에서는 평화와 행복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지면 관계로 입상작품 전부를 평하지 못함을 사과한다.

끝으로 국내의 칼라작품이 3점이나 동상으로 입상하고 또 흑백작품에서도 은상 1점과 동상 2점이 입상을 했다는 것은 놀랍고도 기꺼운 일이라고 하겠다.

[05-077]

『제5회 신선회 사진전』, 1969년 4월 1일-4월 6일, 국립공보관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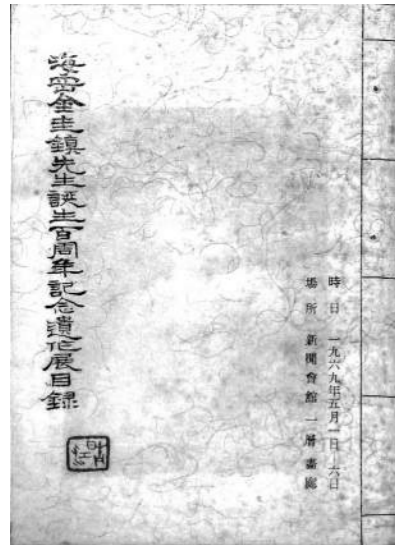
내지

[작가 목록]

김동준 김병주 김혜경 박하경 윤종립 이만춘 이종복 이진구 이종기 유재력 이희봉 이해범
양희춘 조중암 주진목 최효삼 한영수 한치규 함민부 이해문

[01-071]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 선생 탄생 백주년 기념 유작전》 목록』,
1969년 5월 1일-5월 6일, 신문회관 1층 화랑



목록 표지



내지 중 도판 부분



外金剛九龍瀑布圖



春山正氣圖
大富貴吉祥圖



大富貴吉祥圖

해강 김규진 선생 소전(小傳)

선생은 1868년(고종 5년) 무진(戊辰) 음(陰) 4월 10일 평남 중화군 상원면 흑우리 농가에서 김기범(金起範)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총명하고 특히 서화에 재조가 뛰어나 그의 외숙인 소남(少南) 이희수(李喜秀)에게 한학(漢學)과 서화를 배우다가 나이 18에 큰 뜻을 품고 청국(淸國)으로 건너가 유학

하였다. 대륙에서 생활하는 동안 명승고적을 두루 돌아보고 진한군(秦漢君) 송명가(宋名家)의 진적(眞蹟)을 널리 감상 연구하는 한편 문인묵객(文人墨客)과 사귀어 수학한 지 10년만에 귀국하였다.

귀국하자 고종 황제의 특명으로 영친왕(英親王)의 사부가 되고 뒤에 시종원(侍從院) 시종장(侍從長)을 역임하였다.

영친왕이 일본으로 건너간 후에 고종 황제의 명을 받들어 일본에 건너가 사진 기술을 연구하여 한국에 사진술을 처음으로 도입 개척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특히 서화연구에 힘을 써 처음으로 '서화연구회'를 창설하고 이 땅에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였으며 한편 경향 각지에서 서화전을 열어 서화 예술 계몽에 진력하는 동시에 당시 일반 사회에서 예술과 예술가를 이해하고 대우할 줄 모르는 것을 설득 계몽한 것은 또한 큰 공헌이라 하겠다.

선생의 서예는 고금(古今)의 서체를 달통하였고 특히 행초(行草)를 잘하였다. 더욱이 대액서(大額書)에 이르러서는 근대 서예사상 그 필력을 따를 사람이 없다 하겠다. 화예(畫藝)는 사군자를 비롯하여 산수 화조 등에 능하였고 그 중에도 묵죽(墨竹)에 있어서는 가장 주경(遯勁)한 솜씨를 보였다. 선생의 명성이 날로 커지매 국외에 전파되어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찾아온 문인 묵객들은 반드시 선생의 서루(書樓)를 찾았던 것이다. 오늘날 국내의 명승고적과 고루거찰(高樓巨刹)을 찾아보면 반드시 선생의 필적이 아직도 환연(煥然)의 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어 선생의 정력을 짐작할 수 있다.

선생은 만년에 성 밖 양주(楊州) 땅에 수묘(數畝)의 과원(果園)과 두어간 초옥(草屋)을 구성하고 자연과 예술을 즐기다가 1933년 여름 불행히 차 사고로 수년을 신음하다 세상을 떠나니 향년이 66이었다. 그러나 그의 문제(門弟)와 자손이 이 예도(藝道)를 이어받아 정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제 선생의 탄생 백 주년 잔치를 맞는 이 자리에 그 유작을 한자리에 모아[모아] 놓고 기념하게 된 것은 우리 예술계를 위하여 매우 기쁜 일이라 하겠다.

박종화(朴鍾和)

전시 목록[pp.1-13]

4. 사진[p.10]

- 55. 해강 양친상 (천연당사진관 촬영 1900년경) 가장(家藏)
- 56. 해강 모친상 (천연당사진관 촬영 1900년경) 가장
- 57. 김태진(金台鎭)(해강 제(海岡弟))상 (천연당사진관 촬영 1900년경) 가장
- 58. 영기(永基) 첫 돌상 (천연당사진관 촬영 1912년) 가장
- 59. 해강 61세상 (월성사진관 촬영 1921년) 가장

[전시 목록으로는 1.서(書), 2.화(畫), 3.전각, 5.탁본, 6.필적사진, 7.유품, 8.저작 외 특별진열이 순서대로 목록만 나열되어 있다.]

[02-052]

주식회사 새한현상소 주최, FUJI PHOTO FILM CO., LTD. 한창양행, 카메라예술사, 포토그래피사 후원, 《제1회 새한칼라사진콘테스트 입상 작품전》, 1969년 8월 16일-8월 31일, 삼풍상가 3층 새한사진싸롱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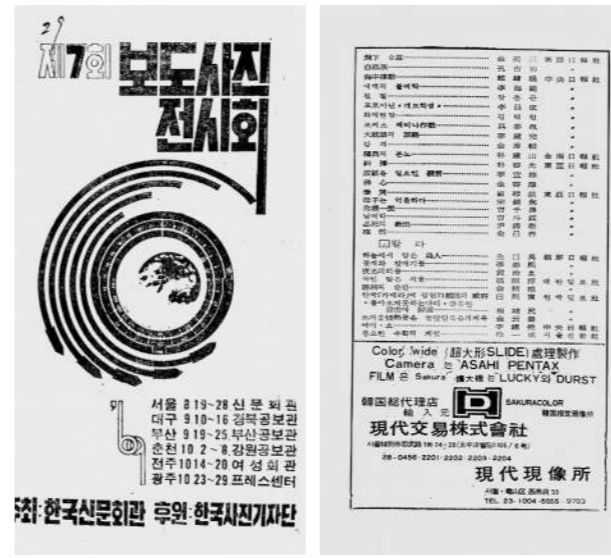
뒷면



내지

[05-082]

한국신문회관 주최, 한국사진기자단 후원, 《제7회 보도사진전시회》, 1969년 8월 19일-8월 28일, 신문회관 9월 10일-16일 경북공보관, 9월 19일-25 부산공보관, 10월 2일-8일 강원공보관, 10월 14일-20일 전주 여성회관, 10월 23일-29일 광주 프레스센터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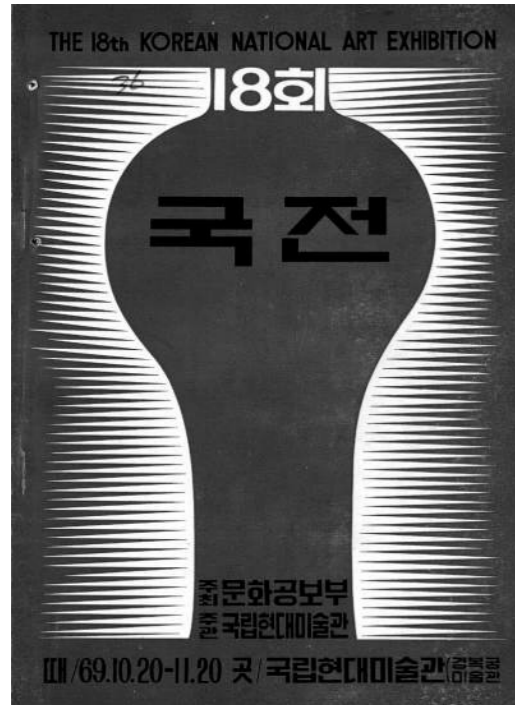
뒷면



내지

[04-010]

문화공보부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제18회 국전》,
1969년 10월 20일-11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경복궁미술관)



심사위원(무순)

위원장 이마동

부위원장 김기창

사진부 분과위원장 현일영

위 원 이해선 이진중 임응식 정희섭

사진부

초대작가 이진중 이해선 이경모 정희섭 임응식 현일영 김조현

추천작가 문선호 조현두 김중헌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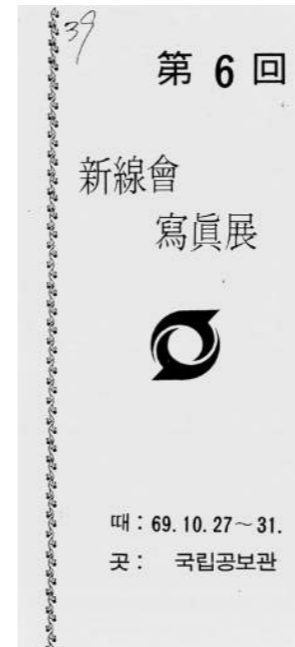
문화공보부장관상 <에너지> 장원훈

특선 <장고의 리듬> 이정강, <창> 김석현, <육날 미투리> 홍순태, <영의 대화> 전오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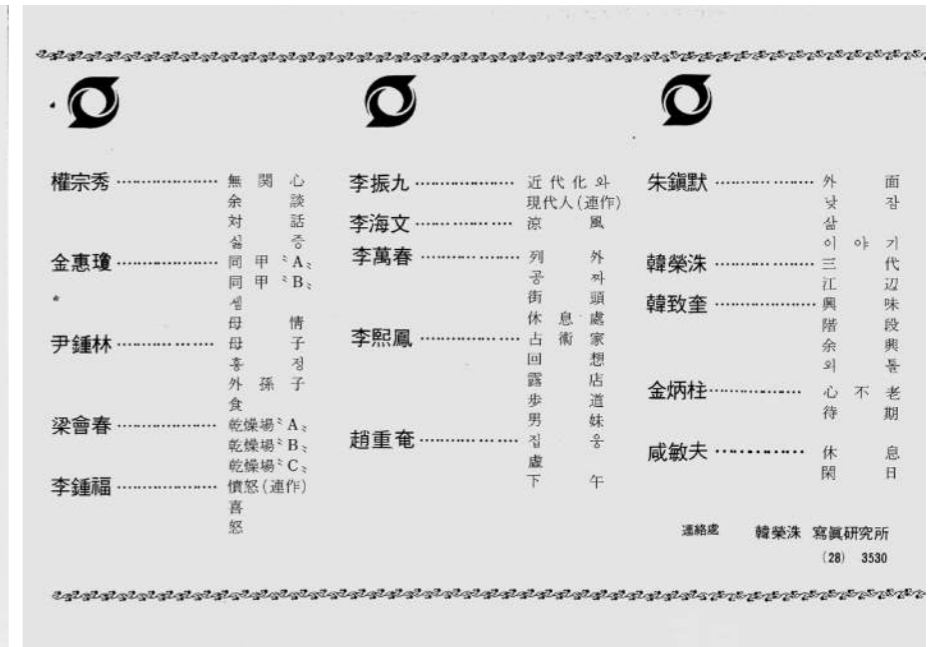
<녹색의 정> 박상윤, <산가> 박중환

[05-089]

《제6회 신선회 사진전》, 1969년 10월 27일-10월 31일, 국립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작가 목록]

권중수 김혜경 윤종림 양희춘 이종복 이진구 이해문 이만춘 이희봉 조중엄 주진묵 한영수
한치규 김병주 함민부

[02-036]

《제5회 한국창협사진전》, 1969년 11월 4일-11월 8일, 국립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참여 작가]

1. 강운구 2. 권용호 3. 권중수 4. 김테레사 5. 김승원 6. 김행오 7. 김선희 8. 김한용 9. 김효열
10. 김영목 11. 김치억 12. 김석배 13. 김복두 14. 김 훈 15. 김종순 16. 노호준 17. 박영숙
18. 박기동 19. 박약규 20. 박달근 21. 백계자 22. 서태현 23. 서신자 24. 신철균 25. 여상구
26. 원제창 27. 이혜숙 28. 이종복 29. 이용정 30. 이수일 31. 이해문 32. 이희봉 33. 윤기복
34. 윤종립 35. 임응식 36. 임범택 37. 정인성 38. 정범태 39. 정성택 40. 진몽각 41. 조성춘
42. 주진목 43. 주명덕 44. 지부원 45. 채원석 46. 한영수 47. 한정식 48. 하영복 49. 홍순태
50. 유재력 51. 김혜경

[13-303]

임응식, 『'69년 한국사단백서(韓國寫壇白書)』, 『공간』, 1969년 12월, pp.16-20²⁾

1. 푸로[프로]사진계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푸로사진가의 존재가 지극히 희미했기 때문에 그 활동상황 같은 것은 아예 논평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서는 푸로사진가의 수가 인쇄사정의 호전으로 점차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도 한결 향상됨으로 해서 문화 일반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푸로사진가라 함은 사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이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사진 제작품을 인쇄원고로 제공하고 있는 직업작가를 지칭한다. 문필가가 문학작품을 인쇄원고로 제공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문학작품이 활자화 되어서 비로소 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작품 역시 인쇄화됨으로 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종래에는 인쇄술이 미흡했기 때문에 부득이 회화의 발표형식인 전람회라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발표 행동이 가능했으나 오늘날과 같이 인쇄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향상하고 있는 이때이니만큼 본질적인 면에서라도 당연히 인쇄 매체를 통하는 것이 사진의 최종적 발표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요구되는 상업사진 원고는 물론이려니와 각종 잡지의 그라프 면의 사진 원고 또는 결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종합잡지에서는 작품적인 대우로서 사진을 게재하게끔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 면의 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상업사진가와 그라픽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사진가 수는 각각 10 지(指)를 넘지 않는 형편에 있기는 하나 이 둘의 존재야말로 사단사적(寫壇史的)으로 보아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상업사진가로서는 김한용, 한영수, 손규문, 안중철, 이축길, 이용정, 문선호 등이 스튜디오를 갖고 본격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보도사진가로서는 『신동아』 지를 중심으로 홍성혁, 유재력, 김순경, 전용중이, 『중앙』 지에서는 주명덕, 강운구, 『아세아』 지에서는 임범택, 이창진이 스태프 멤버로서 활약하였고 후리랜서로서의 임응식은 예술종합지 『공간』과 『중앙』 지를 무대로 하여 발표를 행했다. 지난 1년간의 이들 발표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작품을 발표한 것은 임응식의 시리즈 사진 24편을 필두로 주명덕의 18편, 유재력의 14편, 전용중의 13편, 김순경의 10편, 홍성혁의 6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상업주의적인 저널리즘에의 영합(迎合)을 부득이하고 있는 것이다. 잡지 운영의 성질상 본의 아닌 협조를 피치 못할 입장도 없지 않겠으나 때로는 저항도 하고 작가로서의 주체성을 확보해 가면서 자기 자신의 테마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푸로사진가들의 현실적인 운명 같기도 하다. 70년대에 있어서는 보다 차원을 높여서 현실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진제작에 총력을 경주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이야말로 사진가들에 부여된 사명인 것이다.

2. 아마추어사진계

아마추어 사진에는 두 갈래의 작화 경향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즉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등용문으로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전》 사진부와 동아일보사가 주최하는 《동아사진콘테스트》와 《국제사진살롱》, 그리고 한국창작사진협회의 공모전 등을 살펴볼 때 《국전》에서는 살롱조(調)의 작품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면 《국제사진살롱》에서는 살롱사진과 생활주의적인 작품이 혼존되어있고 《동아콘테스트》와 창작사진협회의 그것에는 생활표현의 작품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의 살롱사진은 53년경을 전후하여 세계적으로 쇠퇴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수년 후에는 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쇠퇴되었던 것인데 기이하게도 《국전》에 사진부가 신설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살롱사진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 살롱사진이라는 것은 낡은 동양화적인 자연관조(自然觀照)에서 이룩되는 것으로 시대의 진전과는 전혀 유리된 작화 경향이다. 따라서 촬영대상은 항상 화조풍월적(花鳥風月的)인 것이 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작품 표구에 있어서도 회화용 액자가 무색할 정도의 호화찬란한 액자로서 장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국전》 사진부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사진협회 관계의 심사원들의 보수적인 작화 태도에서 오는 그릇된 영향이라 하겠다. 사진미학을 다소라도 안다면 절대로 이러한 우매한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만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못 예술이 그렇듯이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작가가 손수 시종(始終)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현금(現今)의 아마추어의 대다수는 촬영 이후의 제작과정은 송두리채 타인에게 맡겨 버리고도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만 알고 있다. 아무리 무책임한 아마추어들이라고 할지라도 명색이 작가라는 이름하에 사회에 자기작품을 발표하는 이상은 작가 스스로가 전 과정을 다 밟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칼라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설관계로 부득이 칼라라보에 부탁하기는 하나 엄격히 말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 시설의 곤란을 빙자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비겁한 노릇이라 하겠다. 여하간 이러한 타력의존(他力依存)의 패습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리즈 사진을 종합지에 발표한 아마추어 작가로서는 김승원, 김테레사, 김동수, 이진구, 정태영 등이 있다.

3. 전람회

예년에 비해 올해는 전람회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많아진 정도로 그 질이 향상됐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 50에 가까운 개개전(個個展)의 성과에 비판을 일일이 가할 여지는 도저히 없으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체로 저조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전향(前項)에서도 말한 바 있으나 사진전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었어야 할 《국전》 사진부가 가장 시대 역행의 타락상을 아낌없이 보여 주고 있었다. 그 표본으로서는 심사원들의 작품이 그것인데 시대 역행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약 50의 전시회를 집약해서 협회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한국사진협회의 《제6회전》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제18회전》, 그리고 한국창작사진협회의 《제5회

전》의 셋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무기력한 상태로 끝났다. 중견 이상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 회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에 지쳐 이미 커다란 압박에 부딪혀서 갈팡질팡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 위기를 타개할 길은 새로운 대상의 발견 선택밖에 없다.

생활주의 경향의 작가는 부패와 모순이 누적된 사회상 속에서 인간상의 붕괴를 가로막는 작업이 그 가장 큰 의무일 것이고 또 살롱사진을 신봉하는 살로니스트는 이미 조락(凋落)의 극에 달한 재래식의 살롱사진에 안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교적 묘미에 탐닉해서 독선적 경지를 고수하는 사고방식을 꺾연 박차버리고 보다 주관이 강한 영상주의적 전위사진이나 실험적 조형사진의 길이라도 개척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러자면 우선 새로운 조형감각의 훈련이 필요할 것은 물론 실험적 상상영역이 폭넓게 되어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연내에 개최됐던 전람회를 열기하기로 한다. 협회전은 상기한 바와 같이 셋 있었고, 클럽전으로는 《사심회(寫心會)》, 《청사회(靑寫會)》, 신신회의 《춘추전》, 《대구현사회(大邱現寫會)》, 《무지개회》, 《CFC》, 《서울사우회(寫友會)》, 《밴포토클럽》, 《뉴포토클럽》, 《대구YMCA 광화회》, 《렌즈클럽전》 등이 있었고, 개인전으로는 《김여생, 김우상 부자전》, 《김용수 전》, 《임경식 유작전》, 《이건중 전》, 《김규진 유작전》, 《윤의도 전》, 《김광일 전》, 《이영달 전》, 《이시원 박필옥 2인전》이 있었고, 학생전에는 건국대, 고교생전 동덕고, 서울대 종합전, 서강대, 서울대 문리대, 숙대, 서울여대, 서울미대, 연세대, 서라벌대, 성신여대, 경북의대, 서울의대전 등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에는 『동아일보』 주최의 《제4회 국제사진살롱전》, 《제7회 사진콘테스트전》, 문공부 주최의 《산업건설상전》, 새한현상소 주최의 《제1회 칼라사진콘테스트전》, 카메라예술사 주최의 《카메라예술동우회전》, 한국신문회관 주최 《제7회 보도사진전》, 신문사진기자단의 《월남전 기록 사진전》, 조선일보사 주최 《조일광고상전》, 한국사진협회 주최 《대학생콘테스트전》이 있었다.

4. 사진저널리즘

우리나라에는 지금 사진전문지로서 『카메라예술』과 『관광과 포토그래피』의 둘이 있고, 그라프지로서는 『동화그래프』와 『코리아라이프』, 『포토시사』 등이 있다. 사진 잡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은 8.15해방 직후로부터 6.25동란까지의 『사진문화』(주간 이동호)를 들 수 있는데, 본래 사진 잡지는 기술지도, 작품감상, 뉴스, 광고 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진문화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큰 비중이 높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전문지에는 그러한 사명감이 전혀 결여되어있는 것을 우리들은 통감한다. 즉 말하자면 사단의 발언 광장이 되어야 할 공기(公器)임에도 불구하고 평론가의 등장을 극력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차라리 평론 부재의 전문지일 바에야 있으나 마나다. 예를 든다면 사단평을 썼을 때 그 비판을 받는 측의 의사를 사전에 문의한 연후에 취사를 결정하는 따위의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느 특정한 회(會)의 기관지가 아닌 이상에야 일일이 그 눈치코치를 살펴 가면서 평의 게재 여부를[를] 정해서야 무슨 권위가 서겠으며 사단의 발언 광장 구실을 어떻게 하겠는가말이다.

비라건데 현재의 극도로 부패된 사단을 정확하고 일대 혼란에 놓여있는 사단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일역(一役)을 맡아주는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셋 있는 그래프지가 근자 상당히 체재를 가추어오고는 있으나 아직도 어느 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루속히 미국의 『LIFE』나 불란서의 『PARIS MACHI』 같은 격조 높은 잡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5. 기타

금년에 들어서 출판된 사진작품집은 주명덕의 『섞여진 이름들』과 재일동포 조형치의 『동경』의 둘이 있었고, 평론에 있어서는 이명동이 『신동아』와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표하였고 김행오, 김용훈, 임응식이 『공간』에서 2, 3차씩 평론을 행하였다.

임응식(사진작가)

1) 자료 내에 작성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사협50년사』에 따르면 1962년 4월 2일이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편, 『한국사협50년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출판부, 2000, p.113

2) 1969년 12월호 『공간』 지 pp.88-89 에 실린 내용과 동일하나 판형과 페이지 표기가 다르다.

1970년대

[13-206]

『동아일보』 주최, 《제5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70년 2월 26일



국내 칼라 부문 눈부신 발전

=임응식 심사위원장 말

전체작품을 통해서 느껴진 것은 예년에 비해서 작품의 수준은 저하된 인상을 주었고 특히 국내 작품에서 칼라는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흑백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를 했다는 것이 심사위원 전원 공통된 소감이었다. 국내의 흑백작품이 이렇게 뒤떨어진 원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국산 인화지의 조악성 때문이라고도 하겠지만 이보다도 먼저 작가들의 사진예술의 기본적인 자세가 확립되지 못한 데 있다고도 하겠다.

즉 작가가 예술에 있어서 형식이 제1의적(第一義的)인 요소라는 중요성을 무시하고 메카니즘의 자동성과 안이성에 편승하여 그대로 내용에 접근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겠다는 성급한 사고가 이러한 예술 이전의 상태로 과오를 범하게 했다고 하겠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인 작가들의 이러한 사고와 태도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겠다. 한편 국내 칼라작품에 있어서도 칼라라보의 기술적인 비약으로 하여금 인화의 처리가 잘되었다는 것뿐이지 무슨 내용이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비약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흑백작품에서 금상으로 입상한 <병사>(월남)는 릴리프 수법으로 흑백의 톤을 강조하고 병사의 용감하고 늠름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단조로운 화면 구성과 패턴을 이룬 배경은 용감한 병사의 이미지를 강렬히 부각시켜주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향취를 말할 수 있는 인상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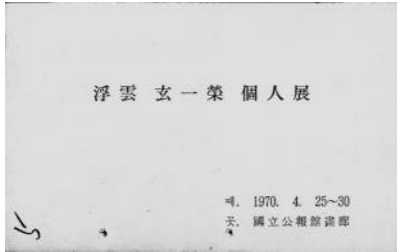
칼라 부문에서 금상으로 뽑힌 <질주>(오스트리아)는 사진이라기보다 오히려 회화에 가까운 작품이었다. 그것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아주 이색적 작품이다.

그러나 회화는 아니다. 회화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사진 독자의 기법과 표현이다. 차원 높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조형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올해는 국내작품이 겨우 3점이 동상으로밖에 입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척 섭섭한 일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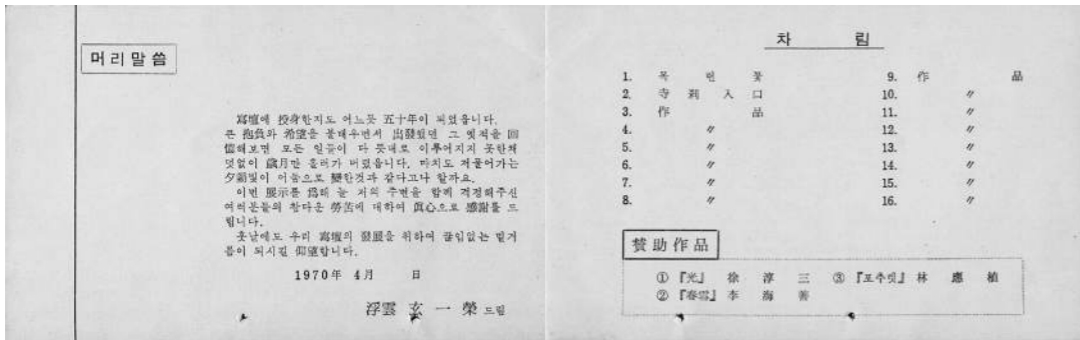
국내 작가들의 분발을 바란다.

[07-004]

《부운(浮雲) 현일영 개인전》, 1970년 4월 25일-4월 30일, 국립공보관 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07-022]

한국신문회관 주최, 한국사진기자단 후원, 《제8회 보도사진전시회》, 1970년 8월 21일-8월 30일, 서울 신문회관

9월 5일-9월 11일 춘천 한일은행지점 별관, 9월 18일-9월 24일 청주 문화센터, 9월 28-10월 4일 대전 예충회관, 10월 8일-10월 14일 대구 경북공보관, 10월 20일-10월 26일 부산공보관, 10월 30일-11월 5일 광주 관광호텔 6층, 11월 10일-11월 16일 전주 예충회관, 11월 21일-11월 27일 인천공보관



팸플릿 표지

[07-017]

《제7회 신선회 사진전》, 1970년 5월 16일-5월 21일, 국립공보관(제1실)



팸플릿 표지



내지



내지

[02-053]

『공간』사, 신세계백화점 주최, 《한·중·일 연합사진전-현대와 전통》, 1971년 1월 26일-1월 31일, 신세계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공간』지 창간4주년·지령 50호 기념
『공간』창간 4주년 및 지령 50호(1월, 1971년) 기념으로 《현대와 전통》이란 테마의 한·중·일 연합 사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이더라도 부디 오셔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임응식
구성: 한국 이명동 김행오 오광수
중화민국 林再金
일본 藤崎康夫

중화민국
林老藤 黃純振 詹顯郎 吳重坎 黃昆池 柯賢寬 周鑫泉 蘇光華 吳俊謙 陳家瑞 黃伯驥
林再金 黃登可
※ 레이아울순

일본
有澤一則 あまの定夫 今村たかし 鬼頭逸雄 木岡利一
北村洋誠 島村千秋 鈴木政義 田中 實 田中俊一
竹内壽一 谷口純徳 利見一雄 西村孝一 野本暉房
松尾 馨 宮本英一 森田敏隆 森井禎二 林 重夫
平野幸彦 藤崎康夫 山下善祐 渡里彰造

※ 아이우에오순
《Canon photo Contest》당선작 중 선정
일본 측에서는 약력서·사진 미도착으로 출품자 명단만 소개함

한국
강운구 김병주 김생수 김선홍 김열수 김한용 김효열 박형만 방숙자 왕상혁 류호석
이규현 이준무 이진구 이해범 임법택 전민조 전용중 정범태 주명덕 주진묵 탁명환
한영수 한정식 홍순태
※ 가나다 순

[13-211]

「《제6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지상전시-심사평」,
『동아일보』, 1971년 3월 8일



국내작품 화면정리 미흡

임응식

작년보다 응모점수에 있어서는 상당한 증가를 보였으나 작품의 질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조했다.

특히 국내작품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살롱사진'은 깊은 내용을 기대하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커녕 작화 상의 기술이라도 숙달돼 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외국작품들은 하나같이 화면정리가 완벽할이 만큼 잘 돼 있는데 비하여 국내작품들은 미적인 느낌에 앞서서 조잡한 감을 준다. 화면상의 형식미나 표현기술이야말로 '살롱사진'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구도에 대한 초보적인 훈련마저 돼 있지 않은 것이 공통적인 결함인 것 같다. 이 밖에도 국산 인화지의 저질과 그 호수 선택의 부적당, 확대기술의 미숙, 스포팅의 경시 등이 미적 요소를 감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있다.

이들보다도 더한 것은 표현대상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작정 35mm 카메라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모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흑백사진의 작화는 요즈음 자작하는 경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좋은 현상의 하나라고 하겠으나 칼라 사진의 경우는 아직도 자작하기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 작품이라고 한다면 시종 스스로의 힘으로써 이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만큼 DPE 점에 의뢰하는 따위는 지양해줬으면 한다.

외국의 칼라작품들은 각기 색 표현이 다양해서 작가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작품들은 특정된 몇몇의 현상소에서 작화를 하였기 때문에 응모작품 거의 다 똑같은 상태의 발색이다. 때문에 작품에서 작가의 창의성보다는 메카니즘의 획일성을 보는 것 같아 슬프기까지한 것이다.

모쪼록 사진은 '발견과 선택'의 예술이라는 것을 거듭 인식하고 촬영에서부터 마지막 스포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심히 사진을 하는 여러분의 내일과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낸 개성 있는 작품을 보여주기 기대하는 것이다.

[07-025]

일본 대사관, 《현대 일본 칼라 사진(EXHIBITION OF MODERN COLOR PHOTOGRAPHS OF JAPAN 1970)》, 1971년 3월 25일-28일, 주한대사관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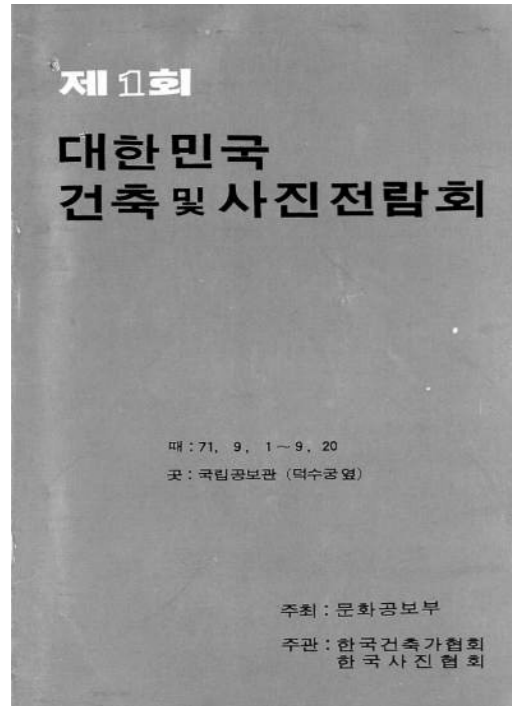


작가 목록

- | | | |
|-----------------------|-------------------------|-------------------------|
| 1. Keiichi AKIMOTO | 18. Shigeichi NAGANO | 35. Kenji SUZUKI |
| 2. Shotaro AKIYAMA | 19. Yuji NAKAGAWA | 36. Yukio TABUCHI |
| 3. Ken DOMON | 20. Akio NAKAMURA | 37. Shinji TAKAMA |
| 4. Kikutoshi FUJIWARA | 21. Banri NAMIKAWA | 38. Masae TAMURA |
| 5. Shinzo HANABUSA | 22. Kiyoshi NISHIYAMA | 39. Kojo TANAKA |
| 6. Hatsutarō HORIUCHI | 23. Koyo OKADA | 40. Tokutarō TANAKA |
| 7. Taikichi IRIE | 24. Eigo OUCHI | 41. Akira TATEISHI |
| 8. Yasuhiro ISHIMOTO | 25. Akira SATO | 42. Yoshihiro TATSUKI |
| 9. Seiichiro ITO | 26. Kon SASAKI | 43. Takuya TSUKAHARA |
| 10. Tokumitsu IWAGO | 27. Kinsuke SHIMADA | 44. Shoji UEDA |
| 11. Takeji IWAMIYA | 28. Buko SHIMIZU | 45. Yoshio WATANABE |
| 12. Takehide KAZAMI | 29. Kishin SHINOYAMA | 46. Makoto YANAGISAWA |
| 13. Ihei KIMURA | 30. Shiro SHIRAHATA | 47. Masahiro YANAGISAWA |
| 14. Shozo KITADAI | 31. Yoshikazu SHIRAKAWA | 48. Masayoshi YOSHIE |
| 15. Zenkichi KOKUBO | 32. Kakun SHO | 49. Toshio YOSHIDA |
| 16. Shigeru MASAKI | 33. Kiyoshi SONOBE | 50. Noriaki YOKOSUKA |
| 17. Yoichi MIDORIKAWA | 34. Kenji SUZUKI | |

[04-011]

문화공보부 주최,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협회 주관,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람회》, 1971년 9월 1일-9월 20일, 국립공보관



심사위원(무순)
위원장 김희춘
부위원장 이해선
사진 분과위원장 임응식
위원 이진중 이해선 안월산 정인성 이명동 정희섭
사진부문 수상작
대상 <복악설경> 강상규
금상 <갈치> 홍순태
은상 <물놀이> 장진필
특선 <속리산 문장대> 설찬수, <열연> 송우석, <공간> 이정강, <도강> 김용수, <유동> 유정재

[07-053]

《최민식 사진전 <서민>-한국의 사람들》,
1971년 9월 8일-9월 19일, 일본 펜탁스갤러리



홍보 엽서

[07-055]

한국사진협회, 동아일보사 후원, 《미국 및 일본 초청전 기념, 최민식 사진전-서민》,
1971년 12월 6일-12월 12일, 부산 미국문화공보원 화랑



팸플릿 표지

『庶民』을 열면서

작품의 수를 두 배에 늘려 美國과 일본에서 20여건의 庶民을 作한 『庶民』은 거의 20 餘年을 가졌읍니다. 『庶民』을 생각하여 왔으며 일상생활의 한 순간순간을 작품화하여 왔읍니다. 『모든 인간의 종류를 찍자. 서민에게 눈을 돌리자. 이것만이 나에게 주어진 과업이며 사명이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사진작가 Dorothea Lange 가 번개 치는 산중에서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결심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며, 창작에 대한 커다란 자구제인 동시에 안내역을 한 의의 깊은 말입니다. 유명인보다 이름 없는 서민의 표정에서 자연 그대로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대인간(大人間)의 모습 이상으로 훌륭한 인간적인 친밀감을 불러 이르킬 것입니다. 한 번 보면 생애를 통하여 잊을 수 없는 서민의 얼굴이 있으며 'image'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참 인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으로 태어난 본인은 서민 속에서 호흡을 같이하면서 앞으로 더욱 서민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끼기 위하여 보다 많은 서민을 위한 작품을 창작할 각오입니다. 인간성을 버리고 인간성을 무시하고는 예술과 인간을 생각할 수 없으며 예술은 본래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생을 보다 훌륭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이며 의의라고 하겠읍니다. 앞으로 인간의 진실[을] 찾고 사진예술을 통하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모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명확한 주장과 공통의 과제를 부담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1971年 12月 日 崔敏錫

略 歷

1928年 黃海道延安出生
日本東京中央美術学園卒
韓國戰爭參戰・大韓民國花郎
銀星 및 無足武功勳章受章
1967年 釜山市文化賞受賞
現 韓國寫真協會釜山支部長
美國寫真協會正會員
東亞日報寫真東友會員
青寫會會長
光友會會員
釜山로타리클럽會員
釜山에프클럽會員
釜山新電社 經營
釜山市釜田洞257 (3)3560·7465

寫 歷

- 1967年版 英國 國際寫真年鑑 6點 特集收錄
- 1968年版 美國 國際寫真年鑑 1點 收錄
- 1969年版 英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1970年版 美國 國際寫真年鑑 2點 收錄
- 1971年版 美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1967年 英國 國際寫真年鑑 6點 特集收錄
- 1968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1點 收錄
- 1969年 英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1970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2點 收錄
- 1971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1967年 英國 國際寫真年鑑 6點 特集收錄
- 1968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1點 收錄
- 1969年 英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1970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2點 收錄
- 1971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1967年 英國 國際寫真年鑑 6點 特集收錄
- 1968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1點 收錄
- 1969年 英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1970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2點 收錄
- 1971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1967年 英國 國際寫真年鑑 6點 特集收錄
- 1968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1點 收錄
- 1969年 英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1970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2點 收錄
- 1971年 美國 國際寫真年鑑 3點 收錄

● 著 書

- 1968年 個人寫真集『人間』東亞日報社 出版
- 1970年 『카메라의 初歩』 『女性東亞』 附錄
- 1971年 個人寫真集『庶民』編輯完了 出版豫定
- 1971年 個人寫真集『現代韓國의 百人』編輯中
- 1971年 個人寫真集『女』攝影 編輯中

내지

《서민》을 열면서

작년과 금년 두 해에 걸쳐 미국과 일본에서 초청전에 전시한 작품 《서민》을 가지고 기념전을 가졌읍니다. 항상 '서민'을 생각하여 왔으며 일상생활의 한 순간순간을 작품화하여 왔읍니다. '모든 인간의 종류를 찍자. 서민에게 눈을 돌리자. 이것만이 나에게 주어진 과업이며 사명이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사진작가 Dorothea Lange 가 번개 치는 산중에서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결심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며, 창작에 대한 커다란 자구제인 동시에 안내역을 한 의의 깊은 말입니다. 유명인보다 이름 없는 서민의 표정에서 자연 그대로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대인간(大人間)의 모습 이상으로 훌륭한 인간적인 친밀감을 불러 이르킬 것입니다. 한 번 보면 생애를 통하여 잊을 수 없는 서민의 얼굴이 있으며 'image'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참 인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으로 태어난 본인은 서민 속에서 호흡을 같이하면서 앞으로 더욱 서민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끼기 위하여 보다 많은 서민을 위한 작품을 창작할 각오입니다. 인간성을 버리고 인간성을 무시하고는 예술과 인간을 생각할 수 없으며 예술은 본래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생을 보다 훌륭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이며 의의라고 하겠읍니다. 앞으로 인간의 진실[을] 찾고 사진예술을 통하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모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 명확한 주장과 공통의 과제를 부담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1971년 12월 일 최민식

[07-056]

《전몽각 사진전, Photo Essay 『允美네 집』》, 1971년 12월 7일-12월 12일, 신세계화랑

25-14

全夢角寫真展

Photo Essay 『允美네 집』



展示期間: 1971. 12. 7 (火) ~ 12 (日)

展示場: 新世界화랑

팸플릿 표지

“允美네 집”

外國에서는 그런 예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寫眞作家가 자기 家를 담은 個人寫眞을 마땅한 일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자기네 生活를 誇張하기에는 作家로서의 良心이 허락치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보이거에는 부끄러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全美네는 한大學에서 寫眞을 같이 즐기던 친구였고 允美네 집이 이룩되고 자라는 과정을 살필수 있는 나쁜 사진은 스크랩북에 담긴 “允美네 집” 寫眞集을 보고 우선 놀라움과 무리움을 아울러 느꼈다.

그것이 없는 어머니의 눈은 넉넉지 못한 우리나라의 典型的인 貧窮의 寫眞의 寫眞한 日常을 表現하고 있다. 이따금 寒酸하고 平穩한 “집”을 위해 이 땅에 내내 平和가 있기를 기원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면 誇張할지!

大學에 라이카 III F와 로라이크드로 作家志望을 表面에 나타내지 않고 寫眞時節을 보내고 卒業後 當時 寫眞의 助手 구룡이라고 한 “現代寫眞研究會”와 “쌍문아무스”에서 狂氣에 가까운 「현상」과 잇달은 批評會와 展示會를 갖는 드레이닝時節도 거친 全美이다.

職場에 들어가면서도 職場아파트의 비좁은 房 天井에 廣角렌즈를 쥔 라이카를 빼놓고 지. 劣劣리드를 느껴드리고 있었으며 外國修學에 오르면서도 결코 카메라를 놓는 일이 없었던 全美은 언제나 서두름이 없이 獨自의 作風과 함께 스스로의 內面世界를 살피게 해주는 것이다.

곧으로 作家가 作品製作에 專心할 수 없는 우리나라 事情이 안타깝지만 하지만 全美이 언젠가는 자기 집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韓國의 現實을 “允美네 집”을 대하듯 사랑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해서 또다시 한 자리에 모아 했으면 한다.

1971. 11.

金 在 瀟

내지

“允美네 집”

노트북을 꺼고 明洞 양상점에나 드나들던 어린 全美이 어떤 겨울날 첫발을 내딛었다. 다음날 알아버리는 允美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允美네”로 불려온다. 外國으로 나간지 1個月만에 맞이 允美를 낳았다. 消息이 오면날 그곳 친구들과 밤새 마셨다.

아보르 12號가 달에 霜降하던 날에는 물레 “允石”이 띠어났다. 允美는 을해 國民學校에 들어갔다. 그동안 寫眞역기를 좋아하는 아바는 평범히 무척이나 많은 寫眞을 찍었다.

그저 每日每日 피우미는 平凡한 日常을 7, 8年間 찍어온 寫眞이 겨우 이 程度밖에 안되느냐고 하겠다. 세가 지닌 表現能力의 限界라고 할 때야 할 것이다.

1971. 11.

全 夢 角

[09-001]

한국일보사·코리아타임스사 주최, 《제1회 한국국제사진전 입선작 전람회》, 1972년 1월 7일-1월 13일, 서울 신문회관

1972년 1월 20일-1월 26일 부산시공보관, 1972년 2월 7일-2월 13일 대구 경북공보관



팸플릿 표지

Table listing names and titles in Korean, organized by country/region such as JAPAN, KOREA, MALAYSIA, SPAIN, SINGAPORE, U.S.A., VIETNAM, and CHINA.

Table listing names and titles in Korean, continuing the list from the previous table, including names like GOLD, SILVER, BRONZE, and various international entries.

[09-024]

《제8회 신선회 사진전》, 1972년 2월 17일-2월 21일, 국립공보관



팸플릿 표지



내지

[13-210]

「렌즈가 그린 빛의 화폭, 한국에 펼친 미의 극치, 《7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지상전시-심사평, 『동아일보』, 1972년 3월 21일



국내 작품 암실 처리 미숙

임응식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참가국과 출품점수가 많은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질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 이미 쇠퇴일로로 치닫고 있는 '살롱 사진'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벽에 부딪쳐 있음을 다시 실감했다.

어떠한 돌파구도 아직은 발견 못 한 것 같고 심지어는 모색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한다. '살롱사진'이 앞으로도 존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험적이고 주관성이 강한 현대적인 세계로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렇다고 기술의 유희로 조작되는 재래의 고식적인 방법의 되풀이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험이니 주관강조니 하는 것은 표피적인 기술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용 즉 작가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작품심사에 있어서는 종전보다 하루를 더 연장해 가며 신중을 기했고 심사과정에 있어서는 국내외 작품의 구별 없이 같은 기준에서 선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작품이 그 출품 수에 비하여 종전 보다는 다소 적어진 셈이 됐다. 국내외 작품의 질의 비교에 있어서는 흑백 칼라 할 것 없이 외국 것이 월등했다. 국내작품의 공통된 결점은 암실기술의 미숙에 있는데 내용도 물론 약하지만 특히 작화 기술의 기초적인 부족은 치명적이었다.

하기야 전문교육기관이 거의 없사피 왜 있는 우리의 실정이고 보면 부득이하다고는 하겠으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작화기술의 경시 경향이 있는 우리 사단 풍조 중 하나의 결과라 하겠다. 시각 예술로서의 사진에 있어서 평면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시각미에 이미 결함이 있었다면 내용 여하를 따지기 전에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칼라 작화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자가 제작을 원칙으로 하여 보다 개성적인 발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흑백부의 금상인 <트리오>는 강렬한 톤과 매스로 불안한 현대 젊은이들의 심리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고 칼라부의 금상인 <가난한 삶>은 말 등에 채찍질하는 노파의 모습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강인한 집념을 웅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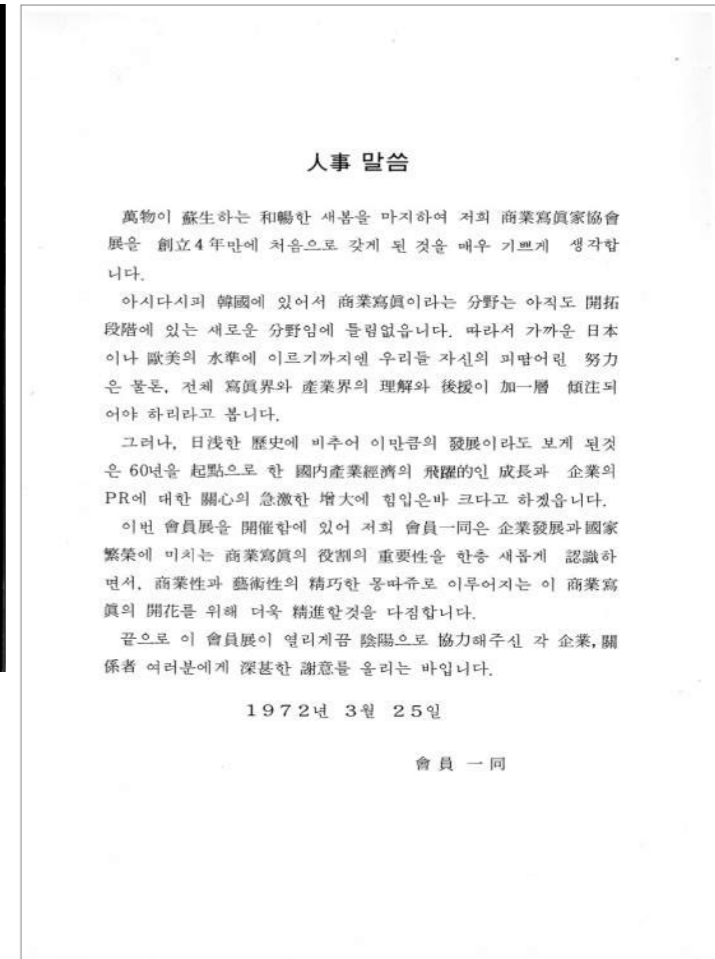
<서울대 미대 강사>

[09-032]

한국상업사진가협회 주최, 광명인쇄공사·새한칼라현상소·예총·한국사진협회 후원,
《제1회 한국상업사진가협회 회원전》, 1972년 3월 25일-3월 31일 서울 신문회관,
1972년 4월 5일-4월 10일 대구 경북공보관, 1972년 4월 29일-5월 5일 부산 공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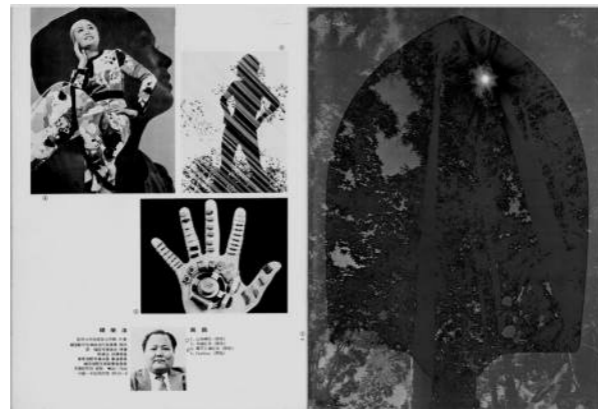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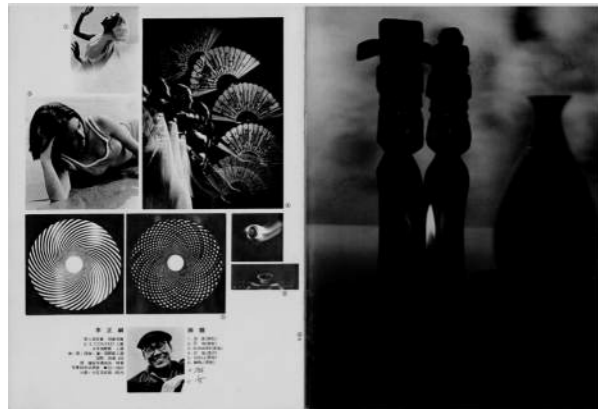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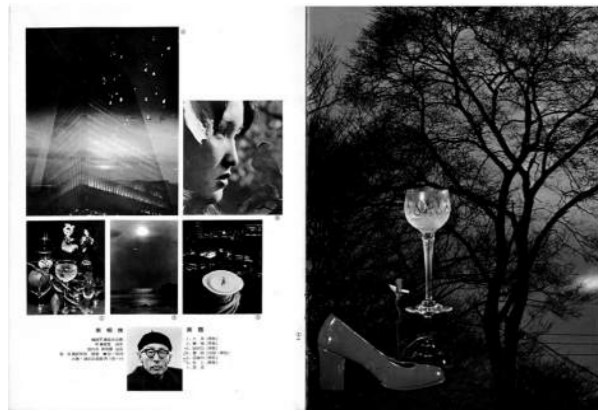


팸플릿 표지



내지





이름 연혁

김한용 봉천 제1공업학교 졸업
 국제보도연맹 12년간
 일본국제전 입선
 한국 《조일광고상》 4회 수상
 《상공미전》 2회 특선
 《동아국제·CONTEST》 심사위원 역임
 한국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 역임
 현 한국사진협회 이사·예총 윤리위원
 사진연구소 경영 ☎26-5969
 서울·중구 충무로 2가 50~2

화제(畫題)

1. 〈한국의 미〉 (단청·원색·관광포스타)
2. 〈용광로〉 (원색·산업포스타)
3. 〈Skier〉 (포스타)(원색)
4. 〈Welcome to Korea〉 (원색·관광포스타)
5. 〈Pin-Work〉 (원색·포스타용)
6. 〈전국의 미인상〉 (원색·관광포스타)
7. 〈정물〉 (딸기·원색)
8. 〈나군(裸群)〉 (흑백)

김기순

1953: 《1회 개인전》 어(於) 서울
 1963: 《예총진주예술제》 공보부장관상 수상
 1970: 《8회 동아사진전》 가작 입상
 1970: 《5회 동아국제사진전》 동상 입상
 1971: 부산상공회의소 《6회 카렌다전》 심사위원
 1971: 《2회 Color 개인전》 어(於) 서울 대구 광주
 현 한국사진협회 회원
 부산시 동구 초량동 91 ☎(부산 4-6107)

1. 〈조선(造船)〉 (원색)
2. 〈벗꽃〉 (원색)
3. 〈용광로〉 (원색)
4. 〈독도〉 (흑백)

남상준

한국사진협회 회원
 사진경력 28년
 국내외 기타 전 출품
 현 사진연구소 경영 ☎92-5578
 서울·성북구 정릉동 199-14

1. 〈3월〉 (원색)
2. 〈정물〉 (원색)
3. 〈밤바다〉 (원색)
4. 〈여명〉 (여명·원색)
5. 〈금붕어〉 (원색)
6. 〈여인〉 (원색)
7. 〈점프〉

문선호

일본 동경천단미술학교(東京川端美術學校) 졸업
 신인예술상 문화상 심사위원 역임
 1967: 《멜본 태평양국제전》 1등상 수상
 1965: 《제3회 한국사진문화상》 작품상 수상
 《국전》 추천작가
 일본국제전 4점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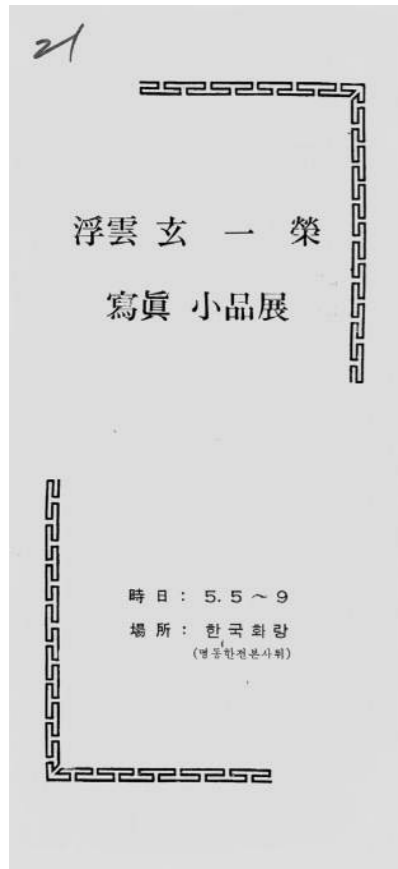
1. 〈바레리나〉 (무용발표회 POSTER) 원색
2. 〈고엽〉 (작품 습작) 원색
3. 〈여인〉 (화장품 포스타) 원색
4. 〈산〉 (작품 습작) 원색
5. 〈두 여인〉 (건축물 포스타) 원색
6. 〈레몬〉 (주스 포스타) 원색

이름	연혁	화제
	한국사진협회 이사 역임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중앙위원 현 사진연구소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2가 53-1 ☎ 26-5002	7. <RECORD JACKET> (한국 고전민요) 원색 8. <여체의 미> (작품 습작) 흑백 9. <한국의 멋> (벽화 습작) 흑백 10. <정물> 원색
손규문	구·한국창작사진가협회 회원 현 한국사진협회 회원 창작생활 15년간 현 사진연구소 경영 ☎ 74-5722 73-6622 서울·종로구 종로3가 2	1. <조춘> (원색) 2. <강태공> (원색) 3. <옛 성> (원색) 4. <정물A> (원색) 5. <정물B> (원색)
안종철	동국대학교 문리대 졸업 한국일보사 사진기자 역임 《일본국제전》 당선 《월남국제전》 당선 《불국(佛國)난토국제전》 당선 《불국불도국제전》 당선 현 한국사진협회 회원 사진연구소 경영 ☎ 26-5722 서울·중구 충무로2가 48-2	1. <창공> (포스타용·원색) 2. <KOREA> (포스타용·원색) 3. <여인A> (원색) 4. <여인B> (원색) 5. <카렌다 작품> (1조 6점·원색)
이용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졸업 육군 정훈대대 사진보도 중군 방송 사진전 2회 개전(個展) 홍익공업전문학교 사진 강사 역임 한국《조일광고상》부문상 수상 한국사진협회 회원 현 사진연구소 경영 ☎ 26-6098 서울·충무로3가 59-7	1. <설원> 원색 (스키포스타) 2. <KOREA> (관광포스타) 3. <환상> 4. <에너지> (산업포스타) 5. <NUDE> (섬유류 광고) 6. <정물> 7. <RECORD JACKET> 8. <foundation을 위한 습작> (벽화 습작) 9. <군나(群裸)> (흑백)
이정강	《신인예술상》 특상 수상 《U.S. CONTEST》 입상 《일본국제전》 입선	1. <양풍(涼風)> (원색) 2. <천지> (원색) 3. <SUMMER> (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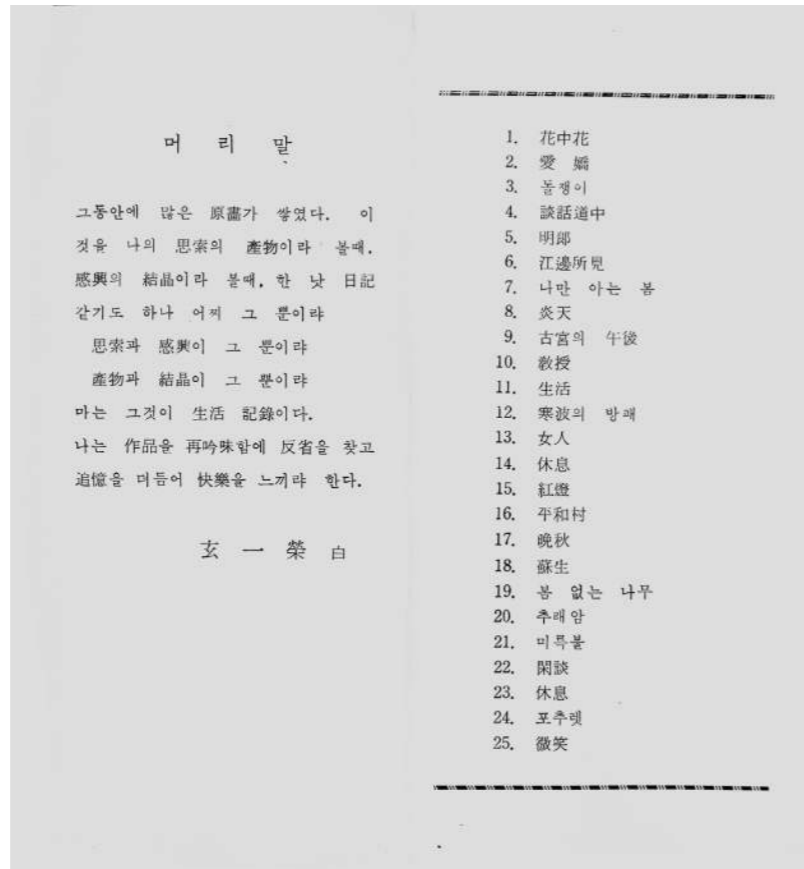
이름	연혁	화제
	불(佛) 영(英) 서독(西獨) 호(濠) 《국제전》 입선 국제 특선 4회 현 한국사진협회 이사 사진연구소 경영 ☎ 22-0567 서울·중구 충무로1가 25	4. <리듬> (흑백) 5. <하모니> (원색) 6. <정물> (원색)
한영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한국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 역임 현 한국사진협회 이사 신선회 지도위원 《동아국제사진싸롱》 심사위원 《한국국제사진전》 심사위원 사진연구소 경영 ☎ 26-7530 서울·중구 충무로3가 24-8	1. <산림녹화> (원색) 2. <모사(毛絲)광고> (원색) 3. <전자공업광고> (원색) 4. <Fashion> (원색)

[09-012]

《부운 현일영 사진 소품전》, 1972년 5월 5일-5월 9일, 한국화랑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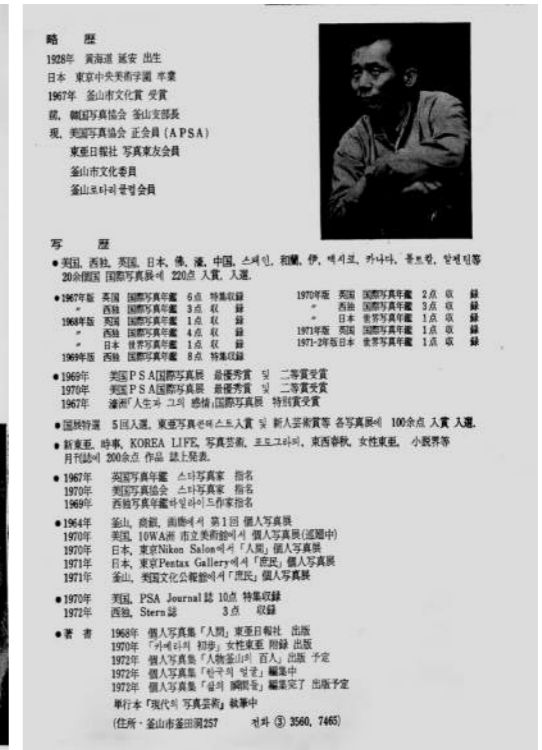
내지

[09-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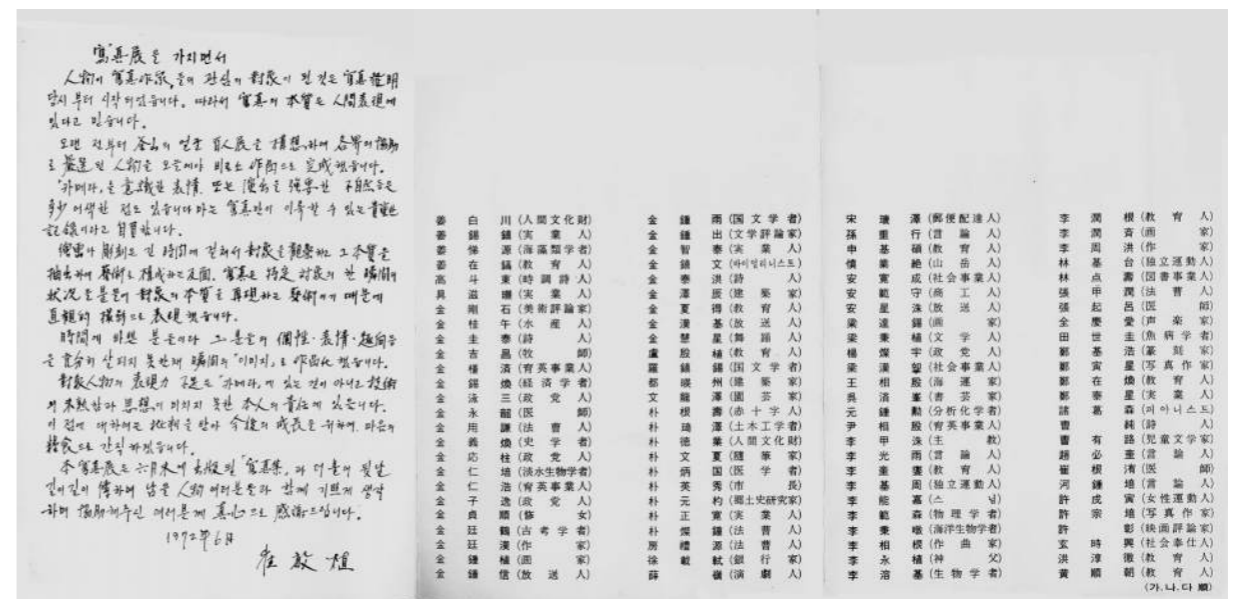
동아일보사·한국사진협회 후원, 《얼굴, 부산의 백인(百人)-최민식 사진전》, 1972년 6월 5일-6월 10일, 부산 미국문화공보원 화랑



팸플릿 표지



뒷면



내지

사진전을 가지면서

인물이 사진작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사진발명 당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진의 본질은 인간표현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랜 전부터 《부산의 얼굴 백인전》을 구상하여 각계의 협조로 엄선된 인물을 오늘에야 비로소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표정, 또는 연출을 강요한 부자연 등은 다소 어색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진만이 이룩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라고 자부합니다.

회화나 조각은 긴 시간에 걸쳐서 대상을 관찰하고 그 본질을 추출하여 예술로 구성하는 반면, 사진은 특정 대상의 한순간의 상황을 붙들어 대상의 본질을 재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직관적 촬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간에 바쁜 분들이라 그분들의 개성 표정 취향 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순간의 ‘이미지’로 작품화 했습니다.

대상인물의 표현력 부족은 ‘카메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미숙함과 사상이 미치지 못한 본인의 책임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비판을 받아 금후(今後)의 성장을 위하여 마음의 양식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본 사진전은 6월 말에 출판될 『사진집』과 더불어 뒷날 길이길이 전하며 남을 인물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72년 6월

최민식

[13-184]

「사각의 극치, 《10회 동아사진콘테스트》-심사평, 『동아일보』, 1972년 6월 9일



수준은 높아졌으나 흉작

임응식(위원장)

전체적으로 보아 응모작품의 수준이 전회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솔직이 말해서 《동아사진콘테스트》가 10년이란 연륜을 거듭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수확으로서는 흉작이었다는 인상을 면치 못했다.

과거 회화(繪畵)의 미학에 의존해 오던 사진은 아직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작가들의 행동반경은 언제나 안이한 방법 의식만이 선행되고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그것을 받침 하는 사상성의 빈곤은 작품에 있어서 점차 형식주의로 기울게 하고 표현이 감각의 선단에서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작가 자신이 피땀을 흘려 투쟁을 하고 그 표현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욕이 약하다. 즉 현실 비판자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고유의 내용에 고유의 형식을 부여하고 날카로운 설득력이 있는 표현으로써 호소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을 이번 콘테스트의 응모작품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솔직이 말해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진의 풍토인지도 모른다.

이번 콘테스트 작품을 통해서 칼라 인화의 자가 제작의 수가 지난해 보다 늘어났다는 사실은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작품 제목의 과장 표현된 것이 많았고 흑백 인화지의 계조 선택이 잘못된 것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선작 <열중>은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면서 호소하는 다이내믹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싫증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감정을 담백 지닌 작품이다.

계단 한복판을 사선으로 가로지른 강렬한 빛은 사생에 열중하는 두 소녀의 캔버스 위에 부서지고 있다. 곱고 예쁜 소녀들의 마음씨와 꿈이 영롱한 빛깔로 이들의 캔버스를 물들이고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화면 앞쪽 소녀의 발부분의 강한 빛은 주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09-068]

한국사진협회 주최, 문화공보부, 포토그래피사 후원, 새한칼라 협찬,
《사진 강좌(1972년도 하기)》 개최(안내), 1972년 7월 26일-7월 28일, 국립공보관



사진 강좌(1972년도 하기) 개최(안내)

당 협회에서는 신진 사진작가의 육성과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1972년도 하기 사진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일반 사진동호인들의 많은 수강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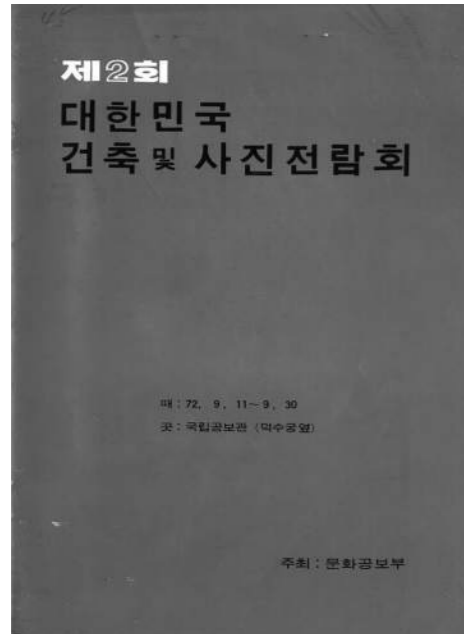
다음

- 1. 개최 일시 1972, 7, 26(수)-28(금) (3일간)
매일 하오 6시~9시 (3시간씩)
- 2. 개최 장소 국립공보관 (덕수궁 옆)
- 3. 수강 대상 일반 사진동호인
- 4. 강의 제목 1. 사진예술의 특성에 관하여
2. 현대사진의 경향에 대하여
3. 사진의 소재를 택하는 방법
4. 사진의 구도를 잡는 방법
5. 칼라사진 촬영기법 (칼라슬라이드 감상)
6. 사진의 현상과 인화방법 (칼라·흑백)
7. 사진기와 사진재료의 상식
8. 사진의 특수표현 기법
- 5. 강사 김중헌, 임응식, 이명동, 육명심, 유만영, 이경모, 이규원, 정도선, 이종걸 (새한칼라 기술부) ... 가나다 순
- 6. 수강 방법 수강 희망자는 1972년 7월 26일까지 신청할 것 (구두신청도 가(可))
※ 신청처 서울특별시 세종로 예총회관 305호실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749216
- 7. 수강 인원 120명 내외(신청순)
- 8. 수강료 무료
- 9. 기타 자세한 것은 당 협회 사무국에 문의할 것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후원 문화공보부, 포토그래피사
협찬 새한칼라

[04-012]

문화공보부 주최, 《제2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
1972년 9월 11일-9월 30일, 국립공보관



심사위원(무순)

위원장 이해선

부위원장 정인국

사진 분과위원장 안월산

위 원 이진중 이경모 임응식 김조현 이형록

사진부문

초대작가(무순) 김조현 김종양 박필호 서순삼 안월산 이진중 이경모 이명동 이해선 이형록

임응식 정인성 현일영

추천작가(무순) 김중헌 문선호 조현두

수상작

국무총리상 <셋날> 배동준 <칼라>

문화공보부장관상 <석양> 이정강 <칼라>

추천작가상 <석양> 문선호

특선 <흑백> <새마을의 구성> 이순흥, <건설보> 이수중, <조기청소> 김석만

<칼라> <영상> 홍순태, <합심> 조동제, <평화의 기도> 김영민, <군중> 유정재

[02-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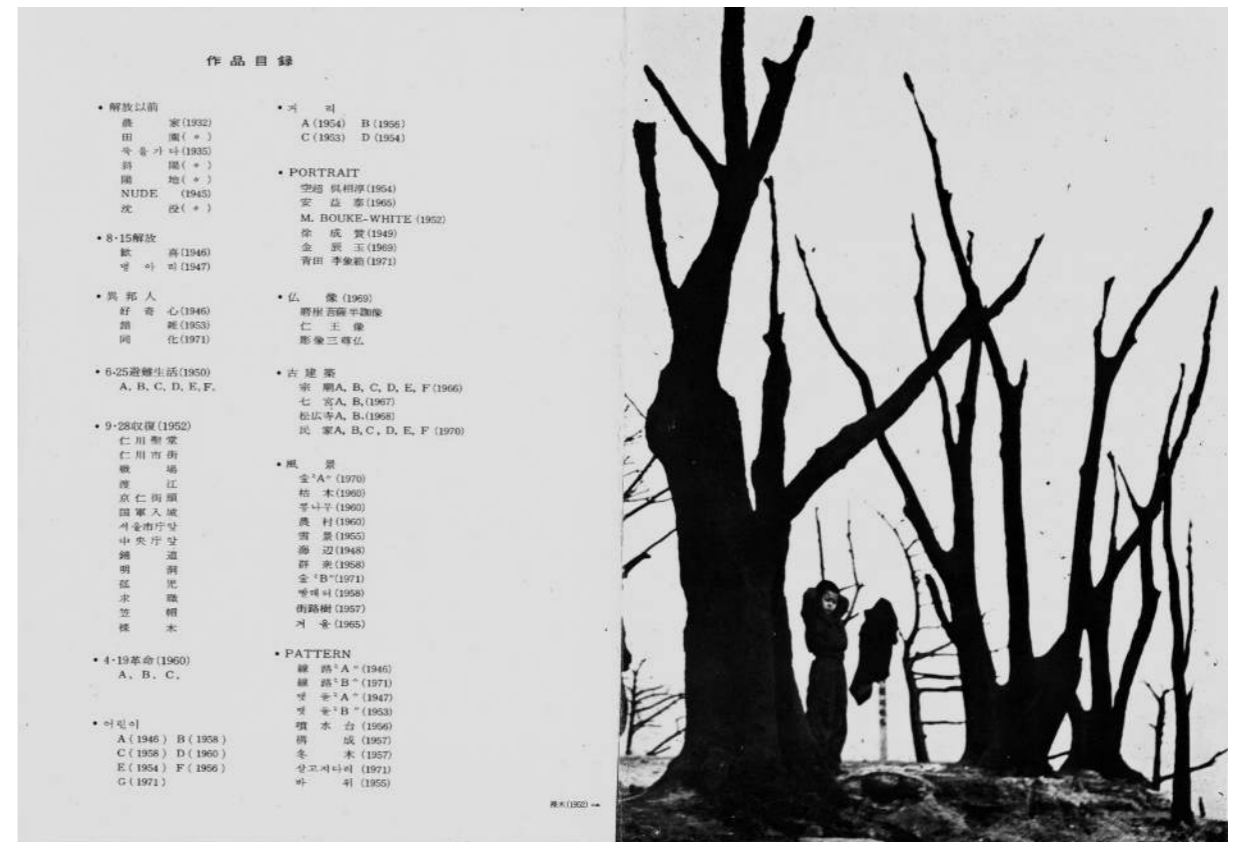
《임응식 회고작품전》, 1972년 11월 9일-11월 15일, 신문회관 화랑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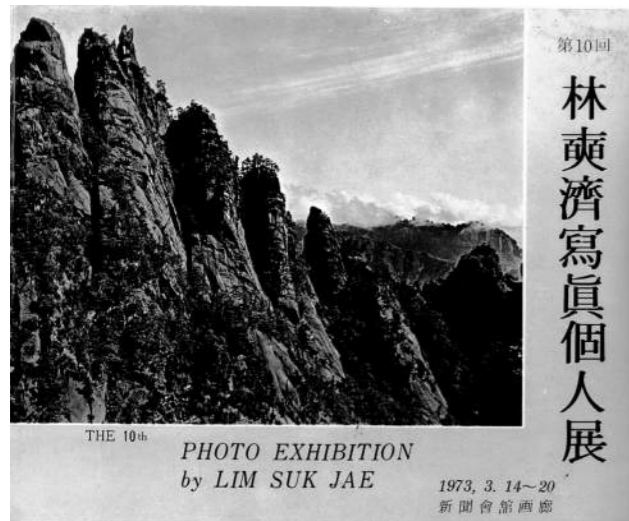
뒷면



내지

[03-089]

《제10회 임석제 사진 개인전》, 1973년 3월 14일-3월 20일, 신문회관 화랑



팸플릿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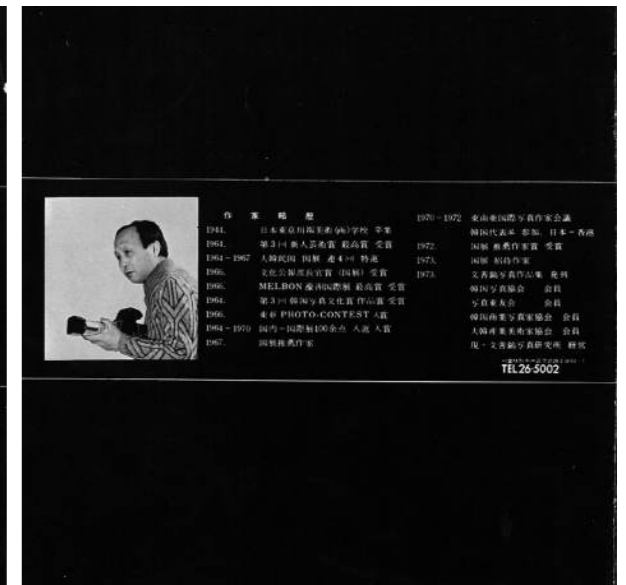
내지

[1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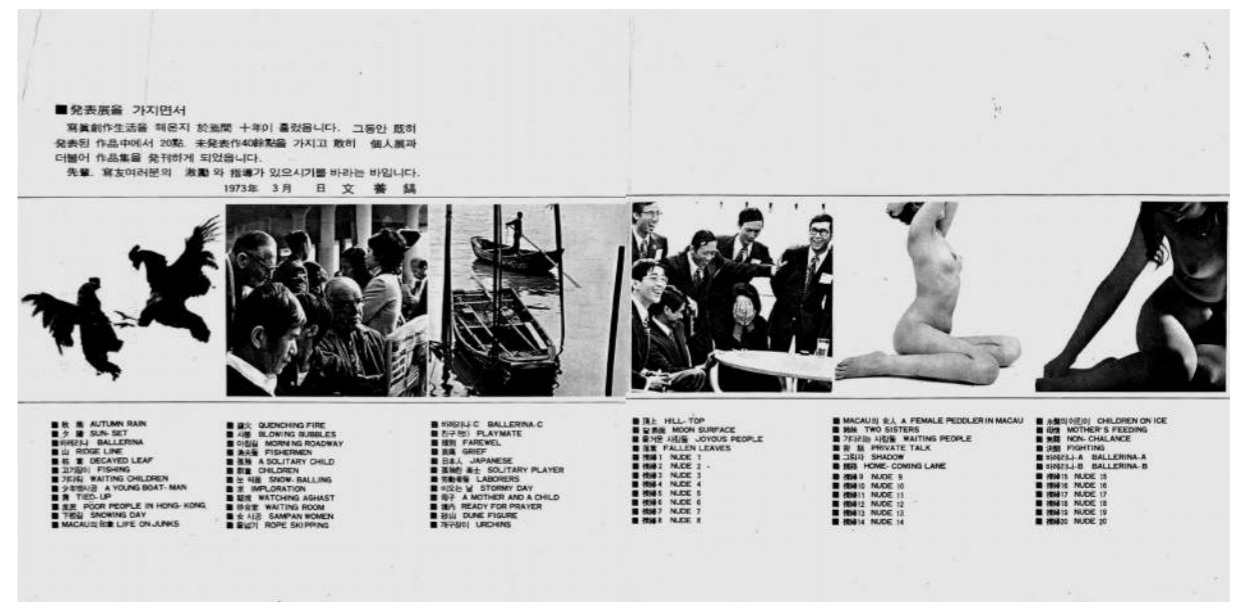
동아일보사 후원, 《작품집 출판 기념, 문선호 사진작품전》, 1973년 3월 28일-4월 3일, 신문회관 화랑



팸플릿 표지



뒷면



내지

[13-209]

「봄에 펼친 ‘빛의 예술’ ‘세계의 순간’ 초점에, 《8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입상 작품 지상전시-심사평, 『동아일보』, 1973년 3월 30일



성실바탕 내용과 조화를

임응식(위원장)

전체적으로 봐서 응모작품의 양은 예년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조했다.

특히 국내작품(흑백)의 경우는 《동아국제사진살롱》 창설 이래 가장 저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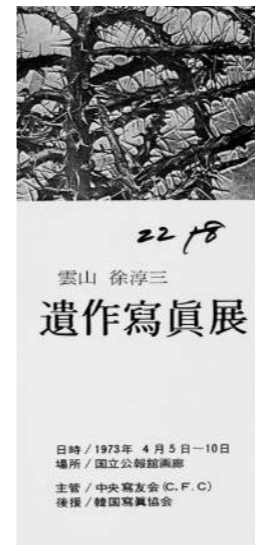
국내작품들은 대부분이 내용에 앞서 예술적 표현의 기본이 되는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견과 선택'이라는 과정이 사진예술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촬영 이후에 이루어지는 암실작업의 과정도 경시될 수는 없다. 물론 국산 인화지의 조악성이 원인의 하나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보다도 작가들의 암실 작업을 경시하는 안이한 태도가 보다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성 같다.

본래 국제사진살롱의 성격이 전통적인 사진 미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보편성에 있다면 우리나라 애머추어들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고래의 사진형식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물론 콘템포러리 등 현대사진이 추구하는 소위 '불안정의 미학'은 형식을 무시해버리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국내칼라작품의 색감은 서구작품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내용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조를 면치 못했다. 한편 외국작품에 있어서는 서독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저조한 경향이였다. 끝으로 흑백 부문과 칼라 부문에서 겨우 한 점씩 동상으로 입상한 한국 작가들에게 한 걸음 더 노력해 줄 것을 바라고 싶다. (위원장)

[10-013]

중앙사우회(C.F.C) 주관, 한국사진협회 후원, 《운산(雲山) 서순삼 유작 사진전》, 1973년 4월 5일-4월 10일, 국립공보관 화랑



팸플릿 표지



내지

운산 서순삼 형을 말함

박필호

운산은 한국사진계의 초창기의 선구자로서 한평생 사진으로 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한국 사진사의 측면에서 바라본 운산은 이 나라 최초의 사진개인전을 가진 행적으로도 길이 기록될 것이다. 1924년 코니시로쿠사진학원(小西六寫眞學院)을 나온 운산은 1925년 평양에서 삼정 사진관(三正寫眞館)을 차린 지 5년 만인 1929년 『조선일보』 평양지국 후원으로 사진전을 가졌던 것이다. 삼중정(三中井) 평양지점에서 열린 개인전은 모두 40점으로 그의 성격 그대로 차분하고 정서적인 온화한 사진들이었다.

이로부터 즐긴 사진 활동은 1934년 『조광(朝光)』지에 《남량사진공모전》에서 〈아침〉이 특선을 차지한 것을 필두로 이루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지만 운산 본래의 성품이 자기를 들어내길 유달리 꺼려하였기에 이에서 접어둔다. 그의 작품 세계는 이 나라 사진 조류 그대로 초기에는 자연주의적인 풍월조의 사풍이었으나 해방 후에는 사실적인 기록을 강조하는 특색이 들어났었다. 그 후 말년에는 리얼한 현실에서 비약하여 한 대상을 즉물적으로 파고 들어가 그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려 하였다. 이런 경향의 작품 중에 〈세정(世情)〉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민족적 비극인 한국동란 중 실향민으로서 겪은 쓰라린 체험의 절실한 표현이다. 시류에 따라 사진 경향이야 변모하였지만 그의 사진 밑바닥에 깔린 일관된 것은 언제나 잔잔하고 따스한 서민적인 휴머니즘이었다.

말년의 그는 10여 년간 C.F.C 를 이끌었으면서 단 1회도 빠짐없이 사작(寫作)을 계속하였으며 유명을 달리하기 불과 1개월 전까지도 (《C.F.C. 10회전》 작품 3점) 작가 활동을 쉬지 않았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이면서도 가슴 속 깊이 흐르고 있는 그의 의욕과 정열은 마지막 날까지 식을 줄을 몰랐다. 유명을 달리한 오늘 그의 온화한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오늘 그의 정성이 담겨 있는 유작을 통해서나마 그의 편모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못내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은 그의 생애의 후반기, 즉 20여 년 전 그가 고향을 떠난 후에 제작된 작품의 일부일 뿐이니, 그의 전 생애를 통한 한국의 사진사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작품을 다 볼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그가 걸어간 길은 남아있는 모든 사진인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믿으며 이 보고를 기획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13-183]

「사각의 정수, 《제11회 동아사진콘테스트》-심사평, 『동아일보』, 1973년 6월 8일



수준 높고 회화 양식서 탈피

임응식(심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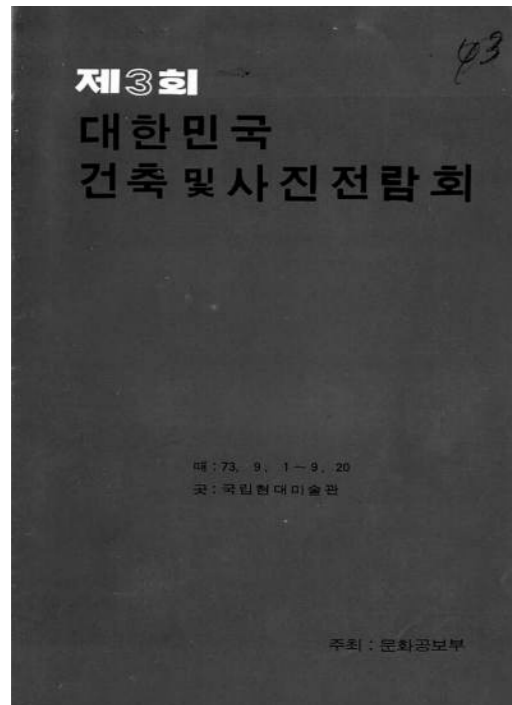
금년 응모작품의 수준은 예년보다 높은 편이었다. 특히 흑백보다는 칼라작품의 질이 좋았다. 즉 우리나라의 칼라라보의 기술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11년의 연륜을 거둔 《동아사진콘테스트》의 성격과 경향이 얼마나 선명히 부각되어졌는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배척하는 회화 양식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번 11회 콘테스트 입선작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무척 다행한 일이다.

언제나 사진작품에서 요구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심상한 작품이 아니라 색다르고 새로운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물 또는 물체 일상생활 풍경 등 작품의 소재는 언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 작품의 색다른 특질이 무엇이든 그것은 색다른 소재 자체가 아니라 작가 자신에 내재하는 색다른 특성의 소산이라야만 한다. 이 색다른 특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작가의 창의력을 의미한다. 이번 작품심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작가의 창의력에 중점을 두었다.

특선작 〈감회〉는 우선 소재가 이색적이어서 좋았다. 따라서 형식도 완벽했고 내용도 감회의 이미지와 그 감정이 듬뿍 담겨져 인생이라는 의미를 보는 사람에게 새겨 느끼게 하고 있다. 망원 렌즈를 사용하고 역광 촬영을 해서 주제를 단순화하고 강조한 솜씨도 좋았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측 노인의 얼굴 표정이 조금만 더 보였으면 좋았을 것을 무척 아깝다.

[04-013]

문화공보부 주최, 《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
1973년 9월 1일-9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심사위원(무순)

위원장 강명구

부위원장 정인성

사진 분과위원장 김조현

위 원 현일영 이명동 이경모

초대작가(무순) 김조현 김종양 현일영 박필호 안월산 이건중 이경모 이명동 이해선 이형록

임응식 정인성

추천작가(무순) 김종현 문선호 조현두 이정강 홍순태

수상작

국무총리상 <절규> 김영민

문공부장관상 <역마(役馬)> 유정재

특선 <귀로> 배동준, <만추> 김기순, <갯가의 어린이> 김치역, <성직자의 소명일> 강상규, <소득

증대 작업> 손재석, <힘 모아 사는 가족> 한기수

[14-195][?]

임응식, 「권두사-사협의 방향」, 『사협회지』, 1974년 1월, pp.2-3

‘사협’이 창립된 해가 1961년이고 보면 올해는 13년째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협회운영에는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꾸준히 잘 키워와서 오늘날 전국에 700명을 넘는 많은 회원을 갖게 된 데 대하여 선임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다.

그 뒤를 이어받은 우리들로서는 응당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들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새삼 새로와지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에 사진술이 도입되어 우리 손으로 행하게 된 지 80년, 사진창작활동이 시작된 지 반세기, 그리고 산재해 있던 사진작가들이 규합되어 전국 규모의 한국사진작가 협회를 조직한 것이 1953년, 그리고 이 협회가 가지가지의 애로를 무릅쓰고 지금의 ‘예총’의 전신인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에 가입된 것도 역시 그 해였고 보면 사진 단체가 문화예술단체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떳떳한 작가로 위치를 굳히게 된 때로부터 기산(起算)해 본다면 올해가 꼭 성년이 되는 된 해다.

이제 성인기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보다 차원 높은 업적을 쌓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협회의 과거를 자체 선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치중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질적 향상과 사업 위주의 태도로 바뀌어져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말하자면 일대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우선 시급한 당면 과제의 몇몇을 열거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의 예술가적 자질향상
- ② 한국 사단의 작화이념 수립
- ③ 한국 사진 역사의 편찬 및 출판
- ④ 한국 사진 80년사 작품전 개최
- ⑤ 한국 사진 80년사 작품집 출판
- ⑥ 한국 사진 용어의 통일
- ⑦ 한국 사진연감의 발행
- ⑧ 신인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위의 사업 중 몇몇은 이미 착수되어 목하 예의추진 중에 있거니와 이들의 원만한 완결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 회원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위에 열기한 사업들은 하나의 책임 있는 예술단체로서 일찌기 착수를 했거나 또는 이미 이룩되어 있었어야만 하겠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자리에서는 펼칠 겨를이 없으나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면, 사진 용어에 있어서 'FILM'의 경우만 해도 우리말 표기가 구구하기 짝이 없다. '필름' '필림' '휠림' '힐름' 등등, 그리고 'CAMERA'는 '카메라' '카메라' '캐머러' 등 적당한 우리말을 발견하지 못해서 원어 또는 일어를 상용하고 있는 것이 현금(現今)의 실정이라 하겠다. 이미 굳어진 말은 그냥 쓴다 할지라도 우리말로 대치(代置)할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진작가의 자질 향상 문제나 작화 이념 수립 문제는 그야말로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사진 강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타 분야의 예술가에 비견할 수 있는 예술적 교양의 함양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념 면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심 되는 방향선을 설정하여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는 작품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진사의 정립 또한 그렇다. 짧다면 지극히 짧은 우리의 사진 역사이기는 하나 이것마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고 보면, 이의 정리 또한 시급하며 그간의 창작 작품의 시대적 경향마저도 전혀 엇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정리 또한 시급하다. 마침 내년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사진술을 시작한 때로부터 80년이 된다. 이를 기하여 과거에 제작되었던 작품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작품집을 출판코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진연감 발행 문제도 매년 반드시 출판토록 해야 하겠고, 일반 공모전도 참다운 신인발굴을 위해서 회원전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첨언하면 회원전 그 자체도 과거와 같은 저조한 상태로서는 도저히 대외적으로 체면이 서지 않은 것인 만큼, 앞으로는 국내의 그 어느 사진전보다도 충실하고 권위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체질 개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마침 지난 11월 27일에 있었던 간담회 석상에서 윤(尹) 문공부장관으로 부터 '사협'이 사진 연감이나 사진잡지 등을 출판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는 언약을 받은 바도 있어 우리의 마음이 호뭇하기는 하다. 이에 앞서 사단 자체의 단결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전국의 회원은 협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끝>

[13-208]

**「렌즈에 비친 '순간' '빛의 예술' 그 영상, 《9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지상전시-심사평, 『동아일보』, 1974년 1월 22일**



**양은 많아도 질은 저조, 흑백 형식 무시해 유감
임응식**

올해는 참가국도 21개국으로 부쩍 늘어났고 따라서 응모작품의 양도 풍성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작품의 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조한 편이었다.

특히 국내 흑백작품의 경우는 소재 선택의 빈곤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보다도 암실작업의 미숙이 작품의 질을 한층 저하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사진작품의 기본이 되는 형식을 무시하는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살롱사진의 성격은 전통적인 회화양식의 사진 미학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범주 내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나라의 애머추어들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그 형식의 전통은 성실히 지켜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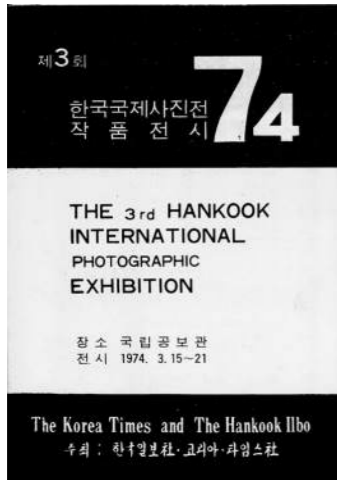
국내 칼라작품의 색감은 서구작품에 육박한 느낌이다. 8점의 입상작 중에서 은상을 비롯해서 국내 작품이 4점이나 입상되었음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특히 9회에 이르는 동안 칼라 부문에서 국내 작가의 작품이 은상을 차지하기는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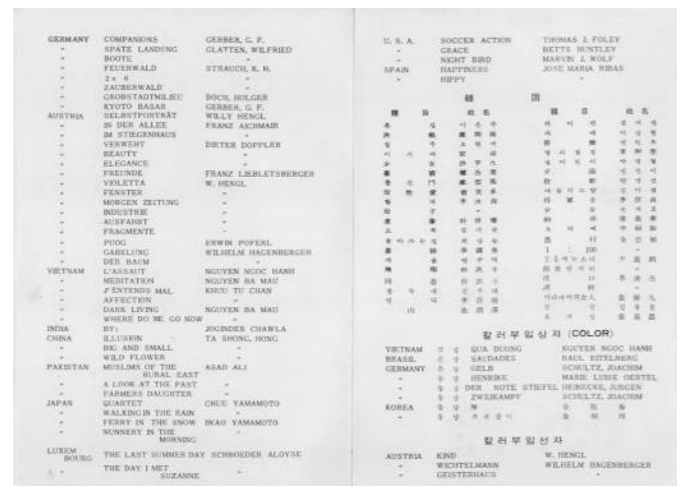
흑백부문에서는 국내 작품이 겨우 한 점밖에 입상하지 못했고 나머지 7점은 모두 외국이 차지했다. 국내 작가들의 분발을 바란다. <위원장>

[11-002]

한국일보사·코리아타임스사 주최, 《제3회 한국국제사진전 작품전시》,
1974년 3월 15일-3월 21일, 국립공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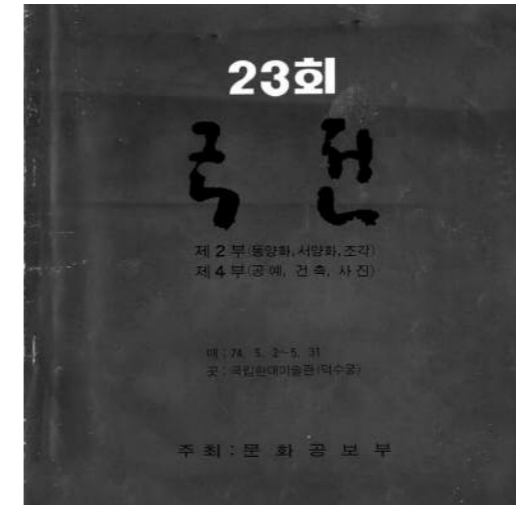
팸플릿 표지



내지

[04-014]

문화공보부 주최, 《23회 국전-제2부(동양화, 서양화, 조각), 제4부(공예, 건축, 사진)》,
1974년 5월 2일-5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운영위원(무순)

위원장 손재형

부위원장 이해량

위원 이마동 서세옥 김세중 최기원 김 원 김인호 박득순 김기승 박영선 원경수 손응성

조연현 이윤택 이순석 장우성 정인국 김성태 임응식 김영주 홍승면 남 관

심사위원(무순)〈제 4부〉

위원장 김재철

부위원장 이해선

사진 분과위원장 정인성

위 원 이해선 이명동 문선호

초대작가(무순) 김조현 이견중 이경모 이해선 임응식 현일영 김종양 박필호 안월산 이명동

이형록 정인성 문선호

추천작가(무순) 조현두 김중현 이정강 홍순태 이종화 임석제 정도선

대통령상〈새아침〉 유정재

문화공보부장관상〈나들이〉 김석만

특선〈기구〉 강상규, 〈건설의 영상〉 배동준, 〈구도〉 이순홍, 〈함성〉 김영민, 〈러쉬아워〉 이창남

[11-007]

《12회 이견중 사진전, “한국의 멋,,》,
1974년 9월 15일-9월 21일, 한국예술문화진흥원 미술관



팸플릿 표지

Exhibition program page with text in Korean and English, including artist information and a photo of a person in a hat.

Exhibition program page with text in Korean and English, including a list of titles and a photo of a bowl of food.

내지

[11-013]

동아일보사 후원, 《서럽도록 착한 이웃, 최민식 사진전》,
1974년 11월 15일-11월 21일, 목마화랑

Exhibition poster for 'Sadly Good Neighbors' featuring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with vertical text and exhibition details.

업서류의 홍보물 표지

Exhibition program page with text in Korean and English, including a portrait of the artist and exhibition details.

뒷면

사진전을 열면서

10여 년을 하루같이 추구하여 온 영원한 주제는 인간 특히 서민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이미 권력과 재력을 비웃는 ‘디오게네스’적인 해학이 있고 ‘씨니칼’한 앵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씨트에서 골프채를 닦고 보석을 즐기는 그런 속물들의 인간이 아니라 채플린 영화의 주인공처럼 악의 없는 사실의 동공을 소유한 삶의 인간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인간을 그린다는 것보다 더 불확실한 것이 없고, 더 오해되는 것이 없고, 더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인간이 묘사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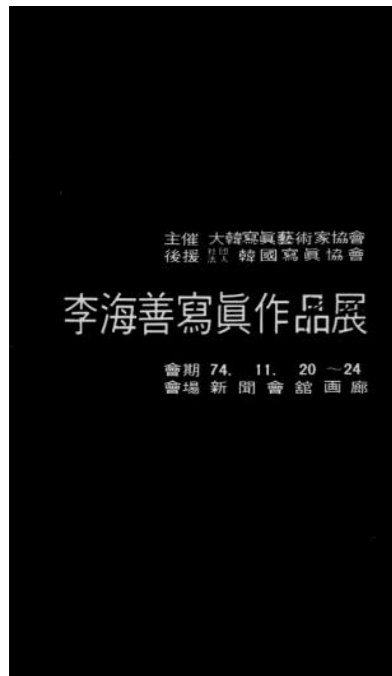
때문에 나는 ‘카메라 아이’로 추척한 ‘인간의 궤도’는 생명이 있는 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공간에다 지극히 작은 ‘영상의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이 있으므로 해서 많은 이웃들은 ‘인간’의 실존을 뼈저리게 의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이 거기 있기에……’ 히말라야 산정에 도전했던 위대한 ‘알피니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 그것도 서럽도록 착한 인간이 거기에 있기에……’ 나의 카메라는 눈물을 삼키어 사실의 섯터를 힘차게 휘둘러 왔고, 더욱 전진할 것입니다.

1974년 11월 15일 최민식

[1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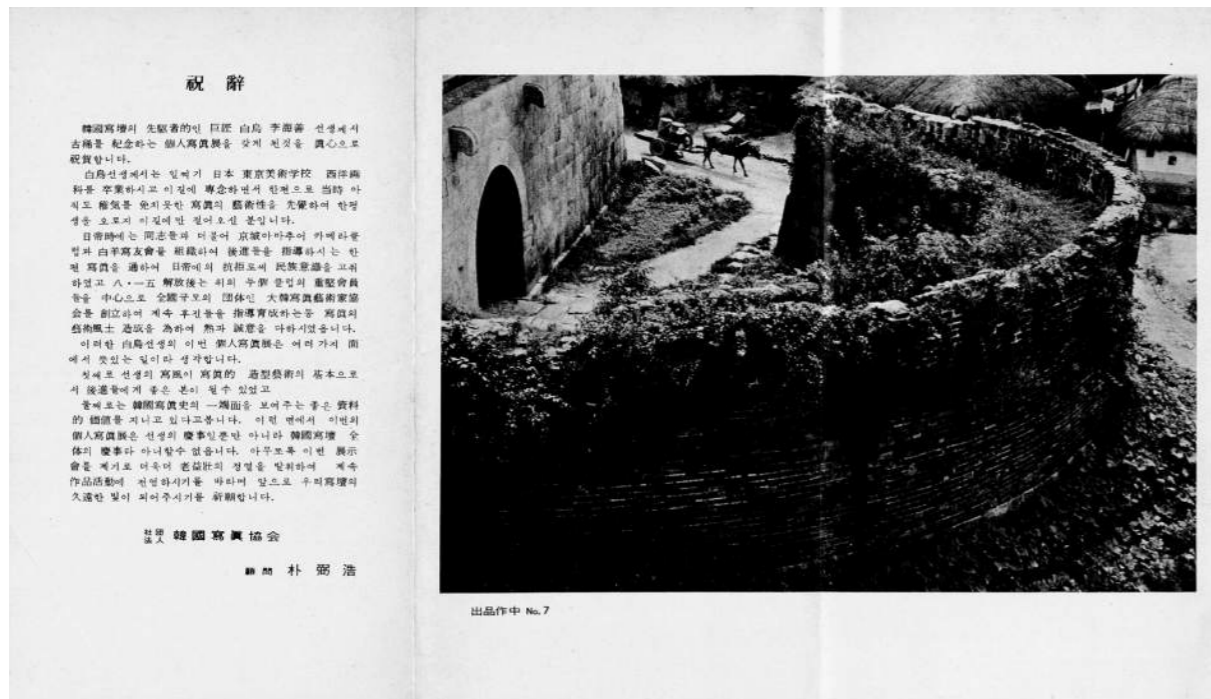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주최, 한국사진협회 후원, 《이해선 사진작품전》,
1974년 11월 20일-11월 24일, 신문회관 화랑



팸플릿 표지



뒷면



내지

축사

한국사단의 선구자인 거장 백오 이해선 선생께서 고회를 기념하는 개인사진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백오 선생께서는 일찌기 일본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시고 이 길에 전념하면서 한편으로 당시 아직도 치기를 면치 못한 사진의 예술성을 선각하여 한평생을 오로지 이 길에만 걸어오신 분입니다.

일제 시에는 동지들과 더불어 경성아마추어카메라클럽과 백양사우회를 조직하여 후진들을 지도하시는 한편 사진을 통하여 일제에의 항거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 8.15 해방 후는 위의 두 개 클럽의 중견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단체인 대한사진예술가협회를 창립하여 계속 후진들을 지도육성 하는 등 사진의 예술풍토 조성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었습니다.

이러한 백오 선생의 이번 개인 사진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선생의 사품이 사진적 조형예술의 기본으로서 후진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었고 둘째로는 한국사진사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의 개인사진전은 선생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단 전체의 경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더욱더 노익장의 정열을 발휘하여 계속 작품활동에 전념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사단의 구원(久遠)한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고문 박필호

[11-047]

한국사진협회 주최, 문화공보부 후원, 새한칼라 협찬, 《제1회 국제사진문화교류전》, 1974년 12월 11일-12월 17일, 국립공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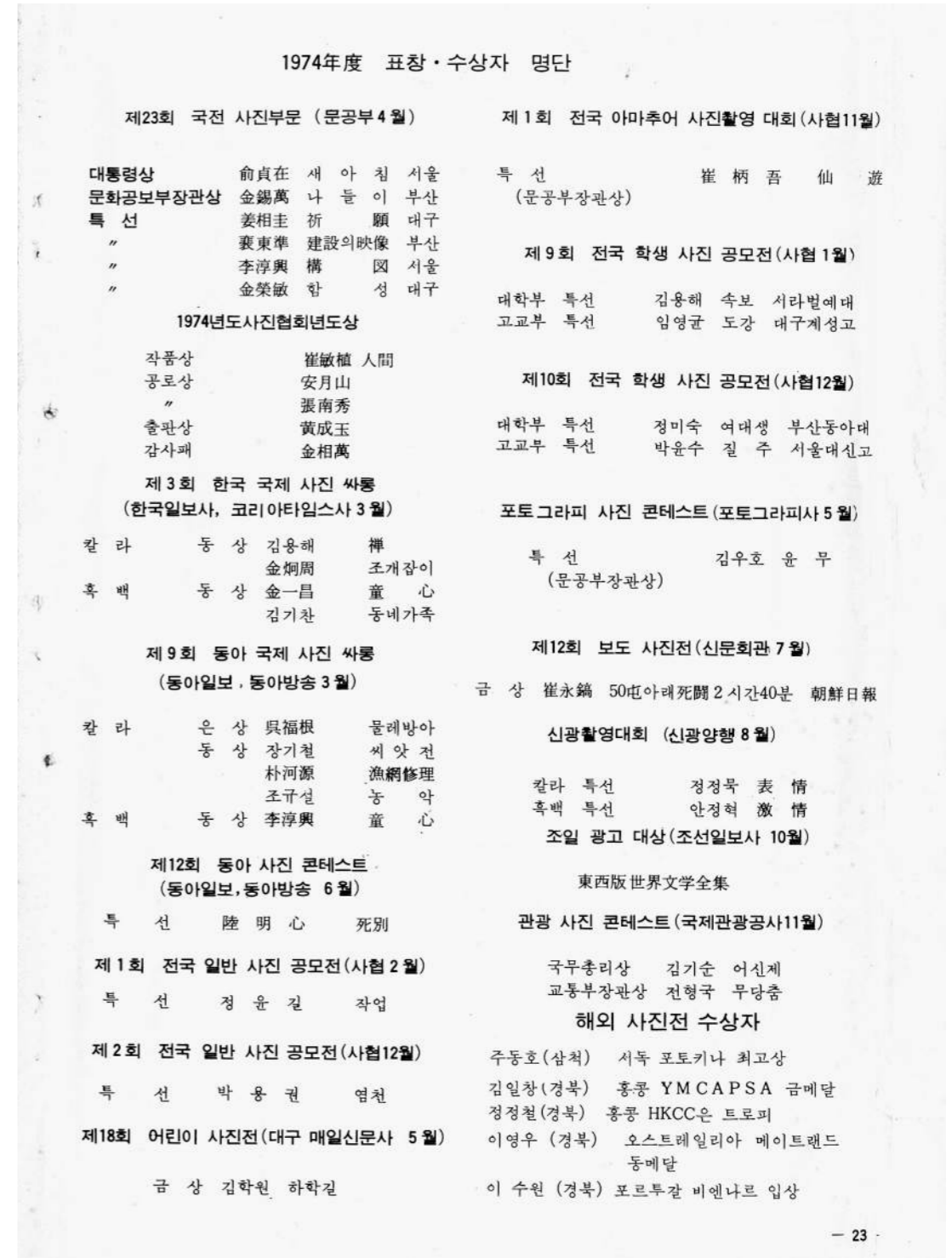
팸플릿 표지



내지

[11-001]

「1974년도 표창 수상자 명단 및 사진 단체명 등」, 매체명 미상, 1975년, pp.23-26, pp.29-30



1974年末現在

사 진 단 체

단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서울중구소공동87 ②4224	안준천
✓ 한국상업사진가협회	서울중구충무로 2가 52-3 ②5969	김한용(총무)
한국마이크로필름 센터	서울중로구종로 5가490 ②52921	이성균
한국사진기 기사협회	서울중로구종로 3가26 ⑦43309	김순곤
한국마이크로필름협회	서울중구필동 2가 10 ②51463	송연섭
서울사진재료상 협회	서울중로구종로 4가71 ⑦4587	襄漢俊
(사단법인) 대한직업사진가협회	서울중로구관수동70 ②59062	노경식
✓ 한국기자협회 사진기자단	서울태평로 1가31 ⑦35221	홍성혁
✓ 한국잡지기자협회	서울중로구도영동132~2 계남빌딩802호 ⑦59464	김희용

일 반 부

단 체 명	연 락 처	창 립	회 장	회원수	전시회수
서울사진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33호②4141	1968, 2, 27	김하경	24	3
뉴서울사진동호회	" 중구남대문로 4가20②3549	1968, 7, 5	許亨九	46	2
寫心會	" 관악구대방동468 의 66③5703	1965, 6, 30	강준철	8	5
실미회	" 성동구행당동286의74②3995	1970, 4, 5	홍석진	6	1
서울 CFC 사진클럽	" 종로구안국동165 ⑦3850	1962, 3,	김재권	26	12
YWCA 사진클럽	" 중구명동 1가 1 - 1 Y W C A 내	1959, 4, 5	이수연	25	12
신영사우회	" 중구명동2가93-2 ③7924	1960, 3	홍유관	10	11
뉴포토클럽	" 종로구 세종로 111 ⑦37248	1958, 10, 19	이달희	30	17
어머니사진클럽	" 중구명동1가 1 - 1 ③7940		김영숙	19	3
중소기업은행사진부	" 중구윤지로 2가36-1 ③3771	1964, 3	강경섭	200	7
한국은행사진부	" 중구남대문로 3가110				
선명사우회	" 중구남대문로 1가14③0551	1971, 12, 25	林昌祐	10	3
목면회		1964	최남춘	3	
아카데미사진연구회	" 종로구종로 3가⑦4325	1964, 12, 20	유영섭	25	4
물보라사진동우회	" 종로구내자동237③8770	1973, 3, 1	김보환	20	
펜탁스헤밀리	" 종로구낙원동⑦3614	1969, 11,	김용휘	38	4
MBC사진클럽	" 서대문구정동22⑦6156	1970, 2, 18	임택근	109	
무지개회	" 동대문구청량 2동205-304③6032	1960, 4,	金豊煥	14	10
포토그래피카메라클럽	" 종로구관철동14-11⑦2490		이봉하	300	20
映 像 會	" 종로구세종로111 ⑦5873	1974, 12, 20	金昌權	8	
경기 강남사우회	경기도시흥군서면소하리34	1970, 10, 1	최인석	9	12
Lens클럽	" 부천시심곡동544	1969, 4, 5	김수열	15	
Time photo club	" 양주군동두천읍생연 5리578	1974, 9, 22	임석기		1
번·포토	인천시 ③8063		김용수	8	
부산 부산일요사진회	동래구 낙민동206-4 ③4483	1969. 3. 2	李相翹	20	6
부산사진연구회	부산진구 부전동197	1971. 4. 30	金福萬	32	
부산칼라사진클럽	부산시중구창선동 2가48 ②1263		양봉두		
광주 펜타사진클럽	광주시양림동289-3 ③6052		구창환	16	5
무등사진클럽	" 금동181의 5 ②8947		전오남	10	5
화요사진클럽	" 금남로 5가89 ③5250		손계호	21	10
하이포토			김경주	11	2

1974년

일 반 부 (계속)

단 체 명	연 락 처	창 립	회 장	회원수	전시회수
대구 光画會	대구시중구문화동 9의 4②4414	1968, 4, 13	강상규	18	7
YWCA햇살모임	" 남구대명동 8구2124③0852	1973, 3, 1	김정원		2
신 사 회	" 중구동인동 1가347 ④4234	1961, 7, 30	徐泳海	15	5
대구사진연구회(岁月會)	" 동구상동 1가48의11 ④2236	1961	金泰漢	16	
대구사우회	" 남구대명동2018 ⑤5864	1954, 6, 10	이수일	45	17
김제사우회	김제읍요촌리201	1970, 4, 1	윤남수	7	3
안동사우회	경북안동시삼산동104			16	3
경남사우회	마산시오동동카톨릭문화원202	1974, 12, 29	김형태	30	
대전 CTP(스리포인트)	대전시대평동 ③9325	1972, 3, 26	원윤해	10	1
은영클럽	" 목동107 ③1889	1974, 1,	越鎭漢	12	
목포유달사우회	목포시명륜동12번지	1972, 10, 6	박선순	9	2
군산 藝術寫友會	군산시경암동 T: 2113	1973, 4, 6	李誠守	20	
火寫會(한전군산화력발전소)	" 구암동470	1973, 7, 8	김기선	12	
한전사우회	" 명산동	1971, 7, 17	박중훈	12	
군산일요사진동우회	한일은행군산지점 T: 2171	1968, 12, 1	朴炯仁	7	
창작동인(영70)	전북익산군오산국교	1970, 10, 1	이옥주	6	
울산 무지개동인회	울산시학성동405-2	1973, 3, 2	이태열	7	2
에 집 회	" 문화공보실	1970, 1, 15	서진길	7	3
영남사진클럽(영남화학co.)	" 매암동 T: 7966	1971, 4, 10	장홍규	14	2
한비사진동우회(한국비료co.)	" 여천동190 T: 7121-30	1968, 3,	김익동	13	4
경남교직원사진연구회	울산여자고등학교 T: 2034	1973,	김명룡	20	
제주카메라클럽		1963, 11,	慎相範	22	14
목포D협회(갯바위)			張宗基		1
진주일요사진클럽	진주시동성동75	1969, 2, 26	윤사현	16	8
순천사우회	순천시금곡동188-13		이석기	5	
공주사우회	충남공주읍죽동329 T: 823		李祥雨	20	
여수 샌데이 카메라 클럽	여수시 MBC 상무이사 T: 4706				
여수 사진 동인회		1974, 6,	李錫宰	12	1

59(國)외. + 5 = 64

대 학 생 부 (계속)

단 체 명	연 락 처	창 립	회 장	회원수	전시회수
서울공대청사회	서울대학교공과대학 ⑤0041			16	1
서울공대 FOCUS	서울대학교공과대학 ⑤0041				
연세대학교연영회	연세대학교 ③0131		윤기은	16	8
고려대학교虎影會	고려대학교 ②2600		李柱崗		8
중앙대학교Finders	중앙대학교 ⑥5031~7	1971, 9, 16	남덕우	15	4
한양대학교H. Y. Po	한양대학교 ⑤4111		김봉식	14	9
송진대학교Photo club	송진대학교 ⑥0047~50	1971, 10, 10	노이전	23	
경희대학교사진부	경희대학교 ⑤0061				
홍익대학교모래알	홍익대학교 ③0150				
서울시강대학교시광회	시강대학교 ③0141				
한국외국어대학Angles	한국외국어대학 ⑤0135				
덕성여자대학운현사진반	덕성여자대학 ⑦4851				
이대시청각교육과사진부	이화여자대학교 ③0151				8

1974년

대학생부 (계속)						
단 체 명	연 락 처	창 립	회 장	회원수	전시회수	
이대신문방송학과사진부	이화여자대학교 ㉓0151					
이대약대사진연구회	이화여자대학교 ㉓0151		정용자	14	5	
경기대학교회광사진회	경기대학교 ㉓0322		김창순	23	15	
숙명여대속미회	숙명여자대학교 ㉓5161 1963				12	
시라벌에대여명	시라벌예술대학 ㉓5031~7 1971. 5. 31		김학원	17	3	
시라벌에대틀래피	시라벌예술대학 ㉓5031~7 1970		이영수	15	3	
Sung Shin Angles club	성신여자사범대학 ㉓0124~8 1973. 10. 5		안혜숙	13		
장로회신학대학사진연구반	장로회신학대학 ㉓3101~3 1974. 6. 4		함준호	7		
UPC (유네스코사진클럽)	유네스코회관 1969. 3. 17		김영철	33	6	
경기						
아주공과대학사진반	아주공과대학 6631~4 1974. 4. 30		김중권	15		
인하사진소형영화연구회	인하대학교			4	5	
부산대학교사진예술연구회	부산대학교 ㉓0171~9 ㉓0301~9 1956. 6		김진희	32	3	
부산의대사진예술연구회	부산의대 1968		조용수		5	
부산여대사진예술연구회	부산여대 ㉓3855 1973. 3. 10		박말자	30	4	
부산동아대학교사진예술연구회	동아대학교 1963		이준무	30	8	
한성여대사진예술연구회	한성여자대학 1966		손한순		6	
부산실업전문학교사진예술연구회	부산실업전문학교 1973					
부산여자전문학교사진예술연구회	부산여자전문학교 1969				3	
군산						
개정간호전문학교아원사진회	개정간호전문학교 1970. 6. 25		원숙희	13	1	
개정간호전문학교To-Young클럽	개정간호전문학교 1970. 6. 25			8		
경북대학교사우회	경북대학교 1969. 4. 5		홍승수	28	3	
경북의대FOCUS회	경북대학교의과대학 1968. 4. 17		이태성	28	5	
대구영남대학교사우회	영남대학교 ㉓4969 1964. 3		신장철	9		
효성여대효사회	효성여자대학 ㉓7301~4 1973. 6. 16		임성숙	20		
대구교대花寫會	대구교육대학 1969. 8. 10		이재우	28		
영남공업전문학교사연회	영남공업전문학교 ㉓1161~4 1968. 11. 1		임대용	26		
포항						
포항실업전문학교축점사진회	포항실업전문학교 1972. 5. 25			6	3	
포항간호전문학교물탐사진회	포항간호전문학교 1974. 2. 13			11	1	
대전실업초급대학 물·하르방	대전실업초급대학		박동선	16		
충남대학교The Angles	충남대학교 ㉓7333 1969. 11. 1		박철근	29	4	
청주대학사진예술연구회	청주대학 1974. 3. 10		장법득	7		
강원대학봄내사진회	강원대학		노승룡	17		
광주						
조선대학교Photo-Y	조선대학교 ㉓8151 1970. 6. 11		김유로	15		
수피아여자전문학교Photoclub	수피아여자전문학교 ㉓4483		김광순	32		
고 등 학 생 부 3						
단 체 명	연 락 처 <td>창 립</td> <td>회 장</td> <td>회원수</td> <td>전시회수</td> <td></td>	창 립	회 장	회원수	전시회수	
대전사우회	대구대건고등학교	1974. 3. 10	진영태	14	1	
京寫會	경기고등학교사진동우회		홍기호		3	
정신사진부	정신여자고등학교		최성연	29	7	

1974년

사 진 관 계 교 육 기 관

학 교 명	소 재 지	창 립	학 장	학 과 명	모집인원	수업연한
중앙대학교예술대학	서울관악구혹석동221 ㉓5031	1972. 3	임철순	사진학과	30	4년
시라벌예술초급대학	서울관악구혹석동221 ㉓5031	1964. 3	김동리	사 진 과	40	2년
한성여자실업초급대학	부산진구대연동110-1 ㉓5333	1974. 12 25	이홍수	사 진 과	30	2년
신구산업전문학교	성남시탄대동524 ㉓0154, 2223 ㉓4464 : 서울	1973. 12 24	백 철	인쇄사진과	80	2년
한국사진학원	서울종로구종로2가33 ㉓1030	1966. 11	민태영			
중앙사진기술학원	서울서대문구의주로1가65 ㉓8291 ㉓1110	1972. 3. 1	김용기			
아세아사진학원	서울용산구갈월동69-75 ㉓4323	1969. 2. 25	조추환			
동양미술사진학원	서울용산구한강로2가360-1 ㉓1604 ㉓4579	1974. 12. 16	김택일			

카메라技術 柳萬榮 1954. PHOTO-TEXT 林志桂 '57
 字寫實用書 鄭海昌 1959 字寫表現과 作家 " '75
 字寫의 藝術 全完 1959

서 적 명	저 자	출판년도	관 명	페이지수	출 판 사
寫真技術	柳 萬 榮	1966	국 관	433P	進明出版社
최신사진처방집	"	1974	신국판	280P	"
Camera Guide	"	1970	3×5 판	277P	"
Camera 教室	朴 達 根	1964	국 관	273P	松園文化社
천연색사진	박 태 백	1972	국 관	215P	문 왕 사
사진촬영법	민 태 영	1971	4×6 판	226P	심 지 사
사진입문	"	1973	"	93P	杜 文 社
Photo technic	"	1972	국 관	224P	"
Camera 사진의 A B C	김 진 동	1970	국 관	140P	"
알기쉬운카메라사진입문	서울사진연구회 朴 允 哲	1967	국 관	180P	三信書籍
사진의 기초이론과처방법	포토그래피	1974	4×6 판	240P	포토그래피편집실
영업사진촬영기법	포토그래피	1974	국 관	163P	도서출판精養社
"生의 讚美" 제 1 집	金 榮 敏	1974	4×6 배판	122P	一 心 社
"女" 제 2 집	文 善 鎬	1974	4×6 배판	88P	金星出版社
"人間II"	崔 敏 植	1973	"	193P	三省出版社
강대한사진작품집	姜 大 桓	1974	"	213P	啓洋印刷(株)
人間聖地	姜 相 奎	1974	"		
人間信仰	光画會(姜相奎)	1972	국 관	120P	一 心 社
포토그래피(寫真專門月刊誌)	황 성 욱	1966	4×6 배판		포토그래피출판사

뒤여진 이름들 朱明德 1966
 名聲의 故鄕 金珠玢 1971
 富시의 일흔 趙炯治 (1972. 4. 14)
 東萊 文長鎬 寫真의 西集 1973
 活動하는 일흔들 崔敏植 1973

한영수 寫真研究所

서울忠武路三街二六의二 電話 26-7530
 報告字號 姜命岡 1974. 5. 8
 관라사진이론 崔益燦 1975
 장령관 1974. 7. 4

1974年现代

사진기업체 (가나다 순)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C V 大韓光学工業株式会社	서울永登浦區九老洞223 ㉞ 6521~3	金炳喆	카메라, 쌍안경, 교환lens, 삼발·조준경 제조
F V 大韓写真film株式会社	서울中區乙支路1가55 ㉞ 8540	邊鍾官	사진 film 생산
P V 大韓写真化學工業社	서울中區乙支路1가55 ㉞ 6421	"	각종인화지 및 필름제조판매
東洋사진공업株式会社	서울중구수표동27의1 ㉞ 4749	成文山	인화지생산
K V 斗山産業株式会社	서울중로구수송동108-4 ㉞ 7121~6	朴勝日	Kodak한국총대리점, 사진재료수입판매
력키사진화학공업사	안양시평촌동160-6 서울㉞ 1343 T: 2695	安致相	각종현상약 및 정작약생산
美化株式会社	서울中區小公洞112의34 ㉞ 0721~4	金炳洙	Fuji 필름 한국 대리점
宝星貿易株式会社	서울中區忠武路2가12-6 ㉞ 1010·1345	玄哲源	AGFA-GEVAERT한국 총 대리점
K V 株式会社 비비드	서울中區忠武路4가125 ㉞ 6678	金昇郁	사진약품제조
새한상사주식회사	서울마포구아현동339의1 ㉞ 0021~9	金宗陽	칼라사진현상인화
世紀光学株式会社	서울永登浦區加里峯洞381 ㉞ 1029	鄭斗碩	교환lens 생산수출
세방양행	서울中央私函街652 ㉞ 0067~8	吳在奎	사진재료직수입
P V 新星化学写真工業社	서울中區乙支路3街95-6 ㉞ 1402	金俊謙	인화지제조판매
신일산업주식회사	부산중구광복동1가26 ㉞ 9389	"	건조기 및 각종 사진기구제조
B V 一、二産業株式会社	서울城東區聖水洞1가13-126 ㉞ 0519	金鍾泰	후래쉬벌브·프루드램프·확대용전구제작
P V 泰星사진공업株式会社	서울중구인현동신성상가467호 ㉞ 3873	李道勳	인화지생산
태일양행	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3-1Apt ㉞ 7968	黃 晉	칼라사진전자기기제작
韓國天然色現象所	서울중로구원남동209 ㉞ 5139	李鍾相	칼라사진·영화필름현상·영화기기제작
韓昌洋行	서울中區忠武路2街52-10 ㉞ 0239	黃洛淵	사진재료수입판매
現代交易株式会社	서울용산구시계동33-112 ㉞ 2201~5	張南秀	칼라사진현상인화
V 현대사진공업사	서울서대문구연희동485-10 ㉞ 3610	李完泰	인화지생산판매

— 編輯後記 —

우선 이번호의 미흡한 점에 대해 편집자로서 양해를 구한다.
 자료수집의 곤란, 시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발췌는 그만 두기로 하고 보다 나은 다음호를 기약하기로 한다.
 특히 이번호에는 지난해 사단의 종합적 동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만한 것들을 모아 엮어 보았으나 자료가 빈곤하고, 조사가 어려워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회보의 충실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의 투고를 적극 환영한다. (榮)



L 스튜디오

(26) 4562

이전식

서울 을지로 2가 148-73(상공미술내)

[13-205]

「국경 넘은 세계의 예술가족 영상미의 정수들 한자리에, 《제10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입상·입선작품 지상전시-심사평, 『동아일보』, 1975년 2월 25일



소련 등 25국서 2천 점 돌파, 국내작품 외국보다 질 뒤져

임응식

《동아국제사진살롱》이 10년이라는 연륜을 거듭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올해는 참가국이 소련 등 공산권 국을 비롯하여 무려 25개국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응모작품의 양도 드디어 2천 점을 돌파했고 그 질도 예년에 비해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국제살롱》이 본래의 목적인 사진문화의 국제교류와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했고 또 성공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지고 보면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업을 위해 동아일보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썼고 또한 이를 담당할 실무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응모작품을 분석해 보면 외국작품 보다 국내작품의 수준이 아직도 뒤떨어지고 있다. 국내작품의 질이 뒤지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사진예술의 기본적인 요소를 명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형식의 경지에서 야기되는 전통적인 사진 미학의 무의식적인 부정이다. 물론 국산 인화지의 조약성이 큰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작가들의 암실작업 등 조형의식이 투철치 못한 탓이기도 하다.

더우기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등 공산권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의 작품보다 수준이 높았다는 사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컬러작품의 색감은 서구국(西歐國)의 작품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다만 작품의 내용 면에서 뒤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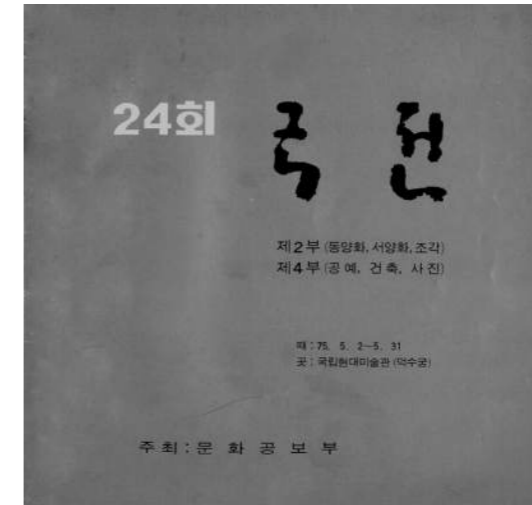
총 16점의 입상작 중에서 국내작품 4점(컬러 2점 흑백 2점)이 동상으로 하위 입상한 저조를 보였고 10년 동안 아직 컬러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국내 작가가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한편 《동아국제사진살롱》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무감사 초대작가제도(입상 10회)를 신설하고 지난해까지 입상 메달 14개(금상4 은상5 동상5)를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사진작가 '빌리 헝글' 씨(오스트리아)를 초대(初代) 무감사 초대작가로 지명한 사실은 《동아국제사진살롱》의 권위를 높인 획기적인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빌리 헝글' 씨에게 축하를 드린다.

특히 올해 심사에서는 국내작품에 있어서 일인일상주의(一人一常主義)를 채택했음을 밝혀둔다.

[04-017]

《24회 국전-제2부(동양화, 서양화, 조각), 제4부(공예, 건축, 사진)》,
1975년 5월 2일-5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국전 운영 위원(무순)

위원장 손재형

부위원장 이해량

위원 이마동 서세욱 김세중 최기원 김 원 김인호 박득순 김기승 박영선 원경수 손응성

조연현 이유태 이순석 장우성 정인국 김성태 임응식 김영주 홍승면 남 관

심사위원(무순)〈제 4 부〉

위원장 이해선

부위원장 백태원

사진 분과위원장 이건중

위 원 문선호 박필호 이해선 이형록

초대작가 김조현 이건중 이경모 이해선 임응식 김종양 박필호 안월산 이명동 이형록

정인성 문선호

추천작가 조현두 김종헌 이정강 홍순태 이종화 임석제 정도선 이종하 유정재 지부원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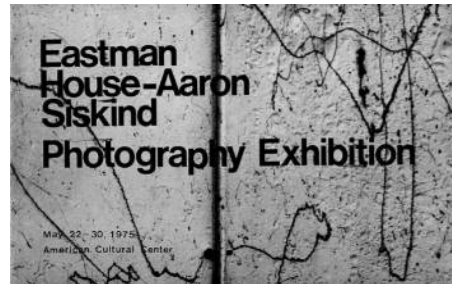
국무총리상 〈정답〉 이창남

문화공보부장관상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장진필

특선 〈조양〉 이순홍, 〈생업〉 조진한, 〈환상〉 김봉경, 〈새살림〉 이건식

[11-078]

《Eastman House-Aaron Siskind Photography Exhibition》,
1975년 5월 22일-5월 30일, 미국문화센터(Americ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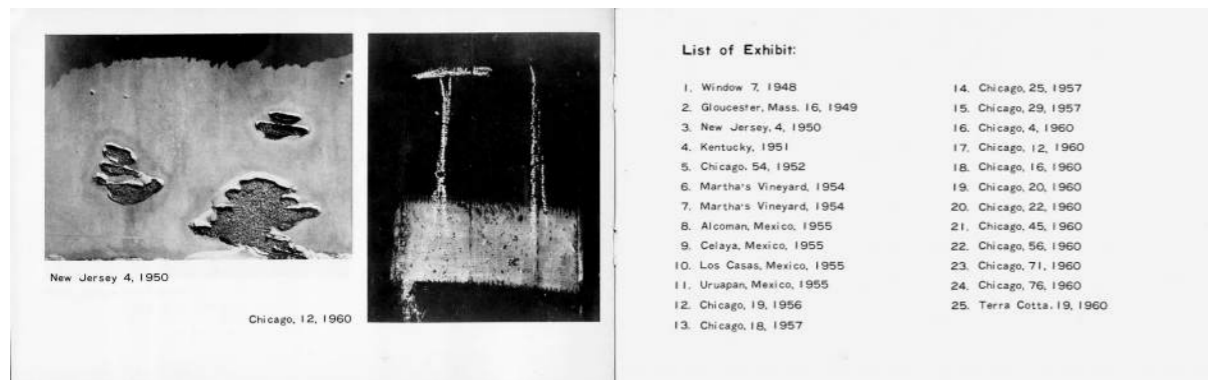
팸플릿 표지

AARON SISKIND, born in 1903 in New York City,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hotographers of the mid-20th century, known primarily for his innovations in abstract photography. He began to photograph in 1932, while he was an English teacher in the New York City public school system. His first notable work was a series of photographic documentaries of the effects of the Depression on various New York communities. After the late 1930s, he no longer photographed people, concentrating instead on architectural photography.

In the early 1940s, Siskind sought to develop a photographic style that reflected his states of mind instead of merely recording subject matter. A series of abstract photographs of such things as ropes, footprints in sand, and seaweed was produced in 1942. He then concentrated on making photographic prints from such two-dimensional designs as cracked pavement and the peeling paint of walls. His camera also recorded the surface texture of man's decaying constructions, his prints showing a concern with the passage of time and man's ephemeral nature.

Aside from the direct impact of his photographs, his greatest influence on younger photographers was as professor of photography at the Institute of Design of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in Chicago and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내지



[13-322]

「영상미의 대제전, 《제13회 동아사진컨테스트》 지상전시-심사소감」,
『동아일보』, 1975년 6월 5일



뚜렷한 리얼리즘 추구... 작품 질도 향상

임응식 (심사위원장)

올해 응모작품은 무려 8백 35점으로 《동아사진컨테스트》 창설 이래 가장 많은 양이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응모작품의 질도 좋은 편이었다.

《동아사진컨테스트》가 13년의 연륜을 거듭하면서 회화 양식의 살롱사진을 배척하고 사진성을 강조하는 리얼리즘 사진 미학을 정립, 사진의 독자적인 성격을 선명히 부각시켰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엄격히 따진다면 13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정립한 이 리얼리즘의 사진 미학이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결코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동아사진컨테스트》와 같은 촉진 매체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사진예술은 낡아빠진 회화 양식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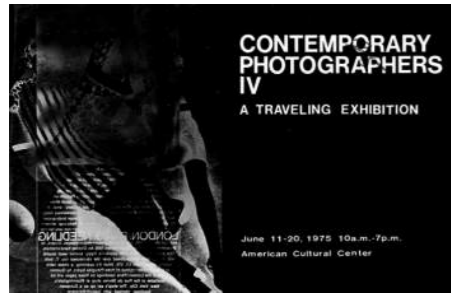
올해 응모작품 중에는 엮음사진이 20여 점이나 되었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엮음사진이 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무척 다행한 현상이다.

올해는 컬러작품이 1백여 점밖에 응모되지 않았다. 그리고 컬러작품의 질도 수준 이하의 것이 많았다.

◆ 특선작 <바다의 삶>은 4장의 엮음사진으로서 주제의 이미지가 강렬히 어필되고 있다. 레이아웃의 기법도 완벽했다. ◆ 준특선 <아침 일터로>는 소박한 농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정다운 작품이었다. ◆ 준특선 <상인>은 형식과 내용이 잘 조화된 강렬한 표현이었다.

[11-081]

《CONTEMPORARY PHOTOGRAPHERS IV A TRAVELING EXHIBITION》,
1975년 6월 11일-6월 20일, 미국문화센터(American Cultural Center)



팸플릿 표지

CONTEMPORARY PHOTOGRAPHERS IV
A Traveling Exhibition

Thomas Barrow, Robert Fichter, Reginald Heron, Rudolph Janu, Roger Martin, Jean-Louis Swiners

The 30 photographs in this new traveling exhibition were selected from recent additions to the permanent collection of the George Eastman House which were acquired as part of a continuing program to present significant work by contemporary photographers. The exhibition explores varied contemporary approaches to photographic expression. The photographers represented are: Thomas Barrow, Robert Fichter, Reginald Heron, Rudolph Janu, Roger Martin, and Jean-Louis Swiners.

This is the fourth exhibition of this series which is currently circulating to museums and university galler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overseas. The exhibitions have been designed to allow an exhibitor the possible combination of two or more in order to present an expanded group exhibition and survey of contemporary work in galleries having larger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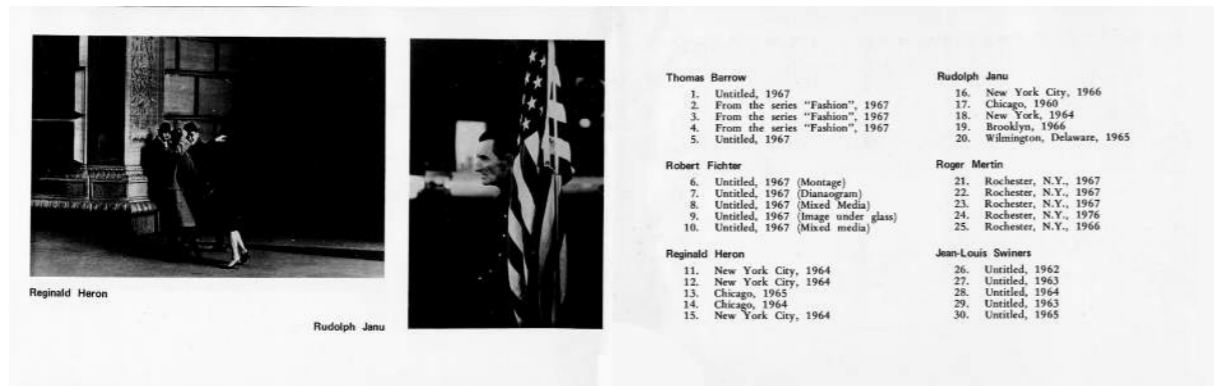
巡回展示-現代 寫眞作家展 IV

참가 작가 : 토마스 배로우, 로버트 피처, 레지널드헤론, 루돌프 자누, 로저 머틴, 진-루이스스위너즈

이 순회 사진작품 전시회에 출품된 30점의 사진 작품은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의 영구 소장품 목록에 최근 추가된 작품들 중에서 고른 것입니다. 이 후가 소장 작품들은 현대 사진작가의 상징적인 작품을 진열하기 위한 계속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이 전시회는 사진 표현에의 다양한 현대적 접근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출품한 사진작가는 「토마스 배로우, 로버트 피처, 레지널드 헤론, 루돌프 자누, 로저 머틴 및 진-루이스스위너즈」 등 6인입니다.

이 전시회는 현재 미국, 캐나다 등지의 미술관 및 대학 부속 미술관을 순회하고 있는 전시회 시리즈의 제 4호입니다. 이 전시회 시리즈는 보다 많은 작가들의 집단 전시회, 그리고 보다 큰 시설을 가진 미술관에서 현대 사진 작품을 관찰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전시회를 결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내지



[11-090]

안토니 마쿨리스 미국문화센터 원장, [우인 불록(Wynn Bullock) 및 마가레트 에반스(Margaret Evans) 전시 초청장], 1975년 10월 31일-11월 9일, USIS 미국문화센터 2층 전시실

AMERICAN CULTURAL CENTER, 108 SE JONG RO, JONG RO KU, SEOUL 110, TEL. 75-5198

초 청 장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USIS 美國文化센터 2층 전시실에서 두 개의 寫眞展示회가 개최됩니다. 즉, 美國의 有名한 寫眞作家인 우인 불록(Wynn Bullock)氏와 서울에서 作品活動을 하고 있는 젊은 女流作家 마가레트 에반스(Margaret Evans)嬢의 作品이 전시됩니다. 이 展示는 每日(日曜日과 公休日을 포함해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시됩니다. 入場은 無料입니다.

우인 불록氏는 오랫동안 美國의 現代 寫眞의 大家로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音樂이 專攻이었으나 後에 高度로 熟練된 기술을 가진 전문적인 寫眞作家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그의 主된 關心은 媒体의 창조적 가능성을 개척하는 데 있습니다. 불록氏의 藝術은 시간과 空間간의 關係의 概念을 形成코자하는 企圖라고 定義되어 왔습니다. 그에 있어서 寫眞은 "人間 양심의 발전에 있어서의 藝術의 기능"입니다.

불록氏는 美國과 外國에서 많은 展示會를 가졌습니다. 마가레트 에반스嬢은 約 3年間 寫眞術을 창조적 표현의 수단으로써 엄숙하게 성실히 研究해 왔습니다. 불록氏와는 달리 에반스嬢의 主된 關心은 人間과 환경과의 關係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에반스嬢의 대부분의 作品은 肖像 寫眞으로서 그녀는 이 肖像 寫眞들을 "자기 자신의 초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作品들은 사진 작가와 대상물 間に 이루어진 明白한 視覺的 對話이기 때문입니다. 에반스嬢은 美國, 梨花女大 그리고 春川과 仁川 文化院에서 寫眞展示會를 開催한 바 있습니다.

안토니 마쿨리스
美國文化센터 원장

[11-089]

동아일보사 후원, 《FRANCE 초청 개인전, 최민식 사진전-인간애》,
1975년 11월 8일-11월 16일, 명문화랑(구 목마다방)



팸플릿 표지

뒷면



내지

[14-032]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신동아』, 1976년 3월호

□ 사협의 임원 개선(改選) 문제

2월 29일 예총 사진협회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사진계는 점차 물결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정기총회는 2년 마다 실시되는 임원개선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총회에서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사진계의 관심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후보 인사들에게 쏠리고 있다.

이사장 후보로는 현 이사장인 장원훈 씨와 재작년 선거 때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한 바 있는 사단의 원로인 전 이사장 임응식 씨가 다시 나서고 있다. 장 씨 측에서는 부이사장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태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현 부이사장인 김광덕 백형인 씨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임 씨 측에서는 부이사장 후보로 정도선 유정재 양 씨를 러닝 메이트로 정하고 나섰다.

사협이 예술단체로서의 권위나 체면을 유지하고 예총 산하의 타 예술단체와 대화를 원만히 하려면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은 적어도 《국전》의 초대작가나 추천작가 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회원들의 여망이자 여론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현 이사장인 장 씨나 부이사장인 김, 백 양 씨는 모두 《국전》의 초대나 추천작가가 아닐뿐더러 작가적인 비중을 봐서도 타 분야 예술단체의 이사장단의 권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임 씨 측은 세 사람 모두 《국전》의 초대 추천작가로서 작가적인 비중이나 권위 면에서는 유일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이사장인 장 씨는 지난 2년 동안 사협을 장악하면서 다음 선거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다져 놓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임 씨 계로 인정되는 회원들을 회비 미납이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약 백 명 가까운 회원들을 정권(停權) 또는 제명 처분을 해서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DP점이 주취한 촬영대회에서 입선한 사람까지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2년 동안 1백여 명의 신입회원을 늘려 놓았고 또한 협회 내에 학술 평론분과위원회와 창작분과위원회, 보도사진, 상업사진 등 네 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푸짐하게 감투를 배분해 놓았다는 사실과 또한 일부 회원들에게, 수십 개의 트로피와 상패 등을 마구 만들어 논공행상을 하는 등 다음 선거에 대한 공작을 굳게 다져놓았다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장 씨 측이 이와 같은 대비에도 불구하고 임 씨 측은 순수한 예술단체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되찾기 위해서는 회원 각자의 높은 양식에 기대를 걸 뿐이라고 담담한 태도를 취하고는 있으나 지난 2년 동안 장 씨가 범한 몇 가지 과오 중에서도 흑백필름의 금수조치 등 과동의 책임은 끝까지 따지고 넘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즉 지난해 초여름 대한필름회사로부터 경비 보조를 받아(대한필름회사 변 사장 주장) 대한 필름을 선전하는 촬영대회를 열어 저질의 대한필름을 우량한 것으로 보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끝내는 외산 흑백필름을 수입 금지하는데 실질적으로 협력한 결과를 초래한 점 바로 그것이다.

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순수예술단체인 사협이 상인의 농간에 놀아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행동을 한 것도 문제려니와 또 한편으로는 사진작가들에게는 필름이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이라고 할 때 전체 사단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외산 필름의 금수조치가 취해지자 사단의 반대여론은 견잡을 수 없게 되었고, 사진기자단에서는 보도의 자유를 막는 처사라고 즉각 당국에 항의를 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여론에 난처해진 장 씨는 이사회를 열어 사협의 명의로 당국에 항의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년센스는 사진기자단 측이 주무당국의 차관과 담판하여 고광도 외산 필름을 금수조치에서 해제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씨는 마치 사협에서 항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인 양 공을 가로채서 전국 회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임 씨 측에서는 신랄히 비난하고 있다. <命>

[14-027]

『순간을 영원으로 영상의 예술 승화, 《11회 동아국제사진살롱》 입상·입선작품
지상전시-심사평, 『동아일보』, 1976년 3월 5일



21국에서 응모 2천 점, 예년 보다 높은 수준

임응식

올해 열한 돌을 맞는 《동아국제사진살롱》도 예년과 같이 세계 20여 개국의 사진작가로부터 2천여 점의 많은 양의 작품이 응모되어 심사를 하는데 땀을 흘리게 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응모작품의 질이 월등하게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특히 동구라파 공산국가의 작품들이 '아시아' 권 내 국가들의 작품보다 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일이라 하겠다.

살롱적인 경향의 흑백사진의 특색은 내용도 중시되지만 보다 더 완벽한 형식에 있다고 하겠다. 즉 형식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톤[톤]의 처리라고 하겠다. 외국 흑백사진의 경우는 대부분이 완벽한 톤[톤] 밸류[톤 밸류]의 확립으로 높은 예술적인 향기를 풍기게 하지만 반면 국내 작품의 경우는 대부분이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미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국산 인화지의 조악성을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컬러 부문에서 최고상을 차지한 <약혼녀>는 깊은 내용은 없지만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색감으로 약혼녀의 청초한 이미지가 넘쳐흐르고 있다. 국내 컬러작품의 수준이 외국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었다는 사실도 기꺼운 일이다. 한편 흑백부문의 최고상인 <수녀>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한 작품으로 다소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지만 호소력이 있는 작품이었다.

<심사위원장>

[14-026]

「초점의 미...영상의 제전, 《14회 동아사진컨테스트》 지상전시-심사소감, 『동아일보』, 1976년 6월 11일



독자적 미학 정립, 작품 질 크게 향상

임응식 <심사위원장>

올해도 응모작품은 8백여 점이나 되었고 또한 질도 예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응모작품을 통해서 느낀 것은 《동아사진컨테스트》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 오던 과거의 낡은 회화적 양식의 작품 경향에서 이제 완전히 탈피하고 작금 국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진으로 되돌아가자'는 새로운 사진 운동에 앞장선 사진의 독자적인 미학을 정립해 가고 있다는 점이였다. 무척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 컨테스트에서 아쉬운 것은 컬러작품의 응모가 겨우 86점밖에 되지 않았고 그 질도 저조했다는 점이다.

한편 괄목할 만한 사실은 엮음사진의 응모가 50여 점이나 되었고 또 입상작 8점 중에서 엮음이 6점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표현의 한계점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단사진(單寫眞)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동아컨테스트》가 거둔 큰 수확이라고 하겠다.

특선작 <한(恨)>은 5장의 엮음으로서 테에마의 이미지는 물론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다양하고 예리한 사진적인 기법으로 선명하게 표현했다. 시각적인 리듬 등 엮음의 기법도 빈틈없이 처리 되어 작가의 높은 조형감각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앞으로 다가올 엮음사진 시대에 대비하는 작가들의 관념은 새롭고 벽찬 것이 아닐 수 없다.

[14-016][?]

「한국의 사진가 임응식 씨 春木 회장과 환담, 『일본사진협회 월보』, 1978년 8월



[사진] 임응식 씨(왼쪽)와 春木 회장

한국의 사진가이자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인 임응식 씨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출판회관(도쿄 신주쿠구 후쿠로마치(袋町))에서 열린 재단법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의 《제3회 유네스코아시아사진콩쿠르》 국제심사위원회의 심사원으로 서 방일하였고, 폐막 후 일본사진협회에서 春木 회장을 방문하여 6월 21일 정오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반조몬(半藏門)의 도조(東條)회관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환담하였다.

《아시아사진콩쿠르》는 매년 1회 열리며 아시아 15개국에서 올해는 흑백 작품 6,245점이 응모하여 그 중 73점이 입상하였다.

그 중 최우수상에 한국, 인도, 몽골의 3개국에서 각 1점씩 총 3점이 선정되었다.

その中で最優秀賞に韓国, インド, モンゴルの3カ国から各1点ずつ計3点が決まった。

[14-121]

「일본 UNESCO 아시아 문화센터 주최, 《제3회 아세아사진컨테스트》 심사발표, 『영상』, 1978년 8월

78년 8월
『映像』

日本UNESCO 아시아 문화센터主催 第3回亞細亞写真컨테스트審査発表

主題：「亞細亞의 어린이」

審査日時：1978年 6月14日～16日
 審査場所：日本東京、日本出版協会 빌딩
 審査委員：
 INDIA...V. N. Majgaonkar
 INDONESIA...E. Agussalim Mo-kodompit
 MONGOLIA...S. Ganbold
 日本...内材直也, 久地岡樺雄, 杉浦康平, 伊藤良二
 韓国...林應植
 PAKISTAN...(不參)

出品國別成績

出品國	出品數	最優秀賞	優秀賞	準優秀賞	奨励賞	入選
방글라데시	325				1	6
버마	113				2	1
인도네시아	1,423	1			7	8
인도네시아	243		1			5
이란	13					1
日本	2,638			1	3	8
韓国	381	1		1		2
파키스탄	220					5
몽골리아	72		1			1
네팔	74					2
라오스	73				2	1
필리핀	45					1
싱가포르	154					3
스리랑카	131			1		1
타일랜드	319			1		5
計	6,244	1	2	5	15	50

위 當選된 各作品들은 79년의 「世界兒童의 해」를 記念하기 爲해서 參加國을 巡回하면서 展示會를 갖는 한편 카렌더도 製作한다고 한다. 그리고 韓國의 當選者는 다음과 같다.
 最優秀賞...申哲均(群山) 兄弟(今月号 本面 掲載)
 準優秀賞...金寧萬(서릉) 祖父의 담뱃대
 入選...李淳興(서울) Solitary Play 孤獨한 놀이
 入選...鄭在斗(서울) Korean Shuttlecock 제기차기
 (以上 3点 9月號에 作品紹介)




심사 광경

[14-018]

동아미술제운영위원회, 1979년도 《동아미술제(사진·공예·서예)》 공모 요강, 1978년 9월 20일

1979年度
東亞美術祭(寫眞·工藝·書藝)公募要綱

東亞日報社 東亞放送은 韓國美術의 發展에 이바지하기 爲한 새로운 文化事業의 하나로 지난 4월에 東亞美術祭 繪畫, 彫刻部門 公募를 開催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形象性, 的 追求』라는 主題를 표창하고 출간한 東亞美術祭는 다른 綜合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試圖로서 본격적인 民主時代의 發展을 상징하는 劃期的인 行事였습니니다.
 東亞美術祭의 創設에 따라 동시에 獨立의 精神으로 實用미스인 東亞寫眞컨테스트는 寫眞部門으로, 東亞工藝大獎은 工藝部門에 포함하도록 하고 書藝部를 創設하여 綜合展으로 開催하기 위한 性格을 다음 要項과 같이 確立하였습니니다.
 새로운 方法으로 運營할 東亞美術祭 寫眞·工藝·書藝部를 통하여 力量있는 新人들이 많이 輩出하기를 期待합니다.

各分野別 運籌要領

- 寫眞: 지금까지의 繪畫樣式의 作品傾向을 벗어나 藝術感覺에 바탕을 둔 새로운 形象性을 추구하는 作家의 發掘과 育成에 力을 들 것입니다.
- 工藝: 韓國傳統工藝美를 現代生活에 適合시키는 創作의 人 工藝作品으로서 이 分野의 創造의 繼承을 추구하는데에 力을 들 것입니다.
- 書藝: 詩, 四君子, 篆刻을 포함시켜 이 分野에 새로운 活氣를 불어 넣는데에 力을 들 것입니다.
- 寫眞은 그동안 東亞日報社가 開催해 온 完全應募作家 選拔展을 통하여 거창한 基金에 의한 『作家基金賞』과 東亞日報社가 經營한 『大賞』으로 하겠습니다.
 * 東亞美術祭 基金을 委託해 주신분(韓南日報, 기나리, 1978年 9月 現在)
 金基興 金奉慶 金泳仲 盧善錫 羅善錫 朴錫武 朴錫善 卞實植 孫在賢 嚴德純 尹奉堂 李榮範 林應植 孫南秀 許百鍊 黃仁春

- 願 書 配 付: 本社 事業部 및 美術團體
- 出 品 料: 1点당 3천원
- 出 品 數
 ○ 寫 眞: 1人 3点以上(課題作 1点(課題: 5年), 創作 2点)
 ○ 工 藝: 1人 3点以上
 ○ 書 藝: 1人 3点以上(詩=1點, 篆刻 2点(各件), 四君子=1點, 1点, 創作 2点, 篆刻=1點, 1點, 創作 2点)
- 分 野 別 作品規格
 ○ 寫 眞 (새로운 形象性의 作品) 全紙(50cm×60cm) 以上
 ○ 工 藝 (韓國傳統 工藝美를 現代生活에 適合시키는 創作의 人 工藝作品) 制限없음.
 ○ 書 藝 (詩, 四君子, 篆刻) 制限없음. 但 硯石은 除外함.
- 出 品에 關한 留意事項
 寫眞과 工藝에 限하여 다음과 같은 제작 明細書를 出品願書 뒷면에 添히 記載하여 야 함.
 ○ 寫 眞: 寫眞種類, 自作 合作 委託제여부, 原色인 경우 現象所 明記.
 ○ 工 藝: 材料, 제작方法, 제작場所, 其他參考事項
- 出 品 資 格
 大韓民國 國籍을 가진 年 22세(1957年 4月 1日이전 出生) 以上인 者
 但, 國內에서 發表된 作品은 除外함.
- 審 査 및 発表
 審査는 東亞美術祭 選評委員會가 委屬된 審査委員會에서 行하여, 審査結果는 東亞日報社 東亞放送을 통해 発表함.
- 審 査 方法
 入選作審査는 個別審査制로 하여, 入賞作 審査는 個別 区分이 綜合審査制로 하여 遂行은 公開로 함.
- 施 賞 및 特典
 ○ 東亞美術大賞 2点: 賞狀 및 賞金 各 100만원 (入賞作品은 各 200만원 以內로 東亞日報社가 購入하여 仁村美術館(慶福)에 永久保存함)
 ○ 東亞美術賞(作家基金賞) 8点: 賞狀 및 賞金 各 50만원
 ○ 受賞作家는 美術家友會員이 됨.
 但, 缺格事由가 發見되었을 경에는 入選 및 入賞을 취소로 함.
- 施 賞 日: 展示 期間中.
- 作 品 撤 出
 ① 展示作品은 展示終了後 1日 以內에, 落選作品은 審査發表後 1日 以內에 撤出하여야 함.
 ② 主權은 期日內에 撤出하지 않는 作品의 損失, 破損 等에 대한 責任의 歸屬을 지게 않음.
- 作 品 公 募 予 定 日: 1979年 3月 頃
 * 選評委員 및 審査委員 名單 등 細部事項(展示日 및 展示場所, 作品接受日 및 接受場所)은 追後에 發表하여 其他 詳細한 것은 東亞日報社 總務部 事業部 ①2914로 問議하심.

1978年 9月 20日
 東亞日報社
 東亞美術祭 運籌委員會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은 한국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사업의 하나로 지난 4월에 《동아미술제》 회화, 조각부문 공모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새로운 형상성’의 추구라는 주제를 표방하고 출범한 《동아미술제》는 다른 종합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서 본격적인 민전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행사였습니다.

《동아미술제》의 창설에 따라 종래에 독립적으로 실시해오던 《동아사진컨테스트》는 사진 부문으로, 《동아공예대전》은 공예 부문에 포함하도록 하고 서예부를 신설하여 종합전으로 개최하기 위한 성격을 다음 요령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될 《동아미술제》 사진 공예 서예부를 통하여 역량 있는 신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 각 분야별 운영요령

1. 사진 : 지금까지의 회화 양식의 작품 경향을 벗어나 예술 감각에 바탕을 둔 새로운 형상성을 추구하는 작가의 발굴과 육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2. 공예 : 한국 전통 공예미를 현대생활에 적응시키는 창작적인 공예 작품으로서 이 분야의 창조적 계승을 촉구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3. 서예 : 서(書), 사군자, 전각을 포함시켜 이 분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데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4. 시상 : 그동안 동아일보사가 개최해 온 원로중진작가 회고전을 통하여 기탁된 기금에 의한 ‘작가기금상’과 동아일보사가 제정한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 《동아미술제》 기금을 기탁해 주신 분(존칭 생략, 가나다 순, 1978년 9월 현재)

김기승 김봉룡 김영중 노수현 나혜석 박승무 박영선 변관식 손재형 엄덕문 윤희중 이상범 임응식 장남수 허백련 황인춘

1. 원서배부: 본사 사업부 및 미술 단체
2. 출품료: 1점당 3천 원
3. 출품 수
 - 사진: 1인 3점 이상(과제작 1점 <과제: 오늘>, 창작 2점)
 - 공예: 1인 3점 이상
 - 서예: 1인 3점 이상(서=임서(臨書) 1점, 창작 2점 <각체>·사군자=방임(倣臨) 1점, 창작 2점·전각=모각(模刻) 1점, 창작 2점)
4. 분야 및 작품규격
 - 사진 (새로운 형상성의 작품) 전지(50cm×60cm) 이상
 - 공예 (한국 전통공예미를 현대생활에 적응시키는 창작적인 공예작품) 제한 없음.
 - 서예 (서, 사군자, 전각) 제한 없음. 단 병풍은 제외함.

5. 출품에 관한 유의사항

사진과 공예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제작 명세서를 출품원서 뒷면에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사진: 필름 종류, 자작 합작 위탁제작 여부, 원색인 경우 현상소 명기.
- 공예: 재료, 제작 방법, 제작 장소, 기타 참고사항

6. 출품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2세(1957년 4월 1일 이전 출생) 이상인 자 단, 국내외에서 발표된 작품은 제외함.

7. 심사 및 발표

심사는 《동아미술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사결과는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을 통해 발표함.

8. 심사방법

입선작 심사는 부별 심사제로 하며, 입상작 심사는 부별 구분 없이 종합 심사제로 하되 진행은 공개로 함.

9. 시상 및 특전

- 동아미술대상 2점: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 (대상 작품은 각 200만 원 이내로 동아일보사가 구입하여 인촌미술관(가칭)에 영구 보존함)
- 동아미술상(작가기금상) 8점: 상장 및 상금 각 50만 원
- 수상 작가는 미술동우회원(美術東友會員)이 됨. 단,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입선 및 입상을 무효로 함.

10. 시상일: 전시 기간 중

11. 작품 반출

- ①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후 1일 이내에, 낙선 작품은 심사발표 후 1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함.
- ② 주최 측은 기일 내에 반출하지 않는 작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12. 작품 공모 예정일: 1979년 3월경

※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명단 등 세부사항(전시일 및 전시장소, 작품 접수일 및 접수장소)은 추후에 발표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동아일보사 총무국 사업부(☎ 2914)로 문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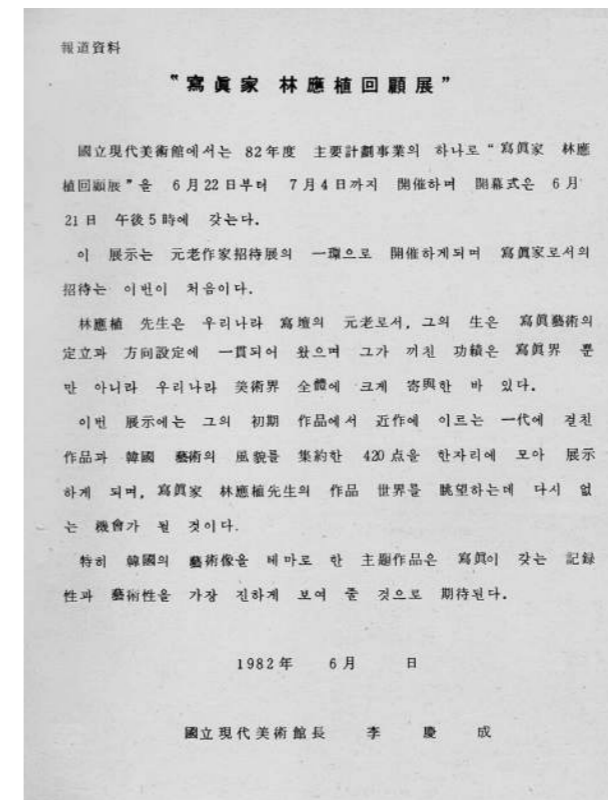
1978년 9월 20일

동아일보사 동아미술제운영위원회

1980년대

[14-305]

국립현대미술관, 《사진가 임응식 회고전》 보도자료, 1982년 6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82년도 주요 계획 사업의 하나로 《사진가 임응식 회고전》을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최하며 개막식은 6월 21일 오후 5시에 갖는다.

이 전시는 원로작가 초대전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며 사진가로서의 초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응식 선생은 우리나라 사진의 원로로서, 그의 생은 사진예술의 정립과 방향설정과 일관되어 왔으며 그가 끼친 공적은 사진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계 전체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초기 작품에서 근작에 이르는 일대에 걸친 작품과 한국 예술의 풍모를 집약한 420점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게 되며, 사진가 임응식 선생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데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예술상(藝術像)을 테마로 한 주제작품은 사진이 갖는 기록성과 예술성을 가장 진하게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1982년 6월 일

국립현대미술관장 이경성

[14-286]

《임응식 회고전》, 1982년 6월 21일-7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林應植回顧展

1982.6.21 ~ 7.4
國立現代美術館

팸플릿 표지

《임응식 회고전》 운영위원

이경성 오광수 이정강 홍순태 한정식 한석홍 주명덕

인사말씀

이번에 사진가로서는 최초로 본인에게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의 초대를 받게 되어 작가생활 50년간의 작품을 다듬어서 회고전을 갖게 되었다.

막상 초대를 받고 잠시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제작에 필요한 인화지 입수의 난문제가였다. 다행히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일본의 사진가 福田 豊 씨의 적극적인 알선으로 입수 구입이 가능케는 되었으나 이의 국내 통관에 있어 사우 이성만 씨의 협조가 컸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한편 일본의 후지필름회사에서는 소요량의 인화지 전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고마운 제의도 있었으나 이를 사양했다. 여하간 인화지 입수문제로 손시가 아쉬운 제작 기간의 절반이 낭비된 셈이었다.

여기에 전시된 작품 중에서 특히 초기의 것은 거의 복사한 것인데 2 차대전 중 전화로 원판이 소실 또는 분실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제작을 끝마치고 돌이켜볼 때 한 점의 캐십작도 없음을 실망하면서 사진 창작이란 새삼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또한 본인의 비재(非才)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끝으로 이 전람회를 마련해준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배려와 사진계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작에 있어서 시종 인화수세작업에 수고를 해준 노처(老妻)에게도 고맙게 생각한다.

1982년 6월

임응식

作品目錄

風貌	朴星三	李源庚	1932~1950	집 잃은 거위들	'53
姜明求	朴泳善	李元壽	農 家 (Pigment)	오리와 四柱	"
姜萬南	朴容九	李有善	田 園 (Pigment)	還家길 · 1	'50
郭鍾元	朴寅煥	李惟台	習作 - 1 (Photogram)	還家길 · 2	'53
權玉淵	朴鍾和	李殷相	習作 - 2 (Photogram)	鋪 道	'50
具 常	朴泰俊	李種武	習作 - 3 (Photogram)	避難生活 · 1	"
金景承	朴泰鉉	李鍾禹	習作 - 4 (Montage)	避難生活 · 2	"
金統燮	朴花城	李周洪	習作 - 4 (Montage)	다리 밑 生活	'53
金奎東	裴吉基	李 俊	斜 陽 (Pigment)	避 難 길	'50
金基昇	裴 謙	李眞淳	歸 路 (Pigment)	明洞거리	"
金基規	白 鐵	李恒星	群 童	學 生 들	'51
金大賢	白泰元	李海浪	炸 裂 (Limbsgram)	마나는 아침	"
金東里	卜寬植	李海善	混 亂 (Limbsgram)	거리 · 1	'53
金東園	徐廷柱	李軒求	溶 解 (Limbsgram)	거리 · 2	"
金東振	徐恒錫	李惠求	蘇 生 (Limbsgram)	禁止区域	'50
金本峰	背度輪	李興烈	少年時節	父 女	'51
金奉龍	成慶麟	李顯燮	골목길 · 1	仁川聖堂	'50
金生麗	孫素鐵	林元植	골목길 · 2	禪 木	'53
金聖泰	孫素熙	任處淳	아 침	老婆와 G-1들	"
金世樹	孫應星	張斗建	노 을 때	露 店 車	'50
金蘇東	孫在馨	張利錫	平 少 女	板子길 거리	'51
金素雲	宋成鎔	張 勃	江 下 口	求 職	'53
金順愛	宋志英	張師助	城山浦마다		
金永基	申石舛	張遇聖	옛 골	4 · 19 革命	
金永周	沈亨求	張旭鐵	白 日 夢	絶 叫	'60
金 源	安柄昭	全鳳楚	老婆와電車	官 3	'60
金元龍	安壽吉	鄭 圭	海邊風景 · 1	行 進	'60
金殷錫	安益泰	鄭飛石	靜 物 · 1	寺 刹	
金仁承	梁達錫	鄭點植	漁村小景	通 度 寺	'47
金慈瓏	楊明文	鄭漢模	海邊風景 · 2	泛影樓板石	'47
金載元	吳相淳	趙東華	靜 物 · 2	睡來岩과 擲相殿	'60
金貞淑	吳之湖	趙炳應	靜 物 · 3	拱包 · 1 (浮石寺)	'66
金仁漢	劉康烈	趙炳華	명 아 리	拱包 · 2 (浮石寺)	'66
金宗文	柳景球	趙演玆	處 女 들	拱包 · 3 (浮石寺)	'66
金鍾瑛	劉永國	千鏡子	小 女 女	安養門 (浮石寺)	'66
金重業	俞賢穆	崔德休	黑衣女人	無量壽殿 (浮石寺)	"
金千興	柳熙綱	崔淳雨	NUDE · 1	藏經閣 (海印寺)	"
金忠顯	尹克榮	崔榮林	NUDE · 2	海印寺	"
金煥基	尹石重	崔貞熙	6 · 25 事變	松廣寺 · 1	"
金興珠	尹仲植	韓 勳	UN 地上部隊土陸	柱上架橋 (海印寺)	"
羅運榮	南 寬	韓弘澤	어린이들	浮屠 (현곡사)	'68
盧壽玆	李慶成	許百鍊	陣 地	実相寺	"
都相鳳	李東勳	玄一榮	京仁街頭	松廣寺 · 2	"
文 信	李馬銅	黃壽永	仁川市街	木造結構 (通度寺)	"
朴古石	李炳圭	黃廉秀	渡江作戰	松廣寺 · 3	"
朴瑛遠	李炳注		서울 復日	昇仙橋 (仙岩寺)	"
朴煥賢	李鳳九		國軍入城	松廣寺 · 4	"
朴斗鎭	李象範		中央片 앞	開山祖堂 (通度寺)	"
朴得鎔	李相昱		臨時市場	大興寺	'70
朴敏鍾	李想春		戰爭孤兒	너와 자봉 (上院寺)	'76
朴生光	李世得		집 잃은 닭	지봉과 닭 (通度寺)	'77

내지 일부

[19-085]

『특별취재-문선호 《국전》 초대작가가 기획한 『한국현대사진대표작선집』의 발간 계획을 살펴본다.』, 『영상』, 1983년 2월, p.105

최근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의 높은 수준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단 한 권의 종합적인 사진작품집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태에서 그나마도 사협에서 내놓은 연감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이번 『한국현대사진대표작선집』의 발간은 실로 우리 사진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며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겠다.

194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온갖 슬픔과 환희의 삶을 리얼하게 순간을 포착하여 그 시대상을 대변해 줄 이번 작품집은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비롯하여 그 시대의 과도기를 우리에게 영상적인 디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기도 할 것이다.

『한국현대사진대표작선집』의 기획 편집을 구상하고 있는 문선호 씨를 비롯하여 사진계의 원로 및 중진 작가이신 이해선, 이정강, 임응식, 이명동, 정범태 씨가 편찬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의 편찬위원들에 의해 만장일치제로 엄선된 작품들이 이 대표작선집에 실리게 된다. 대상은 과거 현재까지 반세기 동안의 발표된 작품 중에서 작가 위주가 아닌 작품 위주로 선별하게 되는데 150~200점이 수록될 것 같다.

수차에 나눠진 장기적인 엄선작업으로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영상의 미가 예술적으로 담긴 작품이라면 지난날 국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은 반세기에 이르는 역사적인 작품과 무명 작가의 작품이라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재평가의 기회가 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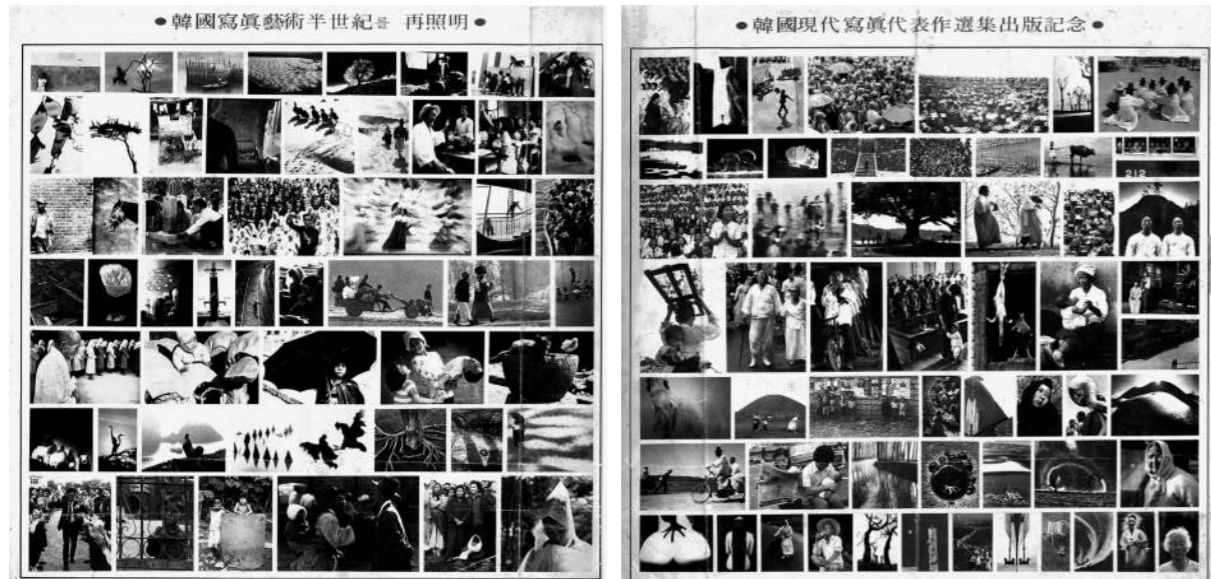
이번 대표작선집 발간과 때를 같이 하여 국내 주요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전시를 끝마치고 계속해서 해외 순회전을 가질 예정인데 동남아, 구미, 구라과 등 가능하다면 10여 개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더욱 해외 순회전은 바야흐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사진 작품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인데 사진 예술은 시각언어로서 세계의 언어와 풍습을 넘어서서 직감적으로 친근하여지며 대화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현대사진의 이정표와 사진사가 될 『한국현대사진 대표작선집』과 《대표작전》은 생생한 우리나라 사단의 빛나는 금자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집 및 작품전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진가를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됨은 실로 다행한 일이며 또한 이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우리 사진계의 하나의 활력소가 됨은 물론, 약화된 사진인의 권좌를 높이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비록 이러한 역사적인 작업이 한 사진인의 노력과 사재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범사단적인 작업과 행사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편찬인들의 작품선정 내용을 보면 194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작품으로 특히 이번 전시는 해외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술성 높고 민족적 향토색 짙은 한국 고유의 상징적인 소재라야 하며 국가적 안보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과 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작품

佛 像	"	"	民 家	PATTERN
金山寺 彌勒三尊立像 '68	七宮 冥門 '77	慶州 崔氏宅 · 1 '67	지붕 · 1 '55	
慶州, 蔚崖菩薩半跪像 '69	冷泉亭의 冥塔(七宮) '66	" " · 2 " "	殘 雪 " "	
慶州, 塔谷 石佛 '69	絳祥宮內庭(七宮) " "	瓦家群 · 1 " "	바 위 " "	
慶州, 排盤里 三尊佛 " "	七宮正門 " "	" " · 2 '77	步 道 " "	
慶州, 三陵溪 三尊佛 " "	円 柱(宗廟) " "	咸陽鄭氏宅 '70	噴 水 台 '56	
鐵製佛頭 " "	正殿側面(宗廟) " "	桐堂 " "	冬 木 '57	
禪雲寺 金剛力士像 '68	石步道(宗廟) " "	蓋溪書院 " "	기 동 결 '60	
佛國寺 毘盧舍那佛 '69	桐堂 앞 步道() " "	三 憂 堂 " "	벽 " "	
佛國寺 阿彌陀如來 '69	郷 村	河回柳氏宅 · 1 '67	枯 木 " "	
山 門	吉 花 村 '54	夫을 大門 '70	玉 流 泉 '66	
仙岩寺 · 1 '68	八堂風景 " "	河回柳氏宅 · 2 '70	상고지다리 '71	
通度寺 · 1 '77	老 人 들 " "	船橋莊 '76	부 영 벽 '72	
通度寺 · 2 '68	오 솔 길 " "	井邑 金氏宅 " "	지 붓 · 2 '54	
通度寺 · 3 '77	農村風景 " "	소래원(蒲瀾園) '77	춤	
松廣寺 '68	겨 울 을 " "	담 길 " "	僧 舞(韓英淑) '68	
華嚴寺 " "	山 마 을 " "	골 목 '70	장고춤(金白峰) " "	
道師寺 " "	凝 視 " "	濟州島民家 · 1 " "	달 춤(金辰玉) " "	
梵魚寺 " "	少 年 '56	" " · 2 " "	발 · 1(金千興) " "	
仙岩寺 · 2 " "	雪 日 " "	" " · 3 " "	발 · 2(韓英淑) " "	
大興寺 '70	뱀 래 터 '58	冥 塔 '76	거 리	
長水寺 · 1 '70	少年喪主 '60	居 室 '70	老 婆 '53	
長水寺 · 2 '70	溪谷風景 '65	窓門紋樣	女 心 " "	
長 柱	金 全 '68	海印寺 · 1 '66	비오는 날 · 1 '55	
木長柱 · 1(仙岩寺) '68	樓 閣 '70	白 蓮 寺 '68	비오는 날 · 2 '78	
木長柱 · 2(") '68	洞里於口 · 1 " "	梵魚寺 · 1 " "	笠 帽 '53	
石長柱 · 1(寒相寺) '68	길 구 통 " "	梵魚寺 · 2 " "	群衆속의 老人 '55	
石長柱 · 2(") '68	乞 食 " "	華 嚴 寺 " "	女 人 들 '56	
古 宮	사 립 문 " "	寒 相 寺 " "	行 列 '57	
玉流泉(秘苑) '66	生 男 '70	梵魚寺 · 3 " "	거리의 群像 " "	
尊德亭 앞뜰(秘苑) '66	돌레방아 '70	金 山 寺 '76	담 길 '60	
芙蓉亭(秘苑) " "	雪 景 " "	陶山書院 '70	修 女 '66	
勝在亭(秘苑) " "	亭 子 '71	樂 善 齋 '72	中國人村 '70	
塘源殿入口(秘苑) " "	初 秋 '72	海印寺 · 2 '69	어린時節 '71	
書香閣(秘苑) '67	農 家 " "	松 廣 寺 '77	老 夫 婦 " "	
깃대무늬(秘苑) " "	少 女 '72	NUDE	髮 簪 츠 '76	
勤政殿과思政殿(景福宮) '66	村 老 " "	胸像 · 1 '55	明洞点景 '77	
慶金樓 지붕(景福宮) '69	洞里於口 · 2 " "	胸像 · 2 " "	눈내리는 날 " "	
지 붓(景福宮) '66	農 具 " "	胸像 · 3 '56	비오는 明洞 " "	
勤政殿內部(景福宮) " "	草 家 · 1 '73	江邊釋像 '75		
勤政殿天井(景福宮) " "	農 夫 '74			
煙突群(景福宮) " "	農 夫 '76			
樂善齋 " "	古 木 '77			
円形이다지 門(樂善齋) " "	古 木 '77			
上涼亭의 天井(樂善齋) " "	가 을 " "			
樂善齋內部空間 · 1 '70	甫吉島芙蓉庭 " "			
樂善齋內部空間 · 2 " "	草 家 · 2 " "			
	草 家 · 1 '54			
	店 頭 · 1 '77			
	店 頭 · 2 " "			

(總 420쪽)



《한국현대사진대표작전》을 개최하며...

기획 및 운영 문선호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사진작품 활동 반세기를 총정리하고 재평가하는 의의 있는 전시회라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현대사진의 이정표와 사진사가 될 생생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지난 194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온갖 슬픔과 환희의 삶을 리얼하게 순간을 포착하여 그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전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진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게 됨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많은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의 수준과 그 진가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난날 국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은 반세기 1940-80년에 이르는 역사적인 작품들을 총정리하고 집대성하는 엄숙한 작업을 우리 사진계의 원로 및 중진 작가 6명을 편찬 위원으로 모시고 작품선정(전시작품 280여 점)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가 국내 및 해외전을 통하여 한국 사진예술이 시각언어로서 세계의 언어와 풍습을 넘어서서 직감적으로 친근하여지며 대화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88올림픽을 앞둔 문화민족으로서 민간예술 문화교류인 동시에 한국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국위선양의 뜻을 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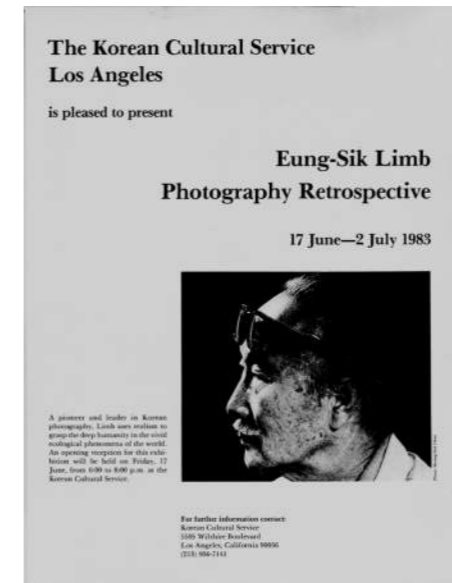
1983년 5월

전시작품·선정위원 (무순)

이해선 임응식 이형록 이정강 이명동 정범태 문선호

[15-134-3][15-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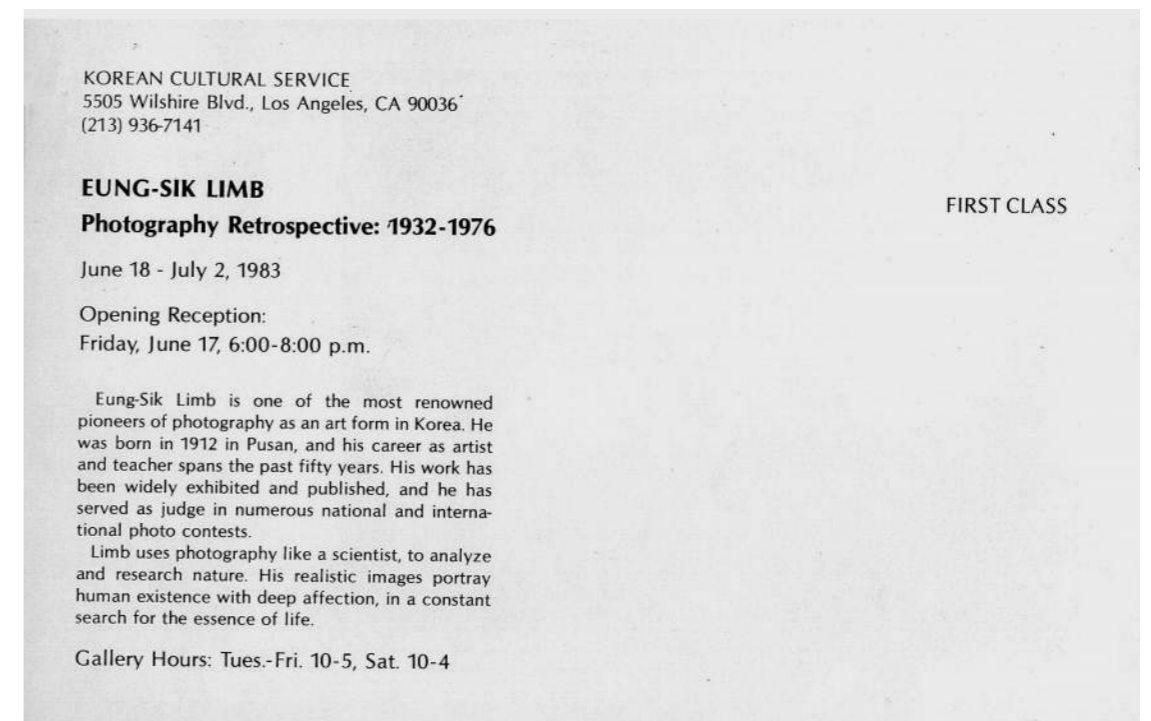
L.A. 한국문화원 초청, 《임응식 회고전: 1932-1976》,
1983년 6월 17일-7월 17일, L.A.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SERVICE)



전시 홍보물 1 앞면



전시 홍보물 2 앞면



전시 홍보물 2 뒷면

[22-042]

**송준현, 「전시회평-《부운 현일영 사진전》, 그는 역시 선구자였다,」
『영상』, 1984년 6월, p.54**

부운 현일영 선생이 작고한 지 어언 9년이 흘렀다. 1903년 서울에서 태어난 선생이 만주 방랑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서울로 되돌아와 사진창작의 외길을 걷다가 이 세상과 유명을 달리한 해가 1975년이였다. 1931년 이국땅 만주 대현[대련]에서 《제1회 개인 사진전》을 연 후로 경성(서울)과 평양에서 숱한 사진전을 가진 선생은 사진인으로서 지극히 외로운 일생을 보낸 분이였다.

필자가 부운을 처음 만난 것은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난 그해 가을이였다. 그 당시 임응식 선생이 항도(港都) 부산에서 광복동 어귀에 조그마한 사진재료상 '립상회'를 차려놓고 있었는데, 그곳에 자주 놀러 나오신 분이 바로 부운 현일영 선생이였다.

서울에서의 생활 터전을 6·25사변으로 송두리채 뿌리 뽑힌 탓이었을까? 그해 가을 처음 만난 인상은 너무도 쓸쓸하고 고독해 보였으며, 말쑥 한 마디 한 마디도 조용하고 힘이 없어 난감할 정도로 외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장신의 걸음걸이도 그다지 힘 있는 보행은 아닌 듯했다.

환도한 후로 부운은 많은 전람회를 가졌지만 근 20여 년간 사진계를 떠나 산 필자는 그와 가깝게 지낼 경황이 없었고 그런대로 그분의 전람회에도 많이 빠지는 와중에서 세월만이 바쁘게 흘러갔다. 그리고 보니 오늘, 사진전문 화랑 한마당에서 24점의 부운 현일영의 작품을 대하여 참으로 감개무량한 감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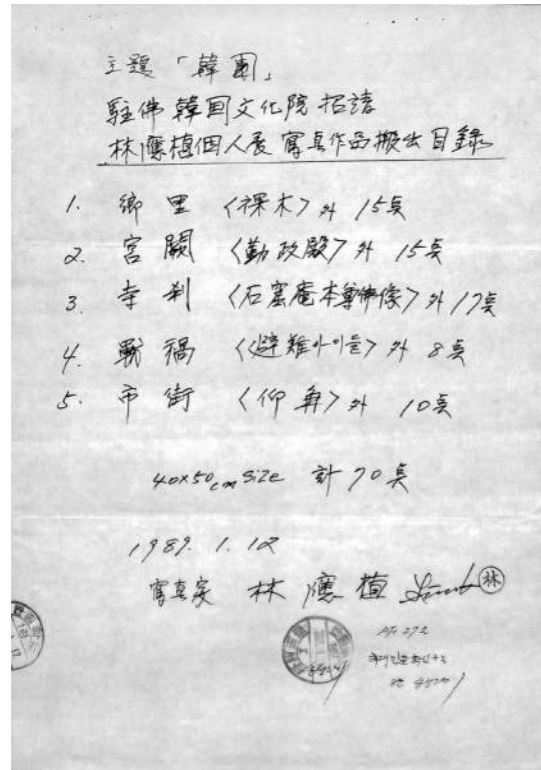
부운의 사진에 접할 때면 나는 언제나 27세에 요절한 천재 작가 이상을 연상케 된다. “어느 시대에도 그 현대인은 절망한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라고 외치다 1937년 「중생기」 「실락원」을 마지막 단편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하직한 이상—. 그는 「오감도」라는 시에서 이렇게도 적고 있다.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길은 막다른 골목길이 적당하오/제일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제2, 제3, 제1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중략) 그중의 한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좋소.” 그는 또 「날개」 첫 장에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뎨 연애까지가 유쾌하오.”라고 썼는데 무미건조한 생활주변을 무기질적으로 반복, 걸어 다니면서 권태로운 삶의 내면세계를 예리하게 파헤친 그의 높은 사상성—. 삶의 핵을 냉혹하게 꿰뚫어 보려는 고집스러운 작가정신, 외곬로 치닫는 침잠된 독특한 피안의 세계를 구축해보려는 노력 등은 부운의 사진세계와 일맥상통하는 그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는 뿌리가 어둡다고 해서 모리아마 다이도오(森山大道), 나카다이라 타크마(中平卓馬) 등을 네쿠라 사진가라고 불렀고, 오오다케 쇼오지(大竹省二), 나라하라 카즈타카(奈良原一高) 등을 네이카 사진파로, 아라키 쓰네포레(荒木 惟), 후지하라 신야(藤原新也) 등을 컨텐프라리 작가라고 호칭했는데, 부운의 사진을 자세히 파헤쳐보면 네쿠라, 컨프라 사진의 원형을 보유하고 있음에 우리들은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당화랑 첫머리에 전시된, 두 조각의 사과를 찍은 작품은 6·25를 겪고 생활고에 허덕이던 과거의 어두웠던 시절의 내면을 혼한 소재이면서도 예리하게 파헤쳤고, 다음 작품, 돛자리 위의 실과 바늘이라든지 그다음 작품, 여인의 치마와 버선 등은 한국의 서정을 풍기면서 그 뿌리에 토박이로 잔류된 우리들 고유의 한의 세계를 어둡게 응고시키고 있는 것에 당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작품, 무우와 옥수수 등에서는 소리 없는 농민들의 한이, 팽개쳐진 재떨이에 서는 도시인들의 고독한 아우성이, 훑날리는 달력과 시계, 고물딱지가 된 트란스와 담배, 성냥 에션 끝없는 인생의 노스텔지어가 내려 쌓이고 쌓이면서 한 폭의 큰 것발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 속을 마구 후비면서 나부끼는 것이다. 이렇듯 부운의 사진은 삶의 심층 부분을 스스럼없이 파고 들어 일견 대수롭지 않은 소재 등에서 인생의 비애를 나름대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15-1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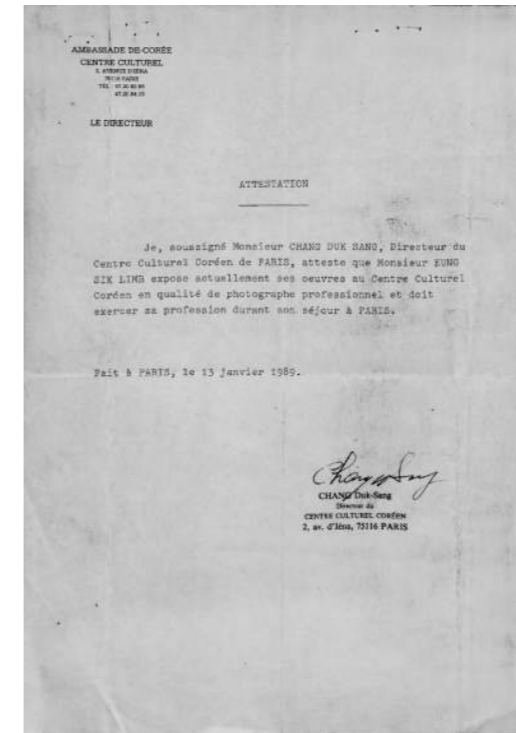
주불(駐佛)한국문화원 초대, 《임응식 개인전》 사진작품 반출 목록,
1989년 1월 12일



1. 향리 <나무> 외 15점
 2. 궁궐 <근정전> 외 15점
 3. 사찰 <석굴암 본존불상> 외 17점
 4. 전화(戰禍) <피난 아이들> 외 8점
 5. 시가(市街) <양각(仰角)> 외 10점
- 40x50cm size 계(計) 70점
1989. 1. 12
사진가 임응식

[15-135-1]

프랑스 한국문화원, 임응식 프랑스 전시 관련 공문서, 1989년 1월 13일



AMBASSADE DE CORÉE CENTRE CULTUREL
2, AVENUE D'ÉNA 75116 PARIS
TÉL: 47.20.83.86 47.20.84.15
LE DIRECTEUR

ATTESTATION

Je, soussigné Monsieur CHANG DUK SANG, Directeur du Centre Culturel Coréen de PARIS, atteste que Monsieur EUNG SIK LIMB expose actuellement ses oeuvres au Centre Culturel Coréen en qualité de photographe professionnel et doit exercer sa profession durant son séjour à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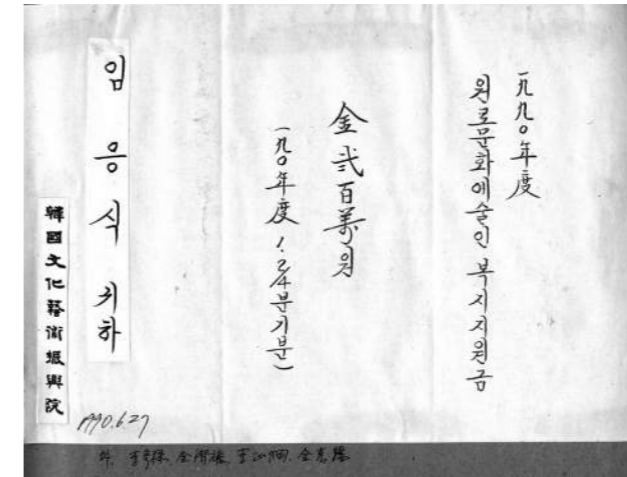
Fait à PARIS, le 13 janvier 1989.

CHANG Duk-Sang
Directeur du CENTRE CULTUREL CORÉEN
2, av. d'Iéna, 75116 PARIS

1990년대

[15-02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년도 원로문화예술인 복지지원금 증서,
1990년 6월 27일



[15-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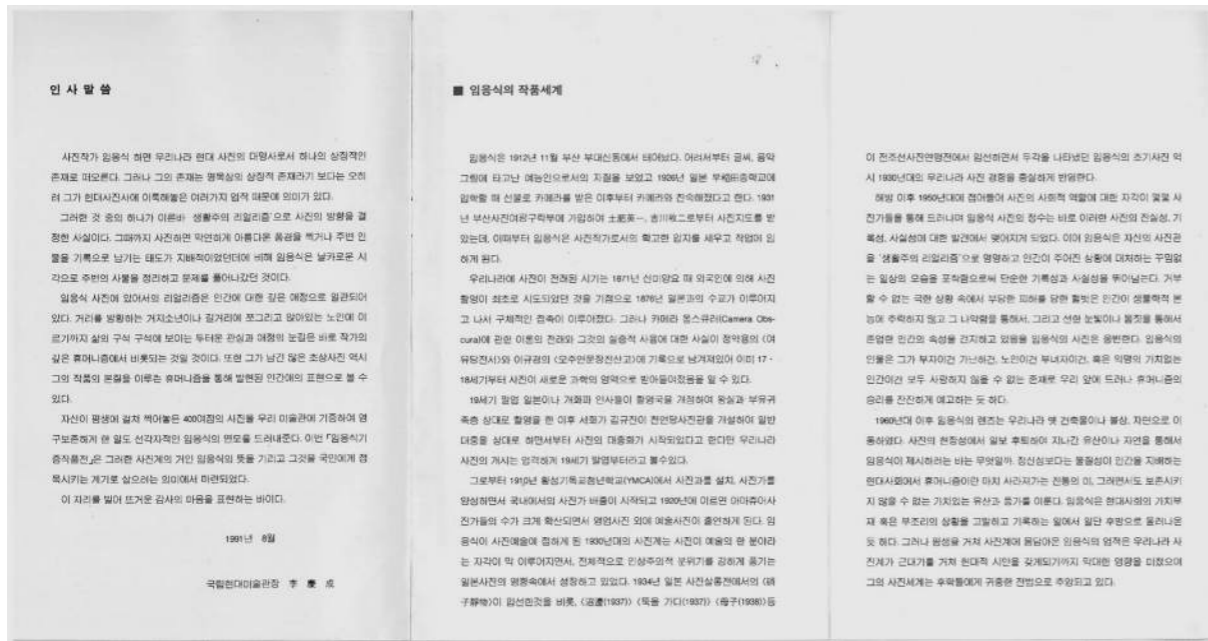
《임응식 기증작품전》, 1991년 8월 6일-9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팸플릿 표지



내지 부분



[15-050]
 『원로사진작가 《임응식 기증작품전》, 국립현대미술관 8.6~9.27』,
 『주간미술』 97호, 1991년 10월 10일

원로사진작가 임응식 기증작품전
 국립현대미술관, 8. 6~9. 27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원로사진작가 「임응식 기증작품전」을 개최한다.

임응식은 우리나라 근·현대 사진계의 선각자로서, 그리고 사진이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군함을 하는데 큰 공헌을 남긴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러한 임응식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조망하고, 1982년 150점의 사진을 미술관측에 기증한 작가의 뜻을 높이 기리는 동시에, 작품기증이 고귀한 문화의식의 발로임을 일반인에게 널리 유

포시키려는 의도로 이번 작품전을 마련, 100여점의 사진작품을 전시한다.

◇임응식작



[15-112]

「카메라에 비친 '광복 후의 생활사', 《한국현대사진 흐름전》 18일 개막」, 『조선일보』, 1994년 1월 16일

카메라에 비친 「광복 후의 생활사」

◇연재물 화 「고백서」(1945~1949)

광복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연재물 화 「수정된 인물」

수정된 인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한국현대사진 흐름展 18일 개막



◇연재물 화 「수정된 인물」

수정된 인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연재물 화 「수정된 인물」

수정된 인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예술감각·촬영기법 다양... 사진계 "최대 잔치"

예술감각·촬영기법 다양... 사진계 "최대 잔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5-107]

예술의전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전 1945-1994》, 1994년 1월 19일-2월 11일, 예술의전당 미술관 1층 로비



추첨엽서

[15-111]

「50년대 작품 모아 '그때를 아십니까' 코너」, 『조선일보』, 1994년 1월 23일

50년대 작품 모아 「그때를 아십니까」 코너

50년대 작품 모아 「그때를 아십니까」 코너...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의 생활사...

[16-078]

「내년 사진영상의 해, 사진박물관 세운다」, 『조선일보』, 1997년 12월 17일



[1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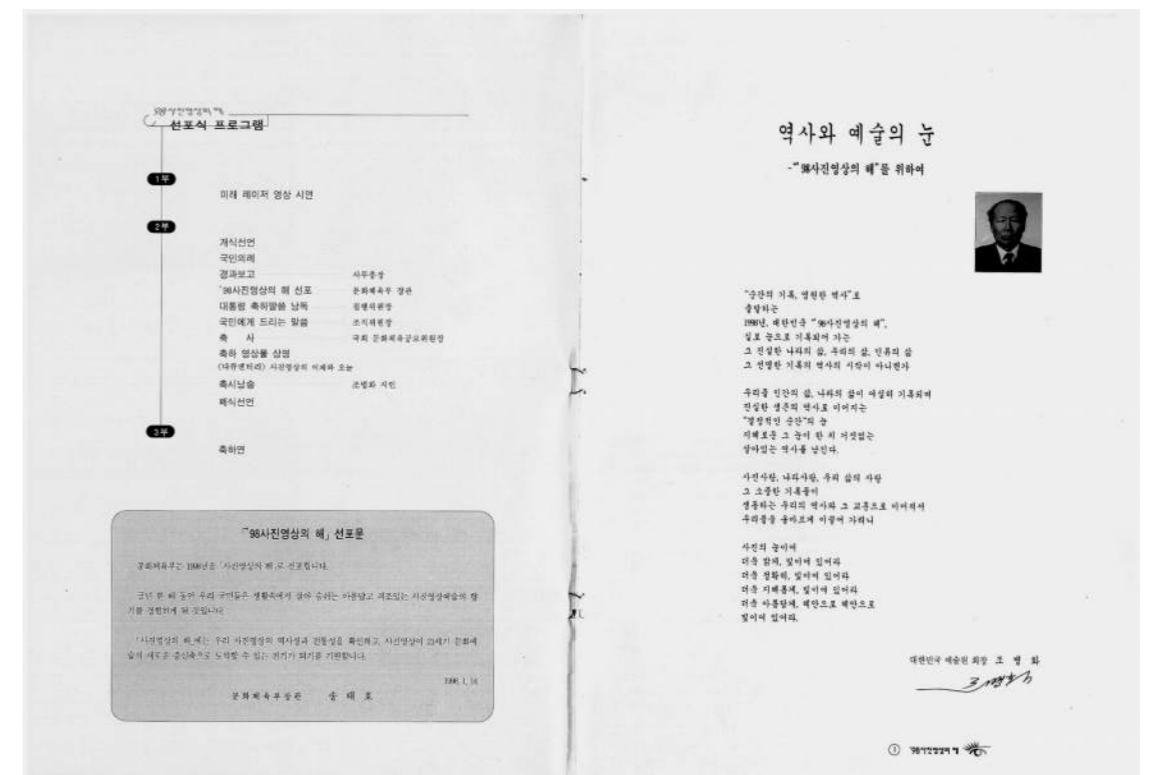
문화체육부·《'98 사진영상의 해》조직위원회 주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 《'98 사진영상의 해 선포식》, 1998년 1월 14일 오전 11시, 문예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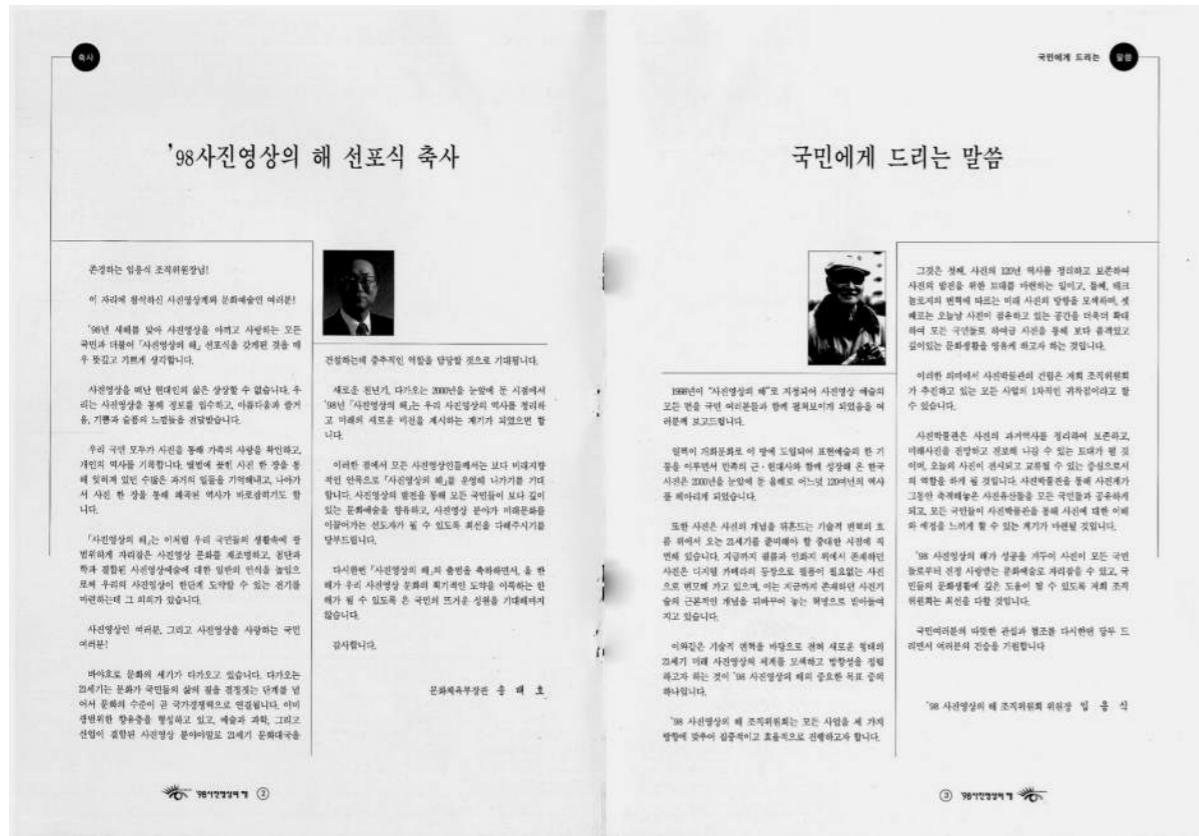
팸플릿 표지

[16-051]

《'98 사진영상의 해》엠블렘과 로고, 1998년



내지 pp.1-6



[16-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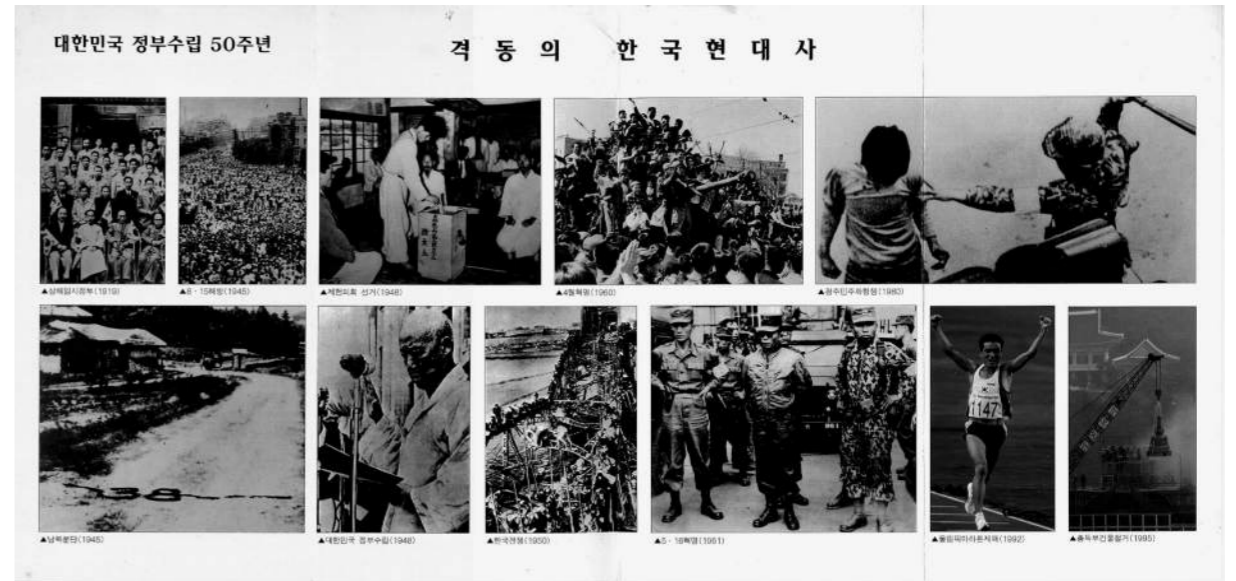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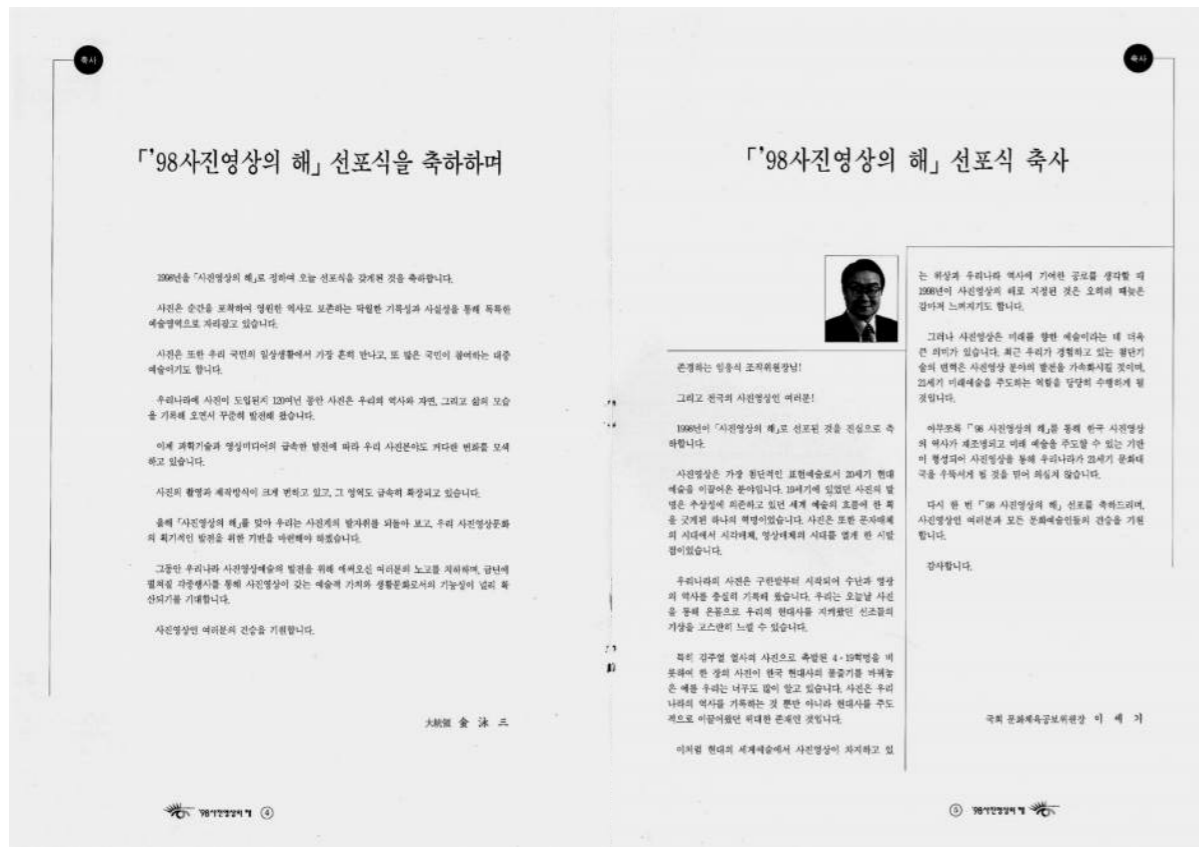
《'98 사진영상의 해》조직위원회 주최, 문화관광부, 대한민국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 《대한민국정부수립 50주년 기념, 격동의 한국현대사 전》, 1998년 7월 2일-7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전시실



팸플릿 표지

내지

뒷면



내지 펼침

[18-009]

「국내 최초 사진박물관 서울 구의동에 개관」, 『동아일보』, 1998년 9월 11일



[18-006]

《임응식 회고전》, 1998년 11월 11일-12월 10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갤러리(안성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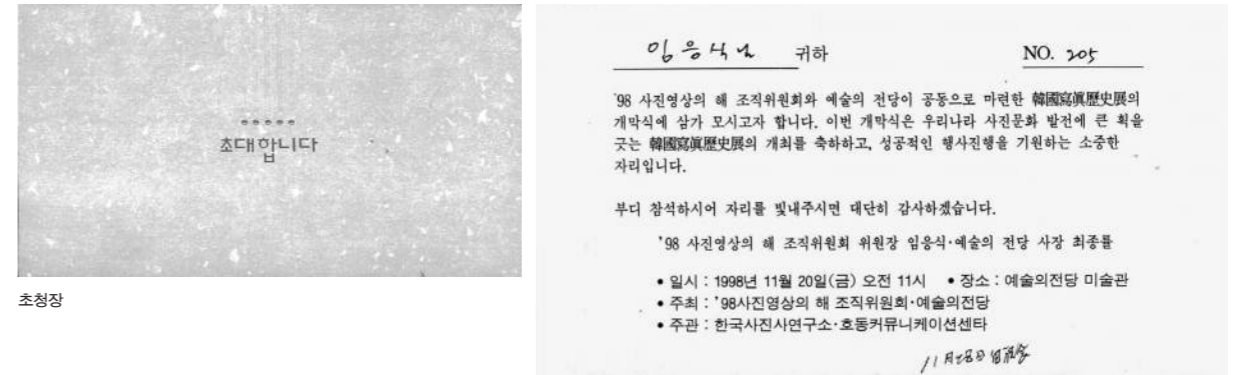


팸플릿 표지

내지

[18-022]

《'98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예술의전당 주최, 한국사진사연구소·호동커뮤니케이션센터 주관, 《한국사진역사전(韓國寫眞歷史展)》 개막식, 1998년 11월 20일, 예술의전당 미술관



초청장

[18-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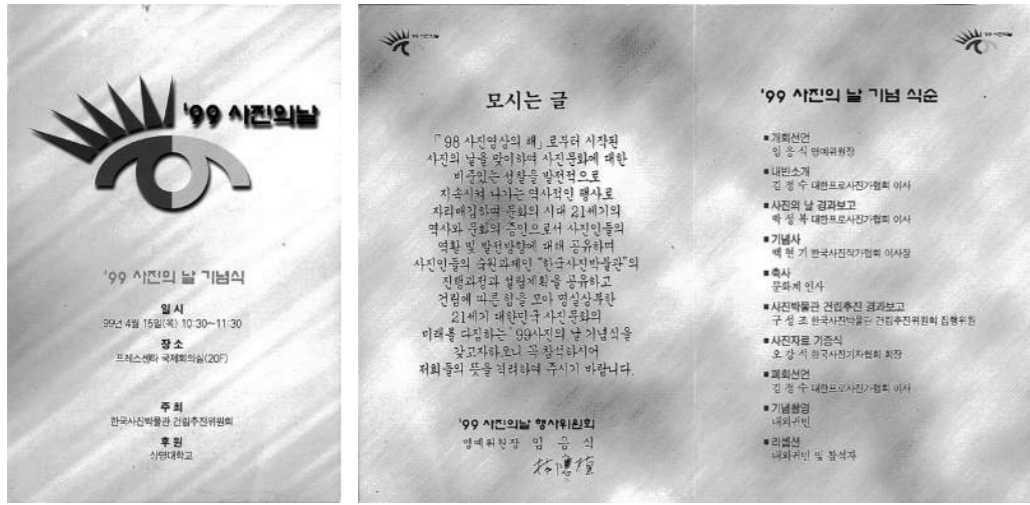
《'98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 주최,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후원, 네오모드 사진예술원 협찬, 《'98 사진영상의 해 폐막식》, 1998년 12월 30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



팸플릿 표지

[18-040]

한국사진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주최, 상명대학교 후원, 《'99 사진의 날 기념식》, 1999년 4월 1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20층)



초대장 표지

내지

[18-042]

《사진박물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미술전, 빛 2000》, 1999년 4월 27일-5월 2일, 프레스센터 내 서울갤러리 전관



팸플릿 표지 및 내지



뒷면



내지